



##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공학박사 학위논문

명말청초 강남지역 조원가의  
조원이론 연구

- 문진형(文震亨)의 『장물지(長物志)』와  
이어(李漁)의 『한정우기(閑情偶寄)』를 중심으로 -

2020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전공

장 립

# 명말청초 강남지역 조원가의 조원이론 연구

- 문진형(文震亨)의 『장물지(長物志)』와  
이어(李漁)의 『한정우기(閑情偶寄)』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성 종 상

이 논문을 공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전공  
장 립

장립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0년 8월

위 원 장 \_\_\_\_\_ 조경진 (인)

부위원장 \_\_\_\_\_ 최정권 (인)

위 원 \_\_\_\_\_ 신현실 (인)

위 원 \_\_\_\_\_ 박희성 (인)

위 원 \_\_\_\_\_ 성종상 (인)

# 명말청초 강남지역 조원가의 조원이론 연구

- 문진형(文震亨)의 『장물지(長物志)』와  
이어(李漁)의 『한정우기(閑情偶寄)』를 중심으로 -

## 국문초록

명말청초(明末清初)는 상업경제의 발달과 사회의 급변으로 중국 원림사의 전성기(全盛期)로 조원가들의 활약이 두드러진 시기로 인지되고 있다. 특히 소주(蘇州)와 양주(揚州)를 중심으로 한 강남 일대는 사가원림의 조영(造營)이 성행했던 지역으로 알려졌다. 이 시기에 활동한 대표적인 원림건축이자 조원가들은 장남원(張南垣; 1587-1673), 계성(計成; 1582-미상), 문진형(文震亨; 1585-1645), 이어(李漁; 1611-1680) 등이 있다. 이들은 강남지역의 변화한 도시에서 활동하며 수많은 명원(名園)을 조영하였고, 축적된 조원 경험을 바탕으로 후세에 참고 가치가 높은 저작을 남겼다. 이 중에서 널리 알려진 조원 저서는 계성의 『원야(園冶)』, 문진형의 『장물지(長物志)』와 이어의 『한정우기(閑情偶寄)』가 있다. 지금까지 중국 전통 원림의 이론연구는 상기 저서의 분석과 활용에 치중되어 있으며, 전통 원림 설계, 시공, 향유방식 등의 근거가 되는 이론적 논의 역시 명말청초에 정립된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 가운데 원림 분야



의 전문적 저서인 『원야』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명청(明清) 두 시대의 변천을 반영하여 ‘생활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는 문진형의 『장물지』와 이어의 『한정우기』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 두 저서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해석과 사상적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기 두 원림 저서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연구 질문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해 왔다.

첫째, 명말청초의 사회적 배경에서 문인 사대부 계층인 문진형과 일반 시정(市井)인 이어, 이들이 대표 저서인 『장물지』와 『한정우기』는 보여주는 이들의 조원이론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둘째, 두 조원가의 생애사, 가족사, 주요 활동사 등이 포함된 사회배경에서 이들은 『장물지』와 『한정우기』를 편집한 동기는 무엇인가? 이들 각자의 생활배경은 이들의 조원이론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가?

셋째, 전체 공간구성, 원림요소에 따라 이들은 추구하는 조원이론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넷째, 화론(畫論)과 조원이론의 상동(相同)적 전개 및 화(畫)·원(園)이 공통으로 지향하는 가치가 원림에 어떻게 구현되었는가?

다섯째, 문진형과 이어의 조원이론은 이들의 실제 조원 사례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본 연구는 총 다섯 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장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대상 및 방법, 연구동향, 해석의 틀에 대해서 다루었다. 구체적인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 귀납분석, 비교연구, 강남 지역에 두 조원가들의 실제 조원 사례가 포함돼 있다. 이론적 고찰로 ‘『장물지』와 『한정우기』에 대한 국내외 연구동향’, ‘기타 저

서와의 비교연구’를 고찰하였으며 이를 통해 본 연구 ‘해석의 틀’을 마련하였다.

이어서 제2장에서는 명말청초의 시대배경과 조원문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명말청초의 시대배경’, ‘강남지역의 조원문화’, ‘조원가, 작품과 조원활동’ 세 부분으로 나누어 요약했다. 명말청초 정치·경제·문화적 배경에서 강남지역에 많은 개인 소유 원림이 생겼다. 이는 문인사대부 계층을 비롯하여 부상(富商), 일반 시정(市井) 계층까지 조원활동의 열풍이 일어났다. 조원가들이 강남지역 원림 조영 과정에서 풍부한 실천 경험과 함께 많은 유적을 남겼다. 특히 인문수양을 지닌 문인 조원가들은 이러한 조원 경험을 저서를 통해 체계화하고 이론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 시기에 원림 조영에 관한 다수의 이론저서가 나온 것은 그러한 배경에 기인한다.

제3장에서는 대표 조원가인 문진형(文震亨)과 이어(李漁)의 생애와 작품 활동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문진형의 생애와 작품’, ‘이어의 생애와 작품’, ‘대표작 『장물지(長物志)』와 『한정우기(閑情偶寄)』 이해’ 세 부분으로 나누어 요약했다. 명말청초 교체의 시대배경이 그들에게 미치는 큰 영향은 ‘정치적 추구’에서 ‘문화적 창조’로 전환하게 되었다. 하지만 두 조원가가 완전히 다른 계층에서 출신하여 ‘문화적 창조’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다르게 표현되었고, 이들의 『장물지』와 『한정우기』의 격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장물지』는 세속에 속된 문화에 대해 비판하고 사대부 계층이 따라야 하는 고상하고 우아한 문화에 대

해 의견을 제시했다. 한마디로 그가 겨냥한 독자층은 문인사대부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정우기』의 서술 내용은 간명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내용상 단조롭고 무미건조한 장자(莊子) 이론을 알기 쉽게 풀이하였다. 그의 저서를 구독한 독자들은 대부분 문인시정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선행연구에 대한 방법론 고찰을 바탕으로 ‘전체 공간구성’, ‘원림요소’ 두 가지 차원에 따라 해석의 틀을 설정했다. 전체 공간구성 차원에서는 ‘입지 및 공간배치’, ‘전체 구조 및 공간 척도의 중요성’, ‘공간 원림요소의 조합’, ‘공간 분할’로, 원림요소 차원에서는 ‘건축물’, ‘수 요소’, ‘석물(石物)’, ‘식물’로 상세하게 나누어 두 조원가의 조원이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봤다. 이를 바탕으로 두 저서에 나타나는 그들의 철학사상, 생활태도와 가치지향을 포괄하는 조원이론을 종합하였다. 주요 조원이론은 ‘은일(隱逸)’, ‘산번거사(刪繁去奢)’, ‘개입화도[皆入畫圖: 장면마다 한 폭의 그림과 같다]’, ‘이소견대(以小見大)’, ‘아(雅)의 추구’, ‘혁신성의 추구’로 요약되었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의의 및 한계이다. 중국 원림 역사에서 명말청초는 원림의 통속화(通俗化) 현상이 가속화 되고 대중적인 문화지식에 의한 원림의 조영 또는 재건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던 시기로 규정된다. 이 시기 대중문화를 선도했던 각 계층의 대표적인 문인들은 원림 저작을 통해 당대 원림건설의 이론적 틀을 정립하였다. 동시에, ‘시대적 발상’이 투영된 ‘문인원림’의 풍격을 제시하였다. 그들의 폭넓은 지식과 경험으로 체득한 이상적인

공간을 원림과 실내 장식으로 세부적인 부분까지 풀어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두 원림 저서를 중심으로 그들의 ‘조원이론’을 탐색하고, 이를 명말청초의 원림문화를 해석하는 작은 참조점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로 출발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점은 문진형의 『장물지』, 이어의 『한정우기』에 대해 비교연구에 집중하여 구체적으로 해석하였고 같은 시대의 다른 조원가들의 조원이론에 대하여 언급만 하였다. 추후 명말청초의 다른 조원가들의 조원이론에 대해 추가적인 내용을 보완할 것이다. 또, 광범위한 현지조사 및 추가적인 문헌연구가 필요한 부분으로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밝혀내고자 한다.

주요어 : 명말청초, 중국원림, 문인사대부, 공간구성, 원림요소, 조원사상  
학 번 : 2017-30632

## 목 차

1. 서론 .....	001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001
1.2. 연구의 대상과 방법 .....	004
1.2.1. 연구의 대상 .....	004
1.2.2. 연구의 방법과 구성 .....	009
1.3. 연구동향 .....	012
1.3.1. 『장물지』에 대한 국내외 연구동향 .....	012
1.3.2. 『한정우기』에 대한 국내외 연구동향 .....	014
1.3.3. 기타 저서와의 비교연구에 대한 고찰 .....	017
 2. 명말청초 시대배경과 조원문화 .....	020
2.1. 명말청초의 시대배경 .....	020
2.1.1. 명말(明末) 당쟁(黨爭)과 농민봉기 .....	020
2.1.2. 명청(明清) 정권 교체와 문화 충돌 .....	023
2.1.3. 도시 경제와 자본주의의 맹아(萌芽) .....	027
2.1.4. 반이학(反理學) 사조와 실학(實學) .....	031
2.2. 강남지역의 조원문화 .....	033
2.2.1. 오월문화(吳越文化)와 수문화 .....	033
2.2.2. 산수 문인원(文人園)과 조원가의 인문수양 .....	037
2.2.3. 교유(交遊)문화 성행 .....	042
2.2.3. 원림문화 후원 .....	046

2.3. 조원가의 작품과 조원활동 .....	048
2.3.1. 명말청초 유명한 저술가와 저서 .....	048
2.3.2. 강남지역 활동한 조원가 .....	050
2.4. 소결 .....	055
 3. 대표 조원가 문진형·이어의 생애와 작품 활동 .....	057
3.1. 문진형의 생애와 작품 .....	057
3.1.1. 사대부 계층 문진형(文震亨) .....	057
3.1.2. 향초타(香草垞)를 중심으로 한 조원활동 .....	066
3.2. 이어의 생애와 작품 .....	069
3.2.1. 시정(市井) 계층 이어(李漁) .....	069
3.2.2. 개자원(芥子園)을 중심으로 한 조원활동 .....	080
3.3. 대표작 『장물지(長物志)』와 『한정우기(閑情偶寄)』 이해 .....	084
3.3.1. 『장물지(長物志)』 .....	084
3.3.2. 『한정우기(閑情偶寄)』 .....	088
3.4. 소결 .....	092
 4. 『장물지』와 『한정우기』를 중심으로 한 조원이론 연구 .....	094
4.1. 조원이론 해석의 틀 구축 .....	094
4.2. 전체공간구성 차원에서의 조원이론 .....	099
4.2.1. 입지 및 공간배치 .....	099
4.2.2. 전체 구조 및 공간 척도의 중요성 .....	102
4.2.3. 공간 원림요소의 조합 .....	104
4.2.4. 공간 분할 .....	108

4.3. 원림요소별 조원이론 .....	117
4.3.1. 건축물 .....	117
4.3.1.1. 유형별 기능 .....	117
4.3.1.2. 위치(位置)와 실내 장식 .....	125
4.3.2. 수 요소 .....	129
4.3.2.1. 산수간(山水間) 원림 조영 .....	129
4.3.2.2. 기존 자연요소를 활용한 이수(理水) 형태 .....	132
4.3.3. 석물(石物) .....	136
4.3.3.1. 선석選石: 돌 고르기] .....	136
4.3.3.2. 철산[掇山: 가산 만들기] .....	138
4.3.3.3. 철산 외에 산석의 다양한 용도 .....	142
4.3.4. 식물 .....	145
4.3.4.1. 식물의 선정기준 .....	147
4.3.4.2. 식물의 향유방식 .....	149
4.3.4.3. 식물의 상징성 .....	172
4.4. 소결 .....	181
 5. 결론 .....	 187
참고문헌 .....	191
Abstract .....	198
감사의 글 .....	203

## 표 목 차

[표 1-1]	.....	006
[표 1-2]	.....	013
[표 1-3]	.....	016
[표 1-4]	.....	019
[표 2-1]	.....	049
[표 2-2]	.....	053
[표 3-1]	.....	059
[표 3-2]	.....	068
[표 3-3]	.....	077
[표 3-4]	.....	081
[표 3-5]	.....	087
[표 3-6]	.....	091
[표 4-1]	.....	096
[표 4-2]	.....	101
[표 4-3]	.....	107
[표 4-4]	.....	113
[표 4-5]	.....	122
[표 4-6]	.....	124
[표 4-7]	.....	132
[표 4-8]	.....	134
[표 4-9]	.....	135
[표 4-10]	.....	138
[표 4-11]	.....	140
[표 4-12]	.....	141
[표 4-13]	.....	143



[표 4-14]	.....	146
[표 4-15]	.....	147
[표 4-16]	.....	150
[표 4-17]	.....	154
[표 4-18]	.....	155
[표 4-19]	.....	157
[표 4-20]	.....	163
[표 4-21]	.....	167
[표 4-22]	.....	171
[표 4-23]	.....	179
[표 4-24]	.....	180

## 그림 목 차

[그림 1-1]	.....	005
[그림 1-2]	.....	007
[그림 1-3]	.....	007
[그림 1-4]	.....	008
[그림 1-5]	.....	008
[그림 1-6]	.....	008
[그림 1-7]	.....	011
[그림 2-1]	.....	021
[그림 2-2]	.....	026
[그림 2-3]	.....	028
[그림 2-4]	.....	030
[그림 2-5]	.....	030
[그림 2-6]	.....	034
[그림 2-7]	.....	036
[그림 2-8]	.....	036
[그림 2-9]	.....	040
[그림 2-10]	.....	041
[그림 2-11]	.....	045
[그림 3-1]	.....	059
[그림 3-2]	.....	062
[그림 3-3]	.....	065
[그림 3-4]	.....	065
[그림 3-5]	.....	068
[그림 3-6]	.....	073

[그림 3-7]	.....	073
[그림 3-8]	.....	074
[그림 3-9]	.....	074
[그림 3-10]	.....	077
[그림 3-11]	.....	081
[그림 4-1]	.....	098
[그림 4-2]	.....	101
[그림 4-3]	.....	106
[그림 4-4]	.....	109
[그림 4-5]	.....	112
[그림 4-6]	.....	116
[그림 4-7]	.....	119
[그림 4-8]	.....	120
[그림 4-9]	.....	120
[그림 4-10]	.....	123
[그림 4-11]	.....	124
[그림 4-12]	.....	128
[그림 4-13]	.....	130
[그림 4-14]	.....	130
[그림 4-15]	.....	133
[그림 4-16]	.....	133
[그림 4-17]	.....	137
[그림 4-18]	.....	141
[그림 4-19]	.....	141
[그림 4-20]	.....	142
[그림 4-21]	.....	144
[그림 4-22]	.....	144

[그림 4-23]	.....	144
[그림 4-24]	.....	152
[그림 4-25]	.....	153
[그림 4-26]	.....	159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명말청초는 상업경제의 발전과 사회의 급변으로 희곡, 소설, 회화, 원림건축 등 통속문화의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이론가들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론가들과 그들의 저서로는 계성(計成; 1582-미상)의 『원야(園冶)』, 육소형(陸紹珩; 미상)의 『취고당검소(醉古堂劍掃)』, 문진형(文震亨; 1585-1645)의 『장물지(長物志)』, 진계유(陳繼儒; 1558-1639)의 『암서유사(巖棲幽事)』, 임유린(林有麟; 미상)의 『소원석보(素園石譜)』, 이어(李漁; 1611-1680)의 『한정우기(閑情偶寄)』, 도룡(屠隆; 1543-1605)의 『고반여사(考槃餘事)』 등은 모두 중국문학의 유산 중 귀중한 문헌자료이다(진식, 1984, p.429). 이 시기는 중국 원림의 전성기(全盛期)로 전국적으로 원림 조영(造營)활동이 성행했으며 특히 소주(蘇州)와 양주(揚州)를 중심으로 한 강남 일대에 조원가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계성을 비롯하여 장남원, 문진형, 이어와 같은 많은 훌륭한 조원가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조원활동뿐만 아니라 회화, 서예, 소설, 희곡, 원림건축 등 통속문화의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들의 뛰어난 재능과 폭넓은 인맥으로 그들로 하여금 각 분야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들은 조원활동에 폭넓은 실천을 바탕으로 원림실천의 경험을 문학작품으로 남기면서 후세에 많이 알려졌다.

이 가운데 명말청초에 계성의 『원야』는 중국의 대표적인 원림 전문 저서로 조원이론의 기반으로 여겨졌고, 조경 학계에서 80년대부터 꾸준히 많은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그 외에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망라한 문진형의 『장물지』와 이어의 『한정우기』의 조경이론에 대해 아직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두 저서는 원림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었으며 당시의 사회 배경과 생활환경을 제대로 반영했다. 중국 근대 원림가인 진종주(陳從周;

1918-2000)<sup>1)</sup>는 『장물지교주서(長物誌校註序)』에서 ‘『장물지』는 범위가 극히 광대하여, 원림의 건설에서부터 화초와 수목·새와 짐승·벌레와 물고기·금석(金石)과 서화 복식과 기명(器皿)에 이르기까지, 사물의 명칭과 형상을 식별하고 우아한 것과 저속한 것을 꿰뚫어 통달하는 내용까지 포함 한다고 평했다.<sup>2)</sup> 또한, 작가 및 문예비평가인 임위탕(林語堂; 1895-1976)<sup>3)</sup>은 『오국오민(吾國吾民)』에서 ‘청초에서는 이어의 『한정우기』를 중국인 생활예술의 지침서로 주택과 원림, 실내장식, 경벽(界壁) 분단, 여성의 화장과 미용, 요리의 예술 등까지 모두 이 위대한 예술가의 진실한 독백(獨白)이자 당시 중국인 정신의 본질이였다.’ 고 했다(林語堂, 1994, pp.316-317). 근대 건축가이자 건축교육가인 동준(童寯; 1900-1983)<sup>4)</sup>은 이어를 ‘원림 조성에 대단히 능통한 사람[真通其造園之人]’ 이 라고 평가했다(王勁韜, 2009, p.125). 따라서 명말청초의 『장물지』와 『한정우기』 는 그 시대 배경을 반영할 수 있는 ‘생활백과사전’ 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장물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학계에서 건축과 원림(李元, 2010; 謝華, 2013; 姚冰純, 2013), 물질·소비문화(薛野, 2008; 周重林, 2009; 朱孝嶽, 2010; 趙國棟, 2013), 미학과 시각예술(王珏, 2011, 2012; 徐晴, 2012), 그리고 명말 문인사대부의 사회적 심리 및 의식(王鴻泰, 2002; 彭聖芳, 2011; 劉顯波, 2012)에 관한 연구로 개괄했다(정유선, 2017). 또한, 『한정우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건축과 원림 및 조경(文翹楚, 2015; 정우진 외, 2014; 장림 외, 2018, 2019), 곡론(曲論)과 음율학(龐瑞東, 2007; 한종진, 2011; 박홍준, 2017). 의학과 양생(陳禮賢, 2013), 미학과 철학사상(한종진, 2011; 文翹楚, 2015; 錢水悅, 2008), 문화 세속화(김의정, 2015) 등에 관한 연구로 요약할 수 있다.

1) 진종주(陳從周; 1918-2000)는 중국 근현대 건축가이자 원림가로서 진식(陳植, 진준위(陳炯翁)와 함께 ‘중국원림삼진(中國園林三陳)’ 으로 불리고 『설원(說園)』, 『소주원림(蘇州園林)』과 『양주원림(揚州園林)』 등을 저술하였다(張國強, 2014, p.374).

2) 蓋文氏之志長物, 範圍極廣, 自園林興建, 旁及花草樹木, 鳥獸蟲魚, 金石書畫, 服飾器皿, 識別名物, 通徹雅俗. 以其自家有名園, 日涉成趣, 微言托意, 無不出自性靈, 非耳食者所能知. 故註釋此書之功, 誠大於計氏『園冶』者(陳植, 1984, p.1.).

3) 임위탕(林語堂; 1895-1976)은 중국 현대 산문가이자 문예비평가로서 등을 『경화연운(京華煙雲)』, 『오국오민(吾國吾民)』, 『생활의 예술(生活的藝術)』등을 저술하였다(胡喬木 等 匯編, 1986, p.432).

4) 동준(童寯; 1900-1983)은 중국 근현대 건축가이자 교육가로서, 중국 근대 조원이론을 개척자한 인물이다. 저서로 『수원고(隨園考)』, 『강남원림지(江南園林志)』 등이 있다(張國強, 2014, p.351).

이를 통해 문진형의 『장물지』와 이어의 『한정우기』에 대한 연구는 이미 학계에서 적지 않은 성과가 누적되었으나, 여전히 각 저서 텍스트의 해석에만 치중된 면이 있다. 한편으로 두 저서에 대하여 조원가의 생애사, 가족사, 활동사 등에서 출발하여 명말청초의 교체 시대배경과 각자 생활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과 사상적 검토는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혔다. 이에 본 연구는 상기 두 원림 저서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해 볼 것이다.

첫째, 명말청초의 사회적 배경에서 문인 사대부 계층인 문진형과 일반 시정(市井)인 이어, 이들이 대표 저서인 『장물지』와 『한정우기』가 보여주는 이들의 조원이론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둘째, 두 조원가의 생애사, 가족사, 주요 활동사 등이 포함된 사회배경에서 이들은 『장물지』와 『한정우기』를 편집한 동기는 무엇인가? 이들 각자의 생활배경은 이들의 조원이론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가?

셋째, 전체 공간구성, 원림요소에 따라 이들은 추구하는 조원이론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넷째, 화론(畫論)과 조원이론의 상동(相同)적 전개 및 화(畫)·원(園)이 공통으로 지향하는 가치가 원림에 어떻게 구현되었는가?

다섯째, 문진형과 이어의 조원이론은 이들의 실제 조원 사례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기 다섯 가지 연구 질문을 제시하면서 명말청초를 대표하는 문진형의 『장물지』와 이어의 『한정우기』를 통하여 두 조원가의 조원이론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명말청초의 시대교체 시기에 문인사대부 계층에서 일반 문인 시정(市井)계층까지 문진형과 이어의 조원이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굴하여 명말청초의 조원이론의 변화흐름을 반영하였다. 또한, 두 조원가의 가족사, 생애사, 문예활동 등 각자의 생활배경이 그들의 원림을 조영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재조명했다.

## 1.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 1.2.1. 연구의 대상

#### 1.2.1.1. 시공간적 범위

명말청초는 중국 편년(編年)에 일반적으로 명 만력(萬曆, 1573)에서 청 옹정(雍正, 1735)까지 약 160여 년의 시간대를 말한다.<sup>5)</sup> 명말청초에 조영된 문인원림은 주로 소주와 양주를 중심으로 한 강남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했다. 강남지역은 행정구역이 아닌 통상적으로 양자강 하류 지역을 가리키는 지리개념이다(김진영, 2005, p.95; 張薇, 2006, p.53). 선진 시기에 강남은 ‘강동’으로 불렸다. 이후 당나라 때 강남의 범위는 더 확대되었고, 이때에도 여전히 지리적인 범위인 강동이라 불렸다. 그러나 명나라부터 강남은 순수한 지리적 범위를 넘어 경제적 풍요의 지역으로 바뀌었고, 명나라 이후로 강남지역의 범위가 점차 고정되기 시작했다. 좁은 의미의 강남은 소주(蘇州), 송강(松江), 상주(常州), 진강(鎮江), 항주(杭州), 가흥(嘉興), 호주(湖州)를 포함한다(양년춘, 2015, p.45).

한편으로 강남지역은 역사적으로 오월(吳越) 지역이라고도 불렸다. 오국(吳國)과 월국(越國)이 강남지역에서 활동했던 민족으로 이곳의 문화 기초를 마련했다. 오월문화의 발전은 토착 민족의 문화 발인시기, 이어져서 방국으로 명명된 구역 문화 형성 시기로, 최종적으로 방국의 명칭으로부터 지명으로 변용하였다. 이 지역에 대하여 지금까지 지명이 되는 시기로 연용하여 사용하고 있다(김진영, 2005, p.102). 강남지역에는 청산과 녹수가 어우러져 청산이 자연 병풍처럼 둘러졌고, 녹수가 맑은 거울과 같이 수려한 풍광을 연출한다. 이러한 자연적인 명승지에 문인 지사들이 자연히 많이 배출했다.

본 연구의 강남지역은 조원가들이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지역을 가리키며 주요하게 중국 강절(江浙) 지역을 지칭한다. 강절(江浙) 지역은 강절(江浙)이란 약

5) 명나라부터 청나라까지 총 6단계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명나라 초기(홍무-선덕洪武-宣德, 1368-1434), 명나라 중기(정통-융경正統-隆慶, 1435-1572), 명나라 말기(만력-송정萬曆-崇禎, 1573-1644), 청나라 초기(순치-옹정順治-雍正, 1644-1735), 청나라 중기(건륭-도광乾隆-道光, 1736-1850), 청나라 말기(함풍-선통咸豐-宣統, 1851-1912)로 구분한다(戴逸, 2006).



칭으로 중국 동부, 양자강 하류에 위치하며 주로 강소(江蘇), 절강(浙江) 두 성(省)을 포함한다(그림 1-1).



그림 1-1. 조원가들의 주요 활동 지역

사진출처: 필자는 'https://www.google.com/maps'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음.

#### 1.2.1.2. 내용적 범위

본 연구 내용적 범위는 당시 성행했던 원림조영의 저서로서 출판된 문진형의 『장물지』, 이어의 『한정우기』이며, 다음 표 1-1, 그림 1-2, 그림 1-3, 그림 1-4, 그림 1-5, 그림 1-6과 같은 저본을 바탕으로 고찰하였다.

첫째, 『장물지』에 대하여 청나라의 『월아당총서본(粵雅堂叢書本)』과 1984년 진식의 『장물지교주(長物誌校註)』 두 저서의 중국어 고문 버전, 2004년 전군 외의 『장물지도설(長物志圖說)』의 현대 중국어 백화문 버전, 그리고 2017년 학고방(學古房)에서 출간된 한국어판 역서인 『장물지』를 참조하였다.

둘째, 『한정우기』에 대하여 청나라의 『강희각본(康熙刻本)』, 1988년 선금형

(單錦珩)의 『이어전집·제3권·한정우기(李漁全集·第三卷·閑情偶寄)』와 『이어전집·제19권·이어연보와 이어교유고(李漁全集·第十九卷·李漁年譜與李漁交遊考)』 세 권의 중국어 고문헌 버전, 2007년 두서영(杜書瀛)의 『한정우기(閑情偶寄)』의 현대 중국어 백화문 버전, 그리고 2018년 글항아리에서 출간된 한국어판 역서인 『쾌락의 정원』을 참조하였다.

이 외에 문진형과 이어의 조원 활동과 관련된 다른 저서도 고찰하였다. 이 가운데 문진형의 기타 작품인 『향초시선(香草詩選)』, 『문생소초(文生小草)』, 『이노원기(怡老園記)』, 악보창작 작품인 『금보(琴譜)』, 그리고 이어의 기타 작품인 『이원십편(伊園十便)』, 『이원십이의(伊園十二宜)』, 『개자원화보(芥子園畫譜)』, 『홍설인연기(鴻雪因緣記)』 등이 포함된다. 이 작품들의 내용은 대부분 그들의 생애의 조원과 예술 활동과 관련이 있었다. 그들의 조원이론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참고가치를 제공했다.

표 1-1. 본 연구의 참고 자료

분류	저자와 발행연도	참고자료의 명칭
문진형의 생애사, 저서 등	[清]粵雅堂叢書本	『장물지(長物志)』(중국어 고문헌 판본)
	陳植 校註(1984)	『장물지교주(長物志校註)』(중국어 고문헌 판본)
	海軍, 田君 註釋(2004)	『장물지도설(長物志圖說)』(중국어 백화문 판본)
	김의정 외 역주(2017)	『장물지(長物志)』(한국어 번역본)
이어의 생애사, 저서 등	[清]康熙刻本	『한정우기(閑情偶寄)』(중국어 고문헌 판본)
	單錦珩(1988)	『이어전집·제3권·한정우기(李漁全集·第三卷·閑情偶寄)』(중국어 고문헌 판본)
	單錦珩(1988)	『이어전집·제19권·이어연보와 이어교유고(李漁全集·第十九卷·李漁年譜與李漁交遊考)』(중국어 고문헌 판본)
	杜書瀛(2007)	『한정우기(閑情偶寄)』(중국어 백화문 판본)
	김의정 외 역주(2018)	『쾌락의 정원』(한국어 번역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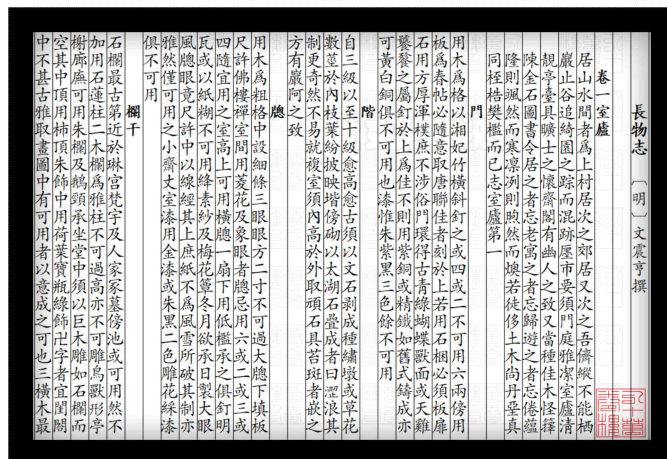


그림 1-2. [清]. 『長物志』. 粵雅堂叢書本.



그림 1-3. [清] 『閑情偶寄』. 康熙刻本.  
 자료출처: 中國基本古籍庫 [Electronic Resour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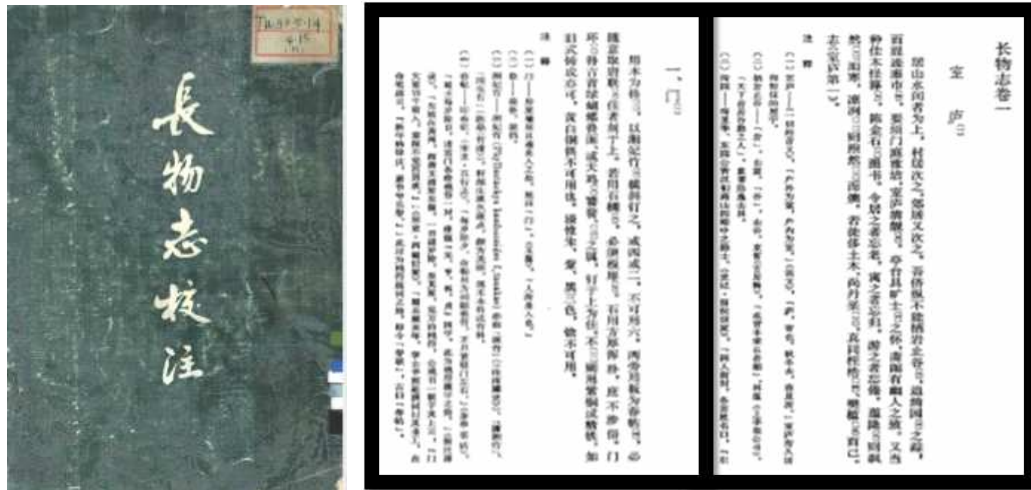


그림 1-4. 진식(陳植) 교주(校註)(1984). 『장물지교주(長物志校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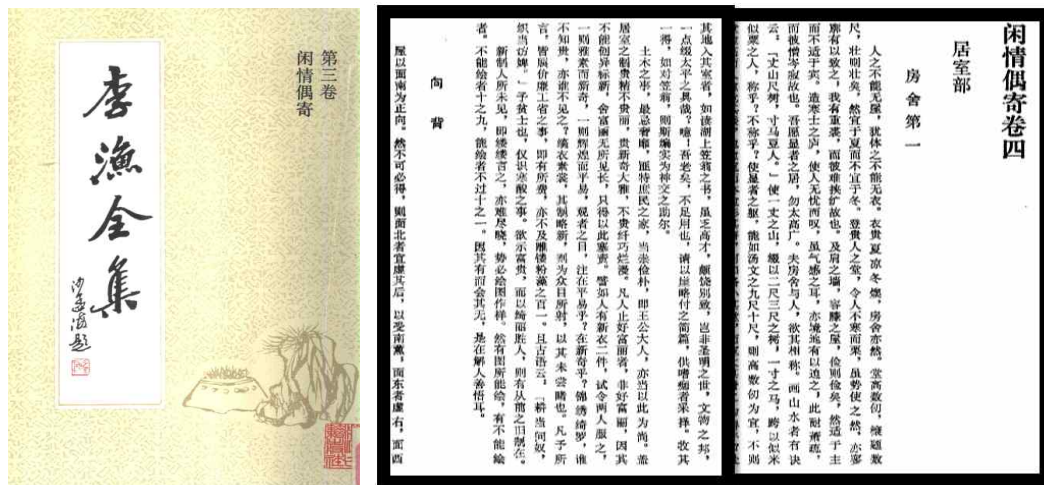


그림 1-5. 선금형(單錦珩) 회편(匯編)(1988). 『이어전집·제3권·한정우기(李漁全集 第三卷 閑情偶寄)』.



그림 1-6. 김익정 외(2017). 『장물지·상』과 『장물지·하』(좌). 김익정(2018). 『쾌락의 정원』(우).



### 1.2.2. 연구방법과 구성

본 연구는 총 다섯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대상지, 연구의 방법에 대해서 다루었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도상분석, 귀납분석, 비교연구가 포함된다. 선행연구 고찰에서 ‘문진형의 『장물지』와 이어의 『한정우기』에 대한 국내외 연구동향’과 ‘기타 저서와의 비교연구’를 고찰하였으며 이를 통해 본 연구와의 차별성과 연구의 틀을 구성하였다.

제2장에서는 명말청초의 시대배경과 조원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명말청초의 시대배경’, ‘강남지역의 조원문화’, ‘조원가, 작품과 조원활동’ 세 가지 소절로 나누어 살펴봤다. 명말청초 정치·경제·문화·사상적 배경에서 강남지역에 많은 개인 소유 원림이 생겼다. 이는 문인사대부 계층을 비롯하여 부상(富商), 일반 시정(市井)계층까지 이러한 조원활동의 열풍이 일어났다. 조원가가 강남지역 원림 조영 과정에서 풍부한 실천 경험을 쌓았으며 함께 많은 유적을 남겼다. 특히 인문수양을 갖던 문인 조원가가 이러한 조원 경험을 저서를 통해 체계화하고 이론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이 시기에 원림조영에 관한 다수의 이론서가 나온 것은 그러한 배경에 기인한다.

제3장에서는 대표 조원가 문진형(文震亨)과 이어(李漁)의 생애와 작품 활동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이들의 ‘개인 생애사, 가족사와 문예활동’, ‘주요 조원작품’, ‘대표작 『장물지』와 『한정우기』에 대한 이해’ 세 가지 소절로 나누어 고찰했다. 정리하면 명말청초 동란의 시대배경이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정치적 추구’에서 ‘문화적 창조’로 전환하게 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각자의 서로 다른 생활배경에서 개인만의 ‘문화적 창조’를 추구하였다. 두 조원가들은 완전히 다른 계층 출신으로 그들의 저서인 『장물지』와 『한정우기』에서 다른 성격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다. 문진형의 『장물지』는 세속에 속된 문화에 대해 비판하고 문인사대부 계층이 따라야 하는 고상하고 우아한 문화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한마디로 그가 겨냥한 독자층은 문인사대부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정우기』의 서술 내용은 간명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내용상 단조롭고 무미건조한 장자(莊子) 이론을 알기 쉽게 풀이하였다. 저서를 구독한 독자들은 대부분 문인시정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전체 공간구성, 원림요소에 따라 문진형과 이어가 추구하는 조원이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했다. 첫째, 전체 공간구성에 대하여 ‘입지 및 공간배치’, ‘전체 구조 및 공간 척도의 중요성’, ‘공간 원림요소의 조합’, ‘공간 분할’로 나누어 문진형과 이어의 조원이론을 해석했다. 둘째, 원림요소에 대하여 건축물, 수 요소, 석물(石物), 식물로 나누어 두 조원가의 조원이론을 살펴봤다. 이를 바탕으로 두 조원가의 철학사상, 생활태도, 가치지향을 포괄하는 조원이론을 종합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 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을 요약하였다(그림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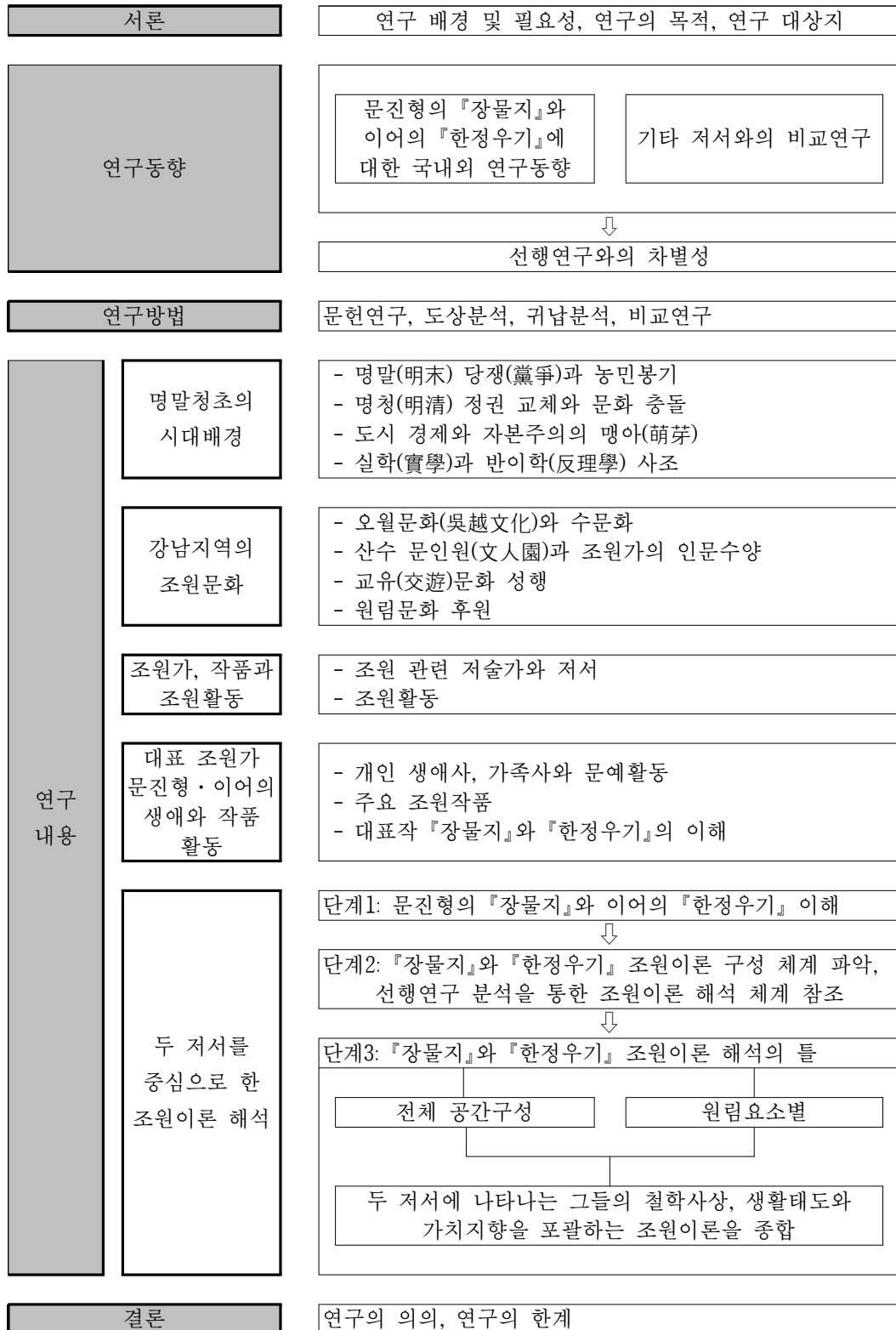


그림 1-7. 연구의 흐름

### 1.3. 연구동향

선행연구는 명말청초 강남지역 조원가인 문진형의 『장물지』와 이어의 『한정 우기』에 집중하여 국내외 관련 저서와 논문, 기타 저서와의 비교연구를 살펴왔다(표 1-2).

#### 1.3.1. 『장물지』에 대한 국내외 연구동향

중국어 판본인 『장물지』에 대한 연구에는 판본·백화문(白話文) 번역·주석(註釋)·교주(校註)·해설이 포함된다. 명청(明清)에는 『사고전서(四庫全書)』판, 『연운을편(硯雲乙編)』판, 『월아당총서(粵雅堂叢書)』판, 『신보관총서(申報館叢書)』판, 『고금설부총서(古今說部叢書)』 등이 있고 민국(民國)에는 『미술총서(美術叢書)』판과 『총서집성초편(叢書集成初編)』이 있다. 근현대에 이르러 진식(1984)은 『장물지(長物志)』에 대한 백화문(白話文) 번역·주석(註釋)·교주(校註)로 『장물지교주(長物志校註)』가 출간되었다. 이후 해군 외(海軍 外, 2004)의 『장물지도설(長物志圖說)』을 비롯한 해석하는 저서가 출간했고 진식(陳植, 1984)에 비해 정원의 사례를 들어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또한, 최근에 이하 외(李霞 外, 2015) 같은 연구자들은 『장물지』에 대한 분석을 꾸준히 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중국 학계에서 『장물지』에 대한 연구 논문을 살펴보면 건축과 원림(李元, 2010; 謝華, 2013; 姚冰純, 2013), 물질문화와 소비문화(薛野, 2008; 周重林, 2009; 朱孝嶽, 2010; 趙國棟, 2013), 물질에 대한 미학과 시각예술(王珏, 2011, 2012; 徐晴, 2012), 그리고 명말 문인사대부의 사회적 심리 및 의식(王鴻泰, 2002; 彭聖芳, 2011; 劉顯波, 2012)에 관한 연구로 정리했다(정유선, 2017).

상기는 중국의 연구 상황인데 국외 저서와 연구이고 국외 논문에 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본 결과에는 『장물지』에 대해 영국 학자 Graig Clunas(1991)는 ‘장물지는 중국의 물질문화와 사회현황’이란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에서는 『장물지』를 간단한 직역에 멈춘 것이 아니라 물질문화적인 측면에서 이 저



서를 분석했다. 특히, 명나라의 소설과 문집, 판화를 폭넓게 인용한 그는 1990년대 중반의 연구 방법 가운데 사회정치 풍상(風尚)이 있어 연구의 시야와 각도를 넓혔다. 일본 학자 아라이켄(荒井健, 2000)은 일본어판의 『장물지』를 출간하였다. 여전히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번역과 해석에만 이루어진다. 그후 일본의 기타 저서에서는 『장물지』의 일부 내용에 대한 인용과 논평을 진행했다. 일본 학자인 오카호오지(岡大路, 2008)의 『중국궁원원림사고(中國宮苑園林史考)』에서는 『장물지』 ‘천석(泉石)’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발췌하여 해설했을 뿐만 아니라 『원야』의 해당 부분과도 비교 연구했다. 이 외에 최근 한국에서는 이르러 김의정 외(2017)는 이 저서 전권을 번역·역주하였다(표 1-2).

표 1-2. 『장물지』에 대한 국내외 연구동향

분류	저자	저서의 제목	비고
중국 (저서)	문진형(文震亨, 1621)	『장물지(長物志)』	다양한 판본이 있음.
	민국(民國) 시기	『장물지(長物志)』	다양한 판본이 있음.
	진식(陳植, 1984)	『장물지교주 (長物志校註)』	백화문(白話文) 번역·교주(校註)로 출간되었음.
	해군 외(海軍 외, 2004)	『장물지도설 (長物志圖說)』	여러 그림을 추가하여 해석.
	이하 외(李霞 외, 2015)	『장물지(長物志)』	백화문(白話文)으로 해석.
중국 (연구논문)	이원(李元, 2010)	長物志園居營造理論及其 文化意義研究	건축과 원림 및 조경
	사화(謝華, 2013)	長物志造園思想研究	
	요빙순(姚冰純, 2013)	論長物志對營造現代生態‘宜居’ 環境的啟示	
	설야(薛野, 2008)	關於明代室內軟裝飾蓬勃 發展的原因探究	물질문화와 소비문화
	주중임(周重林, 2009)	文震亨茶無他, 長物而已	
	주효악(朱孝嶽, 2010)	長物志與明式家具	
	조국동(趙國棟, 2013)	長物志中茶文化簡述	
	왕곡(王珏, 2011)	長物志의顏色觀研究	물질에 대한 미학과 시각예술
	서청(徐晴, 2012)	長物志器物色彩審美觀論析	
	왕홍태(王鴻泰, 2002)	明清士人的生活經營與雅 俗的辯證	명말 문인사대부의 사회적 심리 및 의식
	팽성방(彭聖芳, 2011)	身份的危機與確認: 長物志雅俗觀的一種闡釋	
	유현파(劉顯波, 2012)	明式家具設計與明末士人	

		文化心理嬗變	
국외 (저서와 연구논문)	Graig Clunas(1991)	Superfluous Things: Material Culture and Social Status in Early Modern China (영어판)	간단히 직역하지 않았고, 물질문화적인 측면에서 이 저서를 분석·해석했음.
	아라이켄(荒井健, 2000)	長物志: 明代文人の生活と意見 (일본어판)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번역과 해석
	오카호오지(岡大路, 2008)	『중국궁원원림사고 (中國宮苑園林史考)』 (일본어판)	『장물지』 천석(泉石)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발췌하여 해설했음. 『원야』의 해당 부분과 비교 연구.
	김의정 외(2017)	『장물지(長物志)』 (한국어판)	번역과 역주.

### 1.3.2. 『한정우기』에 대한 국내외 연구동향

이어의 『한정우기』에는 강희(康熙) 6년(1667) 좌우에 완성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간각되어 현재처럼 전본(全本)으로 출판되었다. 강희 10년(1671년)에 익성당(翼聖堂)은 16권 단행본으로 간행되었다가 익성당본인 『입옹일가언전집(笠翁一家言全集)』을 수록하였다. 옹정(雍正) 8년(1730)에 개자원(芥子園) 주인은 『입옹일가언전집』을 다시 편찬하여 16권으로 된 『한정우기(閑情偶寄)』를 6권으로 묶어 『입옹우집(笠翁偶集)』으로 명명했다. 근현대에 이르러 선금형(1988)을 비롯하여 『이어전집·제3권·한정우기(李漁全集·第三卷·閑情偶寄)』에 대한 백화문(白話文) 번역, 주석(註釋), 교주(校註), 해석 등이 많이 등장했다. 이후 두서영(杜書瀛, 2007), 왕영관 외(王永寬 외, 2013) 같은 연구자들도 『한정우기』에 대해 꾸준히 연구하고 있었다.

이 외에 이어의 일생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에는 선금형(單錦珩, 1988)의 『이어전집·제19권·이어연보여이어교유고(李漁全集·第十九卷·李漁年譜與李漁交遊考)』가 있고 그에 대한 인물평에는 유위민(俞為民, 2004)의 『이어평전(李漁評傳)』이 있다. 유위민(俞為民, 2004)은 이어의 인물 일생을 바탕으로 전반적으로 평론하였고, 두서영(杜書瀛, 2014)의 『이어전(李漁傳)』은 이어가 일생 동안

겪은 경험에 대해 저술이다.

다음으로 중국 학계에서는 『한정우기』에 대한 연구 논문을 살펴본 결과에는 곡론(曲論), 음율학, 의학, 미학과 철학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접근하였다. 방서동(龐瑞東, 2007)은 이어의 희곡이론을 중심으로 상정(尚情), 결구(結構), 접수(接受) 세 가지 측면을 천착하였으며, 「식음부(食飮部)」를 중심으로 이어의 양생사상을 고찰한 한 진예현(陳禮賢, 2013)에서는 병을 고치고 건강을 지키는 ‘각병양생(却病養生)’의 다양한 각론을 다룬바 있다. 중국 원림이론 분야의 연구로는 이어의 조원사상을 다룬 문교초(文翹楚, 2015)는 명말청초의 문화적 풍토에서 향락과 미적 감각의 추구현상을 조명한 전수열(錢水悅, 2008) 등이 있다.

상기는 중국의 연구 상황인데 국외 저서와 연구 논문에 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한정우기』에 대해 한국의 연구 동향과 유사하게 곡론(曲論), 음율학, 의학, 미학과 철학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접근되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연구도 『한정우기』 중 「사곡부(詞曲部)」와 「연습부(演習部)」를 중심으로 하여 희곡이론의 논의에 집중되고 있었다. 한종진(2011)은 「거실부」를 중심으로 명말청초 ‘신사층(紳士層) 주거문화’의 한 면에 대한 고찰이 눈에 띈다. 또한, 김의정(2015)은 ‘심미와 실용’이라는 두 가지 특징이 「거실부」를 관통하는 두 가지 핵심적 맥락으로 파악하고 논의를 진행했다. 박홍준(2017)은 이어 『한정우기』가 가진 의미와 가치를 명말청초 희곡이론사의 흐름 속에서 희곡을 무대에서 공연되는 상연물로 분석하고 이어가는 희곡의 구조를 중시하고, 배우들의 연기와 무대 연출에 이르기까지 참신한 이론을 개진하였음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들과 달리 박성훈(2017)은 『한정우기·성용부(聲容部)』의 치복(治服)을 중심으로 의복에 대한 안목을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의복과 사람과의 관계와 의복 착용의 원칙과 추구의 측면에서 논의했다.

최근에 이르러 김의정(2018)은 『한정우기』를 다시 번역하기를 시도하였다. 장림 외(2018, 2019)는 ‘『한정우기』를 통해 본 이어의 조원이론’과 ‘『한정

우기·종식부(種植部)』를 통해 본 식물의 상징성과 완상(玩賞) 방식’이라는 주제로 두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표 1-3).

표 1-3. 이어의 『한정우기』에 대한 국내외 연구동향

분류	저자	저서의 제목	비고
중국(저서)	이어(李漁, 1667)	『한정우기(閑情偶寄)』	여러 차례에 걸쳐 각색되어 완성되었음.
	근현대부터	『한정우기(閑情偶寄)』	화문(白話文) 번역·주석(註釋)·교주(校註)·해설을 많이 등장했음.
	선금형(單錦珩, 1988)	『이어전집·제3권·한정우기(李漁全集·第三卷·閑情偶寄)』	화문(白話文) 번역, 주석(註釋), 교주(校註), 해석.
	선금형(單錦珩, 1988)	『이어전집·제19권·이어 연보·여이어교유고(李漁全集·第十九卷·李漁年譜與李漁交遊考)』	이어의 일생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유위민(俞為民, 2004)	『이어평전(李漁評傳)』	이어의 저서 내용을 바탕으로 전반적으로 평론했음.
	두서영(杜書瀛, 2007)	『한정우기(閑情偶寄)』	저서 내용에 대한 해석.
	두서영(杜書瀛, 2014)	『이어전(李漁傳)』	이어의 생애, 문예활동 등과 관련된 전기
중국(연구논문)	왕영관 외(王永寬 외, 2013)	『한정우기(閑情偶寄)』	백화문으로 해석.
	방서동(龐瑞東, 2007)	李漁『閑情偶寄』之曲論研究	곡론(曲論), 음율학, 의학, 미학과 철학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접근되었음
	전수열(錢水悅, 2008)	李漁『閑情偶寄』生活美學思想初探	
	진예현(陳禮賢, 2013)	論李漁的養生思想	
한국(저서와 연구논문)	문교초(文翹楚, 2015)	李漁的造園思想研究 以南京芥子園畫傳繪事項目為例	
	한종진(2011)	명말청초 신사층(紳士層) 주거문화의 한 단면: 이어의 『한정우기』 거실부를 중심으로	곡론(曲論), 음율학, 의학, 미학과 철학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접근되었음.
	김의정(2015)	명말청초 문화 세속화의 흐름 속에서 본 『한정우기』	
	박홍준(2017)	명청대 희곡리론(戲曲理論)의	

	전개와 리어(李漁)의 『한정우기』	
박성훈(2017)	이어(李漁)의 복장론(服裝論) 소고(小考)	
김의정(2018)	『쾌락의 정원』	한국어로 새롭게 해석했음.
장림 외(2018)	『한정우기』를 통해 본 이어의 조원(造園) 이론	크게 이어의 4개 조원이론을 총결하였음.
장림 외(2019)	『한정우기』 「종식부(種植部)」를 통해 본 식물의 상징성과 완상(玩賞) 방식	식물의 상징성과 완상(玩賞) 방식에 대한 해석.

### 1.3.3. 기타 저서와의 비교연구에 대한 고찰

앞서 문진형의 『장물지』와 이어의 『한정우기』를 대상으로 국내외 연구동향을 살펴봤는데 다음은 명말청초 주요 저서 간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고찰했다.

국내 두 저서의 비교연구에 대한 살펴본 결과 제진(齊慎, 2012)은 『장물지』와 『한정우기』 중 실내의 진열 예술을 중심으로 ‘물리적’, ‘신체적’, ‘심리적’의 세 가지 차원에서 차이점과 공통점을 분석했다. 시춘욱(施春煜, 2015)은 마찬가지로 이 두 저서를 바탕으로 ‘기물(器物)’에 대한 특징으로 두 저서의 공통점과 ‘일원(一元)’에서 ‘다원(多元)’으로의 변화된 특징을 두 저서의 차이점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두 연구 모두 두 저서 텍스트에 집중적으로 분석을 진행하고 원림 문화의 시대배경과 두 조원가가 처한 생활환경을 구체적으로 고찰하지 않았다. 이 외에 『원야』, 『장물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학자 왕미선(王美仙, 2015)은 『원야』, 『장물지』에 식물경관의 텍스트를 추출·해석함으로써 식물경관에 담겨 있는 조원사상을 살펴보았으며, 임란홍 외(任蘭紅 외, 2018)는 『원야』, 『장물지』에 있는 ‘철산 이수(掇山理水)’를 중심으로 양 저서를 부분적으로 비교 연구를 진행했다.

또한, 『원야』, 『장물지』, 『한정우기』의 비교연구에 대해 살펴본 결과 세 저서에 수록된 죽병(竹屏)의 활용과 그 의미를 해석한 연구에는 정우진 외(2014)의 『한정우기·종식부』에 기술된 덩굴 식물의 활용과 문화적 함의를 규명하였다. 구

양입경 외(歐陽立瓊 외, 2015)는 『원야』, 『장물지』와 『한정우기』에 나타난 첩석(疊石)을 중심으로 세 가지 저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했다. 뿐만 아니라 사운하(謝雲霞, 2015)는 미학사상의 측면을 출발하여 『원야』, 『장물지』와 『한정우기』를 중심으로 명말청초의 미학사상을 재조명하였다. 또한, 운가연 외(雲嘉燕 외, 2019)의 연구에서는 『원야』, 『장물지』와 『한정우기』에 나타난 명말청초 원림의 설계이념 중 ‘아(雅)’ 문화를 규명했으나 세 조원가가 원림을 조영한 사례와 결합하여 해석하지 않아 아쉬움으로 남았다.

이 외에 국외에서 저서 간의 비교연구에 대한 연구동향을 살펴본 결과 천요화 외(2014)는 문진형의 『장물지』와 서유구(徐有渠)의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를 분석의 자료를 삼았으며, 두 저서에 나타나는 한·중 문화서적 가치 및 정원문화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박희성 외(2016)는 『양화소록(養花小錄)』과 『장물지』 중 화목류에 나타난 한·중 문인원림의 취미에 대해 비교 연구했다(표 1-4).

상기와 같이 『장물지』와 『한정우기』를 중심으로 하는 비교연구거나 각각의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그에 따라 적지 않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왔다. 그러나 『장물지』와 『한정우기』를 중심으로 한 비교연구에서 그 당시의 시대배경에서 두 저서를 바탕으로 한 조원이론 일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해석했을 뿐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없는 것이었다. 앞서 언급했듯 두 조원가가 처한 사회배경인 가족사, 생애사, 예술 활동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찰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명말청초의 원림 문화적 시대배경 및 두 조원가의 각각 생활환경, 그리고 실제 원림을 조영한 사례와 결합하여 두 저서를 분석하고 체계적인 조원이론을 구축해 보고자 한다.

표 1-4. 기타 저서와의 비교연구에 대한 고찰

분류	저자	저서 및 연구 논문의 제목	핵심적인 내용
명말청초 저서 간의 비교연구	제진(齊慎, 2012)	『長物志』和『閑情偶寄』園林陳設藝術比較	실내의 진열 예술을 중심으로 한 ‘물리적’, ‘신체적’, ‘심리적’의 세 가지 차원에서의 해석.
	시춘옥(施春煜, 2015)	從『長物志』和『閑情偶寄』看明清園林文化發展動向	‘기물’에 대한 특징은 두 저서의 공통점, 일원에서 다원으로의 변화된 특징.
	왕미선(王美仙, 2015)	『園冶』與『長物志』中的植物景觀及其思想表達研究	식물경관에 담겨 있는 조원사상.
	임란홍 외(任蘭紅 외, 2018)	『園冶』與『長物志』關於‘掇山理水’章節比較研究	철산이수(掇山理水)를 중심으로 한 양 저서의 비교연구.
	정우진 외(2014)	명대 원림서에 기술된 죽병(竹屏)의 활용과 그 의미	덩굴 식물의 활용과 문화적 함의를 규명하였음.
	사운하(謝雲霞, 2015)	晚明江南文人的園林設計美學思想研究	명말청초의 미학사상의 측면을 고찰하였음
	구양입경 외(歐陽立瓊 외, 2015)	『園冶』, 『長物志』, 『閑情偶寄』論選石的異同	첩석(疊石)의 측면을 기준으로 세 가지 저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국외 저서와의 비교연구	운가연 외(雲嘉燕 외, 2019)	Sociocultural factors of the late Ming and early Qing Chinese garden landscape in Yuanye, Zhangwuzhi, and Xianqingouji	명말청초 원림의 설계이념을 규정했음.
	천요화 외(2014)	문진형의 장물지와 서유구(徐有渠)의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가 조선 후기 사대부 정원에 미친 영향	한·중 문화서적 가치 및 정원문화에 관한 내용.
	박희성 외(2016)	『양화소록(養花小錄)』과 『장물지(長物志)』 화목류에 나타난 문인원림 취미 비교	화목류에 나타난 한·중 문인원림의 취미 비교연구.

## 2. 명말청초의 시대배경과 조원문화

### 2.1. 명말청초의 시대배경

#### 2.1.1. 명말(明末) 당쟁(黨爭)과 농민봉기

역사적으로 강남지역에 위치한 남경(南京)은 육조고도(六朝古都)로서 여러 차례 중국 정치의 중심에 있었다. 서기 1368년 명 태조(明太祖) 주원장(朱元璋)은 남경을 중국 통일 왕조의 도읍으로 설립함으로써 반세기에 걸쳐 남경을 중심으로 하는 강남지역은 정치의 중심지가 이루어지었다. 1582년에 남경을 유람했던 이탈리아의 선교사 Matteo Ricci(利瑪竇; 1552-1610)는 남경은 다른 어느 나라 도시보다 변화하다고 칭찬했고 남경에는 궁궐, 사당, 불탑, 교량 등이 곳곳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남경 일대에 활동하는 문인 사대부 등의 문인 기질이 뛰어났다고 칭송하게 했다(利瑪竇, 1983; 李孝悌, 2013)(그림 2-1). 이후 명 성조(明成祖) 주채(朱棣)는 1421년에 북경으로 천도하면서 남경이 ‘유도(留都)’<sup>6)</sup>가 되었고 천도한 후에도 여전히 북경에 버금가는 제2의 도시로 번영을 구가하였다.

이러한 ‘일국양도(一國兩都)’의 정치구조는 강남지역에 독특한 정치 분위기를 만들었다. 남경은 북경과 기본적으로 비슷한 관원 체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권위적으로는 관원들은 유명무권(有名無權)의 상황에 있었다. 명나라 후기에 이르러서는 다수의 관원들이 강산사직(江山社稷)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 중앙정부로 진출하는 경우가 점차 드물어졌고, 정쟁에 밀려 좌천된 관원들이 유배 오는 곳으로 전락했다. 이러한 정치적 현실은 지식인과 관료사회의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에 영향을 끼쳤다. 주요하게 나타나는 특징 중의 하나는 이들 중 다수가 현실 도피적 성향을 보이면서 집단적인 문예활동에 소일거리를 삼는 풍조를 자연스럽게 형성하였다. 때로 토목사업을 크게 벌여 원림을 만들어

6) 명성조(明成祖)가 북경으로 천도하자 남경은 남겨진 도읍지라는 의미에서 유도(留都)라고 불렸다(張薇, 2006).



저택과 원림을 건설하거나 향락(享樂)을 추구하는 흐름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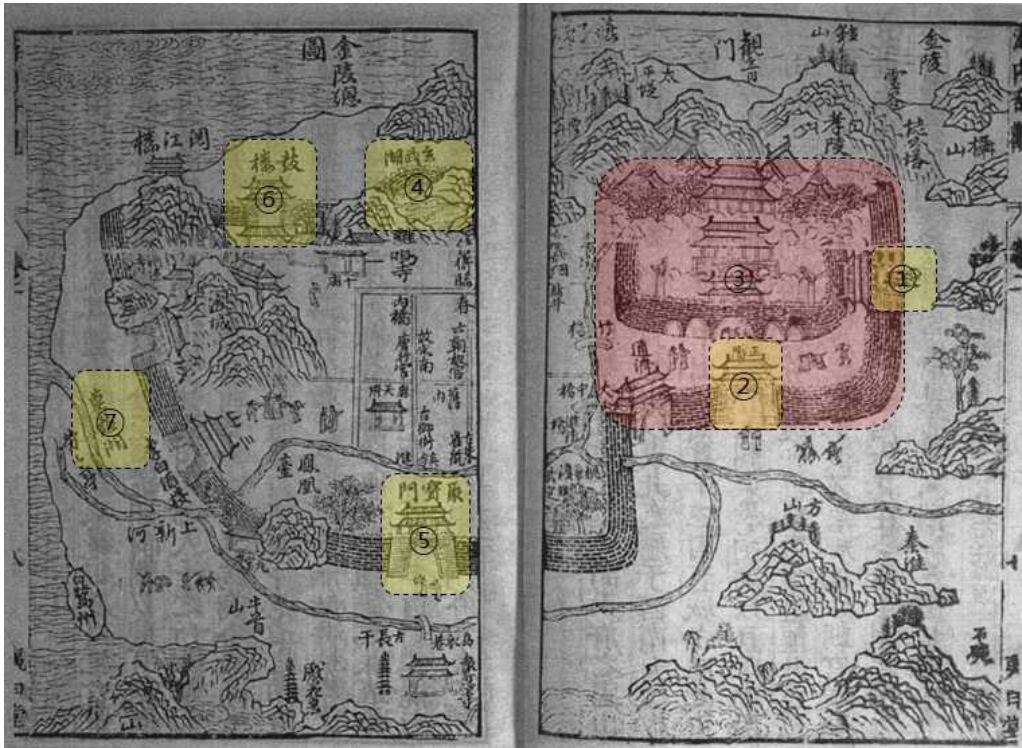


그림 2-1. 목판화(木版畫) <금릉총도(金陵總圖)>에 나타난 경관요소들: ①조양문(朝陽門), ②정양문(正陽門), ③황궁성(皇宮城), ④현무호(玄武湖), ⑤취보문(聚寶門), ⑥고루(鼓樓), ⑦막수호(莫愁湖).  
그림출처: 필자는 『明』楊爾曾(1610). (新鐫)海內奇觀 武林楊衙夷白堂.』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음.

강남 정치의 또 다른 특징은 결당영사(結黨營社)이다. 시대의 병폐를 비판하는 것이 사대부 계층에서 유행하기 시작했다. 문인집단의 모임인 아회(雅會), 아집(雅集)의 개최와 학교의 건립은 명나라 사대부들이 지향하는 사회참여 방식이었다. 명나라 후기 특히 명 만력 연간 조정 내부의 투쟁이 격화되면서 두 가지의 이익집단인 동림당(東林黨)<sup>7)</sup>과 엄당(閹黨)<sup>8)</sup>이 형성되었다. 동림당은 강남 인사들이 ‘동림서원(東林書院)’<sup>9)</sup>을 주축으로 형성한 정치파벌이며 동림

7) 동림당(東林黨)은 명나라 말 강남 사대부가 주축이 된 관료계급 정치집단이다. 명나라 라부랑중(吏部郎中)인 고헌성(顧憲成)이 창시해 명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40년 가까이 지냈다(牟復禮, 1992, pp.575-578.).  
8) 엄당(閹黨)은 일반적으로 환관(宦官)의 권세에 빌붙은 관료가 결성한 정치 파를 지칭한다(黃永年, 2007).  
9) 동림서원(東林書院)은 북송 정화(政和) 원년(1111)에 창건되었고, 명만력 32년(1604)에 동림학자 구헌성(顧憲成) 등이 다시 복원하여 이곳에 수많은 학자들이 모여 강의를 시작했다. 그들은 ‘독서(讀書)·강학(講學)·애국(愛國)’ 정신을 제창하여 전국의 학자들의 보편적인 호응을 불러일으켜 일시에 명성을 얻었다. 동림서원은 강남지역의 인문 집중 지역과 국사 논의의 주요 여론 중심지가 되었다(<https://www.zdic.net/>).

서원은 겉으로 독서와 강학의 전당이었지만 사실상 정치여론을 형성하는 기지로 작용했다. 이곳에서 드나드는 인사들은 대개 급진적 성향을 가진 자들로서 정치상황에 관심이 많은 부류였다. 동립당은 강남에 뿌리를 두며 이들의 수령(首領)은 또한 모두 강남인사들이었다. 반면에 엄당(嚴黨)은 환관(宦官)의 권세에 빌붙은 결성한 정치파이라 중앙정부에서 발호하여 동립당 인사들을 억압하는 일이 자주 있다.

이러한 특징 외에 한편 명나라 정부는 내부 투쟁의 격화와 부패의 문제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각 계층의 갈등도 격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농민봉기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명말 농민봉기는 승정 원년(1628) 7월 산시(陝西)에서 일어나 승정 6년(1633) 동지에 이르러 농민봉기 군이 황하를 건너면서 강남 일대로 번졌다. 풍요롭고 평온한 생활을 하던 강남 부유층이 더 이상 한가롭게 지낼 수는 없고, 따라서 조원활동도 거의 정체상태가 되었다. 반면에 이러한 사회적 불안정은 조원가들이 저술 집필의 여건이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명말 농민전쟁으로 조원활동이 정체되었고, 이러한 정체시기에 조원 현장을 떠나 원림 저서의 출간의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張薇, 2006, p.82). 뿐만 아니라 이후 명나라 멸망은 사대부 계층을 비롯한 유민들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고, 그들에게 고국의 변화한 풍경에 대한 그리움이 되게 하였다고, 고국에 대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예(禮)’와 ‘의(義)’를 저술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한편으로 망국의 아픔은 그들로 하여금 중국 봉건사회의 문제점과 명나라 멸망의 원인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되돌아보게 했다.

### 2.1.2. 명청(明清) 정권 교체와 문화 충돌

무엇보다도 중국 중원(中原)지역은 명청(明清) 두 왕조의 교체로 만주족이 한민족 정권을 대체하게 됐다(그림 2-2). 한족 유가문화와 달리 새로운 지배계급 만주족은 전혀 다른 문화권이라 할 수 있다. 만청(滿清) 지배계급은 그들의 유교문화에 대한 존중을 강조해 왔지만 여전히 많은 한족의 문인 사대부들이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명말청초의 독특한 문화현상인 유민(遺民)<sup>10)</sup>이 형성된 것이다. 사실 유민 현상은 중국 역사에서 자주 나타나곤 했다. 송원(宋元) 무렵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으나, 청나라가 명나라를 대체하면서 이러한 기조는 절정에 이르렀다. 역사에 이름을 남긴 유민으로는 황종희(黃宗羲; 1610-1695)<sup>11)</sup>, 고염무(顧炎武; 1613-1682), 왕부지(王夫之; 1619-1692), 문진형(文震亨; 1585-1645), 진자룡(陳子龍; 1608-1647), 하완순(夏完淳; 1631-1647), 전겸익(錢謙益; 1582-1664)<sup>12)</sup> 등이 있다. 그들은 명나라 멸망할 무렵 애국과 망국의 아픔을 표현한 유민시(遺民詩)를 적지 않게 남겼다. 이 시기 시와 글에 반복적으로 잔산잉수[殘山剩水: 전란 후 황폐해진 산수]를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예컨대, 전겸익(錢謙益)의 <후추흥지십삼(선일)後秋興之十三(選一)>에 따르면

海角崖山一線斜	해각 애산과 같은 작은 땅조차
從今也不屬中華	지금부터 중화의 땅에 속하지 않게 되었네
更無魚腹捐軀地	굴원(屈原)처럼 강물에 뛰어들어 순국할 곳도 없고
況有龍涎泛海槎	청군의 배도 남해에서 악탈하고 있다
望斷關河非漢幟	멀리 있는 산하를 바라보니 명나라의 깃발은 보이지 않고

10) 유민(遺民)이란 망국(亡國)의 백성을 말한다. 구조(舊朝)가 망한 뒤 새로운 왕조에 몸담고 싶지 않은 사람을 일컫는다. 구조의 구산(舊山), 문학가, 사상가 등을 포함한다(양넌쥬, 2015, p.59.).

11) 황종희(黃宗羲; 1610-1695)는 명말청초의 경사(經史)학자이자 사상가이다. 자는 태충(太沖), 호는 이주(梨州)로 절강성 여요(余姚)인이다. 실증주의를 강조하였으며 왕부지(王夫之)와 고염무(顧炎武)와 함께 청초의 ‘삼대사(三大師)’로 불린다. 저서에 『명이대방록(明夷待訪錄)』, 『명유학안(明儒學案)』, 『송원학안(宋元學案)』 따위가 있다(胡喬木 等 匯編, 1986, p.284.).

12) 전겸익(錢謙益; 1582-1664)은 명말청초에 정치가이자 문인으로, 상숙(常熟, 지금 강소성)인이다. 자는 수지(受之), 호는 목재(牧齋)·어초사(漁樵史)·우산종백(虞山宗伯)으로 저서에 『초학집(初學集)』, 『유학집(有學集)』 따위가 있다. 만력 38년(1610)에 진사(進士)하여 동림당 활동에 참여하였다(胡喬木 等 匯編, 1986, p.619.).

吹殘日月是胡笳	전란 후 황폐해진 곳곳에 청군의 깃발이 서 있는데
嫦娥老大無歸處	이 때 나이가 많은 나는 돌아갈 곳이 없고
獨倚銀輪哭桂花	상아가 월궁 계수나무 아래에서 우는 것처럼 혼자인데

이와 같은 시에서는 시인이 전란 후 국토의 황폐해진 모습을 통하여 명나라의 멸망과 청나라의 통치로 인해 명나라 유민들이 심리와 정신적 고통을 겪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명나라 유민들의 성격과 성장 경력에 따라 그들은 서로 다른 항청(抗淸)의 길로 들어섰다. 유민의 항청(抗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적극적인 항청, 하나는 소극적인 항청(抗淸)이다. 소위 적극적인 항청이란 진자룡(陳子龍), 하완순(夏完淳), 문진형(文震亨)처럼 명 왕조에 대한 충효(忠孝)를 위한 순국(殉國)을 말한다. 이들은 체발령(剃髮令)<sup>13)</sup>과 개복령에 대한 불만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청나라 정부가 단발령과 개복령을 내리자 전국 각지에서 소요 사태가 터졌고 특히 강남지역의 항청(抗淸)은 격렬했다(허택운, 2013, p.257). 이 가운데 대표적 인물인 문진형(文震亨)이 명나라의 멸망 후, 양징호반(陽澄湖畔)으로 피난했고 망국의 치욕으로 강에 투신하려 했으나 남에게 구조되었다. 그 후 울분으로 단식을 하고 순국까지 하였다. 이처럼 만주족은 진압에 나섰지만 한족들은 굴복하지 않았고 항청(抗淸)은 10여 년이나 지속되었다.

소극적인 항청(抗淸)이란 청나라 관리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출가를 택하거나 산림에 은거하는 유민을 말한다. 사실 이 두 가지 극단적인 항청(抗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유민들은 방황하고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명나라가 망한 데 대한 아픔에 젖어 있다가 청에 들어간 뒤 청나라 조정의 압력으로 강제로 벼슬을 하게 돼, 명나라를 위해 절조를 지키고 싶어도 가족의 안전을 위해 절조를 잃지 않을 수 없는 것도 대부분의 명말청초 유민들의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다.

13) 1644년에 청나라가 중국을 차지하면서 여진족(女真族)의 풍습에 따라 변발을 하도록 내린 명령이다. 한인(漢人)이 반발하자 명령을 거두었다가 청군(淸軍)이 난징(南京)을 점령하면서 강력히 시행하였고, 이를 어긴 자는 사형에 처하였다(<https://www.zdic.net/>).

상기의 내용에서 청 왕조 정부는 초기에 빠른 국가의 대일통(大一統)<sup>14)</sup>을 이루기 위해 체발령(剃髮令)과 같은 많은 정책을 취해졌다. 청 완조는 이전 왕조보다 ‘정통성’ 확보를 중시하는 정도가 훨씬 높았다. 청 왕조 정부는 군력으로 강제한 방식을 통해 겉으로만 보이는 일시적인 통일일 뿐이고, 완전한 민심 통일은 강희 왕제 재위 시 비로소 통일의 대업을 실현하였다. 청 왕조는 청초부터 민심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이전 왕조의 정통계보를 이어 청 왕조와 더불어 하나의 연속체를 형성하길 희망했던 것이 보인다(양넌천, 2015, p.21). 청 왕조 정부는 더욱 융합된 민족 대일통(大一統)을 위해 조정 만족의 관리들이 한어를 학습하는 등 일련의 효과적인 정책을 취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청 왕조 중후기에 강희제(康熙帝)의 정치적 차원에서 완전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기초로 되었다.

강희제는 정치적으로 통일대업을 이루면서 남북 대운하를 통해 남순(南巡)을 총 6차례로 행했다. 남순(南巡)의 목적은 삼번반란(三藩叛亂)과 정성공(鄭成功)의 반란을 진압한 뒤 청 왕조의 국위를 과시하는 의도, 지역 민정(民情) 시찰, 대운하 홍수 범람 정비 등의 복합한 것이었다(조영현, 2006, 오금성 외, 2007, p.589; 吳建, 2017, pp.26-29). 무엇보다 강희제가 대운하 주변 백성들의 생활의 어려움, 지방관 청렴성 여부 등을 직접 시찰하는 방식은 더욱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다. 이러한 방식으로 황제의 애민(愛民)의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백성들은 청 왕조에 복종(服從)하고 충성을 다하게 됐다. 남명(南明)<sup>15)</sup> 멸망 이후 대부분의 유민들이 강남지역에 모여 있기 때문이다.

상기의 정치적 의도뿐만 아니라 ‘경관적 창조’ 차원에서도 강희제(康熙帝)를 비롯한 청나라 역대 황제들은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 청 왕조 중후기에 국가가 안정되어 가고 있었고, 원림의 양상도 성숙해졌다. 청 왕조는 강남지역

14) 천하의 제후들은 모두 주나라 천자에 속해 있다. 후세는 이 때문에 봉건 왕조가 전국을 통치하는 것을 ‘대일통(大一統)’라고 불렀다. 대일통은 왕조가 충분히 광활한 영토를 차지해야 하는 동시에 하늘이 부여한 덕성(德性)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양넌천, 2015, p.18).

15) 남명(南明)은 명나라의 경사였던 북경이 함락되자 명나라의 종실이 중국 남쪽에 세운 여러 유망(流亡)정권의 총칭이다(錢海嶽, 2006).

의 대표적 원림인 서호(西湖)의 공간 구조를 북쪽에 있는 황가원림인 이화원(頤和園)에 전이된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청 왕조가 전국 대일통(大一統)을 완전히 이루었다는 상징이기도 한다.



그림 2-2. 1645년 6월에 명청(明清) 교체 시기의 형세 지도.  
 그림출처: <https://baijiahao.baidu.com/s?id=1577017600124568532&wfr=spider&for=pc>.

### 2.1.3. 도시 경제와 자본주의의 맹아(萌芽)

강남지역은 명나라 중엽 이후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어 명 왕조 부(富)의 주요 원천이 되었다. 특히, 청나라에는 명나라에 비해 더욱 광범위한 지역에서 훨씬 많은 업종에서 자본주의 맹아가 나타났다고 했다(오금성 외, 2007, p.543). 강남지역 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이룬 세 가지 핵심 산업은 농업, 수공업과 상업이었다.

먼저 강남지역의 농업은 전국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명나라의 경제 구조를 좌우하는 기반 산업이었다. 특히, 양자강 하류지역의 개발이 고도화되고 수공업과 상업 발전이 촉진된다. 이에 따라 이전보다 식량생산과 인구가 모두 급증했다(강판권, 2004; 오금성 외, 2007, p.492). 강남지역은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우월한 여건을 갖추고 있었으나 수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치수사업이 매우 중시되었다. 전통적인 농작물인 벼 외에도 강남지역은 면, 차와 같은 경제 작물을 재배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가졌다. 이는 종합적인 수익성을 크게 높여 강남지역 농업의 전국적 우위를 부각시켰다.

다음으로 명말 강남지역의 수공업은 관영(官營)이든 민영(民營)이든 물론하고 발달하였다. 이중 방직업(紡織業)은 강남 수공업의 강점 산업이었다(그림 2-3). 방직업의 빠른 발전으로 면직물 생산량이 날로 증가하여 강남지역에는 많은 부를 쌓을 수 있었다. 이 외에도 도자기업, 제지업, 인쇄업 등이 강남지역에 상당히 발달해 있었다. 이 중에서도 대중적인 취향을 반영한 목판화(木版畫)의 번영은 출판 산업의 발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었으며 따라서 서적의 유행을 이끌었다. 당시 사회 전반에 성행한 통속문학작품들은 보통 화가와 각공(刻工)과 협업하여 만든 삽화가 수록되었고, 도문(圖文)이 풍부한 시각적인 서적들이 앞 다퉈 출판되었다(趙農, 2003, p.10). 즉, 수공업과 밀착된 출판 산업의 발달이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계기로 작용했고, 이는 강남을 더욱 부유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자본의 축적이 또한 원림을 건설하는 경제적 기반을 제공했음은 물론이다.





그림 2-3. [明] 구영(仇英)의 <방직도(紡織圖)>, 設色絹本, 縱 28cm, 橫 23cm. 자급자족의 민영(民營) 방직업(紡織業).  
그림출처: <https://www.artfoxlive.com/product/1577548.html>.

또한 상품경제의 발달도 명말 강남지역 부(富)의 증가에 매우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 상품경제의 발달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징이 나타났다. 첫째, 상품 공급량과 수요량이 급증했다. 강남의 농업 수준이 높아지면서 농산물의 상당 부분이 먼처럼 상품화됐다. 이때 강남지역 먼의 재배는 자급자족을 넘어 상품판매로 이어졌다. 강남지역의 농업, 수공업의 많은 상품들이 화폐를 거래수단으로 하는 유통분야에 진입했다. 둘째, 상품시장을 초보적으로 형성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강남지역의 일부 대도시에는 소비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상품교환은 장터를 필요하기 때문에 강남 각지에 신흥 상업무역이 발달한 장터가 생겼다(그림 2-4). 도시 장터는 상품 경제의 발전으로 이루어졌으며 장터 또한 도시들은 상품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셋째, 일군(一群)의 상인 집단



이 형성되었고 이 중에 유명한 집단은 바로 휘상(徽商)이었다. 휘상(徽商)은 명청(明清) 시기 안휘성(安徽省) 휘주부(徽州府) 지역의 상인(商人)이다. 혹은 상인집단의 총칭이다. 명나라 후기에서 청나라 초기까지 휘상(徽商)의 전성기이라고 할 수가 있다. 휘상(徽商)은 초기에 주로 무역을 의지하여 부(富)를 창출하였다. 그들은 경영하는 업종은 소금, 면포(棉布), 양식(糧食), 차(茶) 등이 있었다. 상인들은 주로 무역 수단에 의해서 초기의 상업 자본을 축적했으며, 이것은 자본주의 생산 방식의 뚜렷한 특징을 이미 갖추고 있다. 『양주화방록(揚州畫舫錄)』에 따르면 의식주와 교통 차원에서 상인들 특히 양주염상(揚州鹽商)의 사치스러운 삶을 부각시켰다.<sup>16)</sup> 그들은 많은 부(富)를 축적한 후 한층 더 나아가 교육에 대해 중시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문화적 소질을 갖추었고 인적자본을 축적하며 경영활동에 보다 촉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 이들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양주의 하원(何園)의 하 씨(何氏) 가문은 가족 구성원들의 교육을 중시해서 조상 한림원(翰林院) 관직을 비롯하여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었다. 넷째, 새로운 생산관계가 싹트기 시작한다. 방직업의 경우 이미 고용관계가 나타났다. 고용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화폐를 얻어 생계를 유지했다. 고용자와 고용주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의존적인 관계가 없으며, 완전히 쌍방이 자발적으로 화폐교환을 하는 노동관계로 파악된다.

이처럼 명말 강남지역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상인, 귀족, 문인 사대부 등의 부를 가진 부유층이 탄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이 가진 거대한 부는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삶을 추구하는 데 사용되고(그림 2-5), 토목을 크게 일으켜 사가원림을 조영했다. 이는 또한 조원가가 원림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고 따라서 원림 기술서 출현의 사회적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6) 揚州鹽務競尚奢麗，一婚嫁喪葬，堂室飲食，衣服輿馬，動輒費十萬(潘愛平, 2014, p.101).



그림 2-4. [明] 구영(仇英)의 <남도번회경물도(南都繁會景物圖)>, 設色絹本, 縱 44cm, 橫 350cm(국부).  
시정(市井)의 모습.  
그림출처: 중국국가박물관 소장.



그림 2-5. [明] 두근(杜堇)의 <완고도(玩古圖)>, 設色絹本, 縱 126.1cm, 橫 187cm(국부).  
명나라 중후기 문인사대부가 기물(器物)을 완상(玩賞)하는 모습.  
그림출처: 대북고궁박물관 소장.

#### 2.1.4. 반이학(反理學) 사조와 실학(實學)

명말에 이르러 주자 성리학이 이끌었던 주류적인 사회사상은 양명심학(陽明心學)으로 대체되었다. 정덕(正德) 연간 왕양명(王陽明; 1472-1528)<sup>17)</sup>은 자신의 실천에서 ‘마음이 곧 도리다(心即理)’를 내세우며 ‘치양지(致良知)’를 핵심으로 하는 ‘양명심학’을 창조했다. 그것은 정주학과는 달리 사람의 주관적인 지각을 더욱 강조하여 도덕적인 주체로서의 인간의 자주적인 인지를 부각시켰다. 왕양명의 심학이 개인 인지능력을 강조하며 자주적 선택권의 가능성을 제시해 준 것은 명말청초 문예창작과 예술 활동에 있어 사상적 기반으로 작용했다.

왕명심학은 ‘백성일용지도(百姓日用之道)’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즉 인간의 물질적 욕망의 합리성을 인정하고 사상 개성의 해방을 추구한다. 이 같은 사회 신사조(新思潮)의 영향으로 계성(計成)을 비롯한 조원가들은 고유적인 사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아를 추구하고 개성을 중시하는 조원사상 특징을 보여준다. 원림건설 역시 이러한 사상의 변화에 힘입어 이전의 낡은 관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변화를 추구하며 ‘구원무격(構園無格)’<sup>18)</sup>을 지향하였다. 따라서 계성, 문진형, 이어 등의 조원가들은 원림에서 명말 사회의 전환기의 시대상과 사상적 변화 적극 반영하였고 그것을 이론화한 조영법식과 철학사상까지 정립하여 후세에 저서를 남겼다. 한편으로 명말청초는 중국 역사에서 비교적 독특한 시대로 중국 사회가 전통적인 농업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바뀌고 있는 시기였다. 서양 학문이 동양으로 점차 들어오는 서학동점(西學東漸)이란 새로운 문화사조는 명말청초의 변혁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 가운데 Matteo Ricci(利瑪竇; 1552-1610)로 대표되는 선교사가 중국에 서교하려 들어왔다는 것은 동서양 문화의 충돌이 곧 도래할 것임을 의미한다(이행렬 외,

17) 왕양명(王陽明; 1472-1528)은 본명 수인(守仁), 자는 백안(伯安), 호는 양명(陽明)이고 명대의 유명한 사상가, 철학자, 서예가 겸 군사가, 교육가이다. 그는 명대 심학 집대성자로 ‘양명심학(陽明心學)’을 창립하였다(<https://terms.naver.com>).

18) 구원무격(構園無格)이란 원림이나 정원을 조영하는 데는 일정한 격식이 없다는 뜻이다(김성우 외, 1993, p.300.).

2009, p.32). 마테오 리치는 중국에 선교하러 왔으며, 서양의 과학기술과 문화 등을 한꺼번에 가져왔다. 이 중 대표적인 서학동점(西學東漸) 사례는 강희제가 몽양재(蒙養齋)에서 천하의 인재를 모아 천문역법을 연구하고 자연과학에 능한 선교사까지 참여시킨 것이다. 몽양재(蒙養齋)에는 전국 최고의 전문가, 학자들이 모여서 악률과 산학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룬 『율력연원(律歷淵源)』을 편찬하였다. 이 저작은 서양의 산학, 천문학, 성율학(聲律學) 등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전통 역법과 악론(樂論)의 내용을 집대성한 것이다(黃彥震 외, 2009, p.64; 程廣媛, 2017, p.81). 뿐만 아니라 원명원(圓明園)의 수조 과정에 선교사들이 직접 참여하여 서양회화, 건축시공, 조원(造園) 기법을 중국에 도입하고, 동서양 문화교류에서 중요한 일환으로 보인다(段建強 외, 2019, p.32). 또한, 원림과 관련한 저서에는 외래 소품에 대한 소개도 들어 있다. 예를 들어 문진형의 『장물지』 ‘기탑(幾榻)’에서는 왜상[倭箱: 일본식 상자]<sup>19)</sup> 등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돼 있다. 이를 통해 명말청초에 사대부 계층은 외래 소품의 수집과 감상이 이미 나타난 것을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사상적 측면에서 주자 성리학과 반대되는 양명심학의 성행이든 실용성을 중시하는 실학(實學)이든 외래문화의 영향을 받는 서학동점(西學東漸)이든 명말청초는 세속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성과 보다 포용적인 새로운 사조로 바뀌는 것을 마주했다고 할 수 있다. 그 당시에 활약했던 문화사조는 조원가들의 대량의 저서를 창작할 수 있도록 촉진시켰고, 또한 내용적인 측면도 점차 풍부해지고 있었다.

19) 倭箱黑漆嵌金銀片, 大者盈尺, 其鉸釘鎖鑰, 俱奇巧絕倫(김의정 외, 2017, p.430.).

## 2.2. 강남지역의 조원문화

### 2.2.1. 오월문화(吳越文化)와 수문화

오월(吳越)은 오늘날은 강소성(江蘇省), 절강성(浙江省) 일대에 해당된다. 오월이란 춘추시대에 이곳의 두 강대국은 오국(吳國, 지금의 강소성 일대)과 월국(越國, 지금의 절강성 일대)으로 그들이 중원의 패주(霸主)로 되면서 후세는 이 장강 하류의 강남지역을 오월(吳越)로 불렀다(梁白泉, 1998). 강남지역에 풍부한 수자원과 온화하고 습윤한 기후, 수미의 명산과 괴석, 그리고 다양한 식물 종류는 정원 번성의 초석이 되었다. 이 가운데 특히 수자원은 강남지역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오월문화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절에서는 수자원과 오월문화(吳越文化)에 대하여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하였다. 하나는 ‘자연을 정복하고 수자원에 대한 의존과 이용’, 다른 하나는 ‘하운(河運)과 운하(運河) 문화’이다.

첫째, ‘자연을 정복하고 수자원에 대한 의존과 이용’에 관하여 보면 양자강과 회하(淮河), 그리고 전당강(錢塘江)은 강남지역을 흐르는 주요 하류(河流)라고 할 수 있다. 양자강은 발원지에서 강남지역으로 내려와 마지막으로 강소성(江蘇省) 진강(鎮江) 동면에서 바다로 들어간다. 역사적으로 보면 양자강의 홍수가 여러 번 범람하여 재해를 입혔고, 하유(下遊)의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었다. 그러나 진흙과 모래가 쌓이고 강바닥이 높아져 홍수가 물러간 뒤에 넓은 밭이 생겨났고, 주로 농업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부를 창출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회하(淮河)는 양자강과 황하 사이에 위치해 관개와 하운(河運)을 하였는데, 이는 지역 백성들이 회하로부터 계속 혜택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당강(錢塘江)은 양자강의 한 지류로서 장강과 마찬가지로 관개와 해운으로 백성들의 생활에 편리함을 주면서 강남일대의 백성들을 양육하는 근원이 되었다. 하지만 전당강(錢塘江) 또한 수해를 일으켜 주변 백성들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주었다. 이를 통해 양자강, 회하(淮河)와 전당강(錢塘



江)은 강남지역 백성들에게 충분한 수자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그 지역 백성들에게 재앙을 가져다주었다(張荷, 1995, p.51). 하천과 끊임없이 싸워온 강남지역의 백성들은 수리 공사를 부단히 개발함으로써 수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예를 들어 홍수를 막기 위해 제방을 쌓고, 교량과 조선을 건설하며, 농업의 관개를 위하여 수리 시설을 건설하였다.

하천 외에 호수를 보았을 때 태호(太湖)를 중심으로 한 강남지역은 백성들을 양육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하며 강남지역의 문화를 번영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옛 선비들도 이러한 수계의 중요성에 맞물려 태호(太湖)는 ‘포잉오월(包孕吳越)’고 불렀다(그림 2-6). 오월 지역에 일호(태호), 양강(양자강과 전당강), 양해(황해와 동해) 등 다양한 수계 형태는 오월문화의 발전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6. 태호마애제각(太湖摩崖題刻)인 ‘포잉오월(包孕吳越)’.  
사진출처: <http://www.huitu.com/photo/show/20180712/234039095020.html>.

둘째, ‘하운(河運)과 운하(運河) 문화’에 대하여 보면 강남 지역의 수운은 중국 문명 발전 역사의 중요한 일부로서 중국 역사문명의 형성과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 강남지역에는 천연적 수원을 이용한 수운 외에도 인공적으로 뚫은 운하가 많다. 운하를 뚫는 역사는 기원전 11세기 상나라 말기에 이미 나타났다. 수나라 대운하인 경항운하(京杭運河)는 중국 역사상 가장 큰 인공 수로로 강남지역의 정치·경제·문화 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그림 2-7). 특히, 남북 대운하와 동서의 양자강의 합류 지점인 진강(鎮江)과 양주 일대에는 변화한 모습이 나타났다. 더욱 상세하게 말하면 강남지역의 수로는 십자형, 또는 정자형 조합으로 구성되고, 수로의 교차점과 중심 수로 변은 대규모와 큰 세력이 상업지가 많이 형성되어 고밀화가 된다. 뿐만 아니라 수로에 따라 수변로, 다관, 기루, 교량, 회대 등과 같은 다양한 원림요소들이 공간 환경을 풍부하게 한다(최정권 외, 2016). 이 외에 이 일대에는 선박 이용자와 운송업자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이 발전했으며, 또한 여러 종교시설도 증가했다. 예컨대, 우신(雨神)을 모시는 사묘(祠廟), 성곽을 수호하는 성황묘(城隍廟) 등에는 지역백성뿐만 아니라 왕래하는 상인, 관리 등이 이곳에 모여 각종 종교와 같은 소비활동을 지내 현지 경제를 크게 발전시켰다. 이들은 종교행위의 주된 목적은 운항의 안전과 경제적 성공을 기원하는 것이다(오금성 외, 2007, p.592). 아래 청나라 송준업(宋駿業; ?-1713)의 <강희남순도강남수향경색(康熙南巡圖江南水鄉景色)>을 통해 그 당시 사통오달의 수운 현상을 알 수 있다(그림 2-8).

상기의 내용을 요약하면 강남지역에 풍부한 수자원은 그 일대의 문화를 형성하고 발전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남북의 문화 교류를 가능하게 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편리한 수운 교통은 당시 사람들의 산수 여행을 편리하게 해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7. 수나라 경항운하(京杭運河)와 장강(長江)·회수(淮水)·전당강(錢塘江)의 모습.  
그림출처: <https://www.baidu.com>.



그림 2-8. [清] 송준업(宋駿業; ?-1713)의 <강희남순도강남수향경색(康熙南巡圖江南水鄉景色)>, 縱 65cm, 橫 2955cm(국부). 사통오달의 수운 현황.

그림출처: 梁白泉(1998). 吳越文化: 中國的靈秀與江南水鄉. 上海遠東出版社. p.199.



### 2.2.2. 산수 문인원(文人園)과 조원가의 인문수양

전술하였듯 명나라 중엽 이후의 강남지역은 경제발전의 비약적 발전에 힘입은 경제력으로 명나라의 세금의 부(富)의 원천인 지역이 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부가 귀족과 사대부들에게 점차적으로 집중되어 호화로운 삶을 이룰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그들은 강남지역에 사가원림을 조영하는데 투자하기 시작했으며 점차적으로 밀집 지역으로 발전되었다. 특히 명말청초에 강남지역 상품경제의 발전은 사가원림의 발전에 좋은 물질적 여건을 제공했던 것이다. 이러한 조원 현상은 당시 강남지역의 특별한 정치·경제·문화적 배경에 따라 형성된 것으로 품격을 갖춘 수많은 문인원림의 조영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강남원림의 발달로 영원(營園)의 광범위한 전개는 전국 각지에 영향을 미치면서 중국 조원 역사상에 명말청초가 문인원림예술의 절정을 이루고 있었다.

명말청초 강남지역의 사가원림의 조영에는 문인들의 성격이 원림예술 창작에 투영되었다. 문인원(文人園)은 말 그대로 문인문화를 주제로 조성된 원림이다. 문인들은 대부분 회화에 능통했다는 점에서 원림 구축과 회화의 관계가 밀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회화는 인물화와 화조화(花鳥畵)보다는 산수화(山水畵)를 주로 한다. 조원가들은 보통 수려한 산수에 위치한 원림을 최고의 원림이라고 간주했다.

다시 명말청초에 강남원림의 조원가의 성격을 살펴보면 첩산에 조예가 특출한 장인(匠人)이 ‘인문적 수양’을 높여 조원가가 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 문예창작을 선도했던 문인들이 조원 기술을 습득하여 조원가가 되기도 했다. 전자는 ‘장인의 문인화(文人化)’이고 후자는 ‘문인의 공장화(工匠化)’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중에 문인 화가가 원림 첩산을 만드는 기술을 직접 터득해 명가가 된 대표적인 인물은 계성(計成)이었다.<sup>20)</sup> 계성이 ‘문인의 공장화’

20) 계성(計成)은 처음부터 조원 전문가로 조원활동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가산(假山)을 쌓는데 진산(眞山) 형태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중국에는 가산을 쌓는 공사를 손수 완성할 정도의 조예를 갖고 있었다고 전한다. 그의 작품은 형상이 아름답고 마치 실제 산과 같아서 이후 명성이 멀리까지 퍼지게 되었다(趙農, 2003, p.4.).

의 전형적 조원가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인문적 수양은 그들이 성공적으로 원림을 만드는 데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다고도 할 수 있다. 조원가들은 원림 주인과 일반 장인 사이의 유대가 되어 전체적인 설계를 하고 원림 조영을 주관하는 일을 담당한다. 강남지역 사가원림 조영이 성행하면서 일부 원림 주인들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조원가들은 어느 정도 문학적 수양과 심미적 소양을 갖추는 것이 기본적인 요구가 되었다. 그래야만 원림주인과 정신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설계를 맡을 수 있었다. 강남지역의 문인 조원가들은 기존의 장인에 비해 조원 실천과 이론 측면에서 독특한 견해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일정한 인문적 수양을 갖추어 시, 서, 회화, 희곡 등에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었다.

다음으로 조원가들의 인문적 수양에 대한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자고 한다. 역대 조원가들의 성격을 살펴봤을 때 단순히 조원만이 뛰어난 것은 아니고 회화까지 능통하거나 다재다능함을 알 수 있다. 시, 서예, 회화, 원림은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첫째, 시와 회화의 관계에 대해 당나라 왕유(王維: 701-761)는 ‘시중유화와 화중유시[詩中有畫와 畫中有詩: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다]’, 혹은 ‘시정화의의(詩情畫意)’ 처럼 시와 회화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논했다. 둘째, 서예와 회화의 관계에 대해 흔히 ‘서화동원(書畫同源)’ 이라 하여 서예와 회화가 같은 근원에 있음을 논했다. 셋째, 시와 서예의 관계를 살펴보면 서예의 내용은 대부분 시구에서 따온 것이어서 시와 서예는 내면적으로 ‘시서일체(詩書一體)’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 서예, 회화 삼자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가 형성되었고 ‘시서화일체(詩書畫一體)’ 로 부른다. ‘시서화일체(詩書畫一體)’ 의 좋은 예시는 바로 문인작화(作畫)에서 모두 화폭에 멋진 서예로 서명하고 시를 지어야 하며, 진정으로 시서화(詩書畫)를 하나로 융합하자는 점에서 ‘시서화삼절(詩書畫三絶)’<sup>21)</sup>의 수준

21) 시, 서예, 회화 세 가지가 모두 뛰어난 경우 ‘시서화삼절(詩書畫三絶)’ 이라고 했다. 이 사상은 남북조시대 남조의 귀족사회에서 싹터 후세에 계승되었다. 기록에 따라 성당(盛唐, 8세기 전반)의 정건(鄭虔) 삼절이 있다. 시서화삼절이 가장 높게 숭상된 것은 북송 중기(11세기 후반)의 문인(文人) 중에 소식(蘇軾)의 ‘시중화·화중시(詩中畫·畫中詩)’란 말이 나타내는 시화일치론(詩畫一體論)과 서예와

높은 경지를 지향한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 문화에 있어서 시, 서예, 회화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논리는 이미 여러 문인과 화가들이 논한 바 있어 그다지 새로운 이론은 아니다.

더 나아가 문인사회에서는 ‘시서화일체(詩書畫一體)’의 수양 취득을 넘어서 시서화의 가치를 실현할 장소로 원림을 택했다. 시문과 원림, 회화와 원림 간의 관계는 상당히 밀접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대부분의 원림 조원가들은 시문, 회화에 능통하여 적지 않은 시문, 회화 작품은 원림의 경색을 묘사하였거나 원림에서 이루어진 사물을 반영하였다. 한편 서예와 원림의 관련성 또한 빼놓을 수가 없다(徐敏, 2009; 万娜, 2014; 李天慈, 2020). 서예는 원림에서 기본적으로 나타내는 형식은 비림(碑林), 마애각석(摩崖刻石), 서조석(書條石)<sup>22)</sup>과 현판과 주련이다(華海鏡 외, 1998; 王劍, 2007). 서체에 따라 원림 속 건물들의 서로 다른 용도와 기능도 담겨 있었다. 때로는 조원가나 원주인은 일부러 글씨체를 잘못 써서 조원 이념을 표현했다. 예컨대, ‘장(章)’자의 아래 세로줄이 머리를 들이밀어 올라간 것은 ‘문장통천(文章通天)’이라는 뜻이다. 이를 통하여 서예와 원림 건축물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시문, 서예, 회화, 원림 네 가지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항상 상호 작용하여 최고의 경계(境界)인 의경(意境)을 추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그림 2-9).

‘원림 건축은 처음부터 시화와 떼어놓을 수 없는 인연을 맺을 뿐만 아니라 시인이나 화가들이 고심하여 조성, 높은 예술적 경지에 도달하였다. 소위 경치(景致)에 정(情)을 넣어 주는 것이며 정경(情景)이 서로 융합되며 경(景)에 도달하면 정(情)이 나오는 시정화의(詩情畫意)의 뜻이 되는 것 등은 원림 의경의 묘사에 대한 것으로서 원림 건축이 확실히 일반 건축과 다르다’ (팽일강, 1998; p.14).

이처럼 강남지역은 시서화의 발상지와 본거지로 삼절(三絶)의 문인이 다량

---

회화를 같은 근원으로 하는 서화일치론(書畫一體論)에 배경을 둔다. 명나라 오문화파(吳門畫派) 중 대표적 화가도 시, 서예, 회화 세 가지가 모두 뛰어났다(<https://terms.naver.com>).

22) 서조석(書條石)은 원림과 관련된 문장이나 수집한 서첩(書帖)을 돌에 새긴 뒤, 원림의 낭벽(廊壁)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王劍, 2007, p.18).

배출된 곳이었다. 그들은 벼슬길에 관심이 없고 안락한 생활을 누렸으며 그들의 작품은 주로 ‘강남의 풍광’과 문인 원림의 ‘산수 여행의 아취(雅趣)’를 묘사하여 고요하고 적적한 감정을 표현하였다. 화단의 이런 주류적인 격조(格調)는 사가원림의 조성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강남지역의 사가원림은 한층 더 문인화(文人化)되어 문인원림의 발전을 이루면서 이른바 ‘시정(市井)의 시민원림’과 ‘귀족(貴族)의 귀척원림’과 대치되어 나아가 ‘아속항형(雅俗抗衡)’에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아속항형’은 조원 실천뿐만 아니라 당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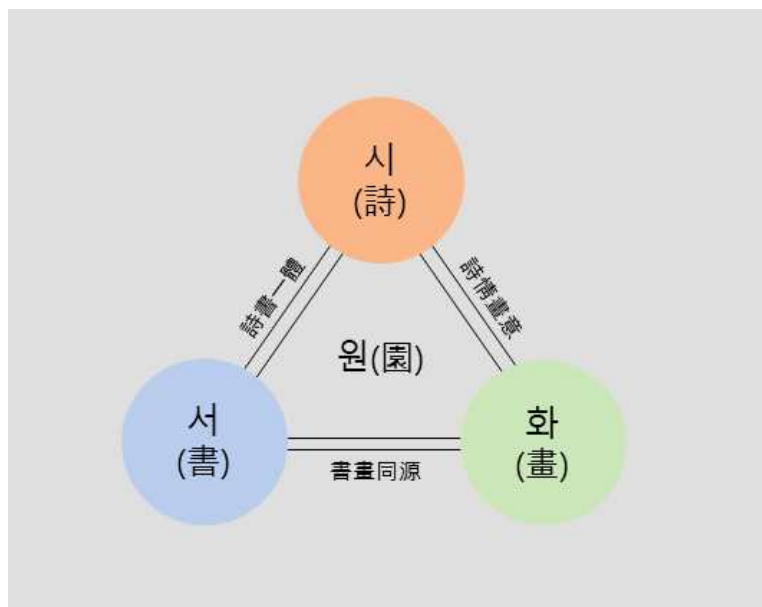


그림 2-9. 시·서에·회화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인  
‘시서화원일체(詩書畫園一體)’.

조원이론 저서에도 반영되었다(周維權, 1999, p.424). 명말청초에 소주원림과 양주원림은 문인원림 발전의 핵심적인 지역이다. 예컨대, 양주의 영원(影園), 휴원(休園), 소주의 졸정원(拙政園), 무석(無錫)의 기창원(寄暢園) 등이 있다. 이러한 원림에서 문인집단은 특유의 사교적 방식과 예술적 취향으로, 원림을 만드는 방식의 선택에서 매우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이들은 보통 원림에서 아집(雅集)이나 시회(詩會)를 자주 열었는데, 이 ‘이문회우(以文會友)’<sup>23)</sup>라는 행사는 문

23) ‘이문회우(以文會友)’이란 학문을 통하여 벗을 모은다는 뜻으로, 세속의 이익이나 재화(財貨)를 바탕

인들이 서로 교류하고 감정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방식이었다(그림 2-10).



그림 2-10. [清] 화안(華安)의 <서원이집도(西園雅集圖)>, 設色紙本, 縱 100.8cm, 橫 58.4cm(국부). 문인사대부들이 야회(雅會)의 모습.  
그림출처: 상해박물관 소장.

종합하면 시서화와 원림은 상호적 관계 속에 공통의 가치를 실현해 왔고 원림 조영은 애초부터 시서화의 창작 원칙에 따라 발전되었다. 시서화, 원림 사이에는 표현형식은 서로 상이하지만 그 속에서 표현하려는 지향점은 ‘의경(意境)’에 있었다. 이에 따라 ‘시서화일체’의 예술관은 중국에서 사대부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했는데, 이는 원림의 수준 및 조원가의 자질을 가늠하는 문화적 소양이 되기도 했다(백기수, 1996, p.320). 즉, 그 당시에 조원가들은 ‘시서화를 중심으로 한 교양수준’, ‘첩산과 같은 조원기술’, 그리고 ‘사회적 배경에 따른 내적 정신인 산수자연관(山水自然觀)’이 모두 갖추어야 진정 뛰어난 조원가라고 할 수 있었다.

---

으로 한 이해관계가 아닌 학문이라는 매개를 통해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진정한 벗을 만들고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미이다(<https://terms.naver.com>).

### 2.2.3. 교유(交遊)문화의 성행

명나라의 강남일대는 명 정덕(正德) 연간(1506-1521)부터 유람을 즐기는 풍조가 성행했다. 특히 명말에 이르러 소주인들의 유람 풍조가 더욱 성행한다. 청나라에 이르러 소주의 대중적 유람이 융성하여 현지에서 자랑할 만한 특색이 되었다. 강희 『소주부지(蘇州府志)』와 『오군세화기리(吳郡歲華紀麗)』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강남지역의 사람들은 유람을 좋아하며, 유람하러 가면 반드시 유람지, 유람기구, 동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유람지는 다른 지역보다 자연산수, 원림, 정자가 많은 곳을 선호하다. 유람 기구는 맛있는 술과 음식을 담은 기구, 그리고 배와 소고(簫鼓)를 포함한다. 동반하는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잘 추는 아름다운 기생(妓生)을 선택한다.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청당(廳堂)과 붉은 색 문 앞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초대하고, 작시(作詩)와 음주로 친구를 만나게 되고 매우 떠들썩한 장면이다.’<sup>24)</sup>

상기의 시문을 살펴보면 강남일대에 사람들은 유람 문화가 번성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야외에서 즐기는 유람문화를 ‘유관(遊觀)’이라고 한다. 그러나 명나라 중기 이후에 소주에서는 다양한 유람 행사가 펼쳐지고 있고, 관람장소도 넓어 참가자들이 계층을 나누지 않아 ‘대중유관(大眾遊觀)’이라고 불렀다. 대중유관은 성격에 따라 분류하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명절의 유관활동이었다. 둘째, 종교적 성격을 가지는 사찰의 유관활동이었다. 사찰관람이 성행하다 보니 인근의 장터가 형성돼 일정한 시가지를 형성하게 된다. 이로써 세 번째의 유관 형식인 ‘사가지 유관’이 형성되었다(巫仁恕, 2008, pp.179-185). 당시 소주에 가장 큰 시가지가 현묘관(玄妙觀)<sup>25)</sup> 부근에 형

24) 蓋言吳人之好遊也，以有遊地，有遊具，有遊伴。地則山水園亭多於他郡；具則旨酒佳肴，畫船簫鼓，咄嗟而辦；伴則選妓征歌，盡態極妍。富室朱門，互相邀引，酒社花壇，爭奇競勝利(復旦大學文史研究院 2010).

25) 현묘관(玄妙觀)은 서진(西晉) 때인 276년에 건립된 도교 사원이다. 1,7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현재 대부분 건물이 소실되어 산문(山門)과 삼청전(三清殿) 일부만 남아 있다. 사원의 중심인 삼청전은 1179년 남송시대에 재건한 것이다. 당시 송나라 건축 기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중국 내 현존하는 도교 사원 중 가장 오래되고 큰 규모로 손꼽힌다. 역사적, 건축사적, 문화 예술적 가치가 풍부하다(<https://terms.naver.com>).

성된 시가지이었다는 연구도 있다(李孝悌 2013, p.202). 또한 성황묘(城隍廟)<sup>26)</sup>는 소주에서 중요한 묘회(廟會) 행사이기도 한다. 위의 세 가지 유관 외에 네 번째는 원림의 유관활동이었다. 예를 들어 줄정원(拙政園), 사자림(獅子林) 등이 있다(復旦大學文史研究院, 2010, pp.262-263).

상기 같은 행사 유람객이 소수의 특정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명나라 신시행(申時行; 1535-1614)<sup>27)</sup>의 「오산행(吳山行)」을 통하여 이러한 행사는 이미 대중화된 것으로 보인다.

九月九日風色嘉	중양절(重陽節) 이 날은 경치가 참 아름답네
吳山盛世俗相誇	백성들은 모두 오산의 태평성세를 서로 칭찬한다
闔閭城中十萬戶	합려성(闔閭城)에 십만 가구가 밀집해 있어
爭門出郭紛如麻	성곽을 유람하러 나온 백성들이 참깨처럼 많다
拍手齊歌太平曲	박수치며 태평곡을 함께 부르고
滿頭爭插茱萸花	서로 머리에 산수유나무 꽃을 꽂는다
此日遨遊真放浪	금일 유람은 참 구속을 받지 않게 방랑(放浪)하네
此時身世總繁華	금시 신세(身世)도 항상 변화하다고 여겨진다

이 시를 통해 도시 내의 유람활동은 계층을 가리지 않는 공통성을 드러낼 뿐 아니라 도시와 시골 사람 사이의 교류도 잘 볼 수 있다. 그러나 유람문화가 발달하면서 일반 관람객의 수요를 만족할 수 없어 그 행위가 시내에서 외곽으로 확산하여 이동하고 있다. 그 당시에 도시 외곽 유람지에서는 호구(虎邱)가 가장 인기가 많은 곳으로 사대부를 비롯하여 일반 대중까지 호구(虎邱)의 유람에 대한 애정을 들어냈다. 그러나 일반 유람지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늘어나면서 일부 사대부는 자신의 재력으로 새로운 유람 공간을 개척하기 시작했다(그림 2-11). 상기에서 강남 일대의 풍부한 수자원을 언급한 것도 강남 일대 유람 활동이 발전한 원인 중 하나다. 강남 일대는 하천과

26) 성황묘(城隍廟)는 성황신(城隍神)을 제사지내기 위한 공간으로써의 사당이다. 도시 외곽을 두른 ‘성[城, 성벽]’과 ‘황[隍, 해자]에 대한 신앙에서 비롯되었다. 중국 문화에서는 성황신은 도시의 수호신으로 그 전신(前身)은 『주관(周官)』에 팔신(八神)의 하나로 등장하는 수용신(水庸神)이다(<https://ko.wikipedia.org/wiki>).

27) 신시행(申時行; 1535-1614)은 자는 여묵(汝默), 호는 요천(瑤泉)으로 강소부 장주현(長洲縣; 현재 강소)인이다. 가정(嘉靖) 41년 진시(殿試) 1위로 장원(狀元)에 급제했다(<https://www.baidu.com>).

호수가 종횡으로 교차하고 수로물산이 풍족해 수운교통의 발전을 이끌었다. 선박은 도시 지역 내부와 외부의 주요한 도구가 되었다. 장사를 하거나 먼 친구를 방문하는 것은 모두 수운 교통에 의지해야 했다. 수운교통의 편의가 명청 강남 일대의 유람활동을 시내에서 외곽으로 더 먼 명승지까지 확대시켰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태호동정산(太湖洞庭山)의 경우는 명청 시기에 소주 시내를 도시 외곽으로 확대돼 장거리 관광이 이뤄지는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요희맹(姚希孟; 1579-1636)<sup>28)</sup>은 태호동정산(太湖洞庭山)을 유람한 후 동정산(洞庭山)을 선산(仙山)에 비유하며 동정산을 크게 칭찬했다. 태호(太湖) 풍경 지구는 당시 소주시내와 멀리 떨어져 있어 경치도 아름답지만, 험난하기 때문에 소수의 사대부만이 이곳을 유람할 수 있을 뿐 일반대중에게는 결코 가보기 힘든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 명말청초 유람의 특징 중 하나가 대중성이다. 유람활동은 이미 귀족계층으로부터 일반계층까지 널리 퍼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양주화방록(揚州畫舫錄)』에 따르면 당시 야간생활이 다채롭고 특히 밤에 야경을 즐긴 것을 부각시켰다. 한 배에서 가랑 백 개의 등롱으로 장식하였으니, 당시 수상의 범주가 변화했음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sup>29)</sup> 다시 말하면 당시 부상(富商)들은 사치와 호화한 유람선과 화방(畫舫)과 같은 교통수단을 통해 일종의 자신의 부와 신분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력이 풍부한 상인 계층에 비해 문인사대부 계층은 대부분 중·하 계층에 속해 경제력이 상인보다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상인들과의 경쟁에서 자신을 후원해준 후원자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김의정 외, 2019, p.313). 한편으로 문인사대부 계층은 차별화된 유람방식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문인사대부 계층만 우아한 품격을 확립을 위해서이다. 예를 들어 출행 시 ‘유구(遊具)’<sup>30)</sup>의 선정

28) 요희맹(姚希孟; 1579-1636)은 자는 맹장(孟長), 호는 현문(現聞)이고 소주부(蘇州府) 오현(吳縣)인이다. 요희맹이 겨우 10개월 때 부친이 돌아가셔서 모친 문씨(文氏)가 혼자 성인까지 키웠다. 이후 외숙부 문진맹(文震孟)과 함께 공부해 당시 명성을 얻었다. 요희맹은 만력 47년에 진사(進士)에 합격했다(<https://terms.naver.com>).

29) 以宮燈為最麗，其次琉璃，一船連綴百余，窸窣而出(潘愛平, 2014, p.206.).

30) 유구(遊具)는 옷, 신발과 모자, 장비, 음식 그릇, 문방용품, 교통수단 다섯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김



까지 구체화되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소선과 남녀(藍輿) 등 교체로 다양한 교통수단을 활용했으며, 동반자들도 서너 벗이나 종자(從者) 한 명과 수행했고, 미리 준비한 주구, 도구 등을 함께 휴대했다.

이처럼 문인사대부 계층은 추구하는 유람범위는 시내에서 외곽으로 더 먼 명승지까지 확대시켰다고 할 수 있다. 주요한 원인은 문인사대부 계층은 독특하고 전속 사대부 계층의 품위를 추구하고 확립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통해 문인사대부 계층만의 정체성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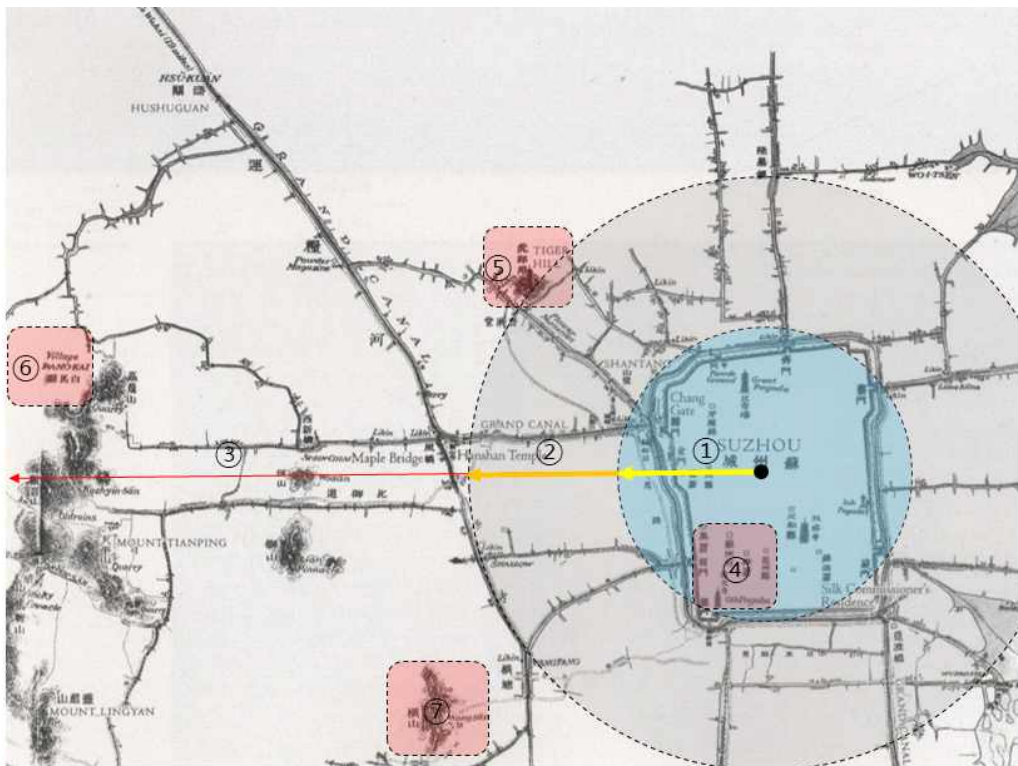


그림 2-11. ①도시유관, ②도시 외곽 유관, ③도시 외곽으로 확대된 장거리 유관, ④소주부(蘇州府), ⑤외곽 유람지인 호구탑(虎丘塔), ⑥장거리 유람지인 백마간(白馬澗), ⑦장거리 유람지인 횡산(橫山).

그림출처: 필자는 'Wen C. Fong, et al. (2008). *Landscapes Clear and Radiant: the Art of Wang Hui(王翬, 1632-1717)*. p.166.' 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음.

#### 2.2.4. 원림문화 후원

중국의 문화예술분야에서 후원자(後援者) 또는 찬조인(贊助人)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청나라 강희제(康熙帝)와 건륭제(乾隆帝)의 강남일대의 원림을 방문한 후이다. 양주지역의 염상 등을 중심으로 한 거상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화가들에 대한 후원이 이루어졌다고 했다(이행렬 외, 2009, p.23). 실제로 이러한 원림문화 후원 체계는 명나라 중기에 이미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앞서 문 씨 가문에 대해 언급했듯 문인 사대부이자 예술가인 문징명이 졸정원(拙政園) 주인 왕헌신(王獻臣)의 초청으로 시화를 우인인 왕헌신(王獻臣)에게 선물함으로써 문징명이 후원을 받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예술창작을 이어갈 수 있었다(李秀玉, 2017, p.65). 이들 사이에는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며 원림을 조영하고 아회 활동 등의 방식으로 사대부 신분의 우월감과 서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문징명을 비롯한 다른 문 씨 가문의 후손들도 서화 등에 재능이 뛰어남으로써 생활과 예술창작 측면에서 후원자들의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강조할 점은 문징명과 그 후손들이 재력에서 후원자들의 지원을 받았지만, 그들의 정신적 차원에서 강직함을 추구한 가풍으로 교제한 후원자들은 서로 뜻에 맞은 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문 씨 가문처럼 예술 재능이 뛰어난 문인 사대부이자 예술가들은 서화 등 예술적 재능을 통해 사회적 신분 인정을 받았고, 이때는 문인 사대부 간의 교제는 정치적 속성에서 더 멀어졌지만 문화적 속성은 강화되었다.

앞서 원림문화 후원 유형 중 ‘화가와 원림문화 후원’ 혹은 ‘문인 사대부 계층과 원림문화 후원’에 대해 논의를 하였고 다음으로 ‘일반 문인과 원림문화 후원’에 대해 논의했다.

문 씨 가문과 달리 일반 문인들은 일반적으로 시서화, 소설, 작곡 등을 통해 생계를 유지했다. 신분이 높은 문인사대부 계층을 ‘여유가 있는 예술가’에 빗대면 일반 문인들은 ‘직업적인 예술가’처럼 보인다. 자신의 이상과 포부를 갖는 일반 문인들이 신분이 높은 문인 사대부 계층의 삶을 동경하여 늘 문

인 사대부 계층의 생활태도와 방식을 모방했다. 일반문인들 중 전형적인 인물은 바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이어(李漁)이다.

이어를 비롯한 일반 문인 계층도 신분이 높은 문인 사대부 계층처럼 과거 시험으로 자신의 벼슬길을 개척하려 했으나 명말청초에 불안했던 사회 배경으로 인해 이러한 ‘입사관(入仕觀)’도 물거품이 되었다. 결국 이들이 이러한 정치적 신분 상승의 길을 포기하고 문화적 창조의 길로 변화하게 했다. 이것은 당시의 신분이 존귀한 문인 사대부 계층과 같은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적 창조를 추구하는 길에는 이어와 같은 일반 문인 계층이 그들과의 교유하는 사람들은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계층이 있었다. 학자인 두서영(杜書瀛, 2014)의 『이어전(李漁傳)』에 따르면 이어와 교유한 팔백 명 중 달관귀인부터 일반 문인들까지 두루 왕래한 것으로 기록했다. 이어는 생계를 위하여 그 당시 유명한 후원자에게 후원을 받기 위해 후원자와 자신과 서로 뜻에 맞는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별로 없었음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학계에서도 이어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다.

종합하면 명말청초에 신분이 높은 문인사대부 계층에서 재능이 뛰어난 일반 문인 계층까지의 공통점은 ‘정치적 포부’에서 ‘문화적 창조’로 변화하게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문화적 창조를 통해 자아 가치를 실현했다. 다만 문씨 가문을 비롯한 문인 사대부 계층은 원림문화 후원 대상자에 대해 좀 더 선택권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개인적인 취향에 맞는 문인 사대부들을 예술 분야의 후원으로 더 많이 택한다는 점이 있었다. 반대로 재능이 뛰어난 일반 문인 계층은 생계를 위해 후원자들에 대한 선택권이 없었다.

## 2.3. 조원가, 작품과 조원활동

### 2.3.1. 명말청초 유명한 저술가와 저서

명말 이전의 조원가들은 대부분 장인(匠人)의 신분이었으며 사회적으로 중시를 받지 못하는 낮은 지위에 있었다. 그러나 명말청초에 경제·문화가 발달한 강남지역의 활발한 조원 활동으로 한 가지 재주를 가진 장인들의 수요가 자연히 늘어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특히, 조원 장인 중의 첩산(疊山) 장인은 점차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중시를 받게 되었다. 그들은 원림 주인과 일반 공장(工匠) 사이에서 유대 역할을 하여 원림을 조영하는 효율을 크게 진작시켰다. 일부 문인 장인 예컨대 계성(計成)은 원림 원주인의 존경을 받았으며 원림 주인들은 기꺼이 이들을 사귀고 후원하려 했다. 조원가들은 강남지역의 변화한 도시에서 활동하며 수많은 명원(名園)을 조영하였고 축적된 조원 경험을 바탕으로 후세에 귀중한 저작을 남겼다.

조원 실천 외에 문인들의 관점에서 그 당시 물질문화나 조원 활동을 담론할 수 있는 저서들이 나타났다. 도룡(屠隆)의 『고반여사(考盤餘事)』, 진계유(陳繼儒)의 『암서유사(巖棲幽事)』, 고렴(高濂)의 『준생팔전(遵生八牋)』, 문진형(文震亨)의 『장물지(長物志)』, 이어(李漁)의 『한정우기(閑情偶寄)』 등이 대표적 저서이라고 했다. 다만 『한정우기(閑情偶寄)』는 이러한 저서들과 주제를 달리하는데, 세상 속으로 뛰어들었던 비주류 문인답게 대중화의 길로 나아갔다(표 2-1). 이어의 『한정우기(閑情偶寄)』는 보수적인 문인의 삶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문화시장에 뛰어들었던 그의 고민과 열정이 담겨 있는 일종의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었다(김의정, 2018).

다시 강조하면 도룡(屠隆), 진계유(陳繼儒), 문진형(文震亨)과 같은 저술가들의 작품들은 명나라 초기와 중기의 시대배경이나 일상생활을 반영한 것이다. 이 중 문진형의 『장물지』는 그 당시 문인사대부 계층은 지킨 품위를 대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어의 『한정우기』는 명말에서 청초로 들어와서

변화하던 사회배경을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민간 대중의 품격을 반영하였음을 할 수 있다.

표 2-1. 명말청초 유명한 저술가와 저서에 대한 요약

조원과 관련 저술가	저서명칭	저서 내용 특성
도룡(屠隆; 1543-1605)	『고반여사 (考槃餘事)』	당시에 유행한 문방청완(文房淸玩)의 멋을 개관함
진계유(陳繼儒; 1558-1639)	『암서유사 (巖棲幽事)』	산거소사(山居瑣事)에 관한 내용
진계유(陳繼儒; 1558-1639), 혹은 육소형(陸紹珩; 미상)	『취고당검소 (醉古堂劍掃)』, 다른 명칭 『소창유기(小窓幽記)』	수신(修身), 양성(養性), 치가(治家) 등에 관한 내용
고렴(高濂; 1573-1620)	『준생팔전 (遵生八箋)』	양생(養生) 저서
계성(計成; 1582-미상)	『원야(園冶)』	원림과 관한 전문 저서
문진형(文震亨; 1585-1645)	『장물지(長物志)』	명나라 초기와 중기의 시대배경을 전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저서, 원림과 관련된 내용이 풍부함
오위업(吳偉業; 1609-1672)	『장남원전 (張南垣傳)』	장남원의 첩산(疊山)에 관한 내용
이어(李漁; 1611-1680)	『한정우기 (閑情偶寄)』	명말청초 시대 배경을 전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저서, 원림과 관련된 내용이 풍부함
석도(石濤; 1642-1708)	『대척초당도 (大滌草堂圖)』 등 회화 작품	대부분 산수를 주제로 한 회화 작품
임유린(林有麟; 미상)	『소원석보 (素園石譜)』	석재와 첩산(疊山)에 관한 내용

### 2.3.2. 강남지역 활동한 조원가

위의 저술가들 중 풍부한 조원실천과 조원 관련 저작을 남긴 조원가들에 대하여 다시 고찰했다. 결과적으로 명 만력(萬曆; 1573)에서 청 옹정(雍正; 1735)까지 약 160년 동안 여섯 명의 특출한 조원가들이 있었고, 그들의 조원경험을 통해 강남지역에 많은 원림이 건설되었다. 조원가들이 태어난 순서에 따라 아래 표 2-2와 같이 정리하였다.

첫 번째 조원가는 계성(計成; 1582-1642)이다. 그는 소년시절에는 회화로 명성이 나 있었고 기이한 사물을 수집하는 것을 좋아했으며, 오대(五代) 산수화가인 관동(關仝)과 형호(荆浩)의 화풍을 선호하고 성인이 되어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서예와 회화를 팔아 생계를 유지했다. 당시에는 여행 원족의 풍조가 유행하고 있었고 계성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는 명승지를 유람하기 좋아하여 청년시절에 북경, 호남성(湖南省), 광둥성(廣東省) 등 지역을 유람하였다. 후에 강남지역에 돌아와 진강(鎮江)에 거주하면서 조원활동을 시작했다.

계성에게 있어서 조원의 발단은 우연한 기회에 가산(假山)을 만들면서 그의 재능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 후 명성이 자자해졌고 뒤로는 전문적 원림을 조영하는 일을 시작했다. 그는 가산을 만드는 것을 보고서 마땅히 자연에 존재하는 실제 산의 형태로 첩산(疊山)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직접 가산의 석벽(石壁) 공사를 완성시켰다. 그는 일생 동안 네 개의 대표적 원림을 지었고 42세 때 상주(常州)에 오우여(吳又予)를 위하여 조성한 동제원(東第園)이 있다. 명승정 5년(1632)에 왕사형(汪士衡)을 위하여 조성한 오원(寤園)이 있고, 남경의 완대성(阮大鍼)을 위하여 지은 석소원(石巢園)이 있다. 또 정원훈(鄭元勳)을 위해 양주(揚州)에 만든 영원(影園)이 있다. 안타깝게도 이 원림 유적들은 오늘날까지 보존되지 않고 있다. 만약 계성이 단지 조원활동에만 참여하였다면 많은 조원가들과 같이 이름과 전설만을 남겼을지도 모른다. 계성은 『원야(園冶)』를 승정 7년(1634년)에 출판했다. 이 저서는 그의 조원실천에서 풍부한 경험의 이론 총화이자 중국 최초의 전문적인 원림 저작으로 평가되고 있

다. 이 저서에도 도문은 풍부하며 창문, 난간, 바닥포장 등 도식(圖式) 200여 종이 그려져 있다. 또한 대구(對句)와 음조(音調)를 중시한 형식의 변체문(駢體文)으로 쓴 것은 문학적으로도 영향력이 있다. 이 저작은 크게 흥조론(興造論)과 원설(園說)로 나누어져 있다. 흥조론은 이 저작을 쓰는 목적을 서술하고 있다. 원설은 이 저작 전체의 중심부분으로 상지(相地), 입기(立基), 옥우(屋宇), 장절(裝折), 난간(欄桿), 문창(門窓), 장원(牆垣), 포장(鋪地), 철산(掇山), 선석(選石), 차경(借景)의 11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두 번째 조원가는 문진형(文震亨; 1585-1645)이다. 그는 계성보다 세 살 어리고 명문 출신이다. 그의 증조부는 문징명(文徵明; 1470-1559)이며 명나라 한림원학사(翰林院學士), 화가, 서예가였다. 심주(沈周), 당인(唐寅), 구영(仇英)과 함께 ‘명사가(明四家)’로 불린다. 증조부부터 형 문진맹(文震孟; 1574-1636)으로 대대로 조정(朝廷)에서 관직에 있었다. 이렇듯 학문과 예술로 명망이 높은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가풍(家風)의 영향을 받아 시서화(詩書畫) 물론 음악과 원림조영에도 조예가 깊었다. 문진형은 명천계 원년(1621)에 남경국자감(南京國子監)에서 학업을 마쳤고 그는 학문과 인문수양이 두텁고 시서화도 집안 대대로 전수받았다. 이후 조정의 엄당(閹黨) 박해로 험난한 벼슬길을 걸었다. 명말 홍광 2년(1645) 5월 청군이 남경을 함락하고 6월에 소주를 함락하여 문진형이 양징호반(陽澄湖畔)으로 피난할 때, 망국의 치욕으로 강에 투신하려 했으나 남에게 구조되었으며 그 후 울분으로 단식을 하고 순국하였는데 향년 61세였다. 그는 앞서 언급된 계성과 같이 명말 사회적 혼란기에 태어나 현실을 외면하기 위해 자연 산수에 애정을 쏟고, 원림 예술에 대한 독특한 견해를 갖고 조원활동에 열중하였다. 그의 조원실천의 대표작으로는 소주(蘇州) 고사항(高師巷)에 풍씨(馮氏) 폐원(廢園)을 개건(改建)한 향초타(香草垞)가 있고, 소주(蘇州) 서교(西郊)에 지은 벽랑원(碧浪園)이 있고, 남경에 조성한 수희당(水嬉堂)이 있다. 앞서 언급된 계성과 같이 문진형도 조원의 현장에 뛰어들어 많은 경험을 쌓았고, 이를 『장물지』에서 상세히 정리해 명천계 원년(1621)에 출판했다. 이 저서는 화목(花木), 수석(水石),

금어(禽魚), 서화(書畫), 기담(幾榻), 기구(器具), 의식(衣飾), 주거(舟車), 위치(位置), 소과(蔬果), 향명(香茗) 총 12가지로 구분되었다. 내용상으로는 건축, 서화, 가구, 골동, 원예, 조경, 동식물, 음식, 교통수단 등에 이른다.

세 번째 조원가는 장남원(張南垣; 1587-1671)이다. 오위업의 『장남원전(張南垣傳)』에 의하면 장련(張漣; 1587-1671)의 호는 남원(南垣)으로 송강화정인(松江華亭人)이고 중국 명말청초 조원가로 첩산(疊山)에 뛰어났다고 전한다. 어릴 때 화법을 배워 산수화를 잘 그렸고 산수화의 예술론을 조원에 응용하였다. 그는 중국 남북지역에서 50여 년 동안 활동하여 많은 원림을 조성하였는데, 송간의 이봉신(李逢申)이 주인이었던 횡운산장(橫雲山莊)을 비롯하여, 가흥(嘉興)의 오창시(吳昌時)를 위해 조성한 죽정호수서(竹亭湖墅), 가흥의 주무시(朱茂時)를 위해 만든 학주초당(鶴洲草堂), 태창(太倉)의 왕시민(王時敏)을 위해 조성한 낙교원(樂郊園) 등이 대표적이다.

네 번째 조원가는 이어(李漁; 1611-1680)이다. 이어는 평소 두 가지 뛰어난 재주가 있다고 말했다. ‘하나는 음악을 좋아해서 잘 분별하는 것이고, 하나는 정원을 만드는 것이다’ 고 했다. 이는 유명한 원림 네 군데를 직접 설계·조성했다. 그는 명순치 4년(1647)부터 명순치 8년(1651)까지 고향인 난계에서 이원(伊園)을 처음으로 조성했고, 그곳에서 도연명(陶淵明)의 행적을 따라 산림에 은거하는 삶을 살았다. 명순치 7년(1650년)에는 다시 세속으로 나와 항주 문단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활동을 이어갔다. 청강희 원년(1662) 52세의 나이에 이어는 가족을 데리고 금릉(金陵)으로 이사하였는데, 7년 후에는 그를 원림건축가로 이름을 날리게 한 개자원(芥子園)을 조영하였다. 이때 그는 『개자원화보(芥子園畫譜)』의 제작을 시작으로 『자치신서(資治新書)』, 『임옹논고(笠翁論古)』 등을 제작했고, 본 연구의 대상인 『한정우기』도 개자원에서 출판되었다. 그리고 만년이 되어 항주에 은거했을 때, 서호(西湖) 부근에 세 번째 원림인 층원(層園)을 만들었다.

다섯 번째 조원가는 석도(石濤; 1642-1708)다. 석도는 호는 청상노인(淸湘老



人), 대척자大滌子), 고과화상(苦瓜和尚)으로 법명은 도제(道濟)이다. 광서계림인(廣西桂林人)이고 그는 중국 회화 역사상 매우 중요한 인물로 회화 실천의 탐구자이자 혁신자이며 예술 이론가로 평가되고 있다. 유명 회화작품으로 대척당도(大滌堂圖)가 있고, 양주(揚州)의 오가룡(吳家龍)을 위해 조성된 편석산방(片石山房), 대척초당(大滌草堂) 등이 그의 손을 거쳐 이룩되었다.

여섯 번째 조원가는 임유린(林有麟; 미상)이다. 『철장록(哲匠錄)』에 따라 그는 자는 인보(仁甫)이고 호는 충재(衷齋)로 화정(華亭; 지금의 상해 송강)인이고 산수를 잘 그리며 소원(素園)을 조영하였고 『소원석보(素園石譜)』를 저술하였다.

종합하면 계성의 『원야』는 그의 조원실전에서 풍부한 경험의 이론 총화이자 중국 최초의 전문적인 원림 저작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원야』는 명말청초 사회배경을 전반적으로 반영하지 않았고 원림 조성 과정의 기술적 측면에만 집중적으로 기록했다. 장남원, 석도, 임유림과 같은 조원가들은 계성과 마찬가지로 풍부한 조원실전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남긴 작품들도 조원 기술적 측면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였을 뿐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전반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오직 문진형의 『장물지』, 이어의 『한정우기』 두 저작만이 원림 조성에 대하여 종합하고 체계화한 저술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두 저서가 다루는 범위가 넓고 내용이 풍부해서 당시 사람의 삶을 반영하는 ‘생활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다. 이로부터 본 연구는 두 조원가들을 선정하였고, 그들의 대표작인 『장물지』와 『한정우기』를 중심으로 명말청초 조원이론의 총결로 연구하게 되는 주요 요인이다.

표 2-2. 명말청초 조원가들·조원활동·저서에 대한 개괄

조원가	원림	조원 시기	원림 주인	위치	관련 조원 저서
계성(計成; 1582-1642)	동제원 (東第園)	1623-1624	오우여 (吳又予)	상주(常州)	『원야(園冶)』
	오원(寤園)	승정(崇禎) 5년(1632)	왕사형 (汪士衡)	강소(江蘇)	
	석소원 (石巢園)	승정(崇禎) 5년(1632)	완대성 (阮大鍼)	남경(南京)	
	영원(影園)	승정(崇禎)	정원훈	양주(揚州)	

문진형 (文震亨; 1585-1645)	향초타 (香草垞)	미상	5년(1632) (鄭元勳) 풍씨(馮氏) 폐원(廢園) 개건(改建)	소주고사향 (蘇州高師巷)	『장물지 (長物志)』
	벽랑원 (碧浪園)	미상	미상	소주서교 (蘇州西郊)	
	수희당 (水嬉堂)	미상	미상	남경(南京)	
장남원 (張南垣; 1587-1671)	횡운상장 (橫雲山莊)	명말청초	이봉신 (李逢申)	송강(松江)	『장남원전 (張南垣傳)』
	죽정호서 (竹亭湖墅)		오창시 (吳昌時)	가흥(嘉興)	
	학주초당 (鶴洲草堂)		주무시 (朱茂時)	가흥(嘉興)	
	낙교원 (樂郊園)		왕시민 (王時敏)	태창(太倉)	
	매촌 (梅村)		오위업 (吳偉業)	태창(太倉)	
	조원 (藻園)		전증천 (錢增天)	태창(太倉)	
	불수산장 (拂水山莊)		전겸익 (錢謙益)	상숙(常熟)	
	동원 (東園)		석본정 (席本楨)	오현(吳縣)	
	남원 (南園)		조홍범 (趙洪範)	가정(嘉定)	
	예원 (豫園)		우대복 (虞大復)	금단(金壇)	
이어 (李漁; 1611-1680)	이원(伊園)	순치3년 (順治三年; 1646)	이어(李漁)	난계(蘭溪)	『한정우기 (閑情偶寄)』와 『개자원화보 (芥子園畫譜)』
	개자원 (芥子園)	강희원년 (康熙元年; 1662)	이어(李漁)	금릉(金陵)	
	층원 (層園)	강희16년 (康熙十六年; 1677)	이어(李漁)	항주(杭州)	
	반무원 (半畝園)	1673	가한복 (賈漢復)	북경(北京)	
석도 (石濤; 1642-1708)	편석산방 (片石山房)	미상	오가용 (吳家龍)	양주(揚州)	『대척당도 (大滌堂圖)』
	대척초당 (大滌草堂)	1696-1697	미상	양주(揚州)	
임유린 (林有麟; 미상)	소원 (素園)	명만력 (明萬曆)	임유린 (林有麟)	강소(江蘇)	『소원석보 (素園石譜)』

## 2.4. 소결

명말청초는 일반적으로 중국 편년(編年)에 명 만력(1573)에서 청 옹정(1735)까지 약 160여 년의 시간대를 가리킨다. 본 절에서는 ‘명말청초의 시대배경’, ‘강남지역의 조원문화’, ‘조원가, 작품과 조원활동’에 대해 종합적으로 재정리하였다.

첫째, ‘명말청초의 시대배경’에 대하여 정치적 측면에서는 한족이 지배하던 명나라가 멸망하고 만주 정권이 통치를 시작으로 청나라 정권과의 교체되는 불안정한 시기였다. 명나라의 멸망은 사대부 계층에 심각한 타격이었다. 망국의 아픔은 그들로 하여금 중국 봉건사회의 문제점과 명나라 멸망의 원인에 대해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상업 경제의 발전으로 자본주의의 맹아(萌芽)라고 하는 새로운 경제 질서가 나타났다. 또한, 이 시기는 급진적 변화로 인해 다양한 흐름의 문화적이고 사상적 현상을 이끌었다. 문화적 측면에서는 명청(明清) 두 왕조의 교체로 만주족이 한민족 정권을 대체하게 됐다. 만주족을 중심으로 한 만청(滿清) 지배계급은 그들의 명나라 유교문화에 대한 존중을 강조해 왔지만, 문화충돌로 인해 끊임없이 유민의 항청(抗清) 현상이 나타났다. 사상적 측면에서는 보수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정주이학(程朱理學)과 진보적 사유체계를 갖는 양명심학(陽明心學)의 대립이 시작되었다. 뿐만 아니라 서양 학문이 동양으로 점차 유입되면서 서학동점(西學東漸)이란 새로운 문화 사조를 이루고 이는 명말청초의 변혁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조원 차원에서는 안팎의 문화 사조의 변혁은 ‘구원무격(構園無格)’의 사상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강남지역의 조원문화’에 대하여 강남지역의 풍부한 수자원은 그 일대의 수 문화를 형성하고 발전을 촉진했을 뿐만 아니라 남북의 문화 교류를 가능하게 했다고 할 수 있다. 강남원림의 발달로 명말청초가 문인원림예술의 절정을 이루고 있었으며, 문인 영원(營園)의 광범위한 전개는 전국 각지에 영향을 미친다. 문인들은 대부분 산수 주제로 한 회화에 능통했다는 점에서 산

수 회화와 원림이 밀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인 조원가들은 끊임없이 ‘시서화(詩書畵)를 중심으로 한 교양수준’, ‘첩산(疊山)과 같은 조원기술’, 그리고 ‘사회적 배경에 따른 내적 정신인 산수자연관(山水自然觀)’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자신의 인문수양을 향상시켰다. 원림을 조영한 뒤 원림에서 시회(詩會) 등의 다양한 문인 아회(雅會) 활동을 개최했음을 통해 이들은 서로 교류하고 인맥 관계를 맺게 되었고, 점차 원림문화 후원 체계까지 형성하였다. 문인 조원가들은 아집(雅集) 외에 또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산수 유람이다. 편리한 수운 교통은 당시 문인들의 산수유람 문화가 성행한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문인사대부 계층의 유람범위는 시내에서 외곽으로 더 먼 명승지까지 확대시켰다. 주요한 원인은 문인사대부 계층만의 독특하고 우아한 품위를 확립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조원가, 작품과 조원활동’에 대하여 문인 조원가들은 풍부한 실천 경험을 쌓음과 동시에 많은 원림을 조영하였다. 나아가 계성(計成)을 비롯한 일부의 문인 조원가들은 이러한 풍부한 조원 경험을 저서를 통해 체계화하고 이론화적으로 승화시켰다. 당시 사회배경을 전면적으로 반영하는 ‘생활백과사전’으로 불릴 만한 저서들이 적지 않게 나왔다. 예컨대, 도룡(屠隆), 진계유(陳繼儒), 문진형(文震亨)과 같은 저술가들의 작품들은 명나라 초기와 중기의 시대배경이나 일상생활을 반영한 저서이다. 이 중 문진형의 『장물지』는 그 당시 보수적인 문인사대부 계층은 지켜야 할 우아한 품위를 대표하는 저서이다. 반면 이어의 『한정우기』는 명말에서 청초로 들어와서 변화하던 사회배경을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민간 대중의 품격을 반영하는 저서라고 알 수 있다.

### 3. 대표 조원가 문진형·이어의 생애와 작품 활동

#### 3.1. 문진형의 생애와 작품

##### 3.1.1. 사대부 계층 문진형

###### 3.1.1.1. 명나라를 위한 순국(殉國)

문진형의 자는 계미(啟美)이고 호는 목계생(木雞生)으로 장주인(長洲人; 현재 강소성 소주인)이다. 그는 명 만력 13년(1585)에 태어나 청순치 2년(1645)에 사망했다. 그의 생애사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표 3-1).

문진형은 명문가의 일원으로 증조부인 문징명(文徵明; 1470-1559)을 비롯한 가족성원의 시서화의 조예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가 청소년 시절을 소주에 살았고 산수를 유람하고 천계(天啟) 원년(1621)에 남경(南京) 국자감(國子監)<sup>31)</sup>에서 학업을 마쳤다. 문진형은 그의 형 문진맹(文震孟)처럼 벼슬길에 순탄치 않아 여러 번 낙방으로 과거를 포기했다. 그러나 문예재능이 뛰어나 1637년에 룡주판(隴州判)<sup>32)</sup>의 직위를 받았다. 이후 승정제 주유검(朱由檢; 1611-1644)<sup>33)</sup>의 높은 평가를 받아 조정에서 거문고 작곡과 연구의 재능으로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고 무영전(武英殿) 중서사인(中書舍人)<sup>34)</sup>의 관직까지 받았다. 1640년에 조정의 엄당(閹黨)의 박해로 투옥되었다가 친구의 도움으로 풀려

31) 남경(南京) 국자감(國子監)은 명나라 홍무(洪武) 15년(1382)에 명태조(明太祖) 주원장(朱元璋) 명령에 따라 건립된 명나라 국가교육관리기구와 중국 고대 교육에서 최고의 학부(學府)로 불렸다. 그 뒤에 명성조가 북경으로 천도한 후 남경국자감으로 개칭하였다(<https://terms.naver.com>).

32) 주판(州判)은 청나라 직예주(直隸州)인 지주(知州)의 좌관(佐官)으로, 관직 등급은 7품에 해당한다. 명청 제도에 따라 지주(知州) 아래에는 통판(通判)이 설치되었고 명나라 직예주 통판은 주통판(州通判)이라 하고, 청나라에는 주판(州判)으로 약칭하였다. 룡현(隴縣)은 옛 명칭은 룡주(隴州)이고 현재 산시(陝西)성 보계(寶雞)시에 속해 있으며, 룡산(隴山)의 동쪽 언덕에 자리하고 있어 붙여진 명칭이었다. 이에 그 당시 문진형이 산시성 주판(州判)으로 재직한 것으로 추정되었다(徐連達, 1991, p.448.).

33) 주유검(朱由檢 1611-1644)은 명나라 열여섯 번째 황제이자 명나라 전국 통일정권의 마지막 황제이었다. 승정 17년(1644) 이자성(李自成)이 북경을 함락시켰을 때는 매산(煤山)에서 자살하여 종년 34세였다(<https://terms.naver.com>).

34) 중서사인(中書舍人)은 중서성(中書省)이 소속된 관원이었다. 명나라에는 중서성을 폐지하고, ‘중서성 직성사인(直省舍人)’을 ‘중서과(中書科) 중서사인(中書舍人)’으로 바꾸었다. 인원은 이십 명으로 구성되나 다만 고칙(誥敕)을 쓰는 일을 주관하며 관직 등급은 7품에 해당한다. 청나라도 이와 같은 제도이었다(徐連達, 1991, p.190.).

나 원직으로 복귀했다. 승정 15년(1642)에 조정 명령을 받아 제주(薊州)에 가서 군대를 위로한 후 고향 소주로 휴가를 가게끔 허락해 주었다. 승정 17(1644)에 귀경하려다 마침 이자성(李自成; 1606-1645)<sup>35)</sup>에 북경이 함락되어 승정제는 매산(煤山)에 목을 매 자살했고 중국을 통치한 276년 명왕조가 멸망했다. 같은 해 5월에 복왕(福王) 주유송(朱由崧; 1607-1646)<sup>36)</sup>은 남경에서 즉위하고 곧 문진형을 복직시켰지만 완대성(阮大鍼; 1587-1646)<sup>37)</sup> 등의 탄압을 받아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소주로 돌아간 문진형은 줄곧 초가에 은거했다. 1644년 오랫동안 집필하던 『장물지』가 그의 원림인 향초타(香草垞)에서 완성되었다(그림 3-1). 그 후에 순치 2년(1645) 5월에 청군이 남경을 함락하고 6월에 소주를 함락하여 문진형이 양징호반(陽澄湖畔)으로 피난했다. 하지만, 망국의 치욕으로 강에 투신하려 했으나 자살미수(自殺未遂) 뒤에 울분으로 단식을 하고 순국하였는데 향년 61세였다.

문진형의 일생을 뒤돌아보면 그의 처지가 명말 문인의 처지가 축소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동란의 시대에 그들은 한편으로는 현실을 도피하려 하면서 한편으로는 국가와 백성을 걱정하며 명왕조의 사직에 관심을 가졌다. 문진형은 명 왕조의 복국(復國)에 대한 열망도 있지만, 명왕조가 청나라로 대체된 것은 역사의 흐름으로 그의 이상 포부는 그 당시 큰 사회적 배경의 변화에 따라 허사로 돌아갔다.

35) 이자성(李自成; 1606-1645)은 명나라 말기 농민군 영수(領袖)이다(<https://terms.naver.com>).

36) 주유송(朱由崧; 1607-1646)은 남명 정권 첫 번째 황제이었다. 승정제 주유검은 자살하여 순국한 후 남명에 남명정권을 수립하였으며, 연호는 홍광(弘光)으로 재위한 지 8개월밖에 되지 않았다(<https://terms.naver.com>).

37) 완대성(阮大鍼; 1587-1646)은 자는 집지(集之), 호는 원해(圓海)·석소(石巢)·백자산초(百子山樵)이다. 1616년 진사에 급제하여 천계 연간(天啓年間: 1621-1627)에 환관 위충현(魏忠賢)의 엄당(閹黨)에 가담하여 광록경(光祿卿)이 되었으나 위충현이 실각하자 남경에 숨어 지내다가 명나라 멸망하고 복왕 주유송이 옹립되자 그 밑에서 병부상서(兵部尚書)가 되었다. 남경이 함락되자 청나라에 항복하였다. 후에 청군을 따라 선하관(仙霞關)을 공격하던 길에서 병사(病死)하였다(李紅 외,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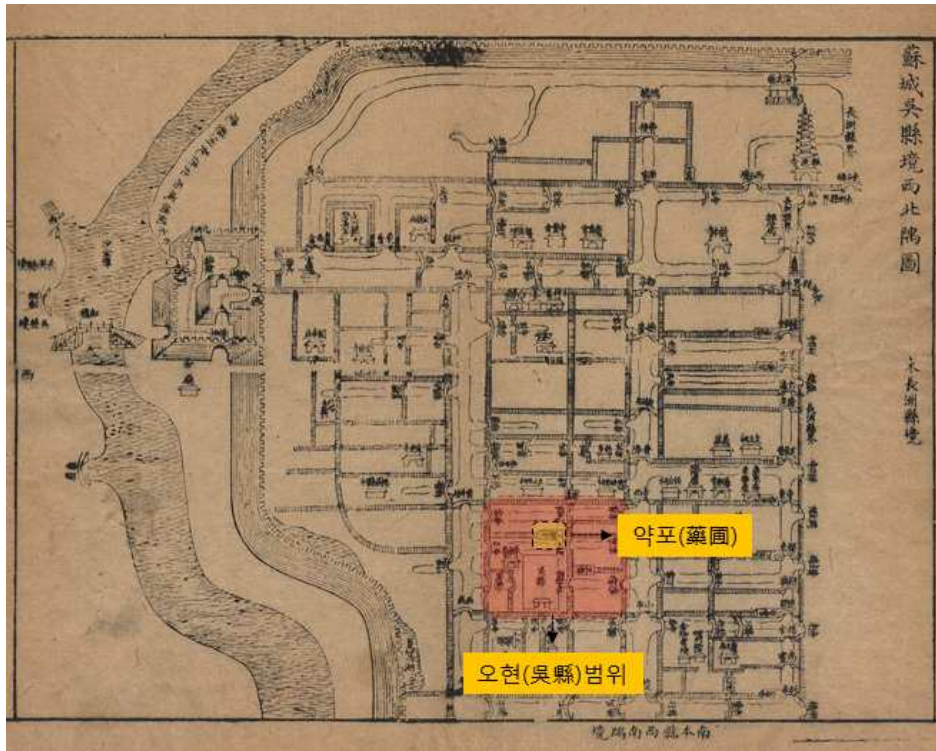


그림 3-1. [明] 우아린(牛若麟) 수찬집(修纂輯). 『오현지(吳縣志)』에 나타난 오현(吳縣)의 범위와 그의 형인 문진맹의 약포(藥圃) 위치, 그리고 문진형의 거처 추정. 명송정15년간본(明崇禎十五年刊本).  
그림출처: <https://baijiahao.baidu.com/s?id=1647052112174958565&wfr=spider&for=pc>.

표 3-1. 문진형의 연표

연도	주요 사건
1585	출생, 잠영세족(簪纓世族) 출신.
1585-1621	소주에 오래 거주, 산수유람.
1621	『장물지(長物志)』의 집필.
1621	남경(南京) 국자감(國子監)에서 학업을 마쳤음.
1622	형 문진맹은 전시(殿試)에서 장원(狀元)을 했음.
1624	낙방 후, 벼슬길이 좌절되었음.
1624-1637	산수유람.
1637	금중(禁中)에서 금서(琴書)의 재능으로 이름을 떨치고 무영전(武英殿) 중서사인(中書舍人)까지 벼슬을 했음.
1640	조정의 엄당(閹黨) 박해로 투옥되었음.
1640-1642	관직을 회복했음.
1642	명령을 받들어 계주(薊州)에 가서 군대를 위로했음. 고향 소주로 휴가를 주었음.
1644	3월 승정제(崇禎帝) 자살.
1644	완대성(阮大鍼) 등의 탄압을 받아 사직했음.
1644년 이후	고향인 소주 향초타(香草垞)에서 『장물지』가 완성되었을 것으로 추정.
1645	청나라가 고향 소주 지역을 침략해 들어왔음. 망국의 치욕으로 강에 투신하려 했으나 무위에 그쳤으며 그 후 단식을 하고 순국하였음.

참고자료: [明]文震亨 著; 陳植 校註(1984). 江蘇科學技術出版社. pp.425-428.

### 3.1.1.2. 잠영세족(簪纓世族) 출신

문진형은 ‘잠영세족(簪纓世族)’이란 문 씨(文氏) 가문 출신이었다. ‘잠영세족(簪纓世族)’은 대대로 높은 벼슬을 하는 집안을 가리키는 것이다. 문 씨 가문은 명나라 소주 지역의 명문가족으로서 문학, 서예, 회화, 그리고 전각 등에서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었다. 그의 증조부는 문징명(文徵明; 1470-1559)<sup>38)</sup>이며 명나라 중기에 유명한 화가, 서예가, 그리고 문학가였다. 심주(沈周; 1427-1509)<sup>39)</sup>에 그림을 배워 심주(沈周)와 함께 ‘오문화파(吳門畫派)’를 창시하고 심주(沈周), 당인(唐寅), 구영(仇英)과 함께 ‘명사가(明四家)’로 불렸다. 문징명의 초기 과거 길은 순탄치 않았지만 후반에 이부(吏部) 심사를 거쳐 한림원 관직으로 임용됐다. 이후 조정의 부패를 목격하고 은퇴하여 만년에 서예와 회화에 있어서는 조예가 탁월하였다. 문징명의 대표적 시작(詩作)은 『서원시(西苑詩)』, 『보전집(甫田集)』 등을 비롯해 회화 작품인 <소상팔경책(瀟湘八景冊)>, <졸정원삼십일경도(拙政園三十一景圖)>, <동원도(東園圖)> 등이 있다. 작화 중 <졸정원삼십일경도>에 나타난 원림요소에는 수경 16곳, 독거하는 고사(高士) 14곳, 소나무 5곳, 대나무 숲 4곳 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총 39개의 경관 중 수경을 화면으로 구성하고 있는 경관이 16경인 것으로 졸정원(拙政園)이 수경을 주요 공간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李秀玉, 2017, p.37). 문징명의 풍부한 문학 창작은 강남 일대 탄탄히 명망을 가지게 됐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문징명을 비롯한 문 씨 가문은 당시 소주의 영향력이 다음 시문에서도 증거를 찾을 수 있었다.

‘집안의 선친(先親) 문징명(文徵明)은 온순하고 인정이 두터우며 예스럽고 질박한 풍류로 소주에서 으뜸이었으며, 거의 백년이 다 되도록 차례로 전해져 가문의 명성이 향기롭게 멀리 퍼졌다. 시 속의 그림이고 그림 속의 시

38) 문징명(文徵明; 1470-1559)은 명나라의 서화가이자 문인으로 자는 징명(徵明), 호는 형산(衡山)이다. 문인 화가들의 유파인 오파(吳派)의 중심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회화, 서예 등에 뛰어났다(臺灣中央圖書館 編, 1987).

39) 심주(沈周; 1427-1509)는 자는 계남(啓南), 호는 석전(石田)으로 스스로 석전옹(石田翁)으로 불렀고 장주(長洲)인이다. 명나라 회화의 대가, 오문화파(吳門畫派)의 창시자로 명사가(明四家)라고도 한다. 산수·화훼·금어 등을 즐겨 그렸으나, 특히 산수화에 뛰어났다(<https://terms.naver.com>).



로서, 소주 지역에서 교묘한 사고와 오묘한 솜씨를 다 발휘해도 결국에는 그 대 집안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sup>40)</sup>

그의 조부는 문팽(文彭; 1498-1573)<sup>41)</sup>이며 부친은 문원발(文元發; 1529-1605)<sup>42)</sup>이며 형 문진맹(文震孟; 1574-1636)으로 대대로 조정에서 관직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가문의 농후한 문화 훈도로, 그들은 문예에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형 문진맹은 그의 가문에서 관직이 가장 높았다(그림 3-2). 문진형이 어려서부터 가문의 주목을 받았지만, 벼슬길도 순탄치 않았고 여러 차례 시험에도 떨어졌다. 최종 천계 2년(1622)에 전시(殿試)에서 장원(狀元)<sup>43)</sup>에 급제했다. 그 당시에 한림원에서 저서편찬이 수여되었다. 그 집안의 강직한 가풍을 영향을 받아 몇 번에 걸쳐 위충현(魏忠賢; 1568-1627)<sup>44)</sup>을 비롯한 엄당에게 탄핵당하고 결국 고향으로 돌아갔다. 문진맹은 조상의 문학적 조예보다 국가의 사직에 대한 책임과 사대부의 기백을 더 많이 지니고 있었다.<sup>45)</sup> 이렇듯 학문과 예술로 명망이 높은 집안에서 태어난 문진형은 가풍(家風)의 영향을 받아 간직한 인품 물론 시서화, 음악과 원림조영에도 조예가 깊었다.

문 씨 가문은 강남 일대에서 명문 귀족에 속했으나 국가 내외의 환이 빈발했고 특히 명말청초의 교체로 전란이 지속되면서 사회 곳곳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때의 명가들도 가도중락(家道中落)이 되었다. 특히 대량의 예술 소장품의 세수(世守)가 어려워졌고, 다른 귀족들에게 저당했거나 팔아야만 자금을 빠

40) 余因語啟美，君家先嚴徵仲太史，以醇古風流，冠冕吳趨者，幾滿百歲，遞傳而家聲香遠。詩中之畫，畫中之詩，窮吳人巧心妙手，總不出君家譜牒(김의정 외, 2017, p.32.).

41) 문팽(文彭; 1498-1573)은 자는 수승(壽乘), 호는 삼교(三橋)로 문징명의 장자이다. 장주(長洲; 지금의 강소성 소주)인으로 남경 국자감(國子監) 박사(博士)를 지냈다. 서화를 공부했고, 특히 전각과 부시를 잘 해서 『박사시집(博士詩集)』을 남겼다(臺灣中央圖書館 編, 1987).

42) 문원발(文元發; 1529-1605)은 자는 자배(子排), 호는 상남(湘南)으로 문징명의 손자, 문팽의 장자이다. 장주(長洲; 지금의 강소성 소주)인으로 학포재(學圃齋)를 지었다. 시사를 잘 해서 『학포재수필(學圃齋隨筆)』, 『난설재집(蘭雪齋集)』을 남겼다(臺灣中央圖書館 編, 1987).

43) 과거시험은 제1위를 ‘원(元)’으로, 향시 1위는 ‘해원(解元)’, 회시 1위는 ‘회원(會元)’으로 부른다. ‘전시(殿試)’에서 제1위로 합격한 사람을 장원(狀元)이라 부른다(<https://dict.naver.com>).

44) 중국 명나라 말기의 환관(宦官)으로 희종(熹宗)의 충애를 받아 비밀경찰인 동창(東廠)의 수장(首長)이 되었고, 동림당(東林黨) 관료를 탄압하며 정치를 농단(壟斷)하여 명나라의 멸망을 촉진하였다(<https://dict.naver.com>).

45) 剛方貞介，有古大臣風，惜三月而斥，未竟其用(『明史』).

르게 회전하거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張長虹, 2010, p.218). 문 씨 가문이 문진형에 이르러 증조부 문징명처럼 넉넉하게 생활할 수 없었다. 그들은 평소 교유(交遊)하는 귀족들에게 글과 그림을 증여하여 후원을 받는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문진형 같은 명말의 문인 사대부들은 명나라 초기에 국가와 가문의 번영에 대한 향수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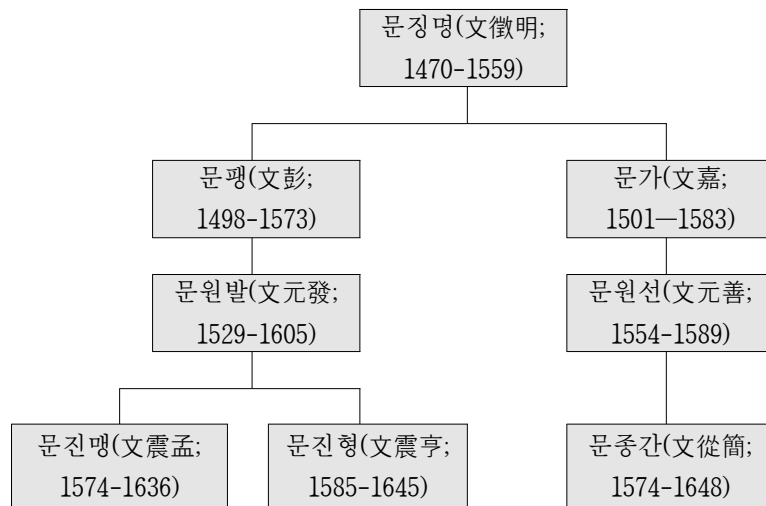


그림 3-2. 문 씨 가문의 주요 인물들.

### 3.1.1.3. 교유(交遊)와 주요 문예활동

문진형은 가문의 명망과 뛰어난 재능으로 당시 교유(交遊) 범위가 넓었다. 예를 들어 남경에서 일 여년을 보내면서 완대성(阮大鍼) 등과 왕래했다. 완대성은 명말 무렵에 중요한 인물이라고, 대부분 조원가가 그와 교제하여 후원을 받았었다. 예컨대, 조원가인 계성은 후원을 받아 완대성을 위해 석소원(石巢園)을 설계하였고 그는 나중에 『원야』의 서(序)를 쓰기도 했다. 이 외에 조원가 장남원과 이어는 모두 완대성과 왕래가 있었다고 했다.<sup>46)</sup> 문진형은 그의 시집인 『문생소초(文生小草)』 「완집지선생초집대국(阮集之先生招集對菊)」에서도 그와 완대성(阮大鍼) 사이를 시문으로 기록했다.

泛交於我竟何關 일반적인 교제는 나[문진형]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獨喜從公水石間 혼자서 당시[완대성]과 산수를 유람하는 것을 좋아한다  
(문진형, 『문생소초(文生小草)』).<sup>47)</sup>

시에서 알 수 있듯이 완대성(阮大鍼)과 교제를 하고 산수를 유람하는 것은 문진형이 매우 유쾌한 일이었고, 그만큼 두 사람은 당시 친분이 두터웠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후 주유송(朱由崧)이 남경에 세운 조정에서는 완대성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동림당(東林黨) 일원으로서의 문진형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이로써 두 사람은 결별했다.

문진형은 문예 재주가 넘쳤고 문학창작, 회화, 악보와 원림 조영에 대하여 모두 연구가 있었다. 저서로는 『장물지(長物志)』, 『향초시선(香草詩選)』, 『문생소초(文生小草)』, 『이노원집(怡老園集)』 등이 있었다. 회화로는 <추산수사도(秋水山榭圖)>, <운산책장도(雲山策杖圖)>, <종남관폭도(終南觀瀑圖)>, <백악유도권(白嶽遊圖卷)>, <당인시의도책(唐人詩意圖冊)>, <유령한거(幽嶺閑居)>, <산수도(山水圖)>선면, <행화도(杏花圖)>선면 등, 악보창작으로는 『금보(琴譜)』<sup>48)</sup>, 원림 조영으로는 향초타(香草垞)<sup>49)</sup>, 벽랑원(碧浪園) 등이 있었다. 이 중에서도 특히

46) [https://www.sohu.com/a/154045862\\_753114](https://www.sohu.com/a/154045862_753114).

47) 毛艷秋(2019). 明代蘇州文氏家族筆記研究. 黑龍江大學碩士學位論文. p.35.

48) 문진형은 거문고 작곡과 연구에 재능이 뛰어나 『금보(琴譜)』까지를 창작했다(謝華, 2010, p.18.).

작곡과 거문고 연주에 재능이 뛰어나 당시 재위한 승정제(崇禎帝)의 인정을 받았다. 당시 승정제가 재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100여 개의 거문고가 있었는데, 아무도 악보창작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문진형의 고향 벗인 양송선(楊崇善)은 문진형에게 작곡을 요청한 후 승정제에게 바쳤다. 승정제는 문진형이 창작한 곡을 보고 매우 기뻐했고, 그를 금중(禁中)에서 중서사인(中書舍人)으로 임명하였다. 이를 통해 그가 작곡과 연주에 재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고금(古琴)은 중국 전통 악기의 대표로서 수신(修身)하는 함의를 부여받았다. 고금은 그 당시에 승정제의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대부 문인 아사(雅士)들의 사랑을 받았다(余皓, 2015, pp.42-45). 중국 원림회화 작품에서도 문인들의 아집(雅集) 활동에서 거문고를 타는 장면으로 자주 등장되곤 하는데, ‘이금회우(以琴會友)’도 문인들의 사상 교류의 하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유사하게 한국 조선시대에도 문인들은 거문고를 연주하는 방식으로 교우하거나 지인(知音)을 배웅하는 기록이 적지 않았다.<sup>50)</sup> 이 외에 앞서 그의 생애사에서 언급했듯 소년 시절 산수 유람을 즐겼던 그가 향유 산수 회화 작품을 많이 창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중 문진형은 그의 형 문진맹과 함께 <산수화> 선면을 그림 3-3과 같이 완성하였다.

또한, 그는 왕희지(王羲之)의 <쾌설시청첩(快雪時晴帖)>(그림 3-4)에 발문하기도 했다. 내용에 따르면

나[문진형]는 이 첩(貼)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며, 원림에 정자의 이름을 짓는 것조차도 ‘쾌설(快雪)’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야 하고, 날씨가 화창할 때마다 손님과 함께 이를 하루 종일 감상하여도 싫증나지 않을 것이다.<sup>51)</sup>

위의 시문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정자의 이름을 짓는 것조차도 ‘쾌설’로

49) 향초타(香草垞)는 문진형의 고향인 소주에 위치하여 이곳은 본래 풍씨(冯氏) 집안의 폐원을 개조한 것으로, 원림에는 선연당(嬋娟堂), 수협당(綉狹堂), 농아각(籠鵲閣), 중향 랑(众香廊), 사월랑(斜月廊), 소대(嗽臺), 옥국재(玉局齋), 교가(喬柯), 기석(奇石), 방지(方池), 곡소(曲沼), 침상(魚床) 등의 다양한 원림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박희성 외, 2016, p.82).

50) 『증별권반금(贈別權伴琴)』에 따르면 한국 최고의 정원가인 고산 윤선도는 57세 때 해남 금쇠동에서 거문고를 연주하는 방식으로 벗인 권반금(權伴琴)과 작별했다(성종상, 2010, pp.30-31).

51) 極珍重此貼，築亭貯之，即以快雪名。每風日晴美，出示客賞玩，彌日不厭(왕희지王羲之, 쾌설시청첩快雪時晴貼).

명명할 정도로 왕희지(王羲之)의 <쾌설시청첩(快雪時晴帖)>에 대한 애정을 알 수 있다. 즉, 문진형은 이 첩(帖)에 대한 소중함과 사랑을 충분히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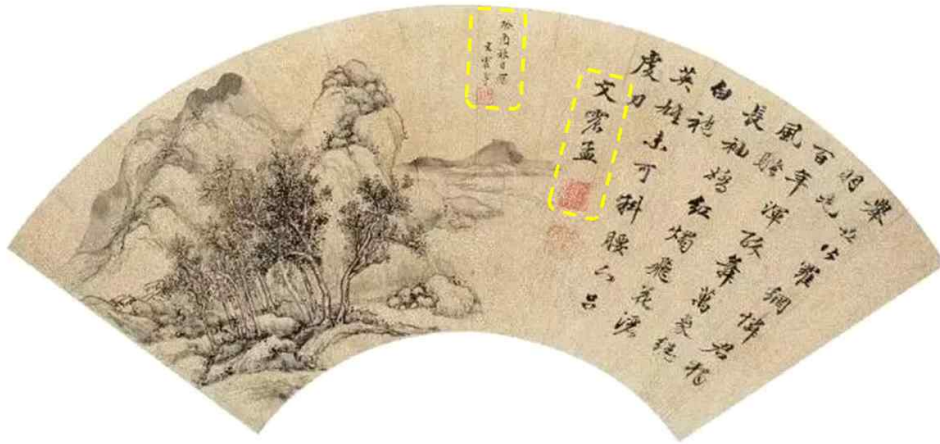


그림 3-3. <산수도(山水圖)>선면에 나타난 문진형의 작화(作畵)와 문진맹의 작시(作詩).  
그림출처: 미국가주대학백극래분학미술관(美國加州大學伯克萊分校美術館)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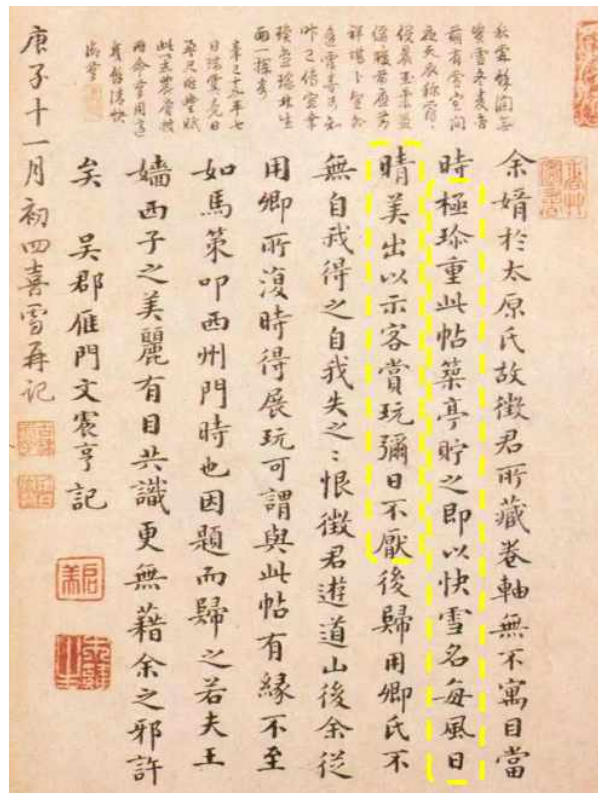


그림 3-4. 왕희지(王羲之)의 <쾌설시청첩(快雪時晴帖)>에 나타난 문진형의 제발(題跋).  
그림출처: [http://www.360doc.com/content/17/0427/17/28367213\\_649138851.shtml](http://www.360doc.com/content/17/0427/17/28367213_649138851.shtml).

### 3.1.2. 향초타(香草垞)를 중심으로 한 조원활동

문 씨 가문은 시서화 뿐만 아니라 조원에 대한 조예가 깊다고 전했다. 문진명의 부친인 문림(文林; 1445-1499)<sup>52)</sup>은 정운관(停雲館)을 지었고, 문징명은 정운관(停雲館) 옆에 옥경산방(玉磬山房)을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졸정원(拙政園)의 설계와 조성에도 참여했다. 그 후에 그의 자손들은 역대로 원림을 만들었다. 특히, 문징명의 증손인 문진맹이 설계하고 만든 약포(藥圃)는 기본적으로 문 씨 집안의 스타일을 유지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약포의 주인이 바뀌어 원림 명칭을 예포(藝圃)로 바꿨지만, 전체적인 구조와 스타일은 그대로였다. 문 씨 가문 성원들은 조영한 원림 중 지금 남아 있는 원림으로는 문징명이 설계하고 조영한 졸정원(拙政園), 문진맹이 소유한 약포(藥圃)가 있었다. 그러나 다른 가족 성원들이 만든 원림은 지금 보존되지 않았다.

문 씨 가문의 후손인 문진맹과 문진형은 형제로써 분명히 품위나 정취(情趣) 차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먼저 원림의 명칭만으로도 알 수 있듯이 문진형의 향초타의 ‘향초(香草)’는 그의 형인 문진맹의 약포(藥圃)와 유사한 점이 있었다. 모두 일종의 고상한 절조를 상징한다. 둘째, 문진형의 향초타에 선연당(嬋娟堂), 수협당(繡缺堂), 농아각(籠鵝閣), 옥국재(玉局齋), 소대(嘯臺)의 건축물을 건설하고, 중향랑(眾香廊), 사월랑(斜月廊), 학서[鶴棲: 은거처], 녹채[鹿砦: 울타리], 어상[魚床: 물고기 서식처가 있는 침상], 교가[喬柯: 키 높은 나무]와 기석(奇石)과 같은 원림요소들을 두었다(王煥如, 1990; 馮桂芬, 1991). 문진맹의 약포에 박아당(博雅堂), 향월랑(響月廊), 사기헌(思嗜軒), 향초거(香草居), 조상청(朝爽廳), 유어정(乳魚亭), 애연와(愛蓮窩) 등이 있었다(林源 외, 2013). 이 가운데 향초타의 사월랑(斜月廊)은 약포의 향월랑(響月廊)과 유사한 점은 모두 달맞이 장소라는 것이다. 향초타 내부의 원림요소 명칭은 명나라 초기 유각(劉珏; 1410-1472)의 『기오원십경(寄傲園十景)』이라는 시의 제목을

52) 문림(文林; 1445-1499)은 자는 종유(宗儒), 자호는 형산(衡山)으로 문징명의 부친이다. 저서로는 『문온주집(文溫州集)』, 『낭야만초(瑯琊漫鈔)』이 있다(臺灣中央圖書館 編, 1987).

빌린 것으로 확인되었다(郭明友, 2013; 雲嘉燕, 2019). 시 중 ‘사월랑(斜月廊)’에 대해 아래와 같이 묘사했다.

廊傳踏月久 사월랑에서 상월(賞月) 사람의 발소리가 오랫동안 전해졌고  
 更獲此為奇 더욱 기묘한 풍경이 느껴졌다  
 不在照能遍 달빛이 온 뜰을 비추지 않다 해도 상관없고  
 無妨影乍欹 달그림자가 기울어져도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檻承花始韻 난간의 꽃이 피면 더욱 운치가 있어 보이고  
 檐閣樹微虧 누각 처마 옆의 나무는 약간 사랑살랑하다  
 何以添幽致 어떻게 하면 그윽하고 고요한 정취를 더할 수 있을까  
 恰當弦上時 마침 거문고 줄에서 나타난 음처럼 가장 적합하네

위의 시를 통해 두 형제의 고상한 절조, 옛 명 왕조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났다. 문진형의 향초타(香草塔)는 그가 풍 씨(馮氏)의 폐원(廢園)을 개건해 만들었다고 전해지는데 오늘날에는 소주에서 그 유적을 찾아볼 수 없다. 문진형은 사회적 혼란기에 처한 명말 시기에 현실을 외면하기 위해 자연산수에 애정을 쏟고, 원림 예술에 대한 독특한 견해를 갖고 조원활동에 열중하였다. 이 가운데 고향인 소주에 있는 개인 가원(家園)인 향초타는 그의 ‘피세[避世: 세상을 피하여 숨음]’ 하는 마음의 향만이라고 할 수 있다. 향초타 내부의 아름다운 경치에 대해 명나라 고령(顧苓; 1609-1682)의 『탑영원집(塔影園集)』에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물이 맑고 나무가 무성하며, 건축물과 난간이 아름답고 오중 명승지(名勝地)라고 할 만하다.<sup>53)</sup>

위의 내용을 통하여 그 당시에 문진형이 거주했던 향초타 내부에 원림요소들이 매우 조화롭게 이루어져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는 때로는 향초타에 독처(獨處)하고, 때로는 벗들과 함께 원림을 유람하면서 원림문화를 즐기기도 하였다. 이를 통하여 원림은 그에게 사적 성찰하는 공간이자 원림문화를

53) 水木清華，房櫳窈窕，闌闕中稱名勝地(鄧長風, 1995).

향유하는 공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향초타 외에 그에게는 또 다른 두 곳의 원림이 있었다. 하나는 소주 서교(西郊)에 조영한 벽랑원(碧浪園)이고, 다른 하나는 남경에 조성한 수희당(水嬉堂)이었다(표 3-2와 그림 3-5).

표 3-2. 문진형이 조성한 원림

원림 명칭	위치	원림요소에 대한 묘사
향초타 (香草垞)	소주고사항 (蘇州高師巷)	선연당(嬋娟堂), 수협당(繡鉞堂), 농아각(籠鵝閣), 옥국재(玉局齋), 소대(嘯臺), 중향랑(眾香廊), 사월랑(斜月廊), 학서[鶴棲: 은거처], 녹채[鹿砦: 울타리], 어상[魚床: 물고기 서식처가 있는 침상], 교가[喬柯: 키 높은 나무], 기석(奇石)
벽랑원 (碧浪園)	소주서교 (蘇州西郊)	입지가 조용하고 환경이 깨끗하며,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것은 그림 속에 있는 것과 같다. <sup>54)</sup>
수희당 (水嬉堂)	남경(南京)	



그림 3-5. 문진형의 출생지 및 주로 조원활동 영역  
사진출처: 필자는 'https://www.google.com/maps'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음.

54) 位置清潔，人在畫圖(海軍 외, 2004, p.3).



## 3.2. 이어의 생애와 작품

### 3.2.1. 시정(市井) 계층 이어(李漁)

#### 3.2.1.1. 현실돌파의 일생

이어의 자는 입홍(笠鴻), 적범(謫凡)이고 호는 입옹(笠翁)이고 이밖에도 호상입옹(湖上笠翁), 수암주인(隨庵主人) 등의 별호가 있었다. 명 만력(萬曆) 39년(1611)에 강소성(江蘇省) 여고(如皋)에서 태어나 청 강희(康熙) 19년(1680)에 사망하였다(표 3-3).

소년 시절에 이어는 넉넉한 가정 환경 덕분에 공부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부지런하여 뛰어난 문학적 재능을 보인다. 그는 자신의 집 문 앞에 오동나무를 한 그루 심었다가 새해가 되면 그 오동나무에 시를 새기며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도록 격려했다. 그러나 이어가 열아홉 되는 해인 숭정(崇禎) 2년(1629)에 이어의 부친이 병사하여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였다. 이어는 본적 절강성 난계로 돌아와 거주했다. 그 사이에 난계 서촌(徐村) 서 씨(徐氏)를 아내로 맞아들였고, 서 씨는 농가 출신으로 사당에서 교육 받은 적은 없지만 마음이 착하고, 이어가 시문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한 ‘산처(山妻)’는 서 씨를 지칭한 것이다.

이어는 25세가 되던 해 명승정 8년(1635)에 처음 동시(童試)<sup>55)</sup>을 치러 절강성 금화(金華)에 갔다. 수재(秀才)<sup>56)</sup>에 합격했고 당시 절강성 제학(使學) 부사였던 허태(許豸; 미상)<sup>57)</sup>에게도 칭찬을 받았다. 수재를 얻은 뒤 4년째인 명승정은 12년(1639)에 향사(鄉試)를 치러 항주(杭州)로 갔는데 결국은 낙방했다. 그로부터 3년 뒤 숭정 15년(1642)에 명왕조가 치른 마지막 향시를 위하여 이

55) 청나라 과거제도는 동시(童試), 향시(鄉試), 회시(會試), 전시(殿試)의 네 부분을 포함한다. 동시(童試)는 청나라 과거 시험의 첫 번째 부분이다(<https://www.zdic.net/>).

56) 수재(秀才)는 학문(學問)과 재능(才能)이 매우 뛰어난 사람을 가리킨다. 중국 관리(官吏)를 채용(採用)할 때 시험 하던 과목(科目)이다. 후한(後漢) 때에는 광무제(光武帝) 유수(劉秀)의 휘를 피하여 무재(茂才)라 하였다. 명청 시기에 이르러서는 부학(府學)·주학(州學)·현학(縣學)의 생원(生員)을 ‘수재’라고 불렀다(徐惠堉 1991, p.515).

57) 허태(許豸; 미상)는 자는 옥사(玉史)이며 명승정 말기에 진사(進士)이다. 관리가 되는 동안에 백성들을 위해 독을 썬아 홍수에 대비하였다. 당시에 이어는 생활이 어려워,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俞為民, 2004, p.30).

어는 다시 항주에 가서 응시했지만, 이때는 이미 전란으로 정세가 어수선하고 불안하여 중도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이어가 어릴 때부터 벼슬을 하겠다는 꿈도 물거품이 됐다. 이후 명승정은 17년(1644) 명청 교체라는 큰 동란 시기가 시작되었다. 이자성(李自成)의 농민봉기군은 북경을 공략해 명 왕조를 무너뜨렸고, 얼마 후 청군이 북경을 점령해 만주 왕조를 세웠다. 이때의 전란은 강남 일대까지 번졌다. 이어는 전쟁 시절에 백성들이 겪는 극심한 재난을 직접 느끼고 자신의 거쳐마저 전쟁의 불길에 부서져 전란의 고통을 몸소 맛본 셈이다. 청순치 3년(1646)에 청군이 금화를 함락시켰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청 왕조는 전국을 통일했다. 전란 후에 이어는 난계 하이촌(夏李村)으로 돌아갔다. 이때 한편으로는 전란을 겪었기 때문에 이어는 공명에 대해 이미 의기소침해졌다. 다른 한편으로는 청 왕조에 들어가 이어는 벼슬하지 않겠다고 했고 은거하게 됐다. 그러다 친구의 도움으로 이산(伊山) 종사 뒤편에 땅을 하나 사서 초가집을 만들어 거주하였다. 초가집은 비록 누추하지만 이어는 ‘이산별업(伊山別業)’, ‘이원(伊園)’이란 명칭을 지었다.

이산별업은 곧 이원이며, 이어가 그 조원의 재능을 보여준 최초의 걸작이다. 이원은 ‘이산의 기슭에 위치하여 물을 가까이하고 땅의 지세에 따라 알맞게 설계되었다’<sup>58)</sup>고 할 수 있다. 원림 안에 그의 독창적인 설계를 통하여 당·현·랑·교 등의 원림요소들을 교묘하게 결합하였다. 그는 『이원잡영(伊園雜詠)』에서 이원 안에 완전교(宛轉橋)·정가(停舸)·연우당(燕又堂)·완재정(宛在亭)·타과헌(打果軒)·섬영(蟾影)·답영랑(踏影廊)·래천조(來泉竈) 등 다양한 원림요소들이 있었다. 그밖에 그는 원림 안에 방지도 설계했다.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方塘未敢擬西湖 정원 안에 방지가 어찌 감히 서호와 비길 수 있겠는가  
 桃柳曾栽百十株 복숭아나무와 버드나무는 백십 그루가 일찍이 연못가에 심어졌다  
 只少樓船載歌舞 다만 누선과 가무가 부족할 뿐이고  
 風光原不甚相殊 사실 정원 안의 풍경은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

58) 伊山在灤之西鄙，輿誌不載，邑乘不登，高才三十余丈，廣不溢百畝，無壽松美箭，詭石飛湍足娛悅耳目，不過以在吾族即離之間，遂買而家焉(杜書瀛，2014).

이곳의 연못가의 붉은 복숭아나무와 푸른 버드나무의 녹색은 『원야』에서 ‘도류성계와 누대입화[桃柳成蹊와 樓臺入畫: 복숭아나무와 버드나무는 연못가에 심어졌고, 누각과 같이 한 폭의 그림 같다]’와 유사하고 하였다. 이 정원은 조출한 구성이지만 시골의 정취가 물씬 풍겨 자연의 ‘산수여도(山水如圖)’와 ‘조어화향(鳥語花香)’<sup>59)</sup>을 만끽할 수 있다. 『이원잡영(伊園雜詠)』, 『이원십편(伊園十便)』, 『이원십이의(伊園十二宜)』 등 수십 편의 시가 이원 안에서 완성되었다. 그도 당나라 시인 왕유의 망천별업(輞川別業)을 본떠 산림 속에 은거하려 했다.<sup>60)</sup>

그의 『이원십이의(伊園十二宜)』에서 이원 안에 열두 가지의 적당한 것[十二宜]에 대해 언급했다. 그밖에 『이원십편(伊園十便)』에서 이원 안에는 열 것의 편익한 생활 양상이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경작, 과농(課農), 낚시, 관원(灌園), 급수(汲水), 채초(采樵), 방야(防夜), 읍기, 조망 등이다. 이 중 가장 흔한 일이 낚시이다. 이어의 대다수 시구 중 물고기, 낚시, 어부 등의 경관을 묘사했다. 이어는 이원에서 신선처럼 살았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또한 정원에서의 자신의 이런 한가한 정취를 시로 써서 시우(詩友)들에게 보냈다.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山麓新開一草堂	산기슭에 새로 초당을 지었고
容身小屋及肩牆	몸을 수용할 수 있는 작은 집과 어깨까지 오는 낮은 담장이 있다
閑雲護榻成高臥	침대에 누워 하늘에 한가로운 구름을 올려다보고 있고
靜鳥依人學坐忘	새는 조용히 곁에 있어 이미 잊었고
酒在鄰家呼即至	이웃에서 술을 마시자고 외치면 바로 도착하고
果生當面看猶嘗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니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구나
高朋若肯閑相踏	친구들이 만약 한가로이 방문해온다면
趁我苔痕未滿廊	이끼를 타고 아직 복도를 가득 차지 않았을 때 좋다

59) 조어화향(鳥語花香)이란 새는 노래하고 꽃은 향기롭다[淸], 李漁, 『比目魚・肥遁』.

60) 此身不作王摩詰, 身後還須葬輞川(杜書瀛, 2014).

위의 시를 살펴보면 정원 안에는 신설된 초당이 있고, 주렁주렁 달린 과일 나무도 있어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게 하고, 귀여운 이끼가 낀 복도도 있다. 이어가 혼자 있을 때는 ‘한운(閑雲)’과 ‘정조(靜鳥)’와 친구가 된다. 이웃과 함께 술을 마실 때가 있고, 친구들이 한가로이 방문해온 때도 있다. 이 시의 내용을 통하여 이어의 이원 안의 생활은 너무나 한가롭고 편안함을 알 수 있다. 이원에 은거하여 생활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어에게는 그 동안의 생활은 너무나 즐겁고, 훗날 도시로 이주한 뒤에도 종종 회상하였다.<sup>61)</sup>

뿐만 아니라 하이촌(下李村) 이원에서 사는 동안에 하이촌의 공익사업에 매우 관심을 가지고 그의 발의로 돌둑을 건설하여 부근의 두 개 시냇물을 연결하고 수로를 뚫었다(그림 3-9). 또 마을 부근에서 연못을 파고 개울물을 끌어들이었다. 이러한 수리 공사의 건설은 현지의 농지 관개와 사람들의 식수 문제를 크게 개선시켰다. 이들 공사 시 이어는 현지답사를 하며 구체적인 설계까지 참여했다. 이로 인해 그는 시골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청순치 8년(1651)에 그는 마흔 한 살 때 죽인들에 의해 사당총리(祠堂總理)로 추대되었다. 뿐만 아니라 마을 근처에는 통행자들의 휴식을 위한 ‘차정정(且停亭)’이라는 정자 하나를 지었다(그림 3-6, 그림 3-7, 그림 3-8).<sup>62)</sup> 또한, ‘차정정(且停亭)’에는 이어가 친필로 쓴 대련이 있다.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名乎利乎	공명을 추구하든 이익을 추구하든
道路奔波碌碌	사람들은 모두 도로에서 분주(奔走)한다
來者往者	오가는 사람들은
溪山清靜且停停	일단 걸음을 멈추고 조용한 개울 옆에서 휴식을 취하시오

시문에서 보듯이 이어가 이 정자를 지은 목적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이다. 하이촌(下李村)에 사는 동안 그는 여유롭게 살면서도 향리사회를

61) 後此則徙居城市，酬應日紛，雖無利欲薰人，亦覺浮名致累。計我一生，得享列仙之福者，僅有三年(선근형, 1988, p319.).

62) 裏之北有且停亭，笠翁公所造也。觀其地有伊山環拱屏障於後，清流激湍回環左右，便行人之往來，故作亭於其上，名為十濟庵且停亭，備十景也(『光緒蘭溪縣志·卷三』).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잊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산림 속에 은거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공을 세우고 업적을 쌓고 싶어 했던 것으로 엿보인다. 다시 말하면 내면의 출사(出仕)의 생각이 여전하고, 이것이 하이촌(下李村) 이원(伊園)을 떠나게 된 원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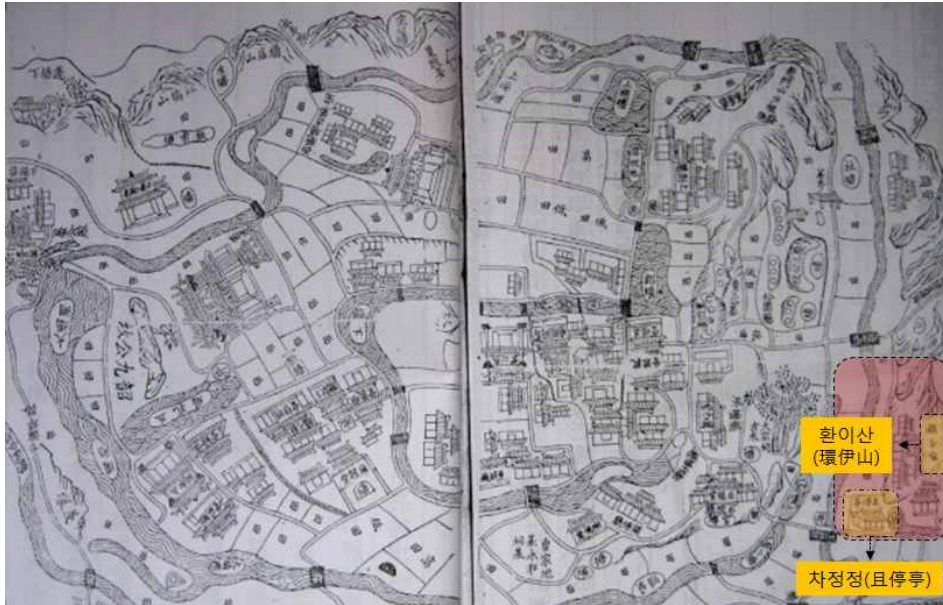


그림 3-6. 하이촌의 풍수(風水) 위치도, 이산(伊山)과 차정정(且停亭)의 위치.

그림출처: [https://www.sohu.com/a/276353375\\_775922](https://www.sohu.com/a/276353375_775922).



그림 3-7. 이산(伊山)에서 차정정(且停亭)을 향해 바라보는 하이촌(下李村)의 전경.

사진출처: [https://www.sohu.com/a/276353375\\_775922](https://www.sohu.com/a/276353375_775922).



그림 3-8. 현재 차정정(且停亭)의 모습.  
사진출처: [https://www.sohu.com/a/139570433\\_155324](https://www.sohu.com/a/139570433_155324).



그림 3-9. 현존하는 돌독의 모습.  
사진출처: [https://www.sohu.com/a/276353375\\_775922](https://www.sohu.com/a/276353375_775922).



청 순치 8년(1651) 후에 그는 직접 조영한 이산별업을 팔고 온 가족을 데리고 항주로 이주해 ‘매부호구(賣賦糊口)’<sup>63)</sup>라는 생계수단으로 생활을 시작했다. 그의 시문보다는 희곡 극본과 소설이 더 널리 퍼져있으며 당시 사회의 폭넓은 수요에 부응했다. 희곡과 소설의 성격을 살펴보면 공연 형식과 생생한 스토리가 대중의 취향에 맞는 하나의 오락 형식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 시기에 『련향반(憐香伴)』, 『풍쟁오(風箏誤)』, 『의중연(意中緣)』 등 소설을 창작했다. 항주에서 7, 8년 정도 살았던 이어는 생계를 위해 희극 극본이나 소설작품을 팔면서 그 당시 ‘서령십자(西泠十子)’<sup>64)</sup>로 칭한 육기(陸圻; 1614-?) 등을 비롯한 많은 명사들과 왕래하기도 했다. 그는 독출(獨出)한 재능과 인맥으로 점점 문단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러나 그가 돌연 금릉으로 이주했다. 주된 이유는 그 당시 금릉에서는 많은 출판업자들이 그의 저작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저작권의 침해를 막으려면 항주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 상기는 이미 이어는 음율을 잘 변별할 수 있는 재능을 언급했고, 그 외에도 정원을 만드는 재능이 있다고 자랑했다. 연극과 회화 등 주요 문예활동이 펼쳐지는 장소는 바로 그가 지은 개자원이다. 이어는 20년 동안 개자원에서 살았다. 이 정원에서 그는 사위 등을 조직하여 『개자원화보(芥子園畫譜)』를 편찬하였다. 개자원에서 집필했기 때문에 ‘개자원화보’라는 이름을 붙여졌다. 이 저작은 간행 후 성행하며 여러 차례 재판을 했고, 오늘날까지도 큰 영향이 있다. 그 외에 『자치신서(資治新書)』, 『임옹논고(笠翁論古)』, 『한정우기』도 개자원에서 출판되었다. 『한정우기』에서는 회화 기법을 이용하였고 실제 조원에 응용하는 것도 많았다. 회화와 원림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어는 금릉으로 이주한 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책을 저술하고 책을 파는

63) 매부호구(賣賦糊口)란 시(詩)나 팔아 입에 풀칠하는 뜻이다. 여기 ‘매부호구’란 이어가 창작한 희극대본이나 소설작품을 팔아 입에 풀칠하는 것을 말한다(杜書瀛, 2014).

64) 서령십자(西泠十子)는 청나라 순치와 강희 연간에 항주 시인인 육기(陸圻), 시소병(柴紹炳), 심겸(沈謙), 진정회(陳廷會), 모선서(毛先舒), 손치(孫治), 장강손(張綱孫), 정팽(丁澎), 우황호(虞黃昊), 오백봉(吳百朋)을 가리킨다(<https://www.zdic.net/>).

것 외에 가정 극반(戲班)을 꾸려 자작극을 시작해 전국 각지를 돌며 공연했다.

그는 가정 극반을 조직한 것은 그가 책을 저술하고 책을 파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리를 위해 생계를 꾸리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어는 그의 희극 가반(家班)을 이끌고, 각지에 초청돼 달관 귀인들을 위해 공연하여 그들의 후원을 받았다. 가반 공연 장소는 때때로는 자신의 개자원에 있는 연극무대이고 때때로는 초대받은 달관 귀인 댁의 정원에 있을 때가 있다. 지금도 중국 강남의 정원을 방문했을 때 정원에 은은하고 아름다운 희곡을 들을 수 있다. 또한, 연극무대는 예술을 공연하는 장소로서 정원 공간이 점점 더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어의 연극 가반은 당시 두 재녀 덕분에 유명해졌다. 두 재녀는 희극 가반의 주요 구성원이고, 이어는 가반 주인, 각본가, 연출가 세 가지 역할을 맡았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이어의 가반도 주연 배우인 두 재녀가 세상을 떠나면서 연극 가반이 쇠락했다. 만년에도 이어는 두 재녀를 자주 떠올리며 두 여인을 잃은 것에 대해 매우 가슴 아파했다.

다시 말하면 금릉에 있는 동안에 이어의 인생은 가장 빛나는 단계 라 할 수 있다. 그의 생애 주요 문예활동인은 저서, 연극, 회화, 조원도 개자원에서 펼쳐졌다. 이 개자원에서 약 20년을 살면서 60세가 넘어 몸이 허약하고 병도 많았다. 만년에 이어는 늘 서호(西湖)로 은거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결국은 개자원을 팔고, 강희 16년(1677)에 금릉에서 항주로 이주했다. 항주에서는 그는 오산(吳山) 동북 기슭에 있는 낡은 집을 구매해서 이곳에 자신의 마지막 거처인 층원(層園)을 지었다. 이어가 항주로 돌아간 지 3년 만에 강희 19년(1680)에 병사하고 69세로 서호와 가까운 방가육(方家峪) 구요산(九曜山) 기슭에 안장됐다. 아래 도식은 이어의 일생 약력이다(그림 4-10).

이어의 일생을 뒤돌아보면 명청(明清)을 경계로 전후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전기는 그가 주로 거업(舉業)에 전념하고 높은 벼슬길에 오르고 싶었는데 명 왕조가 멸망으로 거품이 되었다. 따라서 청 왕조에 들어서 소설 창작, 희극 극본 편찬, 연극 등 문예활동을 진행했다는 점에서도 자신의 재능을 성공적으



로 발휘했다고 할 수 있다. 명말청초 동란의 사회 배경에서 이어의 특수한 생활 양상을 만들어 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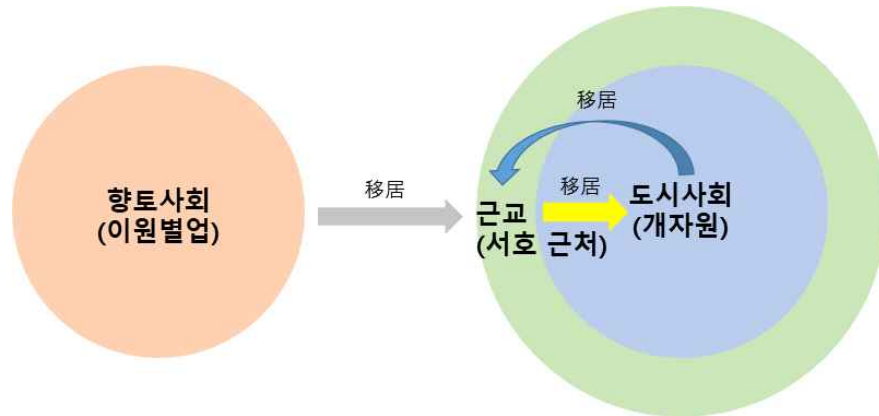


그림 4-10. 이어 일생의 이동경로(시골 → 도시 → 도시근교)

표 3-3. 이어의 연표

연도	주요 사건
1610	출생, 약상(藥商) 집안 출신.
1629	부친이 병으로 돌아간 후, 고향으로 돌아가 절강 난계(蘭溪)에 거주.
1635	처음으로 금화(金華)에 가서 동자 시험(童子試)을 봤음.
1637-1646	과거시험 공부 - 낙방 - 재응시 - 전란시기.
1647	난계에서는 귀농학포(歸農學圃), 이원별업(伊園別業)과 수로 보수와 돌담 건설, 정자를 지었음.
1652	항주로 이주하여, 시부(詩賦)를 팔아 가족을 먹여 살렸음.
1652-1667	『風箏誤』, 『무성희(無聲戲)』, 『십이루(十二樓)』 등과 같은 소설과 희곡을 많이 창작했음.
1667	거의 56세 가까이 『한정우기』가 완성되었음.
1668	금릉(金陵)으로 이주하였음.
1669	개자원(芥子園)을 조성했음.
1671	『한정우기』가 개자원에서 출판되었음.
1672	강남 일대를 유람했음.
1673	다시 북경 일대를 유람했음.
1673	북경에서 반무원(半畝園)을 설계했음.
1674-1675	북경에서 집에 도착하여 무호(蕪湖)·항주(杭州)·소흥(紹興) 등 지역을 유람했음.
1677	항주(杭州)로 이주하였음.
1678	층원(層園)을 조영했음.
1679	사망.

참고자료: 單錦珩(1988). 『李漁全集·第十九卷·李漁年譜與李漁交遊考』. 浙江古籍出版社.

### 3.2.1.2. 약상(藥商) 집안 출신

약상(藥商) 집안에서 태어난 이어는 백부 이어춘(李如椿)과 그의 부친 이어송(李如松) 모두 절강성 난계(蘭溪)에서 약재 장사했다고 기재되었다. 그는 강소성 여고(如皋)에서 태어났지만 본적은 절강성 난계현(蘭溪縣) 하이촌(下李村)<sup>65)</sup>이다. 난계(蘭溪)는 삼강인 구강(衢江), 금화강(金華江), 난강(蘭江)이 만나는 곳에 위치하여 수운이 편리한 지역이다. 산지 지역의 약재가 모두 여기에 모여 점점 규모가 큰 약재 시장을 형성했다. 편리한 교통은 난계 사람들에게는 약재 장사를 하는 득천독후(得天獨厚)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이 씨(李氏) 종족 중에 대다수 약재 장사를 했다.<sup>66)</sup>

소년 시절에 이어의 가정 조건이 비교적 부유하여 좋은 공부 환경을 가졌다. 그러나 이어의 조상에는 아무도 현赫한 공명과 고위 관료를 지낸 사람도 없다. 따라서 이어의 부친은 어려서부터 충명했던 이어에게 독서를 잘하기를 기대했다. 청소년 시절의 이어도 유학 경전에 전념하고 과거를 준비하며 공명을 따는 것을 인생의 주요한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이어 부친의 병환과 전란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어의 향후 벼슬길은 생각보다 순탄치 않았다.

### 3.2.1.3. 교유(交遊)와 주요 문예활동

이어가 금릉에 머무른 20년은 가장 많은 명사들을 왕래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기록에 따르면 그의 교우가 팔백여 명에 이른다고 했다. 그 중에서도 높은 지위에 처하는 재상(宰相), 상서(尚書), 대학사(大學士) 등부터 아래 계층에 처하는 삼교구류(三教九流)<sup>67)</sup>까지 열일곱 개 성(省)과 이백여 현에 널리 퍼졌다(杜書瀛, 2014). 이로부터 이어가 조정 사대부와 문인들 사이를 자유롭게 왕래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이어의 원림문화 후원자들도 상대적으로 다양

65) 하이촌(下李村)은 혹은 한자 ‘夏李村’로 쓰기도 한다. 난계현(蘭溪縣)에서 약 50화리(華裏) 떨어져 있다. 일 화리는 500미터에 해당하기 때문에 50 화리는 25,000 미터에 해당한다(杜書瀛, 2014).

66) 『용문이씨종보(龍門李氏宗譜)』에서는 ‘本族外出商賈者多, 故流寓於外者幾三分之二.’ (杜書瀛, 2014).

67) 중국의 유교·불교·도교와 제자백가를 아울러 이르는 말 삼교(三教)는 유교·불교·도교를, 구류(九流)는 유가(儒家)·도가(道家)·음양가(陰陽家)·법가(法家)·명가·묵가·중형가·잡가·농가를 이른다(<https://www.zdic.net/>).

한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많은 세상정서를 알게 되었으며, 향후 그의 문학 창작에 더욱 풍부하고 생동감 있는 소재를 제공했다.

이어는 시문과 연극으로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사회 각 계층과 광범위하고 빈번한 접촉을 가지고 있으며 교유 면이 매우 넓다. 금릉 개자원에서는 이어가 그의 문우(文友)·희우(戲友)와 함께 연극을 보면서 기예를 연마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청초의 오위업(吳偉業), 전겸익(錢謙益), 공정자(龔鼎孳)의 ‘강좌삼대가(江左三大家)’<sup>68)</sup>, 왕사기(王士禛) 등의 ‘해내팔대가(海內八大家)’<sup>69)</sup>와 ‘서령십자(西泠十子)’ 중 다수가 그와 사귀었다고 전한다.

교유(交遊)의 개념을 살펴보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앞서 언급한 인간관계인 교우, 다른 하나는 산수 유람을 가리킨다. 이어의 일생을 보면 어서 그는 생계를 위해 여기저기 다니면서 관리와 친구를 사귀면서 그들의 후원을 얻게 되었다. 또한 그는 가는 곳마다 산수의 명승지를 유람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당시의 교통 조건이 낙후된 상황에서 그는 가족을 데리고 먼 길을 떠나면서 북경, 하북성, 하남성, 복건성, 호북성, 호남성, 광둥성 등 지역을 다수 지역을 다녔다. 중국 곳곳에 그의 발자취를 남겼다고 할 수 있다.

---

68) 중국 청나라 때의 시인 오위업(吳偉業), 전겸익(錢謙益), 공정자(龔鼎孳) 세 사람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양자강(揚子江)의 하류 일대에서 창작 활동을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https://www.zdic.net/>).

69) 해내팔대가(海內八大家)는 왕사기(王士禛), 시운장(施閏章), 송여상(宋荔裳), 주량공(周亮工), 엄호정(嚴灝亭), 우동(尤侗), 두준(杜濬), 여회(余懷)를 가리킨다(<https://www.zdic.net/>).

### 3.2.2. 개자원(芥子園)을 중심으로 한 조원활동

이어가 평소 두 가지 뛰어난 재주가 있다고 자부했다. ‘일직변심음악과 일척치조원정[一則辨審音樂, 一則置造園亭: 하나는 음악을 좋아해서 잘 변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원을 만드는 것이다]’<sup>70)</sup>라고 했던 것이다. 이는 그의 유명한 원림저택 세 군데를 직접 설계·조성한 경험에 대한 회고라 할 수 있다(표 2-4와 그림 3-11). 그의 생애사에 기대되는데 그의 일생과 관련한 세 가지 원림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이어가 순치 4년(1647)부터 3년간에 고향인 난계 하이촌(下李村)에서 이산별업(伊山別業)을 처음으로 조성했고, 그곳에서 당나라 왕유(王維; 701-761) 등의 행적을 따라 산림에 은거하는 삶을 살았다. 뿐만 아니라 하이촌 이원에서 사는 동안에 하이촌에서 돌독건설과 같은 공공사업에 관심을 가졌고, 마을 근처에는 통행자들의 휴식을 위한 ‘차정정(且停亭)’이라는 정자 하나를 조영하였다. 순치 7년(1650)에는 다시 세속으로 나와 항주 문단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활동이 이어졌다. 강희원년(1662) 52세의 나이에 이어는 가족을 데리고 금릉(金陵: 남경)으로 이거하였고, 7년 후 그를 원림건축가로 이름을 날리게 한 개자원(芥子園)을 조영하였다. 이때 그는 『개자원화보』의 제작을 시작으로 『자치신서(資治新書)』, 『입옹논고(笠翁論古)』 등을 제작했고, 본 연구의 대상인 『한정우기』도 개자원에서 출판되었다. 만년이 되어 항주에 은거하며, 서호(西湖) 부근에 세 번째 원림인 층원(層園)을 만들었다. 이러한 조원활동은 부와 명성을 안겨준과 동시에 그를 손꼽히는 원림건축가로서 유명세를 타게 하였다.

이 외에 『홍설인연기(鴻雪因緣記)』에 따르면 1673년에 그가 가한복(賈漢復; 1605-1677)<sup>71)</sup>을 위하여 북경의 반무원(半畝園)을 설계했다고 기록되었다. 그의 일생 동안의 조원활동을 살펴보면 그가 조영한 원림은 그의 사적인 생활 공간

70) 予嘗謂人曰: 生平有兩絕技, 自不能用, 而人亦不能用之, 殊可惜也. 人問: 絕技維何? 予曰: 一則辨審音樂, 一則置造園亭(선금형, 1988, p.156).

71) 가한복(賈漢復; 1605-1677)은 자는 교후(膠侯), 호는 정암(靜庵)으로 산서(山西) 곡옥안길(曲沃安吉)인이다. 청초에 이신(貳臣)이자 명장(名將)이다(<https://www.baidu.com/>).

뿐만 아니라 인쇄, 출판, 희극 등과 같은 주된 생산 공간과 원림문화 활동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표 3-4. 이어가 조성한 원림

원림 명칭	위치	조원 시기	관련된 정보
이원 (伊園)	난계 (蘭溪)	순치(順治)3년 (1646)	조경 능력을 보여주는 최초 걸작으로, 원림에는 독창적인 설계와 배치를 이루고 있음. 이원과 관련된 『이원십편(伊園十便)』, 『이원십이(伊園十二宜)』를 남겼음. 이 외에 돌독건설, 정자인 ‘차정정(且停亭)’을 조영했음.
개자원 (芥子園)	금릉 (金陵)	강희원년 (康熙元年; 1662)	『화보(畫譜)』의 제작으로 개자원에서 그는 『자치신서(資治新書)』, 『임옹논고(笠翁論古)』 등을 출판했음, 『한정우기』도 이때 완성되었음.
층원 (層園)	항주 (杭州)	강희(康熙) 16년(1677)	만년에 항주에 은거했을 때 서호 부근에 조영된 셋 번째 원림이었음.
반무원 (半畝園)	북경 (北京)	1673	『홍설인연기(鴻雪因緣記)』에 따르면 북경의 반무원(半畝園)은 이어가 가한복(賈漢復)을 위하여 설계했다고 함.



그림 3-11. 이어의 출생지 및 주로 조원활동 영역  
사진출처: 필자는 'https://www.google.com/maps'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음.

종합하면 두 조원가의 원림은 대부분 자신의 거처이며, 유민(遺民)으로서의 그들은 원림을 조영한 목적은 일종의 은거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절에서 문진형의 향초타(香草垞)와 이어의 개자원(芥子園)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원림을 만드는 기본목표와 지향가치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먼저, 명나라 말기에 그들은 모두 적극적으로 출사(出仕)하여 벼슬길을 통해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으로 인생의 가치를 실현하려 했다. 문진형은 문인사대부 계층의 대표자이자 넉넉한 가정 배경으로 순풍에 돛을 단 듯했으나 명나라 중후기에 염당(閹黨)이 실세를 가지면서 벼슬길이 여러 차례 좌절됐다. 고향인 소주에 있는 개인 가원(家園)인 향초타(香草垞)는 문진형이 ‘피세[避世: 세상을 피하여 숨음]’라는 마음의 향만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저술한 『장물지』는 향초타(香草垞)에서 완성했기 때문에 저서의 내용도 역시 그가 실제 원림요소에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진형과 마찬가지로 이어도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출사(出仕)하려 하였으나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사회적 배경에서 벼슬길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특히 명나라 말기에는 명나라 유민으로서 망국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 이어는 문진형과 마찬가지로 피세(避世)의 마음가짐이었다. 고향에 있는 거처인 이산별업(伊山別業)에서 만년까지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지만, 청나라 초기의 불안정한 시기를 지나 사회가 상대적으로 안정되었을 때, 그는 다시 자신의 포부를 실현하기 위해 도시인 금릉으로 이주하게 됐다. 결국 그가 이산별업에서 삼년만 은거하였다. 이어는 금릉에서 유명한 개자원을 조영했다. 그의 『한정우기』에서는 개자원이 작지만 내산각(來山閣), 부백헌(浮白軒), 서운곡(棲雲谷), 월사(月榭), 가대(歌臺) 등의 건축물을 교묘하게 배치하여 드넓은 ‘개자수미(芥子須彌)’의 경지(境地)를 연출하였다고 했다. 문진형과 달리 개자원은 그의 생활 공간일 뿐만 아니라 그가 인쇄, 출판, 희극 등 주요 활동한 장소이라 할 수 있다. 만년에 그는 서호(西湖) 인근에 층원(層園)을 조영하고 은거하는 생활을 보내게 되었고 그의 은일(隱逸)한 생활태도는 원림을 조영하는 기본 목적으로 반

영되었다.

한 마디로 문진형의 거처인 원림은 도시에 위치하였다. 이어의 거처인 원림은 초기에는 교외에서 있었지만 20여년을 머무른 개자원(芥子園)은 도시에 위치하였다. 문진형의 향초타(香草陀)와 이어의 개자원(芥子園)을 통해 그들의 원림을 만드는 기본목표와 지향가치는 일종의 은거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개인적인 삶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원림을 만드는 기본목표와 지향가치도 다를 수밖에 없었다. 문진형과 이어의 큰 차이점은 이어의 개자원은 그의 생활공간일 뿐만 아니라 인쇄, 출판, 희극 등의 수입창출의 장소이라 할 수 있다.

### 3.3. 대표작 『장물지(長物志)』와 『한정우기(閑情偶寄)』 이해

#### 3.3.1. 『장물지(長物志)』

##### 3.3.1.1. 저술배경

명말청초는 중국 역사상 명나라 말기(1573-1644)부터 청나라 초기(1644-1735)까지 약 160여 년의 시간대를 가리킨다. 먼저 『장물지』에 관한 저술 배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문진형(1585-1645)의 『장물지』는 저술 시기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1621년에 36세 가까이 『장물지』 집필에 착수하였다는 설이 있었지만 출전이 정확하지 않았다. 각 권별 감수자의 생졸연대를 따지면 오래 시간에 걸쳐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박희성, 2016, p.83). 또한, 『장물지』 서(序)에 문진형의 벗인 심춘택(沈春澤)이 글을 써줄 당시에 소주 향초타(香草垞)의 영연당(嬋娟堂)과 옥국재(玉局齋)를 구경한 것으로 통해 『장물지』가 완전히 완성된 시기는 그가 고향에 있었던 1644년 이후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장물지』 서(序)의 내용을 따르면 다음과 같다.

문진형의 절친인 심춘택은(沈春澤)은 그의 거처 향초타(香草垞)를 직접 방문하고, 향초타에 있는 영연당(嬋娟堂)과 옥국재(玉局齋)의 아름다움에 대해 칭찬이 자자했다(진식, 1984).<sup>72)</sup>

다시 강조하면 각 권별 감수자의 생졸연대와 상기 서(序)의 기록에 따라 『장물지』가 완성되는 시간과 장소를 보인다. 뿐만 아니라 문진형이 『장물지』를 쓴 의도까지 알 수 있다. 서(序)의 내용을 따르면 다음과 같다.

나[문진형]는 소주 지역 사람들의 마음과 숨씨가 날로 변하는 것이 걱정스럽다. 마치 자네[심춘택] 그때 말한 것처럼 이러한 ‘한일[閑事: 사소하고 한가한 일]’과 ‘장물[長物: 남는 물건]’ 조차도 원래 근원이 있었는데 후세 사람들이 그의 정체를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이 책을 편찬하여

72) 即余日者過子，盤礴累日，嬋娟為堂，玉局為齋，令人不勝描畫(진식, 1984).



대비하였다(진식, 1984; 박희성, 2016).<sup>73)</sup>

상기 내용을 통해 문진형은 『장물지』를 쓴 의도는 문인 사대부들이 그 당시 끊임없이 변하던 사회풍상(風尚)의 영향으로 자신의 본원을 잃을까봐 걱정했기 때문인 것이다. 이에 이 저서에서 일상적 사소하고 한가한 일을 통해 명나라 중기 문인 사대부들의 심미적 정취를 담아냈다. 문진형의 개인 생활정취와 철학사상도 담았다.

### 3.3.1.2. 구성 체계와 주요 내용

‘장물지는 범위가 극히 광대하여, 원림의 건설부터 화초와 수목·새와 짐승·벌레와 물고기·금석(金石)과 서화 복식과 기명(器皿)에 이르기까지, 사물의 이름과 형상을 식별하고 우아한 것과 저속한 것을 꿰뚫어 통달했다.’<sup>74)</sup>

문진형은 조원의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고, 이를 『장물지』에서 상세히 정리해 왔으며 1644년 이후에 고향인 소주 향초타(香草垞)에서 완성되었다. ‘장물(長物)’이란 ‘남는 물건, 사치품’의 뜻으로 실려(室廬)를 비롯하여 화목(花木), 수석(水石), 금어(禽魚), 서화(書畫), 기담(幾榻), 기구(器具), 의식(衣飾), 주거(舟車), 위치(位置), 소과(蔬果), 향명(香茗) 총 12가지로 구분되었다. 이 가운데 원림요소와 직접 관련한 것은 여섯 가지 부분으로 각각 「실려」편, 「화목」편, 「수석」편, 「금어」편, 「주거」편, 「위치」편이다. 아래에 원림요소와 직접 관련한 「실려」편, 「화목」편, 「수석」편, 「금어」편에 대해 간략히 요약했다.

「실려」편은 건축물별로 당(堂), 산재(山齋), 장실(丈室), 불당(佛堂), 다실(茶室), 금실(琴室), 욕실(浴室), 누각(樓閣), 대(臺)가 있고 건축물의 부속시설물별로 문, 계단, 창문, 난간, 조벽(照壁), 바닥포장 등이 있다. 「화목」편은 총 47종의 식물을 통해 원림에 재배하고 감상할 만한 식물을 언급하였다. 화목의 종류는 모란(牡丹), 작약(芍藥), 옥란(玉蘭),海棠(海棠), 산다나무(山茶), 복숭아나

73) 吾正懼吳人心手日變，如子所雲，小小閑事長物，將來有濫觴而不可知者，聊以是編堤防之(진식, 1984; 박희성, 2016).

74) 蓋文氏之志長物，範圍極廣，自園林興建，旁及花草樹木，鳥獸蟲魚，金石書畫，服飾器皿，識別名物，通徹雅俗(김의정 외, 2017, p.36.).

무(桃), 자두나무(李), 살구나무(杏), 매화나무(梅), 서향(瑞香), 장미꽃(薔薇), 목향(木香), 매괴(玫瑰), 자형(紫荊), 체당(棣棠), 자미화(薇花), 석류나무(石榴), 부용(芙蓉), 담복(薺蔔), 말리(茉莉), 소형(素馨), 야합(夜合), 두견(杜鵑), 소나무(松), 무궁화(木槿), 계수나무(桂), 버드나무(柳), 황양(黃楊), 회화나무(槐), 느릅나무(榆), 오동나무(梧桐), 참죽나무(椿), 은행나무(銀杏), 오구(烏臼), 대나무(竹), 국화(菊), 난(蘭), 규화(葵花), 양귀비(罌粟), 흰화(萱花), 옥잠(玉簪), 금전(金錢), 연꽃(藕花), 수선화(水仙), 봉선화(風仙), 추색(秋色), 파초(芭蕉)이다. 뿐만 아니라 꽃꽂이와 분재를 하기에 적합한 식물에 대해서도 의견을 곁들인다. 또, 「수석」편은 원림에서 수 요소와 석물(石物)과 관련한 내용이다. 수 요소에는 광지(廣池), 소지(小池), 폭포(瀑布), 착정(鑿井), 천천(天泉), 지천(地泉), 유수(流水), 단천(丹泉)이 포함된다. 석물(石物)에는 주로 11종의 돌을 통해 각각의 침산(疊山) 방식을 제시하였다. 이 11종의 돌은 각각 영벽석(靈壁石), 영석(英石), 태호석(太湖石), 요봉석(堯峯石), 곤산석(昆山石), 금천(錦川), 장락(將樂), 양두석(羊肚石), 토마노(土瑪瑙), 대리석(大理石), 영석(永石)이다. 「금어」편에서는 원림에 새와 어류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또한, 「주거」편에서는 그 당시 문인사대부 계층은 출행 시 선호하는 네 가지 교통수단인 건거(巾車), 남녀(籃輦), 주(舟), 소선(小船)을 언급했다. 「위치」편에서는 물품의 적절한 배치 위치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했고 이 중 원림 중의 건축물인 소실(小室), 와실(臥室), 정사(亭榭), 창실(敞室), 불실(佛室)과 관련된 내용도 있었다. 이 외에 문인사대부 생활과 관련한 여섯 가지 부분의 내용은 각각 「서화」편, 「기타」편, 「기구」편, 「의식」편, 「소과」편, 「향명」편이다. 이들 여섯 부분도 그 당시 문인 사대부의 일상생활에서 접한 것이며, 그들의 특유한 생활태도와 가치관을 반영하기도 한다. 『장물지』의 목록 순서에 따라 다음 표 3-5와 같이 정리했다.

표 3-5. 『장물지』에 나타난 내용에 대한 요약

챕터	내용	내용 요약
卷一 (室廬)	門, 階, 窓, 欄桿, 照壁, 堂, 山齋, 丈室, 佛堂, 橋, 茶室, 琴室, 浴室, 階徑庭除, 樓閣, 臺, 海論	건축물과 부속 시설물
卷二 (花木)	牡丹, 芍藥, 玉蘭, 海棠, 山茶, 桃, 李, 杏, 梅, 瑞香, 薔薇, 木香, 玫瑰, 紫荊, 棣棠, 薇花, 石榴, 芙蓉, 薔蔔, 茉莉, 素馨, 夜合, 杜鵑, 松, 木槿, 桂, 柳, 黃楊, 槐, 榆, 梧桐, 椿, 銀杏, 烏臼, 竹, 菊, 蘭, 葵花, 罌粟, 萱花, 玉簪, 金錢, 藕花, 水仙, 風仙, 秋色, 芭蕉, 盆花, 盆玩	식물의 재배장소, 식물의 특징, 감상방식, 상징성
卷三 (水石)	廣池, 小池, 瀑布, 鑿井, 天泉, 地泉, 流水, 丹泉, 品石, 靈壁石, 英石, 太湖石, 堯峯石, 昆山石, 錦川·將樂·羊肚石, 土瑪瑙, 大理石, 永石	이수 형태와 석물
卷四 (禽魚)	鶴, 鸛, 鸚鵡, 百舌, 畫眉, 鸚鵡, 朱魚, 魚類, 藍魚, 白魚, 魚尾, 觀魚, 吸水, 水缸	원림에서 기를 수 있는 동물
卷五 (書畫)	論書, 論畫, 書畫價, 古今優劣, 粉本, 賞鑒, 絹素, 禦府書畫, 院畫, 單條, 名家, 宋繡, 宋刻絲, 裝潢, 法糊, 裱軸, 藏畫, 小畫匣, 卷畫, 法帖, 南北紙墨, 古今貼辨, 裝貼, 宋板, 月令	서화의 우열 평가 기준, 실내 기물
卷六 (幾榻)	榻, 短榻, 幾, 禪椅, 天然幾, 書桌, 壁桌, 方桌, 臺幾, 椅, 杌, 凳, 交牀, 櫥, 架, 佛廚, 佛桌, 牀, 箱, 屏, 腳凳	실내 가구
卷七 (器具)	香爐, 香合, 隔火, 匙筋, 筋瓶, 袖罐, 手罐, 香筒, 筆格, 筆牀, 筆屏, 筆筒, 筆船, 筆洗, 筆硯, 水中丞, 水註, 糊門, 蠟門, 鎮紙, 壓尺, 秘閣, 貝光, 裁刀, 剪刀, 書燈, 燈, 鏡, 帶鉤, 束腰, 禪燈, 香櫞盤, 如意, 塵, 錢, 瓢, 鉢, 花瓶, 鐘磬, 杖, 坐墩, 坐團, 數珠, 番經扇, 扇墜, 枕, 簟, 琴, 琴臺, 研, 筆, 墨, 紙, 劍, 印章, 文具, 梳具, 海論, 銅玉雕刻窯器	실내 기물
卷八 (衣飾)	道服, 禪衣, 被, 褥, 絨單, 帳, 冠, 巾, 笠, 履	복식과 관련 내용
卷九 (舟車)	巾車, 籃輦, 舟, 小船	교통방식
卷十 (位置)	坐幾, 坐具, 椅, 榻, 屏, 架, 懸畫, 置罐, 置瓶, 小室, 臥室, 亭榭, 敞室, 佛室	물품의 적절한 배치 위치
卷十一 (蔬果)	櫻桃, 桃, 李, 梅, 杏, 橘, 橙, 柑, 香櫞, 枇杷, 楊梅, 葡萄, 荔枝, 棗, 生梨, 栗, 銀杏, 柿, 花紅, 菱, 芡, 五加皮, 白扁豆, 菌, 瓠, 茄子, 芋, 茭白, 山藥, 蘿蔔, 蕪菁	야채와 관련 내용
卷十二 (香茗)	伽南香, 龍涎香, 沈香, 片速香, 唵叭香, 角香, 甜香, 黃香餅, 黑香餅, 安息香, 暖閣, 芸香, 蒼術, 品茶, 虎丘, 天池, 芥茶, 六合, 松蘿, 龍井, 天目, 洗茶, 候湯, 滌器, 茶洗, 茶罐, 湯瓶, 茶壺, 茶盞, 擇炭	다도(茶道), 차의 종류

자료참고: 위의 내용은 진식(1984)과 김의정 외(2017)의 저서를 참고하여 재정리되었음.

### 3.3.2. 『한정우기(閑情偶寄)』

#### 3.3.2.1. 저술배경

이상은 문진형의 『장물지』를 저술 시기, 장소, 그리고 원인을 설명한 것이다. 다음으로 이어의 『한정우기』를 저술 시기, 장소, 주된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이어(1611-1680)는 강희 원년(1662)에 52세의 나이에 가족을 데리고 금릉으로 이주하였는데, 강희 6년(1667)에 거의 56세 가까이 『한정우기』가 완성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간각되어 현재처럼 전본(全本)으로 출판된다. 1669년에 그를 정원 조원가로 이름을 날리게 한 개자원(芥子園)을 조영하였다. 개자원은 이어의 거처일 뿐만 아니라 그가 생계는 이어가는 장소이기도 했다. 인쇄, 출판, 희곡 활동 등 모두 이 정원에서 진행되었다. 1671년에 『한정우기』도 바로 개자원에서 출판된다.

또한 그가 『한정우기』를 저술한 이유에는 그 당시 사회 대중의 취향에 영합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정우기』 「종식부」 ‘등본제이(藤本第二)’에 따르면

요새 사람들은 한가로운 정취(情趣)를 담겨 있는 저서를 즐겨 읽고, 새로운 대본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십중팔구(十中八九)인데, 유명인의 시집을 구하는 사람은 몇 명이 안 된다(두서영, 2007).<sup>75)</sup>

상기의 내용을 통해 문진형과 마찬가지로 이어의 『한정우기』도 명말청초의 사회 풍조인 한가로운 정취를 추구하는 것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어에게도 그 개인의 생활정취와 철학사상을 담았다고 할 수 있다.

#### 3.3.2.2. 구성 체계와 주요 내용

‘이 저서를 중국인 생활예술의 지침서로 주택과 정원, 실내장식, 경벽(界壁) 분단, 여성의 화장과 미용, 요리의 예술 등까지 모두 이 위대한 예술가의

75) 今人喜讀閑書，購新劇者十人而九，名人詩集，問者寥寥(두서영, 2007).

진실한 독백(獨白)이자 당시 중국인 정신의 본질을 보여주었다.’<sup>76)</sup>

『한정우기』는 대략 강희 6년(1667)에 초고가 완성되었고 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현재와 같은 전본(全本)으로 출판되었다. ‘한정우기’의 ‘한정(閑情)’은 ‘한가로운 심정 또는 정취’를 뜻하며, ‘우기(偶寄)’는 ‘우연히 기탁하다[몸을 맡기다]’, ‘즉흥적으로 기록하다’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통적인 문인사회에서 ‘한정’은 은거지사들의 이상적인 주거환경으로 묘사되어 왔다. 즉, 벼슬을 버리고 전원생활을 하면서 유유자적 자연의 정취를 즐기는 군자들의 삶의 태도가 ‘한정’의 키워드로 표현되는가 하면, 그들이 경영한 산림의 풍격에서도 선명히 드러나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어가 말한 ‘한정’은 호사와 사치의 속성을 갖는 물질문화가 두드러진 시대에 타인과의 차별을 원하는 시정인(市井人)들이 연출한 주거환경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정우기』는 총 여덟 부(部)로 구성되었다. 이 가운데 「사곡부(詞曲部)」와 「연습부(演習部)」는 희곡의 연출과 배우의 양성을 다루고 있고, 「성용부(聲容部)」는 여인의 용모에 대한 평가 및 치장방법, 「거실부(居室部)」는 주거 생활, 「기완부(器玩部)」는 가구와 다양한 기물, 「식음부(食飲部)」는 요리 방법, 「종식부(種植部)」는 각종 화훼의 재배 및 활용의 방법과 감상법, 「이양부(頤養部)」는 원림생활에서의 행락(行樂), 양생(養生)법과 치병(治病)을 다루고 있다.

이 가운데 원림요소와 직접 관련된 것은 세 개 부분으로 각각 「거실부(居室部)」, 「기완부(器玩部)」와 「종식부(種植部)」이다. 「거실부(居室部)」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 제1장 방사[房舍: 가옥과 방], 제2장 창란[窓欄: 창과 난간], 제3장 장벽[牆壁: 담장과 내벽 혹은 영벽], 제4장 련편[聯匾: 대련과 편액], 제5장 산석[山石: 정원의 석물]이다. 이를 통해 집을 짓고 정원을 조성하는 규범에 대해 논하였다. 그리고 「기완부(器玩部)」는 제도제일(制度第一)과 위치제이(位置第

76) 在李笠翁(17世紀)的著作中，有一個重要部分專門研究生活的樂趣，是中國人生活藝術的袖珍指南，從住宅與庭園，屋內裝飾，界壁分隔到婦女的梳妝，美容，施粉黛，烹調的藝術和美食的導引等，都是這位偉大藝術家的真實獨白，也是當時中國人精神的本質(林語堂，1994，pp.316-317.)

二)가 있다. 또한, 「종식부」는 총 4장으로 이루어졌으며, 각종 원림식물의 재배, 감상법과 활용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각 제1장 목본식물 24종, 제2장 덩굴식물 9종, 제3장 초본식물 15종, 제4장 관상식물 9종과 대나무류 식물 12종 총 69종의 식물의 활용 방식과 내재된 의미로 구성되었다. 『한정우기』의 목록 순서에 따라 아래 표 3-6과 같이 정리했다.

또한, 『한정우기』는 이어의 자연을 숭상하는 철학적 사상이 저서의 전체 흐름에 담겨 있다. 즉, 조물 자연의 도법자연(道法自然)을 숭상한 것이다. 『한정우기』 ‘범례칠칙·사기삼계(凡例七則·四期三戒)’에서도 ‘장론(莊論)’을 ‘한정(閑情)’에 담았다.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요즘 사람들은 한가로운 정취(情趣)를 담겨 있는 저서에 열중해서 노장(老莊)의 논저를 듣기만 해도 두려워하는데, 나 자신[이어]은 세상 사람들에게 노장 사상을 읽으라고 권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권해서 읽을 힘이 없다. 따라서 사람들을 하여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방식으로 해설할 생각을 했다(두서영, 2007).<sup>77)</sup>

상기의 내용을 통하여 일생 생활 사례에서 출발한 이어는 ‘한정(閑情)’의 리듬으로 어려운 ‘장론(莊論)’과 ‘정고(正告)’를 풀어냈다. 노장(老莊)의 자연을 숭상하는 철학사상이 『한정우기』 전체의 흐름을 관통하는 것이다.

이 외에 『한정우기』에서 번잡하고 사치한 것을 제거하고 간결하고 검소한 것을 제창하는 생활태도를 강조했다. 이 가운데 토목 건설 과정에 사치와 낭비를 가장 꺼린다고 했다. 일반 시정인뿐만 아니라 사대부 계층도 검소함을 숭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78)</sup> 그는 세속 사람들이 사치하지 않고 검소하게 생활하는 습관을 주창하는 것 외에 문진형과 마찬가지로 ‘의간불의번[宜簡不宜繁: 간결하면서 번잡하지 않음]’, ‘이소위귀[以少為貴: 적은 것을 귀하게 여김]’는 말로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간결한 생활태도를 제창했다.

77) 近日人情喜讀閑書，畏聽莊論，有心勸世者正告則不足，旁引曲譬則有余(선금형, 1988).

78) 土木之事，最忌奢靡。匪特庶民之家當崇儉樸，即王公大人亦當以此為尚(선금형, 1988)

표 3-6. 『한정우기』에 나타난 내용에 대한 요약

챕터		내용	내용 요약
卷一(詞曲部)		結構第一, 詞采第二, 音律第三, 賓白第四, 科譚第五, 格局第六	희곡의 연출과 배우 양성
卷二(演習部)		選劇第一, 變調第二, 授曲第三, 教白第四, 脫套第五	
卷三(聲容部)		選姿第一, 修容第二, 治服第三, 習技第四	여인의 외모와 일상생활문화
卷四 (居室部)	房舍第一	向背, 途徑, 高下, 出檐深淺, 置頂格, 甃地, 灑掃, 藏垢納汙	조원이론과 관련 내용
	窓欄第二	制體宜堅, 取景在借	
	牆壁第三	界牆, 女牆, 廳壁, 書房壁	
	聯匾第四	蕉葉聯, 此君聯, 碑文額, 手卷額, 冊頁匾, 虛白匾, 石光匾, 秋葉匾	
	山石第五	大山, 小山, 石壁, 石洞, 零星小石	
卷五(器玩部)		制度第一, 位置第二	가구와 다양한 기물(器物)
卷六(飲饌部)		蔬食第一, 谷食第二, 肉食第三	음식과 관련 내용
卷七 (種植部)	木本第一	牡丹, 梅, 桃, 李, 杏, 梨, 海棠, 玉蘭, 辛夷, 山茶, 紫薇, 繡球, 紫荊, 梔子, 杜鵑, 櫻桃, 石榴, 木槿, 桂, 合歡, 木芙蓉, 夾竹桃, 瑞香, 茉莉	식물의 재배장소, 식물 특징, 감상방식, 상징성
	藤本第二	薔薇, 木香, 酴醾, 月月紅, 姊妹花, 玫瑰, 素馨, 凌霄, 珍珠蘭	
	草本第三	芍藥, 蘭, 蕙, 水仙, 芙蕖, 罌粟, 葵, 萱, 雞冠, 玉簪, 鳳仙, 金錢, 蝴蝶花, 菊, 菜	
	眾卉第四	芭蕉, 翠雲, 虞美人, 書帶草, 老少年, 天竹, 虎刺, 苔, 萍	
	竹木第五	竹, 松, 柏, 梧桐, 槐, 榆, 柳, 黃楊, 棕櫚, 楓, 柏, 冬青	
卷八(頤養部)		行樂第一, 止憂第二, 調飲啜第三, 節色欲第四, 卻病第五, 療病第六	행락(行樂)과 양생(養生)법, 치병(治病)

참고자료: 위의 내용은 선금형(1988), 김의정(2018)의 저서를 참고하여 재정리되었음.

### 3.4. 소결

본 장의 소결은 두 가지 차원에서 문진형과 이어의 저서를 총결했다. 하나는 두 조원가의 성정(性情) 특징의 공통점과 차이점, 다른 하나는 두 조원가의 저서 특징이었다.

두 조원가의 성정(性情) 특징의 공통점은 자연산수를 숭상한 것과 검소한 생활태도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자연산수를 숭상하는 성정은 명말청초에 각 계층의 일종의 사회풍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치적 차원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 문인사대부 계층은 강남 지역에 정치에 무관심한 은일하고 여유가 있는 삶을 살고자 했다. 이들의 문화적 창조 영감이나 소재는 대부분 자연산수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자연산수를 유람함으로써 경험을 쌓고 자신의 문학창작을 풍부하게 했다. 검소한 생활태도에 대해 그 당시 사회배경을 종합해보면 명말에 국가재정 적자가 발생해 명 왕조는 전반적으로 명나라 초기와 중기처럼 호화롭게 생활을 지니지 못했다. 따라서 명 왕조 진흥을 열망하는 대부분의 애국적 지식인들에게 검소한 생활태도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두 조원가의 성정(性情) 특징의 차이점은 문진형은 문인사대부 출신으로 엄격한 문 씨 가문에서 자랐고, 자연스럽게 조상인 문징명의 인품 영향을 크게 영향을 받았다. 문 씨 가문의 조정 관직 역사를 보면 명 왕조에 대한 충절(忠節)과 엄당(閹黨)과 동류합오(同流合汙)하지 않는 정직함을 알 수 있다. 명 왕조가 멸망한 뒤 문진형이 단식을 하고 순국을 선택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 가능하다. 한마디로 그의 일생은 명 왕조가 멸망하면서 끝났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그가 문화 창작을 하면서 사귀는 후원자나 문인들은 대부분 지향이 서로 맞은 이들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문진형의 충성(忠誠)스러운 절의(節義)와 강직한 성격을 뚜렷하게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시정 계층을 대표하는 이어에게 문진형처럼 가족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의 일생은 생계를 위해 분주(奔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명나라가 멸망할 무렵에도 잠시 산림에 은거했다가 후에는 안정된 청나라 사회에서 삶의 돌파구를 찾기 시작했고 그 돌파구는 바로 대중의 취향에 맞는 문화 창작이었다. 한편으로 문화 창작을 하면서 광범위



적인 인맥을 맺게 되었다. 그가 사귀는 친구들을 보면 달관 귀인도 있었지만 대부분 문화 창작에 도움이 되고 서로 뜻을 맞은 지식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두 저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비교하여 다음과 같다. 앞서 언급했듯 두 저서의 공통점은 구조 체계를 주제별로 구성하는 것이다. 각 주제마다 도입부에는 필요한 규범이나 원칙을 간략하게 소개한 다음에 소절로 나누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내용을 다루었다. 예컨대, 문진형의 『장물지』 「화목」편에서는 각각 식물을 재배하기에 적합한 장소와 식물의 향유방식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리고 어떤 식물은 군식(群植)이 적합한지, 어떤 식물이 단식(單植)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언급했다. 문진형과 마찬가지로 이어는 『한정우기』 「종식부」에서 초목의 종류를 목본(木本), 등본(藤本), 초본(草本)으로 나누어 뿌리 특성에 따라 식물을 구별한다고 하였다.

『장물지』 「서(序)」의 내용에 따르면 전체 문맥의 특징은 ‘산번거사[刪繁去奢: 번잡하고 사치한 것을 제거한다]’<sup>79)</sup>라는 내용으로 다루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조원이론과 관련한 규범과 원칙들은 문맥에 담겨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가 사대부 계층의 대표 인물로서 세속에 속된 ‘속문화(俗文化)’에 대해 비판하고 사대부 계층이 따라야 하는 고상하고 우아한 ‘아문화(雅文化)’에 대해 의견을 곁들였다. 그의 벗인 심춘택(沈春澤)은 ‘진운치와 진재정[真韻致와 真才情: 참된 운치와 참된 재정]’을 갖는 사람만 그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고 그의 재능에 대해 칭찬했다. 한마디로 그의 저서의 독자층은 문인사대부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물지』와 비교하면 『한정우기』의 내용은 간명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또한 그의 유머러스한 내용은 단조롭고 무미건조한 장자(莊子) 이론을 알기 쉽게 풀이하였다.<sup>80)</sup> 이것이 『한정우기』가 그 당시에 일반 문인 시정(市井) 계층의 사랑을 받게 되는 주된 원인이었다. 한마디로 그의 저서를 구독하는 대부분은 문인 시정(市井)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79) 法律指歸, 大都遊戲點綴中一往, 刪繁去奢之意存焉. 豈唯庸奴, 鈍漢不能窺其崖略, 即世有真韻致, 真才情之士, 角異獵奇, 自不得不降心以奉啟美為金湯(김의정 외, 2017, pp.30-31.).

80) 『閑情偶寄』 「凡例七則·四期三戒」: 近日人情喜讀閑書, 畏聽莊論, 有心勸世者正告則不足, 旁引曲譬則有余(선금형, 1988).

## 4. 두 저서를 중심으로 한 조원이론 연구

### 4.1. 조원이론 해석의 틀 구축

#### 4.1.1. 해석의 틀 설정을 위한 선행연구 분석

본 연구의 기본적 ‘해석의 틀’을 새로 구축하기 위하여 연관된 저서와 문헌들을 검토하였다.

먼저 상관한 저서에 대해 살펴본 결과 팽일강(彭一剛, 1986)의 『중국고전원림분석(中國古典園林分析)』에서는 중국 고전원림의 실제 사례를 들어 ‘내향(內向)과 외향(外向)’과 같은 조원기법을 중심으로 ‘원림건축의 특성’, ‘의경(意境)에 대한 추구’ 등에 대해 해석했다. 왕국연(汪菊淵, 2006)의 『중국고전원림사(中國古典園林史)』에서는 구체적으로 중국의 조원역사의 흐름을 바탕으로 ‘철산치석(掇山置石)’, ‘이수(理水)’, ‘식물’에 따른 원림요소별, 실제 사례와 결합을 통하여 중국 원림의 역사를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마찬가지로 조임제(曹林娣, 2009)의 『중국원림예술개론(中國園林藝術概論)』에서는 구체적으로 중국 원림의 역사, ‘철산치석(掇山置石)’, ‘건축’, ‘수 요소’, ‘식물’이 포함된 원림요소별, 사상적 차원을 중심으로 중국 원림의 예술개론에 대해 해석했다.

또한, 맹조정(孟兆禎, 2012)의 『원연(園衍)』은 계성의 『원야(園冶)』를 기반으로 차경(借景)을 중심으로 명지(明旨), 입의(立意), 문명(問名), 상지(相地), 포국(布局), 철산치석(掇山置石) 등에 대해 새롭게 분석했고 실제 설계와 현장 고찰을 통하여 원림 이법(理法)의 해석의 틀을 재구축했다. 이정(李正, 2010)의 『조원의장(造園意匠)』에서는 입의(立意)를 비롯하여 구체적으로 ‘입지’, ‘철산이수(掇山理水)’, ‘공간배치’, ‘건축’, ‘동선’ 등으로 분류하여 실제 원림 사례를 통하여 조원이론을 해석했다. 손소상(孫筱祥, 2011)의 『원림예술과 원림설계(園林藝術及園林設計)』에서는 원림배치의 기본원칙, ‘지형 및 수 공

간’, ‘건축과 구조물’, ‘동선’, ‘동식물’ 등의 원림요소에 따라 실제 원림 사례를 통하여 원림예술과 원림설계에 대해 분석했다. 사상적 차원의 심층이 있는 저서에 대한 고찰 결과는 장가기(張家驥, 1991)의 『중국조원론(中國造園論)』은 중국 철학사상을 핵심으로 중국의 조원사상을 분석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김학지(金學智, 2005)의 『중국원림미학(中國園林美學)』에서는 원림미학을 바탕으로 더욱 체계적으로 전체 공간구성, 원림요소별, 다른 예술과의 공통점에 대해 원림이론을 재조명했다. 한국과 일본도 상기와 같이 크게 ‘전체 공간구성’, ‘원림요소’, ‘철학사상’ 세 가지 차원에 출발하여 분석했다. 예컨대, 김농오 외(2009)의 『동양조경문화사(東洋造景文化史)』에서는 원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전체 공간구성’, ‘원림요소’로 분류해서 실제 사례별로 각 국가의 원림을 해석했다. 오카자키 아야아키라(岡崎文彬, 1976)의 『도설조원대요(圖說造園大要)』에서는 ‘이수(理水)’, ‘석조(石組)’, ‘식물’의 원림요소별, 전체 공간구성,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하여 해석했다(표 4-1). 이 외에 앞서 제1장 제3절의 연구동향에서 문진형의 『장물지』와 이어의 『한정우기』에 대한 국내외의 선행연구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기본적으로 상기 저서와의 ‘해석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전체 공간구성’, ‘원림요소’, ‘사상적 차원’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 중 두 가지로 결합하여 조원이론을 분석하거나 ‘전체 공간구성’, ‘원림요소’, ‘사상적 차원’ 삼자로 결합에 의한 조원이론 분석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중 학자들의 연구의 틀을 참조하였고, 특히 김학지(金學智, 2005)의 『중국원림미학(中國園林美學)』을 따라 본 연구의 틀을 새로 구축했다. 구체적으로 ‘전체 공간구성’을 ‘입지 및 공간배치’, ‘전체 공간 척도의 중요성’, ‘공간 원림요소의 조합’, ‘공간 분할’로 나누었고 ‘원림요소’를 ‘건축물’, ‘수 요소’, ‘석물’, ‘식물’로 나누어 분석했다. 다음으로 ‘전체 공간구성’과 ‘원림요소’ 두 가지 차원에서 고찰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요약하기 위해 본 연구의 명말청초의 시대배경, 두 조원가의 각각 삶

의 배경을 결합하여 분석했다.

표 4-1. 저서에 나타난 ‘해석의 틀’에 대한 고찰

분류	저자	연구주제	‘해석의 틀’의 구성에 대한 고찰
중국	팽일강(彭一剛, 1986)	중국고전원림분석 (中國古典園林分析)	실제 사례를 들어 조원기법을 중심으로 원림건축의 특성, 의경(意境)에 대한 추구 등에 대한 해석
	장가기(張家驥, 1991)	중국조원론 (中國造園論)	중국 철학사상을 중심으로 중국의 조원사상을 분석하는 것.
	김학지(金學智, 2005)	중국원림미학 (中國園林美學)	원림요소별, 다른 예술과의 공통성, 전체공간구성.
	왕국연(汪菊淵, 2006)	중국고전원림사 (中國古典園林史)	철산치석(掇山置石), 이수, 식물에 따른 원림요소별, 실제 사례.
	조임제(曹林娣, 2009)	중국원림예술개론 (中國園林藝術概論)	중국원림의 역사, 원림요소별, 사상적 차원.
	이정(李正, 2010)	원림의장 (造園意匠)	입의(立意), 입지, 철산이수(掇山理水), 공간배치, 건축, 동선 등으로 분류, 실제 원림 사례.
	손소상(孫筱祥, 2011)	원림예술과 원림설계 (園林藝術及園林設計)	원림배치의 기본원칙, 원림요소별.
	맹조정(孟兆禎, 2012)	원연(園衍)	차경(借景)을 중심으로 명지(明旨), 입의(立意), 문명(問名), 상지(相地), 포국(布局), 철산치석(掇山置石) 등에 대해 새롭게 재해석했음.
한국	김농오 외(2009)	동양조경문화사 (東洋造景文化史)	전체 공간구성, 원림요소별, 실제 사례.
일본	오카자키 아야아키라 (岡崎文彬, 1976)	도설조원대요 (図説造園大要)	지형, 이수, 동선, 석조(石組), 식물의 원림요소별.

#### 4.1.2. 조원이론 해석의 틀 구축

본 연구에서는 명말청초의 대표 조원 저서인 문진형의 『장물지』와 이어의 『한정우기』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해석의 틀’을 새로 구축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두 저서를 이해하기 위해 두 조원가의 성정(性情)의 특징, 저술배경, 구성 체계와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두 저서에 나타난 조원이론 구성 체계를 파악했다. 상기 선행연구 분석에서 ‘전체 공간구성’, ‘원림요소’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한 해석의 틀을 구성하는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장물지』와 『한정우기』 조원이론 해석의 틀을 설정했다. 전체 공간구성 차원에서는 ‘입지 및 공간배치’, ‘전체 공간 척도의 중요성’, ‘공간 원림요소의 조합’과 ‘공간 분할’로, 원림요소 차원에서는 ‘건축물’, ‘수 요소’, ‘석물’, ‘식물’로 상세하게 나누어 두 조원가의 조원이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이를 바탕으로 두 저서에 나타나는 그들의 철학사상, 생활태도와 가치지향을 포괄하는 조원이론을 종합하였다(그림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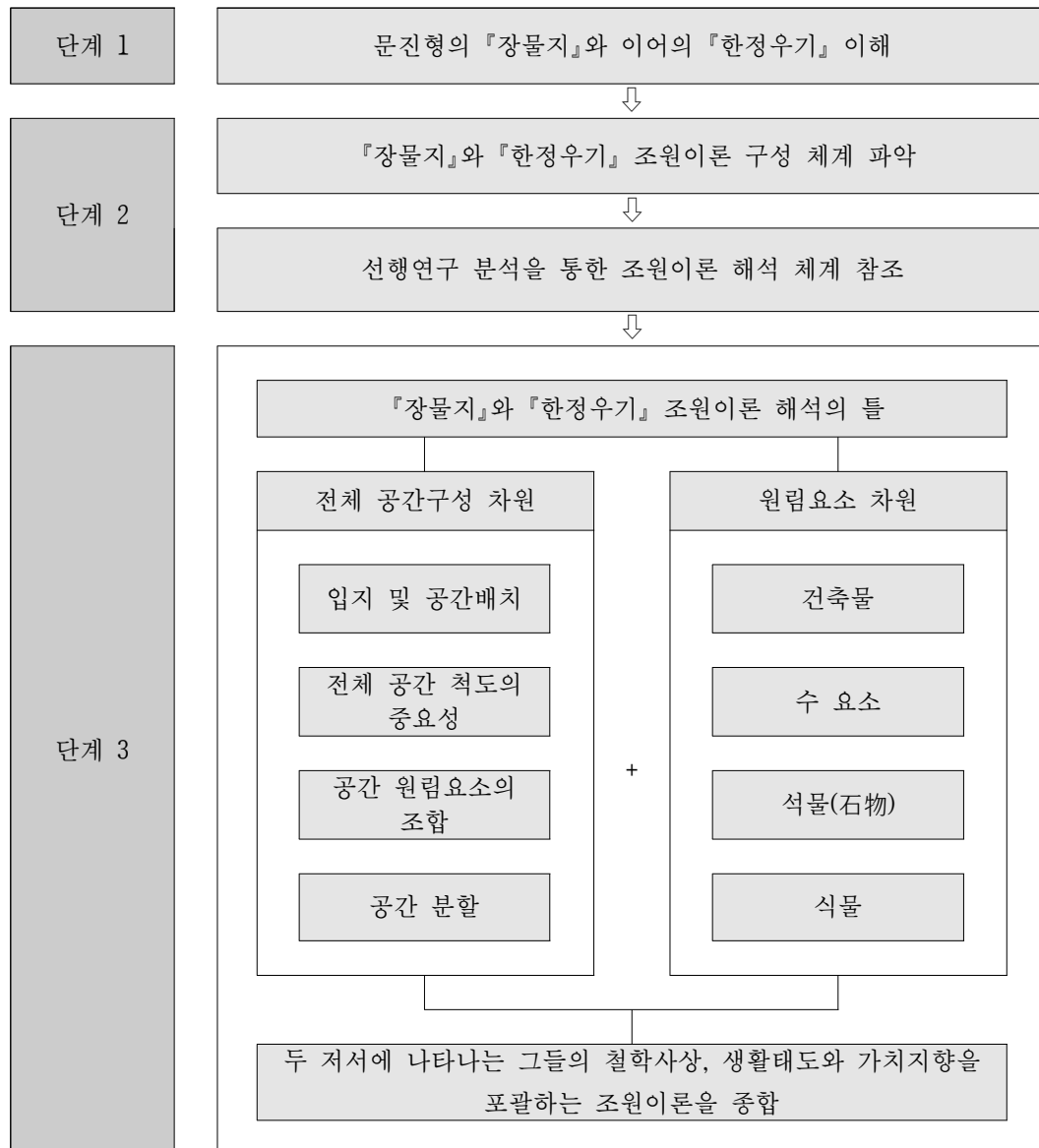


그림 4-1. 조원이론 해석의 틀 설정과정

## 4.2. 전체 공간구성 차원에서의 조원이론

### 4.2.1. 입지 및 공간배치

『장물지』 「실려」편 ‘산재(山齋)’에서는 낭(廊)이 지세(地勢)에 따라 공간을 배치되어야 하는 ‘수지소의[隨地所宜: 지세에 따른 적합한 원림 조영 방법]’을 언급했다.<sup>81)</sup> 이것은 『원야』에 ‘인지제의(因地制宜)’의 내용과 같이 원림 조영 과정에 지세에 따라 적합한 배치계획을 설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것이다. ‘인지제의(因地制宜)’의 ‘의(宜)’는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 ‘소안야(所安也)’라고 해석되었고, 구체적으로 ‘소안(所安)’은 적합하고 안정적이라는 뜻이다. 또한, ‘의’는 『시경·정풍·치의(詩經·鄭風·緇衣)』에서 ‘치의지의혜와 폐여우개위혜[緇衣之宜兮와 敝予又改爲兮: 검은 옷 너무 어울리네, 해지면 내 다시 지어드리지요]’에 나타났고, 많은 사료에 따라 ‘의’는 주로 ‘적절함’, ‘적합함’, ‘어울림’, ‘마땅함’으로 해석되었다.

이어도 문진형과 유사하게 『한정우기』에서 ‘인지제의(因地制宜)’를 서로 다른 부분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다. 예컨대, 『한정우기』 「거실부」 ‘고하(高下)’에서도 집을 지을 때 평지에 축조하는 것을 꺼리고 고저 기복의 지세(地勢)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것을 원림과 주택 모두에 해당되는 원칙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전저후고(前低後高)를 가장 일반적인 택지의 원칙으로 하고, 만약 지형적 여건이 구비 되지 못한다면 억지로 후고의 지형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그런가 하면 이어는 ‘인지제의지법(因地制宜之法)’의 실천방법을 세 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지세가 높은 곳에 옥(屋)을 짓고, 지세가 낮은 곳에 누(樓)를 짓는다. 둘째, 지세가 낮은 곳에 돌을 겹쳐 쌓아 가산을 만들고, 지세가 높은 곳에는 물길을 만든다. 셋째, 우뚝 솟은 곳을 성토하여 더 높게 만들고, 저지대는 더 낮은 지형으로 만든다(장림, 2018,

81) 或傍檐置窓檻, 或由廊以入, 俱隨地所宜(김의정 외, 2017, pp.75-76.).

pp.141-142). 이런 세 가지 방법은 고정된 법칙이라기보다 주어진 지형에 따라 유연하게 접근하는 방법이었다. ‘전저후고(前低後高)’의 물리적인 형태를 조성하는 수단으로서 제시되어 있다.<sup>82)</sup> 또한, 그의 『한정우기』 「거실부」 ‘향배(向背)’에서는 집의 터 잡기에서 좌향(坐向)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언급되었다. 특히 ‘좌북조남(坐北朝南)’의 좌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데 전통적인 택지관(擇地觀)<sup>83)</sup>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면을 기준으로 북쪽의 집은 뒤쪽에 공터를 남겨 두어 남풍을 원활히 받아들이고자 했고, 동향집은 오른쪽을 비우는 한편, 서쪽을 향하는 집은 왼쪽을 비워두도록 했다. 만약 동쪽, 서쪽과 북쪽에 공터가 없는 경우라면, 지붕을 개방하기를 권장하기도 했는데<sup>84)</sup>, 이러한 점은 좌향을 결정하는 목적이 ‘조남(朝南)’의 개념 그대로 일광과 남풍을 염두에 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한정우기』에서는 지형을 다루는 과정에 건축물 좌향 선정의 원론적 개념을 명시하면서도, 지세에 따른 원림 배치방법의 중요성 역시 간과하지 않았다(표 4-2).

종합하면 두 저서는 모두 원림의 터는 방향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고 원래 지세(地勢)의 높낮이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진형은 ‘수지소의[隨地所宜: 지세에 따른 적합한 원림 조영 방법]’를 제시했고, 이어도 유사한 조원이론인 ‘인지제의지법[因地制宜: 지세에 따른 원림의 배치방법]’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그림 4-2).

높은 정당과 넓은 정자, 곡방(曲房)과 오실(奧室)과 같은 깊은 방은 모두 적당한 곳에 배치되어야 한다. 도서(圖書)나 제사에 쓰이는 기물 같은 종류는 적당한 위치에 놓아야 한 폭의 그림과 같아진다(진식, 1984; 김의정, 2017).<sup>85)</sup>

82) 房舍忌似平原，須有高下之勢，不獨園圃為然，居宅亦應如是。前卑後高，理之常也；然地不如是，而強欲如是，亦病其拘。總有因地制宜之法：高者造屋，卑者建樓，一法也；卑處疊石為山，高處浚水為池，二法也；又有因其高而愈高之，堅閣磊峰於峻坡之上，因其卑而愈卑之，穿塘鑿井於下濕之區。總無一定之法，神而明之，存乎其人，此非可以遙授方略者矣(선금형, 1988, p.158.).

83) 중국 역대 황제들의 궁궐이나 능은 좌북조남(坐北朝南)의 방향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방환경도 엄격하게 좌청룡(左靑龍)·우백호(右白虎)·전주작(前朱雀)·후현무(後玄武)라는 이상적인 입지구도에 따른 것이다(『周易』 ‘兌卦’와 『淮南子·兵略訓』).

84) 屋以面南為正向。然不可必得，則面北者宜虛其後，以受南薰；面東者虛右，面西者虛左，亦猶是也。如東，西，北皆無余地，則開窗借天以補之(선금형, 1988, pp.157-158.).



표 4-2 ‘지세(地勢)에 따른 원림의 배치방법’ 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개괄

저서	챕터	관련된 내용에 대한 요약
장물지	산재(山齋)	수지소의[隨地所宜: 지세에 따른 적합한 원림 조영].
	난간(欄桿)과 낭(廊)	처마 가까이에 창 아래 난간을 설치하거나 낭(廊)에서 실내로 모두 실제 지세에 따라 배치하라고 했음.
한정우기	고하(高下)	인지제의지법(因地制宜之法)을 제시했음.
	향배(向背)	‘좌북조남(坐北朝南)’의 좌향(坐向)으로 자리 잡았다고 했음.

참고자료: 위의 내용은 진식(1984)과 선금형(1988)의 저서를 참고하여 재정리되었음.



그림 4-2. [清] 전숙미(錢叔美)의 <연원도(燕園圖)>, 지세(地勢)에 따라  
녹전랑(綠轉廊)의 모습(국부).

그림출처: 동준(2014). 『江南園林志』. p.152.

85) 高堂廣榭, 曲房奧室, 各有所宜: 即如圖書鼎彝之屬, 亦須安設得所, 方如圖畫(김의정 외, 2017, p.604.).

#### 4.2.2. 전체 구조 및 공간 척도의 중요성

본 절에서는 ‘조원의 전체 구조’와 ‘공간 척도’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조원의 전체 구조’에 대해 『장물지』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한정우기』에서는 원림 전체의 구조를 구상하는 과정에서 ‘의재필선(意在筆先)’과 ‘구학전흉(丘壑填胸)’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위 ‘의재필선’과 ‘구학전흉(丘壑填胸)’이란, 작문이든 작화든 조원이든 전체적인 구상에 숙달된 뒤 붓을 대야 한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한정우기』 「거실부」 ‘대산’에서는 대청(大廳)에 걸려 있는 선비들의 서화를 감상할 때 글씨의 획까지 뚜렷하게 잘 보지 않지만, 전체 기세(氣勢)만 봐도 뛰어난 작품이라 판단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서화 전체의 기백(氣魄)이 넘치고 전체적인 장법(章法)이 좋기 때문이다. 또한, 원림에서 ‘대산(大山)’에 대한 칠산(掇山)의 기법을 제안했다. 이어는 ‘대산’을 쌓는 과정에서 원림에의 ‘소산(小山)’보다 ‘대산’을 쌓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큰 산은 이어지는 부분에 인공적인 흔적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이토대석(以土代石)’의 방법을 제안했는데, 이는 인공적인 흔적이 있어 보이는 단점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가산에 흙이 있기 때문에 식목을 적절히 심어 포인트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인력과 물력을 줄일 뿐만 아니라 돌고유의 윤곽 미도 지킬 수 있고, 가산을 진짜 산의 중간에 섞어 놓아 분별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위의 예시를 통해 이어가 ‘의재필선’에 대한 이해가 투철함을 알 수 있다. 이런 방법을 원림을 만드는 실천과정에 적용함으로써 작문, 작화, 조원의 삼자 간에 일맥상통하는데 대한 이해가 투철함을 알 수 있다.

둘째, ‘공간 척도’에 대해 『장물지』 「실려(室廬)」편에서는 당(堂)과 누각(樓閣), 창당[敞堂: 넓은 방]의 척도는 넓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堂) 정방(正房)의 규격은 확 트이고 정교해야 마땅하고, 누각(樓閣)에서 시야가 탁 트인

것이 좋고, 올라가 보는 경치가 웅장하고 수려한 것이 좋다고 했다. 특히 문진형은 넓고 트이는 당(堂)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창당(敞堂)에서는 긴 여름에는 방이 널찍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확 트이는 정방(正房)을 만들기 위해 창문과 난간을 없애고 앞에는 오동나무 뒤에는 대나무로 식재해야 한다고 했다. 『장물지』 「수석(水石)」편 ‘광지(廣池)’에서는 연못이 넓을수록 승경(勝景)이라고 했다. 또한, 『장물지』 「주거(舟車)」편 ‘주(舟)’에서는 큰 배와 작은 배를 척도의 기준으로 삼아 큰 배의 길이는 3장(丈) 곧 1,000cm가 넘고 머리 부분의 넓이가 5자(尺) 곧 166.7cm로, 작은 배는 길이가 1장(丈)이 넘고 폭은 3자(尺) 곧 100cm 가량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문인사대부 계층을 대표하는 문진형이 넓은 건축물과 광지, 그리고 배의 규모 측면에서 그 당시 문인사대부 계층으로서 높고 귀한 신분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러한 넓은 공간만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고 그가 또한 ‘의[宜: 적절함]’의 공간 척도를 제안했다. 예를 들면 정방 안 들보의 높이와 넓이는 서로 맞아야 한다고 했고, 낭도(廊道)의 너비와 건물 처마의 높이는 연석 한 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로서 ‘이인위본[以人爲本: 사람을 근본으로 삼는 것]’의 조원이론을 엿볼 수 있다.

문진형에 비해 이어는 넓은 건축물과 광지 등에 대한 기록은 많지는 않았지만, 공간 척도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람을 중심으로 삼는 것’과 ‘적절함’에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이어는 특별히 사람과 건축물을 어울리게 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공간 척도와 적절한 척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형호(荊浩; 850-911)<sup>86)</sup>의 화론(畫論)인 『산수결(山水訣)』에 나온 ‘장산척수, 촌마두인(丈山尺樹, 寸馬豆人)’<sup>87)</sup>의 회화기법에 따라 건물도 사람과 어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탕왕(湯王)의 아홉 자,

86) 형호(荊浩; 850-911)는 중국 당말·오대 때의 화가이다. 현존의 『필법기(筆法記)』는 그의 『산수결』의 단장을 후인이 보철한 것 같으며, 그의 회화관(繪畫觀)을 엿볼 수 있다(<https://terms.naver.com/>).

87) ‘장산척수, 촌마두인(丈山尺樹, 寸馬豆人)’은 산은 한 장(丈: 333.3cm) 크기로 나무는 한 자(尺: 33cm) 크기로, 말은 한 촌(寸: 3.3cm) 크기로 사람은 콩의 크기로 하면, 가장 적합한 비율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회화에서 가장 적합한 비율이다(김의정, 2018, p.141.).

주문왕(周文王)의 열 자나 되는 신장과 같은 사람이라면 처한 건물은 그에 맞게 적당히 높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건물이 높을수록 사람이 작아 보이고 건물의 넓이는 넓을수록 사람이 야위어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빈한한 집안의 경우 비좁은 건물을 넓히지 못하지만, 집안의 더러움을 제거한다면 낮고 좁은 건물도 커 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요약하면 이어는 건물과 사람의 척도에 대해 어울림을 중요시하고, 부귀한 집안이라도 재력을 과시하려고 건물을 크게 지어 신분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이 외에 빈한한 일반 서정인들에게 그는 집안의 물품을 줄임으로써 건물이 많이 넓어 보일 수 있다고 했다.

#### 4.2.3. 공간 원림요소의 조합

##### 4.2.3.1. 화목의 공간배치

화목의 공간배치에 대해서는 『원야』에서는 버드나무 사이에 복숭아나무를 심으면, 봄에 복숭아꽃이 붉고 버드나무가 더욱 푸르러 보이는 광경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장물지』에서는 『원야』와 달리 버드나무 사이에 복숭아나무를 심는 양식은 속(俗)되었다고 했다. 그는 이끼를 선호하여 『장물지』에 여러 차례 이끼에 대해 묘사를 했다. 문진형은 이끼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끼가 고풍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장물지』에는 소나무나 매화나무 아래에 적당한 화초류를 식재하는 것이 제안되어 있다. 『한정우기』에서는 종려나무는 가지가 적어서 나무 밑에 많은 화목을 심을 수 있다고 했다. 위에서 햇빛을 많이 가리지 않아 아래에 있는 화목이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이다.

고풍스런 매화나무의 껍질은 물고기 비늘과 같으며, 나무 가운데에 푸른 이끼가 잔뜩 돋고, 꽃을 머금고 잎이 돌아나며 오랫동안 시들지 않는 것이 우아하다(진식, 1984; 김의정 외, 2017).<sup>88)</sup> - 『장물지』

수선화는 소나무나 대나무 밑에 심거나 고풍스런 매화나무와 기이한 돌

88) 又有古梅，蒼蘚鱗皴，苔須垂滿，含花吐葉，歷久不敗者，亦古(진식, 1984; 김의정 외, 2017).

사이에 심으면 더욱 우아하다(진식, 1984; 김의정 외, 2017).<sup>89)</sup> - 『장물지』  
수선화, 난초와 혜초, 원추리와 같은 종류는 그 아래에 심어야 한다(진식, 1984; 김의정 외, 2017).<sup>90)</sup> - 『장물지』  
종려나무는 많은 꽃 가운데에 심어져야 한다(선금형, 1988; 김의정, 2018).<sup>91)</sup> - 『한정우기』

#### 4.2.3.2. 화목과 돌의 공간배치

화목과 돌의 공간배치에 대해서는 먼저 『장물지』에서 ‘나무는 많이 식재할 필요가 없고 진귀한 품종을 한두 그루 심되 영벽석(靈璧石)과 영석(英石)을 곁들이면 더욱 좋다’고 하는 완상방식이 제안되어 있다(그림 4-3).

『한정우기』에서 석류나무와 바위의 조화로운 배치에 대해 언급됐다. 햇빛을 좋아하는 특징을 활용하여 석류나무 그늘 아래에 집을 지으면 석류나무가 만 들어낸 그늘이 집 위의 허공을 장식하게 된다. 또한, 석류나무는 생리적으로 뿌리가 늘리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뿌리 근처에 바위를 놓아 가산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했다. 석류나무의 뿌리는 바로 산기슭이 된다고 했다.<sup>92)</sup>

이 외에 『장물지』와 『한정우기』에서는 작은 분경(盆景) 공간까지 화목과 바위의 공간배치가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분재에 식물의 옆에 영벽석(靈璧石), 영석(英石), 서산석(西山石)으로 보조하고, 그 남은 것들은 고품격의 돌이 아니다(진식, 1984; 김의정 외, 2017).<sup>93)</sup> - 『장물지』

분재에 호자나무를 기르고, 옆에 선석(宣石)으로 산봉우리처럼 만든다. 배치가 적당하면 마치 한 폭의 산수화와 같다(선금형, 1988; 김의정, 2018).<sup>94)</sup> - 『한정우기』

위의 내용을 통해 비록 분경은 작은 공간이지만 화목과 바위의 상호 조화로운 배치는 한 폭의 그림처럼 구현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다.

89) 次者雜植松竹之下, 或古梅奇石間, 更雅(진식, 1984; 김의정 외, 2017).

90) 水仙, 蘭蕙, 萱草之屬, 雜蒔其下(진식, 1984; 김의정 외, 2017).

91) 棕櫚, 植於眾芳之中(선금형, 1988; 김의정, 2018).

92) 榴性喜壓, 就其根之宜石者, 從而山之, 是榴之根即山之麓也(선금형, 1988; 김의정, 2018).

93) 石以靈璧, 英石, 西山佐之, 余亦不入品(진식, 1984; 김의정 외, 2017).

94) 長盆栽虎刺, 宣石作峰巒. 布置得宜, 是一幅案頭山水(선금형, 1988; 김의정, 2018).



그림 4-3. 영벽석(靈壁石)(좌), 영석(英石)(우).  
사진출처: <https://www.baidu.com>.

#### 4.2.3.3. 화목과 기물(器物)의 공간배치

화목과 기물의 공간배치에 대해서는 『장물지』와 『한정우기』에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설명하고 있다. 특히, 화목과 기물의 배치에 대하여 『장물지』 「화목」편 ‘병화(瓶花)와 분완(盆玩)’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자스민 꽃은 탁자에서 감상하는 식물로는 적당치 않다. 야합(夜合)만 못하니 병에 꽃아 감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진식, 1984; 김의정 외, 2017).<sup>95)</sup> - 『장물지』

진정으로 꽃을 감상할 줄 아는 자는 반드시 특이한 품종을 찾아 고풍스런 화분으로 국화 한 두 그루 심는 것이다(진식, 1984; 김의정 외, 2017).<sup>96)</sup> - 『장물지』

한 방에 거처하면 함께 진열되는 것을 아름답게 해야 하므로, 서화와 향로 등 같은 기물을 모두 난초 옆에 진열해야 마땅하다(선금형, 1988; 김의정, 2018).<sup>97)</sup> - 『한정우기』

위의 내용을 통해 이어가 난초를 대단히 애호하여 난초를 자신의 봄철 생명으로 비유했을 정도로 각별히 가꾸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는 난초 배치를 먼저 정하고 난 다음 서화, 향로, 꽃병 등 같이 감상할 수 있는 기물을 옆에 배치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다만 향을 같이 피워서는 안 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향기로 인해 근처의 난초꽃이 시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95) 第枝叶非几案物, 不若夜合, 可供瓶玩(진식, 1984; 김의정 외, 2017).

96) 若真能賞花者, 必覓異種, 用古盆盎植一枝兩枝(진식, 1984; 김의정 외, 2017).

97) 居處一室, 則當美其供設, 書畫爐瓶, 種種器玩, 皆宜森列其旁(선금형, 1988; 김의정,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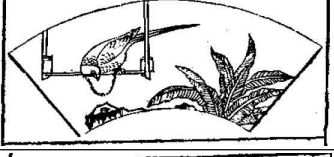

#### 4.2.3.4. 기타 원리요소의 조합

이상의 내용 외에 『장물지』와 『한정우기』에서는 ‘화목과 시설물’, ‘화목과 동물’ 과의 조화로운 배치에 대한 기록도 있다. ‘화목과 시설물’은 시설물인 돌난간이나 죽병(竹屏)을 활용하여 화목을 감상하는 방식이다.

문진형은 모란과 작약을 함께 심을 때는 문양이 있는 돌난간을 만들고, 균일하지 않게 차례대로 심는 것이 좋다고 언급했다. 이어는 돌난간보다 죽병과 같은 울타리를 활용하여 덩굴식물을 감상하는 방식을 상세하게 제시했다. 죽병과 조화를 올 수 있는 식물소재로는 9종의 덩굴식물이 있는데, 이들을 일일이 소개하면서 그 당시의 문화적 취향과 그의 경험이 반영된 새로운 디자인 양식을 제안했다.

또한, ‘화목과 동물’에서는 시설물인 창틀을 통해 실내공간에서 실외공간에 있는 화목과 동물을 향유하는 방식이 있다고 하였다(표 4-3). 또한, 이것은 정(靜)적인 경관인 화목과 동(動)적인 경관인 동물을 조화롭게 감상하는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3. 창틀을 활용한 외부의 조화로운 경물 감상

창틀의 종류	이미지	감상하는 정원요소
변면창화훼식 (便面窓花卉式)		난초, 돌
		꽃, 돌, 나비
변면창충조식 (便面窓蟲鳥式)		새, 돌, 파초
		학, 소나무

자료출처: 선금형(1988). 『한정우기』 「거실부」 ‘취경재차’ . pp.176-177.

#### 4.2.4. 공간 분할

##### 4.2.4.1. 창틀을 활용한 차경(借景)

차경은 중국 원림의 조성이나 원림 경관을 감상 할 때 흔히 사용하는 수법 중 하나이다. 차경을 연출하는 데 있어 가장 좋은 장소는 산수 사이에 입지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건축물 입지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한국의 차경은 밖에 있는 것을 원림 내부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중국의 차경은 원림 내부에서 내부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원림에 화창(花窓)·공창(空窓)·동문(洞門) 등을 설치하는 이유는 원림 내부 것을 다시 내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다. 이것은 중국의 ‘대원 중의 소원’의 구조 특징으로 가능한 것이다. 이미 조영한 공간A에서 원림 내부에 있는 다른 공간B로 끌어들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화창(花窓) 등을 통해 원림 내부에 있는 아름다운 원림요소를 인위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예컨대, 매화 모양의 창틀을 만들고, 원림 내부 공간에 매화를 식재하여 이 창틀을 통해 매화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두 저서의 예시를 들어 살펴봤다. 먼저 『장물지』는 상지(相地)와 관련된 차경이 따로 상세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았으나 「실려」편 ‘누각(樓閣)’에서는 ‘누각에 올라 먼 곳의 경관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먼 주변에 있는 자연경관을 빌려 산수 사이의 경색을 향유하는 것이 삶의 최고 경계(境界)’라고 하여 차경을 중시하고 있다. 또한, 문진형은 차경을 향유하는 조망 지점으로 누각뿐만 아니라 누각 주변에도 품격이 있는 경물(景物) 및 식물을 배치하여 그 의미를 보조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파초의 배식을 예로 들어 한 가지 보조적인 경물로 소규모 차경을 연출할 수 있다고 하였다. 큰 잎사귀는 바람에 부서지기 때문에 작은 파초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파초는 창밖에서 푸르게 빛나며 아름다운 경관을 이룰 수 있다.<sup>98)</sup> 문징명(文徵明)의 <줄정원삼십일경도지파초함(拙政園三十一景圖之芭蕉檻)>에서는 한 문인이

98) 綠窓分映，但取短者為佳，蓋高則葉為風所碎耳(김의정 외, 2017, p.183.).



창틀을 통해 파초와 주변부 경물을 감상하고 있다(그림 4-4). 문진형이 창틀을 통해 경치를 빌리는 대상은 다양하지 않고 단일했다. 한 마디로 원경(遠景)은 먼 산, 근경(近景)은 파초를 빌렸다.



그림 4-4. [明] 문징명(文徵明)의 <拙政園三十一景冊(국부). 한 문인이 창틀을 통해 가꾼 파초와 주변부 경물 향유.

그림출처: 蘇州園林博物館(2014). 『拙政園三十一景冊』.

『한정우기』 「거실부」 ‘취경재차(取景在借)’에서 이어는 ‘창틀을 통해 빌린 경치 감상’에 대해 자세히 언급했다. 이어는 아름다운 모든 경관을 다 빌려 쓸 수 있다고 생각했고 주안점은 창 의 설계라고 하였다. ‘취경재차(取景在借)’는 차경(借景)의 뜻과 유사한 것으로, 창 바깥의 외경을 끌어들여 방안의 풍경과 조화시킬 뿐만 아니라 더욱 돋보이게 하는 기법을 뜻한다. 또한, 이어는 상세하게 실내공간과 외부공간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상호 관련성이 뚜렷한 연속된 공간으로 보고 이론적 논의를 전개하였다. 예컨대 그 당시의 문화적 풍속을 반영한 다양한 기물(器物), 완물(玩物)의 구비와 배치를 통해 실내공

간의 향유를 중시했을 뿐만 아니라, 외부공간을 내부의 경관으로 끌어들이는 장치로 창틀의 기능을 강조했던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발상은 작은 배에 뚫은 창문 이야기로 시작했다.

창의 설치는 차정보다 오묘한 것이 없다. 그리하여 나는 차경의 수법으로 그 속의 오묘함을 깊이 터득했다.<sup>99)</sup>

이어는 한때 서호 인근에 살면서 조그만 배 한 척으로 호수 유람을 즐겼다고 한다. 그의 배에서 독특한 점은 부채 모양의 창호 디자인이었다. 이 창은 배의 좌우에 배치되어 ‘호방변면창(湖舫便面窓)’<sup>100)</sup>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었다. 배에 앉아 호수 양쪽으로 조망되는 사찰과 탑, 구름과 숲, 나무꾼과 목동, 사람과 말 등形形色색의 외부 풍경은 창틀을 통해 살아 움직이는 그림으로 현시되었다. 노를 저어 배가 움직이면 경치가 한 번 변화되고, 닻줄을 묶어 정박했을 때에도 바람에 따라 물결이 일어나면 화면에는 시시각각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처럼 변면창(便面窓)에는 하루에도 수천 폭의 산수화가 그려지게 되는데, 배 안에 앉은 관자(觀者)가 거쳐 가는 경치는 모두 이 창문에 수렴되고 시시때때로 음미된다.<sup>101)</sup> 이를 통해 이어는 이보이경(移步異景) 곧, 걸음을 옮길 때마다 색다른 경관이 나타나는 수법을 깊이 터득했다고 한다.

변면창(便面窓)의 기능은 창문 밖에 펼쳐진 풍경을 투영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관자(觀者)가 외부의 무궁한 경치를 배 안으로 끌어들이는 차경의 효과뿐만 아니라 평면적으로도 다양한 부채의 그림을 즐길 수 있다고 말한다.<sup>102)</sup> 그는 부채를 만들 때 산수, 인물, 대나무, 바위, 화조, 곤충 등 다양한 제재(題材)들이 부채꼴

99) 開窓莫妙於借景，而借景之法，予能得其三昧(선금형, 1988, p.170.).

100) 배 양측에 부채 모양의 창문. 實者用板，蒙以灰布，勿露一隙之光；虛者用木為匡，上下皆曲而直其兩旁，所謂便面是也(선금형, 1988, p.170.).

101) 坐於其中，則兩岸之湖光山色，寺觀浮屠，雲煙竹樹，以及往來之樵人牧豎，醉翁遊女，連人帶馬盡入便面之中，作我天然圖畫。且又時時變幻，不為一定之形。非特舟行之際，搖一櫓，變一像，撐一篙，換一景，即系纜時，風搖水動，亦刻刻異形。是一日之內，現出百千萬幅佳山佳水，總以便面收之。而便面之制，又絕無多費，不過曲木兩條，直木兩條而已(선금형, 1988, p.170.).

102) 此窓不但娛己，兼可娛人。不特以舟外無窮無景色攝入舟中，兼可以舟中所有之人物，並一切幾席杯盤射出窗外，以備來往遊人之玩賞(선금형, 1988, pp.170-171.).

창문 속에도 다채롭게 연출될 수 있게 그려 넣는다고 하였다. 즉, 창문 밖에 받침대를 놓아 화분, 분재, 새장, 괴석 등을 바꾸어 놓기만 하면, 매번 다른 그림을 창문에 그려 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변면창의 기능에 대해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배 안에서 밖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반대로 호숫가거나 강변에서 배를 바라봤을 때에도 색다른 선상풍경이 연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호숫가를 거니는 사람들도 배에 뚫린 부채꼴 창으로 투사된 내부 인물들의 활동을 보면서 마찬가지로 선면(扇面)의 도상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는 변면창을 매개로 발생하는 양방향 경관을 모두 중요하다고 여겼다. 이처럼 이어는 ‘간여피간[看與被看: 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을 조작하는 수법을 통해 독특한 경관향유의 방식을 개척했고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는 원림의 경관연출로 전해졌다(그림 4-5).

한편 이어는 배에서의 경관 향유하는 방식을 원림 조영에도 적용하였다. 누각에 창을 만들어 종산(鐘山)의 경치를 유사한 방식으로 감상하였는데<sup>103)</sup> 여기에 움직이는 배에서 보는 것과 같은 깊은 여운을 남기는 장면이 없음을 아쉬워하기도 했지만 원림경관에서도 응용할 수 있다는데 의의를 두었다. 여기서 누각과 앞에서 호방변면창(湖舫便面窓)을 통해 경치를 감상방식의 차이점은 전자는 ‘정관(靜觀)’<sup>104)</sup>이고 후자는 ‘동관(動觀)’<sup>105)</sup>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정관(靜觀)’과 ‘동간(動看)’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원림 속에서의 동적 체험은 일련의 쉼과 움직임으로 이뤄진다(성종상, 2011, p.41). 이상과 같이 이어는 창을 통해 독특한 경관상과 그것의 변화를 즐기는 방식을 하나의 이론으로 정립하였다. 따라서 연출되는 창틀의 형태와 가시화가 되는 경물의 종류에 따라 ‘변면창외퇴관장화식[便面窓外推板裝花式: 부채꼴 창외의 판자를 대고 꽃을 장식하는 양식]’, ‘산수도창(山水圖窓)’, ‘척폭창(尺幅窓)’, ‘매창(梅窓)’ 등으로 구분하였다.

103) 茲且移居白門，為西子湖之薄幸人矣。此願茫茫，其何能遂？不得已而小用其機，置機窓於樓頭，以窺鐘山氣色，然非創始之心，僅存其制而已(선금형, 1988, p.171).

104) 정관(靜觀)은 원림에서 유람객들은 관상 지점에서 머물고 경관을 감상하는 방법이다. 소원은 정관(靜觀)을 위주로 하여, 동관(動觀)을 보조로 한다.(何謂靜觀，就是園中予遊者多駐足的觀賞點。小園應以靜觀為主，動觀為輔)(陳從周, 2002, p.4.).

105) 동관(動觀)은 비교적 긴 유람 노선이 있어야 하며, 대원은 동관을 위주로 하여 정관(靜觀)을 보조로 한다(動觀就是要有較長的遊覽線。大園則以動觀為主，靜觀為輔)(陳從周, 2002, p.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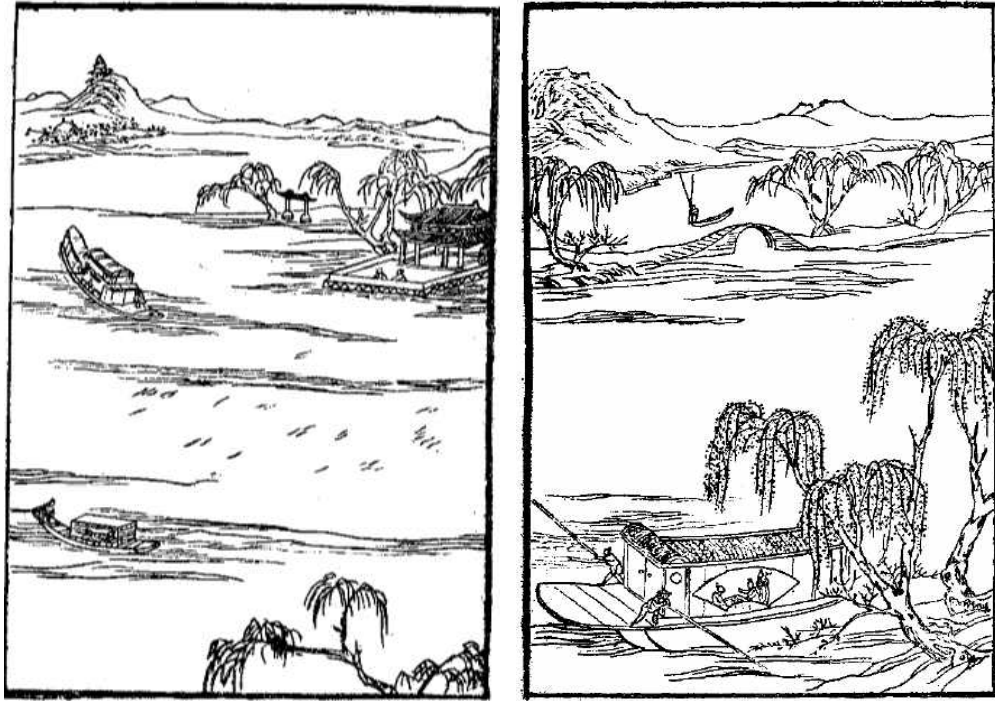


그림 4-5. 이보이경(移步異景)과 ‘간여피간[看與被看: 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  
그림출처: 선금형(1988). 『한정우기』 「거실부」 ‘취경재차’. pp.173-174.

‘변면창외퇴판장화식(便面窓外推板裝花式)은 ‘변면창화훼식[便面窓花卉式: 부채꼴 창에 화훼를 장식하는 양식]’, ‘변면창충조식[便面窓蟲鳥式: 부채꼴 창에 벌과 새를 장식하는 양식]’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러한 창틀을 통해 창밖에 있는 소재에 따라 꽃, 나무, 곤충과 새를 차경한 정황이 파악되고, 또한 ‘산수도창(山水圖窓)’이라는 이름을 통해서도 산수경관의 유인(誘引) 역시 중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당시의 실물이 온전히 확인되지 않음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다만 이론적인 견지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산수도창의 경우, 창의 난간에 기대어 밖의 경치를 살피는 것보다 창문과 거리를 두고 외부의 경치를 감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때 창밖의 풍경이 그림이 되고 그림의 내용이 산이 되는 방식으로 산과 그림이 연결된다고 했다. 이는 자연의 그림이 만들어 진다는 고견과 함께 예시삼화를 남겼다.<sup>106)</sup>

106) 凡置此窓之屋, 進步宜深, 使座客觀山之地去窓稍遠, 則窓之外廓為畫, 畫之內廓為山, 山與畫連, 無分彼

참고도상에 첨부된 다른 삼도는 척폭창(尺幅窓)이다. 이는 창이 닫힐 때를 고려하여 별도의 진화(眞畵)를 준비했다. 반드시 창의 크기에 맞춰 나무칸막이를 제작해야 하며, 그 위에 실제 경관에 준하는 명화를 표구하여 창에 끼워 넣는 방식이 주요한데, 창을 표구하는 독특한 방식이 도입된다.<sup>107)</sup> 보다 흥미로운 형태는 매창(梅窓)에서 연출된다. 이어는 기유년(己酉年) 여름에 비가 퍼붓고 땅이 오랫동안 마르지 않아, 서재 앞의 석류나무와 등자나무 한 그루가 수해를 입어 고사한 사례를 소개한다. 당초에는 그것을 베어버리려 했지만, 매우 단단하여 도끼로도 쪼개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날 방치했다. 그런데 나뭇가지가 구불구불한 것이 마치 고매(古梅)처럼 보였고, 고민 끝에 창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요지는 고목의 줄기로 만든 독특한 형태의 창틀을 만들었더니, 실내를 향한 가지가 매우 예스럽고 질박한 아름다움을 자아냈다는 경험담이다. 당시 이어가 만든 매창(梅窓)은 매화나무가 아니라 석류나무와 등자나무의 가지로 만든 것이었다. 매창(梅窓)이란 명칭을 붙인 이유는 가지가 굽은 모습이 매화나무와 흡사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이어가 형태와 소재를 다양한 종류의 창 설계를 통해 동관과 정관을 연출했다. 관자로 하여금 ‘실(實)’과 ‘허(虛)’의 양면으로 확장 가능한 ‘실제와 상상’의 공간을 제공했다. 이어는 앞서 밝혔듯이 경관을 향유하는데 있어 창을 통해 실내외를 감상하는 것을 매우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출방식이 오래 지속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소재의 내구성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표 4-4).

표 4-4. 이어의 창의적 창틀의 디자인

분류	이미지	활용 방식
변면 창의 퇴판장화식 (便面窓外推板裝花式)		부채꼴 창의 외곽에 판자를 대고 꽃을 장식하는 양식.

此, 見者不問而知為天然之畵矣. 淺促之屋, 坐在窓邊, 勢必倚窓為欄, 身之大半出於窗外, 但見山而不見畵, 則作者深心有時埋沒, 非盡善之制也(선금형, 1988, p.178.).

107) 必須照式大小, 作木櫺一扇, 以名畵一幅裱之. 嵌入窓中, 又是一幅眞畵(선금형, 1988, pp.179-180.).

산수도창(山水圖窓)		마치 한 폭의 산수화(山水畵)와 같음.
척폭창(尺幅窓)		1. 창문을 열면 바깥 풍경을 감상하는 데 쓰임. 2. 창문 크기에 맞는 산수화를 넣을 수 있음.
매창(梅窓)		매화 완상(玩賞).

자료출처: 선금형(1988). 『한정우기』 「거실부」 ‘취경재차’ . pp.170-181.

종합하면 문진형과 이어가 각자의 저서에서 언급한 내용은 서로 달랐지만, 모두 원림 조영 과정에서 대상지 자체는 물론 주변부 전체를 살펴보는 주변 경관을 중요시했다. 차경을 서술함에 있어서 문진형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땅 읽기 과정에 먼 주변 경치는 조영한 원림과 조화롭게 이루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도 『한정우기』 「거실부」 ‘취경재차(取景在借)’ 에서 실내 창틀을 통해 먼 곳의 경관대상을 유인하여 주변 산수 경관을 즐긴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차경의 경관에 대하여서 이어는 문진형과 달리 아름다운 모든 경관을 다 빌려 쓸 수 있다고 강조했고 이 중 주안점은 창문의 설계였다. 설계 양식에 있어서 그는 구체적으로 산수도창 외에 변면창외퇴판장화식(便面窓外推板裝花式), 척폭창(尺幅窓)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진행하였다. 한편 창틀은 내외 공간을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인 내부 공간에서 원림 외부 공간으로 연장할 수 있는 매개체인 역할을 하였다.

#### 4.2.4.2. 낭도와 담장 등을 활용한 공간 분할

앞서 두 조원가의 ‘창틀을 활용한 차경(借景)’에 대해 해석했는데, 본 절에서는 ‘낭도와 담장 등을 활용한 공간 분할’에 대해 해석했다.

『장물지』 「실려」편 ‘산재(山齋)’에서는 “산재는 밝고 깨끗해야 하며 너무 넓은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하였다. 공간이 너무 넓으면 눈이 쉽게 피로해진다. 때로는 처마 옆에 창문 난간을 설치하기도 하고, 때로는 낭도를 직접 연결할 수도 있고 모두 지세(地勢)에 따라 적절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중정[中庭: 건물 내부에 있는 정원]은 약간 넓어야 꽃과 나무를 식재하고 분재까지 놓을 수 있다고 했다. 그가 실제 만든 향초타에도 중향랑(眾香廊), 사월랑(斜月廊)이라 불리는 낭도를 설계하였는데 낭도의 명칭만 봐도 꽃놀이와 달맞이에 활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낭도를 활용하여 공간을 재미있게 만들고, 공간에서 감상할 수 있는 원림요소도 풍부하게 되었다. 이 외에 문진형은 주변의 수려한 경치를 더욱 즐기기 위해 넓은 연못과 거대한 호수 위에 무늬가 있는 돌다리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그가 낭도와 다리를 활용하여 공간을 분할하고, 낭도나 다리 위에서 주변 아름다운 경물을 빌려 감상한 사실을 알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낭도와 다리는 모두 통투성(通透性)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활용하는 것은 관상의 흥미를 더하는 좋은 수단이라 할 수 있다(표 4-6).

유사하게 『한정우기』에서도 공간과 공간 사이에 기타 원림요소를 교묘하게 설치하여 더욱 흥미로운 공간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어는 문지형과 달리 ‘담장의 공간분할 역할’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언급했다. 『한정우기』 「거실부」 ‘장벽제삼(牆壁第三)’에서는 여장(女牆)<sup>108)</sup>이라는 담장을 설명했다. 여장은 성가퀴를 응용하여 명청(明清) 시기의 주택에 설치한 낮은 담을 가리켰다. 이러한 담장에는 문양을 박아 넣거나 구멍을 뚫어 안팎에서 서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했다. ‘일가축장, 양가호간[一家築牆, 兩家好看: 한 집에서 담을 쌓으면

108) 『고금주(古今註)』에 따르면 여장은 성 위의 작은 담으로 ‘비예(睥睨)’라고도 하며, 성 위에서 사납을 살펴보는 것을 뜻한다(김의정, 2018).



두 집에서 모두 보기에 좋다.]’ 고 하는 속담처럼 내외에서 서로 좋은 경치를 빌려 향유할 수 있는 것이 목적이었다. 한편으로 이어는 담장의 누창(漏窓)을 설계하는 목적은 원래 완전히 가려진 공간을 다시 이어지도록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담장에 누창(漏窓)을 설계하는 기법은 그가 실제 북경에 가한복(賈漢復)을 위해 설계한 반무원(半畝園)에서도 선명하게 밝혔다.

종합하면 문진형과 이어는 원림요소인 낭도, 다리, 담장을 활용하여 ‘대원 중의 소원’을 형성하였고, 공간과 공간 차이에 서로 좋은 경치를 빌려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낭도와 다리는 담장보다 통투성(通透性)이 비교적 강해서 낭도와 다리를 통해 더욱 주변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담장은 낭도와 다리처럼 완전히 통투성(通透性)을 가지고 있는 원림요소가 아니지만, 유사하게 담장에 누창(漏窓)의 설계하는 것도 원래 완전히 끊어진 공간을 다시 연결하였고 내외에서 서로 좋은 경치를 즐기는 것이 목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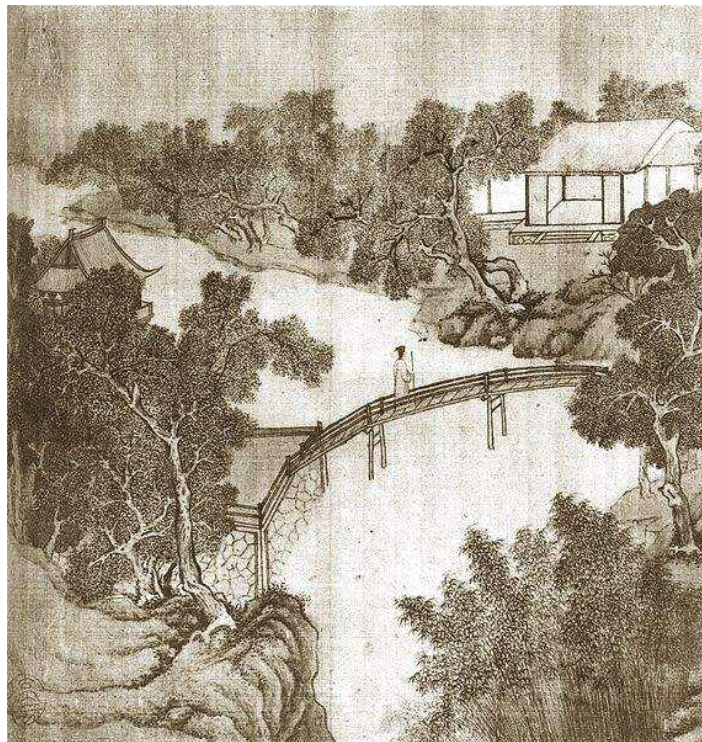


그림 4-6. 소비홍(小飛虹) 양쪽이 관통하는 공간.  
그림 출처: 文徽明繪『拙政園圖詠』에 나타난 소비홍(小飛虹)(1531).



## 4.3. 원림요소별 조원이론

### 4.3.1. 건축물

#### 4.3.1.1. 유형별 기능

『장물지』와 『한정우기』에 나타난 건축물과 부속시설물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표 4-4).

『장물지』 「실려(室廬)」편에서 건축물로는 당(堂), 산재(山齋), 누각(樓閣), 대(臺), 장실(丈室), 불당(佛堂), 다실(茶室), 금실(琴室), 욕실(浴室)이 있고, 「위치」편에서 소실[小室: 작은 방], 와실(臥室), 정사(亭榭), 창실[敞室: 넓은 방], 불실(佛室)이 있다. 그리고 부속시설물은 문, 계단, 창문, 난간, 조벽(照壁), 다리, 바닥포장 등을 포함한다. 진식의 『장물지교주(長物誌校註)』에서는 건축물 및 부속 시설물의 명칭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문진형의 거처인 향초타는 원래 풍 씨(馮氏) 집안의 폐원을 개조한 것으로 정원에 선연당(嬋娟堂), 수협당(繡峽堂), 농아각(籠鵝閣), 옥국재(玉局齋), 소대(嘯臺)의 건축물을 건설하고, 중향랑(眾香廊), 사월랑(斜月廊), 학서[鶴棲: 은거처], 녹채[鹿砦: 울타리], 어상[魚床: 물고기 서식처가 있는 침상], 교가[喬柯: 키 높은 나무]와 기석(奇石)의 정원요소를 두었다. 하지만 이는 『장물지』 「실려(室廬)」편에 기재한 원림요소들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의 『장물지』에 기록된 건축물은 단지 그 당시에 일반적인 건축물에 대한 요약일 뿐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건축물 중에서 문진형의 일상 취미와 가장 밀접한 것은 금실(琴室)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제2장 그의 생애사에 대해 언급했듯 송정제 주유검(朱由檢: 1611-1644) 황제 재위 시 그가 조정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거문고 작곡과 연구의 재능으로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고 무영전중서사인(武英殿中書舍人)의 관직까지 받았다. 『장물지』 「실려」편 ‘금실’에서는 그가 다층 누각의 아래층에서 거문고를 연주하면 소리가 듣기 좋고, 아래층에 공간이 텅 비어 있으면

거문고 소리가 더욱 투철하게 들렸다고 한다. 이것으로 그의 거문고의 조예가 상당히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키가 큰 소나무, 넓은 대나무 숲, 바위 동굴, 석실(石室)에 금실을 설치하면 세속에 결코 없는 절경(絶境)과 우아한 경지(境地)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정오에 땀을 잘 흘려 날씨가 건조해서 현이 약해지기 때문에 여름철 아침과 저녁에 거문고를 연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이를 통해 그가 원림에서 금실 공간을 설치하고서 일상생활에서 거문고를 즐기는 장면을 연상할 수 있다. 또한, 「기구」편에서는 거문고의 외관과 금대(琴臺)까지 상세하게 언급하면서 거문고는 고악(古樂)으로서 비록 연주할 수 없어도 금실 내부의 벽에 하나를 걸어 놓아야 한다고 했다. 이것으로 그가 거문고의 조예에 정통하여 거문고를 각별히 사랑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문진형은 <당인시의도책(唐人詩意圖冊)>에서 두 문인 사대부가 대나무 숲에서 교류하는 장면을 그리기도 했다(그림 4-7). 작화에서 한 사람은 거문고를 연주하고, 다른 한 사람은 시문을 읽는 모양이다. 그림 오른쪽 아래 문진형의 작시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蟲思庭莎白露天	백로 절기에 정원에 사초 가운데는 가을벌레가 찌르르 우는 소리를 내면서
微風吹竹曉淒然	산들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니 쓸쓸한 기분이 드네
今來始信琴中調	금일에 온 신사(信使)에게 거문고를 연주하게
暗寫歸心向石泉 <sup>109)</sup>	고향으로 돌아가는 심정을 은근히 드러냈다

위의 시문은 문진형이 당나라 시인 양사악(羊士諤; 762-819)의 시구를 빌려 썼다. 거문고 소리를 통해 그의 향수가 은근히 드러났다.

109) 이 시는 당나라 양사악(羊士諤; 762-819)의 제목인 『臺中遇直，晨覽蕭侍禦壁畫山水』에서 나왔다. 이 시의 세 번째 구절은 ‘今來始悟朝回客’ 이었는데, 문진형이 ‘今來始信琴中調’로 바뀌었다.



그림 4-7. [明] 문진형의 <당인사의도책(唐人詩意圖冊)>, 設色紙本 縱 28cm 橫 34cm(국부). 두 문인  
사대부가 대나무 숲에서 교류하는 장면  
그림출처: 청궁구(淸宮舊) 소장.

금실 외에 문진형은 은자로서 다실(茶室)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했고, 다양한 종류의 차, 다구, 차를 끓이는 시동(侍童)까지 상세하게 논술했다. 문진형의 증조부인 문징명(文徵明)은 역시 다도를 좋아하는 문인 사대부이었다. 권수(卷首) 채우(蔡羽)의 <혜산다회서(惠山茶會圖)>에 따르면, 명 정덕 13년(1518) 2월 19일에 문징명과 절친인 채우(蔡羽), 왕수(王守), 왕충(王寵) 그리고 탕진(湯珍) 등 7명이 혜산(惠山)을 유람하면서 음차와 부시(賦詩)한다고 기록했다. 이 그림은 다회 때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모정(茅亭)과 혜천(惠泉)이 송림과 산골짜기에서 두 문인 사대부가 혜천(惠泉) 옆에서 마주 앉아있고, 한 문사가 그들에게 공수하는 자세로 인사하고 있다. 그들 사이에서 두 명의 동자는 차를 끓이거나 다회를 준비하고 있다(그림 4-8). 뿐만 아니라 문징명이 그린 <품차도(品茶圖)>에는 두 문인들이 초가집에서 한가롭게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초가집의 탁 트인 문을 통해 주변의 물소리를 들으며 경치를 감상하고 있었다(그림 4-9). 다실(茶室) 외에 산재(山齋), 장실(丈

室), 불실(佛室)과 같은 건축물들은 일종의 조용한 곳이고, 모두 은자가 선호하는 장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8. [明] 문징명(文徵明)의 <혜산회도(惠山會圖)>, 設色紙本, 縱 21.9cm, 橫 67cm(국부).  
그림출처: 북경고궁박물원 소장.



그림 4-9. [明] 문징명(文徵明)의 <품차도(品茶圖)>, 設色紙本, 縱 142.31cm, 橫 40.89cm(국부).  
그림출처: 대북국립고궁박물원 소장.

『한정우기』 「거실부」에서는 건축물과 부속시설물에 대하여 현, 정자, 대, 다리, 창문, 난간 등과 같은 원림요소들을 서술했다. 저서에서 구체적으로 그의 개자원에 있는 건축물 등의 명칭까지 상세하게 기록했다. 개자원의 면적은 0.3무(畝) 곧 200㎡로 여타의 유명 강남원림에 비해 다소 작았다. 그럼에도 이어는 『한정우기』에서 밝히기를, 내산각(來山閣), 부백헌(浮白軒), 서운곡(棲雲谷), 월사(月榭), 가대(歌臺) 등의 건축물을 교묘하게 배치하여 드넓은 ‘개자수미(芥子須彌)’<sup>115)</sup>의 경지(境地)를 연출하였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 건물에 장식물인 편액(匾額)과 주련(柱聯)이 포함돼 있어 이어의 독특한 설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물지』에서 편액과 주련에 대한 언급한 바가 없다. 옛 선비들은 흔히 편액과 주련을 활용하여 원림에 의미와 풍치를 더했다. 이어는 역시 다른 문인들처럼 편액과 주련을 즐겨 사용했는데,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특이한 형식의 편액과 주련이 삽도와 함께 소개되었다. 실제 이어는 개자원(芥子園)을 조영했을 때, 여러 형태의 편액과 주련을 만들었고, 그것의 유형을 구분하여 『한정우기』에 수록했다. 이중 파초로 만든 초엽련(蕉葉聯)과 대나무 줄기로 만든 차군련(此君聯)은 이전에 좀처럼 사용되지 않던 형식으로서 이어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탄생된 것이다. 먼저 초엽련(此君聯)은 문인들이 파초 잎에 글씨를 썼던 오랜 문화습관에 착안하여 고안된 것이다. 종이에 파초를 한 장 그린 후

110) 내산각(來山閣)은 개자원(芥子園)의 한 건물이다. 개자원의 면적은 그다지 크지 않지만 각 건물들이 교묘하게 배치되어 ‘개자납수미(芥子納須彌)’의 의경(意境)을 연출하였다(선금형, 1988).

내산각(來山閣), 부백헌(浮白軒), 서운곡(棲雲谷), 월사(月榭), 가대(歌臺) 등의 건물을 교묘하게 배치하여  
111) 천반주하(天半朱霞)는 붉은 노을이 하늘의 절반을 물들인 뜻이다. 인품이 고상하고 세속을 초월한다고 은유한다. “訐超超越俗, 如半天朱霞, 敲矯矯塵, 如雲中白鶴. 皆儉歲之梁稷, 寒年之纖纈.” 『南史·劉懷珍傳附劉訐傳』(<http://www.hydc.com/cy/html/bt1091.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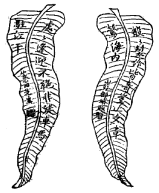

112) 일방산(一房山)은 당나라 시인인 李洞의 『山居喜故人見訪』 ‘看待詩人無別物, 半潭秋水一房山.’ 이란 시구(詩句)에서 나왔다. 초승달 속의 가을 물에서 가산(假山)을 거꾸로 드리우고 있다는 뜻이다(<http://www.ylj.suzhou.gov.cn/Article/5818>).

113) 이어는 직접 ‘般般制作皆奇, 豈止文章驚海內; 處處逢迎不絕, 非徒車馬駐江幹.’ 라는 시를 지었다. 이 시는 두보의 ‘豈有文章驚海內, 漫勞車馬駐江幹.’ 라는 시구(詩句)에서 나왔다. 이 시의 원래 구절은 두보의 시구에서 발췌한 것이고, 이어의 겸허한 태도를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http://www.exam58.com/tdpds/19879.html>).

114) 이어는 직접 ‘仿佛舟行三峽裏, 儼然身在萬山中.’ 라는 시구를 지었다. 마치 배가 산 속을 지나는 듯하고, 무수한 산 속에 있는 듯하다(선금형, 1988, p.190.).

115) ‘개자수미(芥子須彌)’란 작은 겨자씨에 거대한 수미산(須彌山)을 수용한 원림이라는 뜻이다(張家驥, 2010, p.252.).

표 4-5. 개자원에 나타난 창의적인 편액과 주련 양식

편액과 주련의 명칭	이미지	관련된 한문
내산각(來山閣)		來山閣 <sup>110)</sup>
수권액(手卷額)		天半朱霞 <sup>111)</sup>
책엽편(冊頁匾)		一房山 <sup>112)</sup>
초엽련(蕉葉聯)		般般制作皆奇，豈止文章驚海內； 處處逢迎不絕，非徒車馬駐江幹 <sup>113)</sup>
차군련(此君聯)		仿佛舟行三峽裏，儼然身在萬山中 <sup>114)</sup>

자료출처: 선금형(1988). 『한정우기』 「거실부」 ‘련편제사聯匾第四’. pp.189-195.

목공에게 주어 판으로 만들면 양면을 뒤집어서 사용할 수 있었다. 차군련(此君聯)은 기존에 대련이나 편액의 소재로 잘 사용되지 않던 대나무를 사용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대나무 하나를 잘라 쪼개서 위에 조각하거나 글씨를 써서 완성되는데, 이어는 이를 두고 우아하고 규격이 서로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가장 검소한 대련으로 평가했다. 이런 질박한 형태의 편액과 주련은 개자원에 높은 미적 가치를 부여했음은 물론이다(표 4-5).

편액과 주련의 설계 외에도 이어는 건축물의 부속시설물인 ‘활침[活檐: 가변식 차양]’ 까지 설계했다. 활침(活檐)은 선비가 거처한 건물에 깊은 처마를 설치하면 비바람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지만, 맑은 날 일광까지 차단하는 단점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이어는 활침의 설치를 제안했다. 본서에서 활침(活檐)은 회전축의 작동을 통해 펴고 접는 것이 가능한 일종의 가변식 차양으로 묘사된다. 설치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며, 처마 아래에 회전축이 있는 별도의 차양을 설치하되 올리거나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어는 날씨가 맑으면 정면이 아래로 향하도록 하여 처마 밖을 천장으로 삼고, 비가 오면 바르게 펼쳐 정면이 위를 향하도록 하여 낙숫물을 받아냈다고 한다. 이 역시 이어가 처음 발명한 새로운 형태의 시설물이라 할 수 있다.<sup>116)</sup>

문진형과 유사하게 이어도 개자원에 서운곡(棲雲谷)을 설치하여 조용한 공간을 추구하였다. 석동(石洞) 위에 구멍을 뚫어 그 속의 수조(水槽)에 빗물을 받아들이면서 낙수를 이루어 시각·청각적으로 즐길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문진형이 설치한 금실(琴室), 다실(茶室), 장실(丈室), 불실(佛室) 등과 같은 공간과 달리 이어는 가대(歌臺)가 설치되었다. 가대 설치의 목적은 희곡 공연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었다(표 4-6). 아래 두 가지 사진은 근현대 사람들은 이어를 기념하기 위해 복원한 개자원의 모습이다(그림 4-10, 그림 4-11). 한편으로 이어는 자신의 개자원에 월사(月榭)와 같은 조용한 공간을 설치하기도 했다. 월사(月榭) 설치의 목적은 ‘자아의 대화’ 공간을 갖기 위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림 4-10. 절강성 난계시(蘭溪市)에 복원한 개자원의 가대(歌臺).

사진출처: <https://image.baidu.com>.

116) 法於瓦檐之下，另設板棚一扇，置轉軸於兩頭，可撐可下。晴則反撐，使正面向下，以當檐外頂格；雨則正撐，使正面向上，以承檐溜(선 금 형, 1988, p.159.).



그림 4-11. 강소성 남경시에 복원한 개자원의 가대(歌臺).  
사진출처: [https://www.sohu.com/a/248831443\\_698472](https://www.sohu.com/a/248831443_698472).

종합하면 건축물과 부속시설물의 설치를 통하여 당시 문인 사대부부터 일반 문인시정 계층까지 원림은 세속적으로 떠들썩하더라도 그들은 내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조용한 공간을 추구하고 싶어 함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원림은 그들의 일상적인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건축물 유형별의 기능에 따라 그들만의 독특한 삶의 정취를 반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4-6. 두 저서와 그들의 대표 원림에 나타난 건축물과 부속시설물

분류	저서		대표 정원	
	『장물지』	『한정우기』	향초타	개자원
건축물	당, 산재, 누각, 대, 장실(丈室), 불당(佛堂), 다실(茶室), 금실(琴室), 소실(小室), 와실(臥室), 정사(亭榭), 창실(敞室), 불실(佛室)	내산각(來山閣), 부백헌(浮白軒), 서운곡(棲雲谷), 월사(月榭), 가대(歌臺)	선연당(嬋娟堂), 수협당(繡缺堂), 농아각(籠鵝閣), 옥국재(玉局齋), 소대(嗽臺)	내산각(來山閣), 부백헌(浮白軒), 서운곡(棲雲谷), 월사(月榭), 가대(歌臺)
건축물의 부속시설물	문, 계단, 창문, 난간, 조벽(照壁), 다리, 바닥포장	다리, 창문, 난간, 담장, 바닥포장, 활침, 편액과 주련	중향랑(眾香廊), 사월랑(斜月廊), 녹채[鹿砦: 울타리]	다리, 창문, 난간, 담장, 바닥포장, 활침, 편액과 주련

참고자료: 위의 내용은 진식(1984)과 선금형(1988)의 저서를 참고하여 재정리되었음.



#### 4.3.1.2. 위치(位置)와 실내 장식

상기는 건축물과 건축물의 부속시설물에 대한 두 조원가의 견해를 분석한 것이고, 본 소절은 소품의 위치(位置), 실내 장식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먼저 『장물지』 「화목」편 ‘분완(盆玩)’에서는 문진형은 실내에 몇 개의 분경을 진열해 놓는 것보다 정사(亭榭)에 두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이외에 「실려」편 ‘산재(山齋)’에서는 건물 내부에 있는 정원은 약간 넓어야 꽃과 나무를 심고 분재를 진열할 수 있고, 「주거(舟車)」편에서는 배에 또한 화분과 같은 가볍고 작은 것들을 둘 수 있다고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문진형은 겨울에는 난초 화분을 해가 잘 드는 따뜻한 실내에 놓아두고, 화창하고 바람이 없는 날에 실외로 화분을 돌려가며 사면을 고르게 햇볕을 쬐고 오후에는 들여와 서리와 눈이 맞지 않도록 했다. 이처럼 분재 배치에 대해 문진형은 고정된 방식이 없이 식물이 자라기에 적당하도록 제안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정우기』에서는 화분 배치를 ‘기배우와 귀활변(忌排偶와 貴活變)’으로 즉 대칭 배열하는 것은 피해야 하고, 자유롭게 변화시켜야 마땅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문진형과 유사하게 ‘의(宜)’의 조원 이론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난초 화분에 대한 배치 방법의 예시를 들어 설명하자면 이어는 난초를 사랑해서 난초를 자신의 몸철 생명으로 비유했다. 그는 난초와 교류하는 과정에서 정취를 더욱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는데 난초에 꽃봉오리가 달렸을 때 야외에 있던 것은 실내로 옮기고, 멀리 떨어진 곳은 가까운 곳으로, 낮은 곳에 두었던 것은 높은 곳으로 옮기도록 위치를 바꿔<sup>117)</sup> 즐겨야 한다고 언급했다. 난초가 놓인 곳이 정해지면 서화, 향로, 꽃병 등 같은 기물을 난초 옆에 배치해 감상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다만 난초꽃은 향을 피우게 되면 그 향기로 즉시 시들어 버리기 때문에<sup>118)</sup>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바로 난초의 향을 맡는 방법이다. ‘난초가 있는 방에

117) 蘭之初著花時, 自應易其座位, 外者內之, 遠者近之, 卑者尊之(선금형, 1988, p.284.).

118) 處一室, 則當美其供設, 書畫爐瓶, 種種器玩, 皆宜森列其旁. 但勿焚香, 香薰即謝(선금형, 1988, p.284.).

들어가 오래 머물면 그 향기를 온전히 맡지 못한다[如入芝蘭之室，久而不聞其香]’는 말처럼 난초가 있는 방에 오래 머무르는 것보다 따로 난초가 없는 방한 칸을 설치하여 물러나 있는 장소를 마련해 향을 취하는 것을 권했다. 사람이 때때로 들어왔다가 나가게 되면 시시각각 난초의 향기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며 이것이 바로 이어가 난초의 향기를 누리는 비결이었다.

이 외에 실내 분경(盆景)의 배치와 기타 소규모 원림요소의 배합 등을 설명함으로써 실내 장식에 대한 견해의 논할 수 있는 요점을 남겼다. 첫째, 실내 분경의 배치를 기술한 ‘현화(懸畵)’에서는 그림 그리는 탁자에 괴석이나 제철 꽃과 분경 등을 같이 놓을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대청 가운데는 커다란 가로 그림을 걸어야 적당하며, 서재 가운데는 작은 산수화나 화조도(花鳥圖)를 걸어야 마땅함을 제시했다. 그리고 ‘창실(敞室)’에서는 건란(建蘭) 화분 한두 개를 탁자의 측면에 두고, 기이한 봉우리와 늙은 나무, 맑은 샘물과 흰 돌은 추가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침실’의 경우, 실내에도 꽃과 나무를 많이 심지 말아야 하고, 특이하고 진귀한 종류를 선택하여 한 그루 심으면 충분하다고 했다. 옆으로 영벽석(靈璧石)과 영석(英石)을 곁들이면 된다고 하여 지나친 치장을 지양하도록 권고했다.

또, 『장물지』에서는 꽃꽂이[插花]에 적합한 식물, 꽃병의 재질, 꽃병이 놓인 위치 등 주의사항을 묘사했는데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꽃꽂이에 적합한 식물의 종류에 대해서는 많이 소개되지 않았지만, 식물 소재가 수척하고 교묘해야 하고, 번잡하게 꽃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만약 가지 하나를 꽂으려면 기이하고 고풍스런 가지를 선택해야 하며, 가지가 두 개면 높낮이를 조화시켜 꽂아야 하고, 한두 종류에 그쳐야지 그 이상이면 바로 술집이나 마찬가지로 하여 고상하면서도 미관이 충족되어야 함을 논하였다. 다음으로 적절한 식물 소재 뿐만 아니라 꽃병 재질의 선택도 강조하였다. 꽃병의 재질에 대해서는 청동제품과 도자기 제품이 좋고 금은제품은 저속하다고 평했다(그림 4-12). 이 가운데 청동제품의 꽃병은 높이가 2-3자인 것에 고매(古梅)

를 꽃으면 가장 어울리고, 계절에 따라 봄과 겨울에는 청동제품, 여름과 가을에는 도자기 제품이 적당하다고 했다. 꽃꽂이가 완료되면 꽃병의 위치 등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먼저 꽃병의 크기에 따라 적절한 탁자를 선택해야 한다. 방의 크기에 따라 대청에서는 키가 큰 꽃병에 큰 가지를 사용해야만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스럽게 한다. 반대로 서재에는 작아야 적당하다. 꽃병을 안치한 방에서는 창문을 닫고 향을 피워서는 안 되고 연기가 닿으면 바로 시들기 때문에 수선화는 특히 조심히 다루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그림이 있는 탁자 위에 두어서는 안 되고 기름 묻은 손으로 집어서는 안 되고 우물물을 병속에 담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매화와 추해당(秋海棠) 두 종류는 독이 심하기 때문에 꽃을 꽃았던 물을 마시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이 외에 꽃병이 깨지는 것을 막는 방법, 겨울 꽃병에 물이 얼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언급했다.

종합하면 문진형은 실내 식물 분경(盆景)의 배치, 실내 식물 재배와 기타 소경관적 요소의 배합 등 실내조경에 대한 독특한 견해를 드러내었다. 꽃꽂이에 대해서는 적합한 식물, 꽃병의 재질, 꽃병이 놓인 위치 등 주의사항을 꼼꼼히 기록하였다. 그러면서 문진형의 생활태도는 문인사대부 계층의 품위 기준을 넘어서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다.

한편, 이어는 『한정우기』에서 실내 장식에 대하여 청벽[廳壁: 대청의 벽]에 직접 그림을 그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차선으로 명인의 작품을 직접 붙이거나 족자로 만들어 걸어 놓는 일반적인 방식도 좋다고 말했다. 또 벽에 앵무새와 화미조(畫眉鳥)를 두는 방법을 추천하면서, 소나무 그림을 새장의 구조와 어울리게 그리면 가지 끝에 새가 날개짓 하는 장면이 천연적인 것 보다 훌륭하다고 전언했다. 청벽에 그려져 있는 나뭇가지인 허경(虛景)과 새가 움직이고 있는 실경(實景)이 결합되어 실제 자연에서 목격되는 정감과 운치를 연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모습을 감상하면서 얻는 즐거움은 정적 화면상에 새의 소리, 움직임이 더해져 동적공간으로 전이되는 감각적 대비에 있다. 이때

관자는 벽면을 관찰하는 도중에 순간적으로 실내의 장소감을 잊고 밖에 있는 원림의 정서를 체감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기법은 이어가 처음으로 개발한 창이표신의 예로 조명될 만하다. ‘청벽[廳壁; 대청의 벽]’은 실내 청벽에 그려져 있는 나뭇가지인 허경(虛景)과 앵무새와 화미조(畫眉鳥)와 같은 새가 움직이고 있는 실경(實景)이 결합되어 실제 자연에서 목격되는 정감과 운치를 연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원이론은 이어가 처음으로 개발한 창이표신의 예로 조명될 만하다.



그림 4-12. [明末清初] 진홍수(陳洪綬)의 <통음독소도(痛飲讀騷圖)>, 設色絹本, 縱 1008cm, 橫 49 4cm(국부)(좌). [明] 주지면(周之冕)의 <세조청공도(歲朝清供圖)>, 設色紙本, 縱89cm, 橫56cm(국부)(우).  
그림출처: 上海博物館 所藏(좌). 私人所藏品(우).

### 4.3.2. 수 요소

#### 4.3.2.1. 산수간(山水間) 원림 조영

『관자·수지편(管子·水地篇)』에서는 ‘물은 만물의 근원이다.’ 고 했고 산석이 원림의 뼈라면 물은 원림의 명맥이라고 할 수 있다. 물길이 원림을 안내하는 매개이기도 하고, 물길에 따라 걸으면서 드러내고 감추는 경물을 시시각각 반복적으로 즐길 수 있다(성종상, 2011, p.41). 상지[相地: 땅 읽기]<sup>119)</sup> 과정에서 주택을 지으려면 물가에 인접하게 짓는 것이 중요하므로 터를 잡을 때는 가장 먼저 수원지를 찾아야 하는데, 원림에 끊이지 않는 활수(活水)의 공급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나아가 수원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조경기법을 활용하여 인위적으로 빼어난 경관 연출을 했다.

고대 원림 사례 중 진(晉)나라 석숭(石崇; 249-300)의 금곡원(金谷園)<sup>120)</sup>과 당나라 왕유(王維; 699-759)의 망천별업(輞川別業)<sup>121)</sup>은 전형적인 산림지에서 조성된 원림이다. 석숭(石崇)은 산림지에 입지한 금곡원에서 성대한 문인 아집<sup>122)</sup> 활동을 개최하면서 관리와 문인들이 금곡원에 모여 시를 지으니 시를 짓지 못하면 금곡(金谷)의 규칙대로 벌주(罰酒)를 내린다고 했다(그림 4-13).<sup>123)</sup>

아울러 석숭에게는 피리에 능통한 녹주(綠珠)라는 애첩(愛妾)이 있었는데, 그는 녹주를 총애하여 금곡원에다 ‘녹주루(綠珠樓)’라고 하는 백 장(丈) 높이의 누각을 지어주었고 금곡원에서 둘이 자연산수의 정취(情趣)를 즐기면서 호

119) 상지[相地: 땅 읽기]는 원림이나 정원을 지을 만한 땅을 찾기 위해 ‘땅 찾기’, ‘땅 고르기’, ‘땅 다듬기’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성종상, 2019, p.32.).

120) 진(晉)나라 석숭(石崇)은 낙양(洛陽) 서쪽에 금곡원(金谷園)을 지었는데 그는 금곡원에 관리와 문인들을 초대하여 주연(酒宴)을 자주 열며 풍류를 즐겼다(권석환 저, 2015).

121) 망천별업(輞川別業)은 왕유(王維)의 별장이며, 산수 간에 위치한다. 망천별업은 그 당시의 대표적인 교외원림이자 산수원림이다. 그는 여기서 주위의 뛰어난 경관 20곳을 골라서 명칭을 붙이고 시를 읊었다고 전한다(박희성, 2011, pp.173-186.).

122) 아집(雅集)이란 문인과 선비들이 시문을 읊으며 학문을 논하는 모임을 말한다. 역사상 서진(西晉) 석숭(石崇)의 ‘금곡원아집(金谷園雅集)’, 동진(東晉) 왕희지(王羲之)의 ‘난정아집(蘭亭雅集)’, 당나라 왕발(王勃)의 ‘등왕각아집(滕王閣雅集)’ 등이 유명하다(권석환 저, 2015).

123) 석숭의 『금곡시서(金谷詩序)』에 주연(酒宴)에서 시를 짓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별로 세 말의 술을 마시게 하였다고 한다. 이 고사에서 ‘금곡주수(金谷酒數)’라는 말은 ‘술자리에서 받는 벌주’를 가리키게 되었다(김성우 외, 1993).

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였다고 전한다(그림 4-14).



그림 4-13. [明] 전곡(錢穀)의 <난정수계도권(蘭亭修禊圖卷)>, 設色紙本, 縱 24.1cm, 橫 435.6cm(국부). 후기 난정의 아집 장면은 금곡원의 성대한 아집 장면을 모방한 것임.  
그림출처: 美國大都會藝術博物館 所藏.



그림 4-14. [淸] 화암(華翬)의 <금곡원도(金谷園圖)>, 設色紙本, 縱 178.7cm, 橫 94.4cm(국부). 금곡원에서 석승(石崇)이 녹주(綠珠)라는 애첩(愛妾)이 파리를 부는 것을 정청(靜聽)하고 있음.  
그림출처: 상해박물관 소장.

앞서 원림을 조영하는 땅으로는 산림지가 가장 좋다고 했다. 아울러 주택을 짓거나 터를 잡을 때는 먼저 수맥(水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많은 조원가들은 지형을 살피는 과정에서 산과 물이 중요한 인자이라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문진형도 『장물지』 「실려(室廬)」편에서 원림은 산수간(山水間)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 다음 전원(田園), 또 그 다음 교외라고 했다.<sup>124)</sup> 뿐만 아니라 『장물지』 「서화(書畫)」편 ‘논화[論畫: 회화 비평]’에서도 회화는 산수가 제일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르면 “산, 물, 숲, 샘은 맑고 그윽하면서 탁 트여야 한다. 가옥은 그윽하고, 다리에는 인마가 왕래한다. 바위는 오래되어 보이면서도 윤기가 있어야 한다. 이밖에 물은 맑으면서 환하며, 산세는 높으면서 험하고, 흐르는 샘물은 시원스러우며, 구름과 안개는 출몰하고, 들의 길은 이리저리 굽어 있으며, 소나무는 용과 뱀처럼 서려 있고 대나무는 비바람은 머금고 있다. 산기슭에 맑은 물이 흘러들면서 수원의 내력이 분명한 이러한 여러 사항을 갖추고 있으면, 비록 작가의 이름을 모르더라도 뛰어난 작품으로 평하다”고 했다.<sup>125)</sup>

앞서 언급했듯 문진형은 좋은 원림의 땅은 산수 간(山水間)에 위치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어는 산수간의 입지가 으뜸이라고 뚜렷이 주장하지 않았으나 그의 『한정우기』 「거실부」 ‘석동(石洞)’에서는 동굴 속에 인위적으로 구멍을 뚫고 물을 흘려보내 낙수의 수경관을 즐겼다고 전한 것으로 산수 간(山水間)을 선호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의 시를 통해 실제 진산진수(眞山眞水)에 가보지 않았더라도 자연 산수의 의경(意境)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다.

仿佛舟行三峽裏    배가 산 속을 지나는 듯하고  
儼然身在萬山中    엄연히 첩첩 산 중에 있는 듯하다(선금형, 1988).

종합하면 두 저자는 원림을 조영함에 있어서 입지 선택은 산수 간(山水間)

124) 居山水間者為上，村居次之，郊居又次之(김의정 외, 2017, p.54.).

125) 山水林泉，清閑幽曠，屋廬深邃，橋竹往來，石老而潤，水淡而明，山勢崔嵬，泉流灑落，雲煙出沒，野徑迂回，松偃龍蛇，竹藏風雨，山腳入水澄清，水源來歷分曉，有此數端，雖不知名，定是妙手(김의정 외, 2017, pp.253-254.).

이 우선순위라고 했다. 『장물지』에서 산수 간에 사는 사람을 으뜸으로 표현하였다. 마찬가지로 『한정우기』는 직접 상지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실내공간에서 실외공간을 바라보는 산수도창(山水圖窓)을 통하여 산수 간에 사는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표 4-7).

표 4-7. ‘산수간(山水間)의 원림 조영’ 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개괄

저서	챕터	관련된 내용
장물지	실려(室廬)	원림은 산수간(山水間)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 다음 전원(田園), 또 그 다음 교외라고 했음.
	논화[論畫: 회화 비평]	회화는 산수화(山水畫)가 제일이라고 했음.
한정우기	석동(石洞)	동굴 속에 인위적으로 구멍을 뚫고 물을 흘려보내 낙수(落水)의 수 경관을 즐길 수 있음.

자료참고: 위의 내용은 김의정 외(2017)와 선금형(1988)의 저서를 참고하여 재정리되었음.

#### 4.3.2.2. 기존 자연요소를 활용한 이수(理水) 형태

앞서 두 저서에서는 산수 간(山水間)에 원림을 만드는 것이 제일 좋은 자연 조건이라고 했다. 나아가, 기존 자연요소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인위적인 관여를 최소한 하는 이수 형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기존 자연요소에 대한 이수 형태를 ‘연못 중심으로 한 수평적 이수 형태’, ‘폭포 중심으로 한 낙수 형태’로 분류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 4.3.2.2.1. 연못을 중심으로 한 이수(理水) 형태

연못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인 이수 형태에 대하여 『장물지』와 『한정우기』는 모두 자연 요소인 산과 물을 배합시키는 방법과 자연 상태에서 최소한의 인위적인 가공하는 기법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물지』는 『한정우기』보다 원림의 미적 감각과 원림에서의 정서적 삶의 심미(審美)에 치중한다는 점이다. 문진형은 『장물지』 ‘광지(廣池)’에서 연못의 규모, 교묘하게 배치된 건축물, 광지 주변



에 재배하기에 적합한 식물, 그리고 광지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동물을 상세하게 기록했다. 이 중 광지의 최소 크기는 무[畝: 666.7㎡]를 단위로 하면, 최대 크기는 경[頃: 66,666.7㎡]을 단위로 한다. 이렇게 해야만 광지라 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연못이 넓을수록 승경(勝景)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sup>126)</sup>. 『문씨족보속집: 역세제택방표지(文氏族譜續集: 歷世第宅坊表志)』에 따르면 예포의 주체는 5무(畝) 면적의 연못과 산석으로 구성되다<sup>127)</sup>. 이를 통해 그의 형인 문진맹(文震孟)의 예포는 전형적인 연못을 중심으로 조성한 광지라 할 수 있다(그림 4-15, 그림 4-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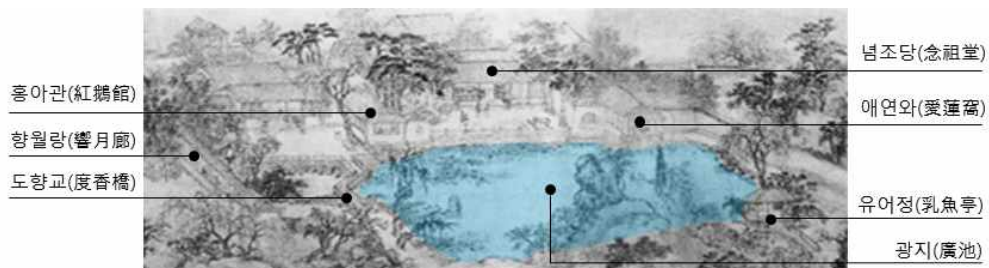


그림 4-15. [清] 왕휘(王翬)의 <예포도(藝圃圖)>, 設色紙本, 縦 35cm, 横 190.5cm(국부).

예포(藝圃) 광지(廣池)의 모습.

그림출처: 필자는 ‘林源, 馮珊珊(2013). 蘇州藝圃營建考’ 라는 논문에 나타난 도면을 참고하여 재구성했음.



그림 4-16. 현 예포(藝圃) 광지(廣池)의 모습.

사진출처: <https://www.baidu.com>.

126) 鑿池自畝以及頃, 愈廣愈勝(김의정 외, 2017, p.197.).

127) 藥園中有生雲墅, 世綸堂. 堂前廣庭, 庭前大池五畝許. 池南壘石為五老峰, 高二丈. 池中有六角亭, 名浴碧. 堂之右為青瑤嶼, 庭植五柳, 大可數圍. 尚有猛省齋, 石經堂, 凝遠齋, 巖扉(林源 외, 2013, p.115).

「수석」편 ‘소지(小池)’에서 문진형은 작은 연못을 조영하는 과정에서 자연 산천(山泉)을 끌어들이는 것 더 좋다고 했다. 유사하게 『홍설인연도기』에서 이어는 자연의 물을 지당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남겼다.<sup>128)</sup> 문진형은 연못의 형태로 사각형, 원형, 팔각 등의 모양을 선호하지 않았다. 연못 주변의 원림요소를 선택할 때 연못 주변에 태호석으로 쌓고, 냉쿨과 대나무 등 식물을 심고, 이밖에 물속에 금붕어, 조류를 기르며 완상(玩賞)하는 방식도 언급했다. 이를 통해 문진형이 연못 조영 과정에서 넓은 연못인 ‘광지(廣池)’ 이든 작은 연못인 ‘소지(小池)’ 이든 연못의 심미적인 묘사에 더 치중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어의 『한정우기』는 다른 견해를 내세웠다. 연못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았지만, ‘취경재차(取景在借)’에서 이어가 설계한 두 번째 원림인 개자원의 부백헌(浮白軒) 주변 연못의 ‘벽수[碧水: 검푸른 물]’에 대해 소개했고, 기타 저서로부터 증명한다면 그가 설계한 반무원(半畝園)에서는 도면을 통해 작은 연못이 선명하게 가시화되었다. 『한정우기』에서 이어는 자신의 원림에 연못이 하나 만들기를 갈망했지만 재력 등의 부족으로 소망을 이루지 못했다. 따라서 만년에야 가족을 데리고 항주 서호 인근으로 이주해 자연 산수에 대한 갈망과 동경을 짐작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4-8과 같다.

표 4-8. 연못을 중심으로 한 이수(理水) 형태

저서	분류		관련된 내용
장물지	수석 (水石)	광지 (廣池)	연못을 파는데 넓을수록 좋다. 중간에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연못 옆에 수양버들, 연못에 들오리와 기러기가 있어야 한다. <sup>129)</sup>
		소지 (小池)	조금 깊게 땅을 파서 샘물줄기를 끌어들이 수 있으면 더욱 좋고 사각형·원형·팔각형 등 양식을 피해야 한다. <sup>130)</sup>
		유수 (流水)	사람이 사는 곳과 멀리 떨어진 강물을 선택하며, 양자강의 남령천(南嶺泉)은 바위 사이에 샘물이 고여 연못이 되었다. <sup>131)</sup>
한정우기	취경재차 (取景在借)		벽수[碧水: 검푸른 물].
홍설인연도기 (鴻雪因緣圖記)	반무원 (半畝園)		인수작소[引水作沼: 자연물을 지당으로 끌어들이었음].

자료참고: 위의 내용은 김의정 외(2017)와 선금형(1988)의 저서를 참고하여 재정리되었음.

128) 壘石成山, 引水作沼, 平臺曲室, 奧如曠如(麟庆, 1886).

#### 4.3.2.2. 폭포와 같은 낙수(落水) 형태

폭포와 같은 낙수 형태는 『장물지』 「수석」 편 ‘폭포(瀑布)’ , ‘지천(地泉)’에 설명되어 있고, 『한정우기』 「거실부」 ‘산동(石洞)’ 에도 언급되어 있다.

『장물지』와 『한정우기』에서는 모두 원림에 조영되는 폭포와 같은 낙수 형태가 언급되었고, 빗물을 낙수의 요소로 끌어들이는 점을 고려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구체적인 조영기법의 내용은 표 4-9와 같다.

『장물지』에서는 낙수 감상을 강조하며, 원림에서 높은 누각의 처마에서 빗물을 자연스럽게 흘려 그 밑에 작은 연못을 만들어 물을 받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연못에 돌을 즐비하게 배치하면, 비가 올 때 떨어지는 물이 요동치고 흐르면서 소리를 내는 것은 하나의 기경(奇景)으로 즐길 수 있다고 했다.<sup>132)</sup> 이와 유사하게, 『한정우기』 ‘석동(石洞)’ 에서도 동굴 위에 구멍을 뚫어 빗물을 받아들여 수조(水槽)에 떨어져 시각·청각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낙수 경관이라 말했다. 이처럼 『장물지』와 『한정우기』는 시각과 청각 두 가지 측면에서 뛰어난 낙수 형태의 의경(意境)을 조영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폭포를 원림조영의 기본적인 요소로 고려한 점에서 상통했다.

표 4-9. 폭포와 같은 낙수(落水) 형태

저서	분류		상관 내용
장물지	수석 (水石)	폭포 (瀑布)	폭포를 만드는 방법. 산에 있는 거처에 샘물을 끌어들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게 하면 폭포를 만들기에 조금 쉽다. <sup>133)</sup>
		지천 (地泉)	여산 수렴수(水簾水)와 천태산(天臺山)의 폭포는 귀와 눈으로 감상하기에는 좋다. <sup>134)</sup>
한정우기	산석 (山石)	석동 (石洞)	동굴 속에 구멍을 뚫고 물을 흘려보내 낙수의 수경관(水景觀)을 즐긴다. <sup>135)</sup>

자료참고: 위의 내용은 김의정 외(2017)와 선금형(1988)의 저서를 참고하여 재정리되었음.

129) 鑿池自畝以及頃, 愈廣愈勝. 最廣者, 中可置臺榭之屬. 池旁植垂柳, 忌桃杏間種. 中畜鳬雁, 須十數為群方有生意(김의정 외, 2017, pp.197-198.).

130) 能掘地稍深, 引泉脈者更佳, 忌方圓八角諸式(김의정 외, 2017, p.199.).

131) 江水取去人遠者, 揚子南泠, 夾石渟淵, 特入首品(김의정 외, 2017, p.205.).

132) 下鑿小池承水, 置石林立其下, 雨中能令飛泉瀆薄, 潺湲有聲, 亦一奇也(김의정 외, 2017, p.200.).

종합하면 폭포가 만들어내는 성경(聲境)에 대하여 『장물지』 「수석」편 ‘폭포(瀑布)’, ‘지천(地泉)’에서는 낙수 감상을 강조하며, 원림에서 폭포 조영 과정에서 높은 누각의 처마가 빗물을 자연스럽게 흘려 그 밑에 작은 연못을 만들어 물을 받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앞서 ‘폭포와 같은 낙수 형태’에서 언급했듯 연못에 돌을 준비하게 배치하면, 비가 올 때 떨어지는 물이 요동치고 졸졸 흐르면서 소리를 내는 것은 하나의 기경(奇景)으로 즐길 수 있다고 전한다. 이와 유사하게, 『한정우기』 ‘석동(石洞)’에서도 동굴 위에 구멍을 뚫어 빗물을 흘려 받아들이는 수조(水槽)에 들어가 시각·청각적으로 이 낙수 형태에 대해 감상할 수 있는 경관이라 말했다. 이처럼 두 저서에서 시각과 청각 두 가지 측면에서 빼어난 낙수 형태의 의경(意境)을 조영한다는 공통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포를 원림조영의 기본적인 요소로 고려한 점에서 상통한 시각을 보여준다.

#### 4.3.3. 석물(石物)

‘무원부석[無園不石: 돌이 없으면 원림이 아니다]’에서 알 수 있듯, 예로부터 돌은 원림에서 빠질 수 없는 경물이었다. 죽림칠현(竹林七賢)의 ‘여석위오[與石為伍: 돌을 사람으로 간주하여 돌과 대열을 이루다]’라는 말이나 미불(米芾; 1051-1107)의 ‘배석위우[拜石為友: 돌과 친구가 되다]’ 등의 고사들은 문인들의 애석(愛石) 취향을 보여주는 미담으로 오랫동안 회자되어 왔다(그림 4-17). 원림문화에서 돌이 괴석이라 불리면서 형태미를 감상하는 대상이 되기도 했고 특별한 의미와 감정을 부여하여 감상하였다. 또한 원림에서 축산(築山)하는 것은 ‘천지조산(穿池造山)’으로 연못을 판 흙으로 가산을 만드는 방식으로 널리 응용되는 양식으로 발전되었다(孟兆禎, 2012, pp.107-111). 중국 원림에서는 ‘유진위가와 주가성진[有真為假와 做假成真:

133) 山居引泉, 从高而下, 为瀑布稍易(김의정 외, 2017, p.200.).

134) 如瀑布山水簾, 天臺瀑布, 以供耳目則可, 如水晶則不宜(김의정 외, 2017, p.205.).

135) 洞中宜空少許, 貯水其中而故作漏隙, 使涓滴之聲, 從上而下, 旦夕皆然(선금형, 1988, p.200.).

실제 산의 의경(意境)을 가진 가산을 만들면, 중국에는 사실적인 산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sup>136)</sup>라는 원칙을 중시하였는데, 이것은 가산을 만드는 원론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두 저서를 통해 석물과 관련된 내용을 ‘선석[選石: 돌 고르기]’, ‘철산[掇山: 가산 만들기]’, ‘철산 외에 산석의 다양한 용도’ 세 부분으로 나누어 해석했다.



그림 4-17. [唐] 손위(孫位 미상)의 <高隱圖>, 設色絹本 縱 45.2cm, 橫 168.7cm(국립). 고사들과 돌이 대열로 놓여 있는 모습  
그림출처: 상해박물관 소장.

#### 4.3.3.1. 선석[選石: 돌 고르기]

명말청초에는 문인 산수원(山水園)이 유행하였으며, 철산[掇山: 가산 만들기]은 원림을 만드는 데 중요한 기법이였다. 이 중에 선석은 가산을 만드는 기초이며, 무엇보다 석재의 선택이 철산의 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태호석은 수(瘦), 투(透), 누(漏), 추(皺)라는 특징이 있으며, 원림에 대한 대중의 심미적 요구에 부합하여 중국 원림에 널리 사용되는 철산 석재가 된다. 두 저서에 나타난 석물에 대해 요약하면 다음 표 4-10과 같다.

먼저 『장물지』에서 선석에 대해 문진형은 총 11종류의 석재를 언급했는데, 선석 과정에서 돌의 ‘질감’, ‘형태’, ‘색깔’, ‘석재의 소리’ 네 가지 조건을 모두 고려하였다. 『장물지』 「수석」편 ‘품석(品石)’에서는 ‘석이영벽 위상과 영석차지[石以靈璧為上과 英石次之: 영벽석(靈璧石)이 석재 중의 상등,

136) 김성우 외, 1993, p.260.

그 다음으로 영석(英石)이라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정우기』에서 선석에 대한 기술을 살펴보면, 석재의 명칭을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선석 과정에 대해서는 돌의 투(透)·누(漏)·수(瘦)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는 점에서 태호석으로 추정된다. 태호석 외에 다른 석재들은 자세한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가산을 가꾸고 돌을 놓는 것에 대한 설명이 더 많았다. 이어는 상등의 석재만을 추구하지 말고 ‘취지취재(就地取材)’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상기 내용을 종합하면 석물 품종 선정 차원에서 문진형은 더욱 품종의 희소성과 심기함을 추구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돌 중 영벽석(靈璧石)이 상품이고 그 다음 영석(英石)이고 두 종류의 돌은 외형이 높이가 몇 자를 넘는 것은 기이한 품종에 속하다고 평했다. 특히 영벽석(靈璧石)이 다양한 형상이 있어, 어떤 것이 소가 누워있는 것과 같고 어떤 것이 용이 서려있는 것과 같고 매우 기이한 품종이라고 평했다.

표 4-10. 『장물지』와 『한정우기』에 나타난 산석(山石)에 대한 개괄

저서	산석의 명칭	총
장물지	영벽석(靈璧石), 영석(英石), 태호석(太湖石), 요봉석(堯峯石), 곤산석(昆山石), 금천석(錦川石), 장락석(將樂石), 양두석(羊肚石), 토마노(土瑪瑙), 대리석(大理石), 영석(永石)	11
한정우기	태호석 외에 다른 석물의 명칭 미상	미상

자료참고: 위의 내용은 김의정 외(2017)와 선금형(1988)의 저서를 참고하여 재정리되었음.

#### 4.3.3.2. 철산[掇山: 가산 만들기]

『장물지』 「수석」편 ‘품석(品石)’에 기술된 석재 11종류 중 철산에 적합한 석재는 태호석(太湖石), 영석(英石), 요봉석(堯峯石), 금천석(錦川石), 장락석(將樂石), 양두석(羊肚石) 총 여섯 종류가 포함된다(그림 4-18, 그림 4-19, 그림 4-20). 그러나 『한정우기』 「거실부」 ‘산석제오(山石第五)’에서는 산석의 명

칭별로 기록하지 않았지만 ‘대산(大山)’, ‘소산(小山)’, ‘석벽(石壁)’, ‘석동(石洞)’, ‘영성소석[零星小石: 작은 돌]’ 총 다섯 부분으로 나뉘서 가산을 만드는 방법을 제안했다. 특히 철산 조영은 장소와 소재의 적합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먼저 두 저서에 대해 공통적으로 언급한 산석이 태호석이다. 태호석은 명말청초에 가산을 만드는 가장 좋은 석재로 여겨졌다. 태호석은 호수에서 물결에 부딪쳐 독특한 질감과 형태를 갖는데 앞서 언급한 수(瘦), 투(透), 누(漏), 추(皺)라는 특징을 이룬다. 따라서 태호석은 명말청초 강남 일대를 정원 철산으로 활용하는 주요 석재가 됐다.

『장물지』에서는 문진형이 태호석을 안치한 장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태호석의 특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예를 들어 물결에 부딪쳐 구멍이 뚫린 돌이 되어 표면이 영롱해서 물속에 있는 것이 진귀하다고 했다. 이를 산 위로 옮기면 한석(旱石)이라고 구분되었다. 하지만 『한정우기』 ‘소산(小山)’에서 이어는 산석의 명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산석의 아름다움에 대한 투(透)·누(漏)·수(瘦)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기록한 것으로부터 이 산석은 태호석으로 추정될 수 있다. 당시 강남 일대에서 숭상하던 가산은 대부분 이러한 산석을 사용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겠다.

다음으로 영석(英石)에 대하여 『한정우기』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장물지』에서는 영석(英石)을 가산에다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돌을 이용하여 작은 서재 앞에 작은 산을 하나 쌓으면 최고로 우아하고 진귀하다 하였다. 그러나 생산지가 멀어 얻기가 쉽지 않은 단점도 지적되었다. 이 외에 『장물지』에서는 금천석(錦川石), 장락석(將樂石), 양두석(羊肚石) 세 종류의 석재를 최하품으로 나누었고, 이 중 회화기법의 부벽준(斧劈皴)처럼 도끼로 쪼갬 듯이 보이는 돌은 그나마 우아하다고 하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철산의 석재는 적합여부에 따라 모두 다섯 종류의 석재가

가산을 만드는 데 적합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철산을 통해 다양한 정원요소들이 서로 어울려 조화로운 공간을 만들어 마치 한 폭의 그림과 같다는 조원이론이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장물지』에서 아름다운 영벽석(靈壁石)은 기이한 품종으로 소가 누워있거나 용이 서려 있는 것과 같은<sup>137)</sup> 특이한 형상을 연상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한정우기』에서는 ‘식물과 돌은 적당하게 배치한다면 마치 한 폭의 산수화와 같다.’<sup>138)</sup>고 언급했다.

이러한 예시들을 통하여 문진형과 이어는 모두 공간적으로 다양한 정원요소들이 어울려 조화로운 공간을 만들어 마치 한 폭의 그림과 같다는 조원이론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 두 저서를 통하여 ‘철산[掇山: 가산 만들기]’과 관련된 내용을 해석한 것으로, 요약된 결과는 표 4-11과 표 4-12와 같다.

표 4-11. 『장물지』에서는 선석과 철산에 대한 개괄

철산여부	명칭	특징	용도
철산에는 적합함 (6종)	태호석 (太湖石)	물속에 있는 것이 진귀함. 물결에 부딪쳐 구멍이 뚫린 돌이 됨. 돌의 표면이 영롱함. 산 위에 있는 것은 한석(旱石)이라고 한다. <sup>139)</sup>	강남일대에서 태호석을 이용해 가산을 만든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sup>140)</sup>
	영석(英石)	바닥이 평평하고 봉우리가 솟아나 있으며, 봉우리가 높은 것은 3자에 이르고, 작은 것은 한 치 정도이다. <sup>141)</sup>	가산에는 쓰일 수 있고, 작은 서재 앞에 작은 산을 하나 쌓으면 최고로 우아하고 진귀하다. <sup>142)</sup>
	요봉석 (堯峯石)	이끼가 무더기로 피어나 예스럽고, 질박하여 사랑스럽다.	가산에는 쓰일 수 있다. 아직 파서 채취하지 않아 산중에 많다.
	금천석 (錦川石)	도끼로 쪼갠 듯이 크고 투박한 것이 우아하다. <sup>143)</sup>	가산에는 쓰일 수 있다.
	장락석 (將樂石)		
	양두석 (羊肚石)		

자료참고: 위의 내용은 김의정 외(2017)와 선금형(1988)의 저서를 참고하여 재정리되었음.

137) 靈壁石出鳳陽府宿州靈璧縣，在深山沙土中，掘之乃見，有細白紋如玉，不起巉岫，佳者如臥牛，蟠螭，種種異狀，真奇品也 (김의정 외, 2017, p.210).

138) ‘長盆栽虎刺，宣石作峰巒.’ 布置得宜，是一幅案頭山水(선금형, 1988, p.299.).

139) 石在水中者為貴，歲久為波濤中擊，皆成空石，面面玲瓏，在山上者名旱石(김의정 외, 2017, p.212.).

140) 吳中所尚假山，皆用此石(김의정 외, 2017, p.212.).

141) 以鋸取之，故底平起峯，高有至三尺及寸余者(김의정 외, 2017, p.211.).





그림 4-18. 태호석으로 만든 양주 개원(個園)의 월석(月石)(좌), 요봉산(堯峰山) 위의 요봉석(堯峰石)(우).  
사진출처: <https://www.baidu.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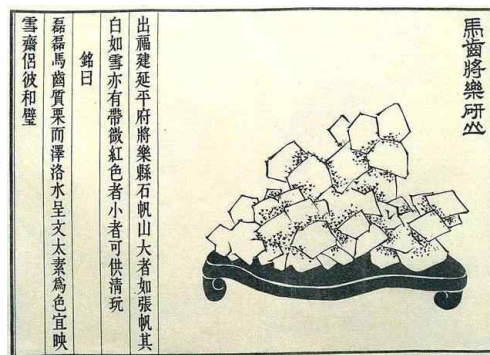


그림 4-19. 봉우리가 솟아나 있는 영석(좌), 금천석(錦川石)(중), 『소원석보(素園石譜)』에 나타난 장락석(將樂石)(우).  
사진출처: <https://www.baidu.com>.

표 4-12. 『한정우기』에서는 선석과 철산에 대한 개괄

철산여부	챕터	특징	용도
철산에는 적합함 (상세하게 석물명칭을 언급하지 않았음)	대산(大山)	가산 조영 과정에서 산석 사이에 틈이 생기는 경우 흙으로 돌을 대신하는 방법(以土代石)을 제시했다. <sup>142)</sup>	가산에는 쓰일 수 있다.
	소산(小山)	산석의 투·누·수(透·漏·瘦)라는 특징. 산석의 무늬, 형태, 색깔에 대한 묘사. 작은 산은 주로 돌을 위주로 하고, 흙을 보조로 한다. <sup>143)</sup>	가산에는 쓰일 수 있다. 작은 산을 쌓을 때 바닥이 좁아야 한다.
	석벽(石壁)	우뚝 솟은 특징 <sup>146)</sup>	가산에는 쓰일 수 있다.
	석동(石洞)	가산은 크기에 상관없이 가운데에 구멍을 만들 수 있다. <sup>147)</sup>	가산에는 쓰일 수 있다.
철산에는 적합하지 않음	영성소석 [零星小石 : 작은 돌]	주먹을 만한 크기의 돌을 적당한 위치에 놓아서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실용가치가 있는 크기가 적당한 것은 가구에 쓸 수 있다. <sup>148)</sup>	탁자에 설치해도 적합하고, 탁자나 기구의 석재로도 쓸 수 있다.

자료참고: 위의 내용은 김의정 외(2017)와 선금형(1988)의 저서를 참고하여 재정리되었음.

142) 小齋之前, 迭以小山, 最为清贵(김의정 외, 2017, p.211.).

143) 斧劈以大而頑者為雅(김의정 외, 2017, p.215.).



그림 4-20. 북경 어화원(禦花園)의 양두석(羊肚石).  
사진출처: <https://www.baidu.com>.

#### 4.3.3.3. 철산 외에 산석의 다양한 용도

본 절은 철산 외에 산석의 다양한 용도와 관련된 내용을 해석한 것으로, 요약된 결과는 표 4-13과 같이 정리했다.

『장물지』에서 문진형은 철산에 적합하지 않은 산석에 대해서는 영벽석(靈壁石), 곤산석(昆山石), 토마노(土瑪瑙), 대리석(大理石), 영석(永石)과 같은 다섯 종류의 석재를 언급했다(그림 4-21, 그림 4-22). 예를 들어 영벽석(靈壁石)은

144) 從未見有盈畝累丈之山，能無補綴穿鑿之痕，遙望與真山無異者。以土間之，則可泯然無跡，且便於種樹(선금형, 1988, p.196.).

145) 言山石之美者，俱在透·漏·瘦三字。石紋石色取其相同，如粗紋與粗紋當並一處，細紋與細紋直在一方，紫碧青紅，各以類聚是也，小山亦不可無土，但以石作主，而土附之(선금형, 1988, p.198.).

146) 壁則挺然直上，有如勁竹孤桐，齋頭但有隙地，皆可為之(선금형, 1988, p.199.).

147) 假山無論大小，其中皆可作洞(선금형, 1988, p.200.).

148) 一卷特立，安置有情，時時坐臥其旁，即可慰泉石膏肓之癖。使其平而可坐，則與椅榻同功(선금형, 1988, p.200.).

탁자에 놓으면 감상할 수 있고, 커다란 곤산석(昆山石)은 큰 분재에 놓을 수도 있고 그 위에 창포를 심을 수도 있고, 투마노(土瑪瑙)는 문양이 특이해서 분재에 넣어 감상할 수도 있다. 영석(永石)은 병풍의 석재로 될 수 있어 우아하게 보인다. 대리석(大理石)은 구석(舊石)을 귀하게 여기며, 또한 이 가운데 산수와 구름, 안개와 같은 문양을 갖춘 대리석은 마치 화가인 미불(米芾)이 그린 산수화와 같고 대리석 중 최고품이라고 여긴다.

『한정우기』 ‘영성소석[零星小石: 작은 돌]’에서 이어는 작은 돌에 대해서는 관상과 실용 가치를 상세하게 기록했다. 관상용의 측면에서 감상할 가치가 있는 주먹 만 한 크기의 돌을 적당한 위치에 놓아서 감상할 수 있다. 실용성의 측면에서 그것을 평평하게 놓으면 의자와 침대와 같은 역할로 앉을 수도 있고, 바위를 비스듬히 놓으면 난간과 같은 역할로 의지할 수 있다. 만약 돌의 표면이 비교적 평평하다면 탁자를 대신하여 향로와 다구(茶具)를 넣을 수도 있다(그림 4-23).

표 4-13. 『장물지』, 『한정우기』에서는 철산 외에 산석의 다양한 용도에 대한 개괄

철산여부	명칭	특징	용도
장물지	영벽석 (靈璧石)	옥처럼 가늘고 흰 무늬가 있으며, 구멍은 없다. 특이한 형상이 있다.	작은 것을 탁자에 놓을 수 있다.
	곤산석 (昆山石)	색이 흰 것이 귀하다. 두 종류의 돌에 대한 묘사.	큰 돌 화분에 배치해도 좋고, 식물을 그 위에 재배해도 됨. 탁자나 화분에는 배치하기에 적당하지 않다.
	토마노 (土瑪瑙)	색깔과 바위 겉에 대한 묘사. 무늬는 마노와 같은데 홍색이 많으면서 가늘고 윤택한 것이 좋다.	탁자와 병풍의 장식물, 화분 안에 놓으면 멋들어져 감상할 만하다.
	대리석 (大理石)	색깔과 바위 겉에 대한 묘사. 오래된 돌은 천연으로 산수와 구름 및 안개와 같은 무늬를 구성하고 있다.	병풍의 장식물, 탁자의 재료로 쓰일 수 있다.
	영석 (永石)	색깔과 바위 겉에 대한 묘사. 빛깔이 좋은 것에는 산수·일월·인물의 형상이 있다.	큰 것은 병풍을 만들어도 우아하다.
한정우기	영성소석 [零星小石: 작은 돌]	주먹을 만한 크기의 돌을 적당한 위치에 놓아서 감상할 수 있다. 실용 가치가 있는 크기가 적당한 것은 가구에도 쓸 수 있다.	탁자에 설치해도 적합하고, 탁자나 기구의 석재로도 쓸 수 있다.

자료참고: 위의 내용은 김의정 외(2017)와 선금형(1988)의 저서를 참고하여 재정리되었음.





그림 4-21. 영벽석(靈壁石)(좌), 곤산석(昆山石)(우).  
사진출처: <https://www.baidu.com>.



그림 4-22. 토마노(土瑪瑙)(좌), 대리석(大理石)(중), 영석(永石).  
사진출처: <https://www.baidu.com>.



그림 4-23. 경치를 감상하기 위해 돌에 기대는 문인들.  
그림출처: 이어의 『개자원화보(芥子園畫譜)』.

#### 4.3.4. 식물

원림 조영에 있어서 건축물, 수 요소, 석물, 식물은 모두 중요한 요소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송 곽희(郭熙; 1000-1090)의 유명한 화론서(畫論書) 『임천고치(林泉高致)』의 문장 중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참조된다.

山以水爲血脈	산은 물을 혈맥으로 삼고
以草木爲毛發	덮은 초목을 모발로 삼으며
以煙雲爲神彩	안개와 구름을 신체(神彩)로 삼는다
故山得水而活	그러므로 산은 물을 얻어야 활기가 있고
山得草木而華	초목을 얻어야 화려하게 되며
得煙雲而秀媚	안개와 구름을 얻어야 수려하게 예쁘게 된다.

여기서 곽희는 산을 혈맥을 가진 생명체에 비유하여 특유의 화론을 전개했는데, 이것을 ‘원림’으로 바꿔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생기 있는 공간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설명해 준다. 이를 원림에 대입하여 음미해 보면, 기운 생동하는 원림의 모습은 모발이 되는 초목이 있고 이곳에 안개와 구름이 서려야 아취(雅趣)가 있게 된다는 말로 이해된다. 이러한 개념은 원림에 생기를 불어넣는 방법이 ‘초목’의 활용에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식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원의 조영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로 사용되었다. 즉, ‘원(園)’과 ‘림(林)’이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설정되어 있는 점은 식물과 정원의 관계가 불가분에 있음을 방증해 준다. 최초의 원림인 ‘포(圃)’에서도 식물의 재배를 중시했다. 그러나 당시는 미적 가치보다 식물의 실용적 가치를 중시하였다. 그 후 원림이 예술과 심미의 향유공간으로 발전하였어도 여전히 식물 소재로 사용되었다.

특히, 명말청초에는 원림 조영에 있어서 식물 소재에 대한 내용이 조원 저서에 등장하였다. 예를 들면 『장물지』, 『한정우기』 등에는 식물에 대한 기록이 무척 상세하다. 『장물지』와 『한정우기』에는 모두 식물을 따로 설명하는 챕터가 있다. 『장물지』에는 51종의 식물이 있고 『한정우기』에는 69종의 식물이 소

개되어 있다. 식물의 배식과 완상 방식에 대해 각기 독특한 견해가 담겨 있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4-14, 표 4-15와 같이 정리했다.

표 4-14. 『장물지』에 나타난 식물에 대한 개괄

목록		식물 명칭
실여 (室廬)	계(階)	맥문동(繡墩草) <sup>149)</sup> <sup>150)</sup>
	교(橋)	
화목 (花木)	화목 (花木)	모란(牡丹), 작약(芍藥), 옥란(玉蘭), 해당화(海棠), 산다나무(山茶), 복숭아나무(桃), 자두나무(李), 살구나무(杏), 매화나무(梅), 서향(瑞香), 장미꽃(薔薇), 목향(木香), 매괴(玫瑰), 자형(紫荊), 체당(槲棠), 자미화(紫薇), 석류나무(石榴), 부용(芙蓉), 담복(薺蔔), 말리(茉莉), 소형(素馨), 야합(夜合), 두견(杜鵑), 소나무(松), 무궁화(木槿), 계수나무(桂), 버드나무(柳), 황양(黃楊), 회화나무(槐), 느릅나무(榆), 오동나무(梧桐), 참죽나무(椿), 은행나무(銀杏), 오구(烏臼), 대나무(竹), 국화(菊), 난(蘭), 규화(葵花), 양귀비(罌粟), 흰화(萱花), 옥잠(玉簪), 금전(金錢), 연꽃(藕花), 수선화(水仙), 봉선화(風仙), 추색(秋色), 파초(芭蕉)
	병화 (瓶花)	매화나무(梅), 해당화(海棠) <sup>151)</sup>
	분완 (盆玩)	소나무(松), 매화나무(梅), 구기(枸杞), 동청(冬靑), 느티나무(榆), 회백(檜柏), 대나무(竹), 호자나무(虎刺), 창포(菖蒲), 난(蘭), 혜(蕙), 야합(夜合), 황향원(黃香萱), 협죽도(夾竹桃), 국화(菊), 수선화(水仙), 미인초(美人蕉) <sup>152)</sup>
수석 (水石)	광지 (廣池)	창포(菖蒲), 갈대(葦), 버드나무(柳), 연꽃(荷), 대나무(竹) <sup>153)</sup>
	소지 (小池)	덩굴(藤), 다나무(竹) <sup>154)</sup>
	폭포 (瀑布)	대나무(竹), 소나무(松) <sup>155)</sup>
	우물 파기 [鑿井]	대나무(竹) <sup>156)</sup>
총		51종

자료참고: 위의 내용은 진식(1984)과 김의정 외(2017)의 저서를 참고하여 재정리되었음.

149) 種繡墩或花草數莖於內, 枝葉紛披, 映階傍砌(김의정 외, 2017, p.63.).

150) 用石子砌者佳, 四傍可種繡墩草(김의정 외, 2017, p.81.).

151) 忌以插花水入口, 梅花秋海棠二種, 其毒尤甚(김의정 외, 2017, p.185.).

152) 又有枸杞及水冬靑, 野榆, 檜柏之屬 其次則閩之水竹, 杭之虎刺 乃若菖蒲九節, 神仙所珍. 他如春之蘭蕙, 夏之夜合, 黃香萱, 夾竹桃花, 秋之黃密矮菊, 冬之短葉水仙及美人蕉諸種(김의정 외, 2017, pp.191-193.).

153) 汀蒲岸葦雜植其中. 池傍植垂柳, 忌桃杏間種. 於岸測植藕花, 削竹為闌, 勿令蔓衍. 忌荷葉滿池, 不見水色(김의정 외, 2017, pp.197-198.).

154) 四周樹野藤細竹(김의정 외, 2017, p.199.).

표 4-15. 『한정우기』에 나타난 식물에 대한 개괄

목록		식물 명칭
종식부 (種植部)	목본 (木本) 24종	모란(牡丹), 매화나무(梅), 복숭아나무(桃), 자두나무(李), 살구나무(杏), 배나무(梨), 화당화(海棠), 옥란(玉蘭), 신이(辛夷), 산다나무(山茶), 배롱나무(紫薇), 수국(繡球), 자형(紫荊), 치자나무(梔子), 두견화(杜鵑), 앵두나무(櫻桃), 석류나무(石榴), 무궁화(木槿), 계수나무(桂), 자귀나무(合歡), 목부용(木芙蓉), 협죽도(夾竹桃), 서향(瑞香), 말리(茉莉)
	등본 (藤本) 9종	장미(薔薇), 목향(木香), 도미(酴醾), 월월홍(月月紅), 자매꽃(姊妹花), 매괴(玫瑰), 소형(素馨), 능소화(凌霄), 진주란(珍珠蘭)
	초본 (草本) 15종	작약(芍藥), 란(蘭), 혜초(蕙), 수선(水仙), 연꽃(芙蕖), 양귀비(罌粟), 해바라기(葵), 흰초(萱), 맨드라미(雞冠), 옥잔(玉簪), 봉선화(鳳仙), 금전화(金錢), 호접화(蝴蝶花), 국화(菊), 채소밭(菜)
	중훼 (叢卉) 9종	파초(芭蕉), 취운(翠雲), 개양귀비(虞美人), 맥문동(書帶草), 노소년(老少年), 천죽(天竹), 호자나무(虎刺), 이끼(苔), 부평초(萍)
	죽목 (竹木) 12종	대나무(竹), 소나무(松), 측백나무(柏), 오동나무(梧桐), 회화나무(槐), 느릅나무(榆), 느티나무(柳), 황양목(黃楊), 종려나무(棕櫚), 단풍나무(楓), 아구나무(柏), 감탕나무(冬青)
총		69종

자료참고: 위의 내용은 선금형(1988)과 김의정(2018)의 저서를 참고하여 재정리되었음.

#### 4.3.4.1. 식물의 선정기준

식물의 선정에 대해 두 조원가가 모두 식물의 경제적, 식용적, 그리고 관상적 가치를 언급했다. 이들이 식물의 경제적, 식용 가치보다는 식물의 감상적 가치를 중요시했다.

먼저 식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 문진형의 『장물지』 「화목」편 말리(茉莉)<sup>157)</sup>에 대하여 여름철에 많이 재배해 꽃이 피는 시기이면 천 척의 배가 소주 호구(虎丘) 정박하여 말리를 대량으로 피는 상인들이 모여 꽃시장을 이룬다. 이어의 『한정우기』 「종식부」 수선화에 대하여 남경으로 이주한 이유 중 하나는 남경이 수선화의 고향이고 수시로 사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

155) 尤宜竹間松下, 青蔥掩映, 更自可觀(김의정 외, 2017, p.200.).

156) 幽井須于竹樹之下(김의정 외, 2017, p.201.).

157) 말리(茉莉; *Jasminum sambac*)는 목서과에 속하는 상록등본으로, 꽃은 흰색이고 향기가 있다. 자스민 또는 제스민으로 불리기도 한다(張家驥, 2010, p.261.).

해 그 당시 수선화의 경제적 가치가 상당했던 시장규모를 알 수 있다.

식물의 식용적 가치에 대하여 문진형은 『장물지』 「화목」편에서 매괴(玫瑰)<sup>158</sup>에 대하여 향낭(香囊)으로 패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오히려 식품으로 충당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또한, 계화(桂花)<sup>159</sup>에 대하여 꽃을 땅에 떨어지면 바로 음식으로 충당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문진형과 마찬가지로 이어도 『한정우기』 「종식부」에서 연꽃과 매괴(玫瑰)의 예를 들어 식물의 식용적 가치가 중요하다고 했다.

무엇보다도 식물의 관상적 가치는 두 조원가가 가장 중시한 식물의 선정가치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 문진형의 『장물지』 「화목」편 도입부에서는 각각 식물이 재배하기에 적합한 장소와 식물의 향유방식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리고 어떤 식물이 군식(群植)이 적합한지, 어떤 식물이 단식(單植)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언급했다. 문진형과 마찬가지로 이어의 『한정우기』 「종식부」 도입부에서는 초목의 종류는 대강 목본(木本), 등본(藤本), 초본(草本)으로 나누어 뿌리 특성에 따라 식물을 구별한다고 하였다. 더 나아가 두 조원가가 모두 각각 식물의 관상적 가치에 대한 견지를 갖고 각자 선호한 식물과 식물별에 따라 그들의 독특한 식물의 향유방식까지 언급했다.

이 외에 화목 품종 선정 차원에서 문진형은 이어에 비해 더욱 품종의 희소성과 심기함을 추구했음을 알 수 있다. 문진형은 한 가지 식물의 과목만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목에 포함된 다양한 품종을 상세하게 기재했다. 예를 들어 매화나무에 대해 홍매(紅梅), 납매(臘梅)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 홍매가 저속하고 나뭇가지가 구불구불한 것이 있어 화분에 심으면 매우 ‘기[奇: 기이함]’ 이라고 했다. 또한, 국화에 대해 감국(甘菊), 야국(野菊)이 있었는데 “감국(甘菊)은 탕구진(湯口鎮)에 한 종류가 있는데, 가지가 넘어진 일산처럼 굽어 있고 꽃은 비단을 깔아 놓은 듯 촘촘한 것이 가장 기이하다” 고 평했다.

158) 매괴(玫瑰; *Rosa rugosa* Thunb.)는 장미과에 속하는 낙엽 활엽관목으로, 꽃은 아름답고 특유의 향기가 있어 관상식물로 좋다(張家驥, 2010, p.259.).

159) 계화(桂花; *Osmanthus fragrans*)는 목서과에 속하는 상록교목으로, 꽃은 백색·담황색·등황색이고 특유의 향기가 있다. ‘목서(木犀)’, ‘구리향(九裏香)’ 이라고도 한다(張家驥, 2010, p.368.).



상기 내용을 종합하면 두 조원가가 식물별에 대한 소개는 식물의 관상적 가치를 중점으로 한 해석을 전개했다. 본 절은 두 조원가가 식물의 향유방식에 대한 공통점과 그들의 각자 독특한 견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 4.3.4.2. 식물의 향유방식

본 절은 두 조원가가 공통적으로 기록된 식물의 향유방식은 ‘사시부단과 개입화도[四時不斷과 皆入畫圖: 사계절 끊임없이 식물을 즐길 수 있고, 모든 장면마다 한 폭의 그림과 같다]’라고 개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사시부단(四時不斷)’은 시간적으로 일 년 내내 식물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고, ‘개입화도(皆入畫圖)’는 공간적으로 다양한 경관 요소들이 서로 어울리는 조화로운 공간으로 만든다는 뜻이다. 따라서 본 절은 시공간 두 가지 차원으로 두 저서에서 다룬 식물의 향유방식을 살펴보려고 한다(표 4-16). 먼저 ‘사시부단’에 대하여 두 조원가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이 외에 봄에 피는 난해(蘭蕙), 여름의 야합(夜合)<sup>160)</sup>·황향훤(黃香萱)<sup>161)</sup>·협죽도(夾竹桃)<sup>162)</sup>, 가을의 황밀왜국(黃密矮菊)<sup>163)</sup>, 그리고 겨울의 단엽수선(短葉水仙)<sup>164)</sup>과 미인초(美人蕉)<sup>165)</sup> 등이 있다. 이들을 모두 수시로 감상할 수 있다(진식, 1984; 김의정 외, 2017).<sup>166)</sup> - 『장물지』

봄에 피는 수선화와 난, 여름의 연꽃, 가을의 해당화, 겨울의 매화가 있다. 사계절에 끊임없이 꽃들을 즐길 수 있다(선금형, 1988; 김의정, 2018).<sup>167)</sup> - 『한정우기』

160) 야합(夜合; *Magnolia coco* (Lour.) DC.)은 목란과에 속하는 상록관목으로, 꽃은 흰색이고 특유의 향기가 있다(張家驥, 2010).

161) 황향훤(黃香萱; *Hemerocallis fulva*)은 백합과의 원추리속의 식물에 속한다. 꽃은 주황색부터 등황색까지 있다(국가표준식물목록).

162) 협죽도(夾竹桃; *Nerium oleander* L.)는 협죽도과에 속하는 상록관목으로, 꽃은 흰색이나 도홍색이다(張家驥, 2010, p.171.).

163) 황밀왜국(黃密矮菊)은 국화과에 속하는 키 작은 국화로, 꽃은 황색과 옅은 황색 두 가지 색이다(김의정 외, 2017, p.189.).

164) 단엽수선(短葉水仙)은 수선화과에 속하는 잎이 꽃대보다 짧은 수선화이다(김의정 외, 2017, p.189.).

165) 미인초(美人蕉; *Canna indica* L.)는 미인초과에 속하는 꽃은 홍색을 띠는 황색이다(김의정 외, 2017, p.190.).

166) 他如春之蘭蕙, 夏之夜合, 黃香萱, 夾竹桃花, 秋之黃密矮菊, 冬之短葉水仙及美人蕉諸種, 俱可隨時供玩(김의정 외, 2017, p.192.).

167) 予有四命, 各司一時: 春以水仙, 蘭花為命, 夏以蓮為命, 秋以秋海棠為命, 冬以蠟梅為命(선금형, 1988, p.286.).

위의 내용을 통하여 비록 이들이 계절마다 선호하는 꽃은 다르지만, 사계절 내내 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공통된 특징이다. 특히, 이어가 스스로를 꽃의 수호신(守護神)이라 자칭했다. 이 꽃들은 각 계절을 주관하는 화선자(花仙子)이라고 여긴다. 또한, 이를 통해 그가 꽃과의 정신적 교류를 엿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개입화도’에 대하여 두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각각의 견지가 전개되었다.

아름다운 가지와 줄기를 따려고 하는 것은 위로 곧바르고 다른 결가지가 없다(진식, 1984; 김의정 외, 2017).<sup>168)</sup> - 『장물지』

사시사철 꽃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면, 모두 그림 속에 들어갈 만하다(진식, 1984; 김의정 외, 2017).<sup>169)</sup> - 『장물지』

구할 때에는 화분과 돌을 함께 주어 심도록 하고, 또 손이 가는 대로 배치하면 즉시 한 폭의 그림이 된다(선금형, 1988; 김의정, 2018).<sup>170)</sup> - 『한정우기』

표 4-16. 『장물지』, 『한정우기』에 나타난 식물의 향유방식에 대한 개괄

저서	관련된 내용	향유방식
장물지	사시사철 꽃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면, 모두 그림 속에 들어갈 만하다.	사시부단과 개입도화 (四時不斷과 皆入圖畫)
	그림과 같이 생긴 가지와 줄기를 따려고 하는 것은 위로 곧바르고 다른 결가지가 없다.	
한정우기	배에 앉아 호수 양쪽으로 조망되는 외부의 풍경은 창틀을 통해 살아 움직이는 그림으로 현시되었다. <sup>171)</sup>	사시부단과 개입도화 (四時不斷과 皆入畫圖)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그림 같다. <sup>172)</sup>	
	보는 사람은 묻지 않지만, 마치 천연적인 그림 같다. <sup>173)</sup>	
	남녀 모두 그림에 담을 수 있다. <sup>174)</sup>	
	식물과 돌은 적당하게 배치한다면 마치 한 폭의 산수화와 같다. <sup>175)</sup>	
	스스로를 꽃의 수호신(守護神)이라 칭하며 각 계절을 대표하는 꽃마다 생명을 지니고 있다고 비유했다.	

자료참고: 위의 내용은 김의정 외(2017)와 선금형(1988)의 저서를 참고하여 재정리되었음.

168) 且取枝梗如畫者, 若直上而旁無他枝(김의정 외, 2017, p.146.).

169) 取其四時不斷, 皆入圖畫(김의정 외, 2017, p.103.).

170) 給盆與石而使之種, 又能隨手布置, 即成畫圖(선금형, 1988, p.286.).

#### 4.3.4.2.1. 문진형의 독특한 식물 향유방식

##### 1) 식재 장소의 엄격성

문인사대부 계층을 대표하는 문진형은 식물의 재배장소에 대해서도 엄격한 태도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엄격한 태도는 문인사대부 계층의 품위를 반영하였다. 문진형의 『장물지』에서는 식물의 재배장소에 따라 산야(山野), 시냇물, 언덕, 광정[廣庭: 넓은 정원], 사찰, 지당, 담장, 창, 계단, 울타리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표 4-17, 표 4-18).

이 중 광정[廣庭: 넓은 정원]에 적합한 식물에 대한 묘사가 가장 많고 목련(玉蘭), 매화나무(梅), 팔자송(栝子松), 회화나무(槐), 느릅나무(榆), 벽오동(梧桐), 석류나무(石榴), 아욱(錦葵), 추색(秋色)이 포함된다. 지당이나 연못가에 적당한 식물로는 복숭아나무(桃), 버드나무(柳), 부용(芙蓉), 연꽃(藕花)이 있다. 담장가에 적합한 식물로는 흰화(萱花), 옥잠화(玉簪), 참죽나무(香椿)가 있다. 울타리 사이에 섞어 심는 식물로는 말리화(茉莉), 무궁화(木槿), 국화아과(野菊)가 있다. 이 외에 절에서 재배하기에 적합한 은행나무(银杏)와 치자나무(梔子花), 언덕에서 식재하기에 적합한 산잣나무(山松), 시냇물 주변에서 재배하기에 적합한 반죽(瀟湘竹) 등도 있다. 이를 통해 문진형은 적재적소(適材適所)의 원칙을 엄격하게 따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다양한 식물 소재를 활용하여 유경(幽境) 공간을 연출했다. 다음으로 대표적인 대나무의 소나무의 예를 들어 해석하고자 한다.

대나무 재배 시, 소종(疏種), 밀종(密種), 천종(淺種), 심종(深種) 네 가지 방법을 언급했다. 즉, 대나무를 심는 과정에서 대나무의 소밀과 흙의 깊이를 중시했다는 것이다. 소종(疏種)은 3-4척 지점에 구멍 하나를 파서 공간을 마련하여 대나무 뿌리가 잘 뻗도록 하려는 것을 말한다. 밀종(密種)은 대나무가 비록 성

171) 盡入便面之中, 作我天然圖畫(선금형, 1988, p.170).

172) 則過目之物, 盡是畫圖(선금형, 1988, p.177).

173) 見者不問而知為天然之畫矣(선금형, 1988, p.178).

174) 坐其下者, 男女皆入畫圖, 且能使臺榭軒窓盡染碧色(선금형, 1988, p.296).

175) 長盆栽虎刺, 宣石作峰巒, 布置得宜, 是一幅案頭山水(선금형, 1988, p.299).

글게 심어지기는 하였지만 구멍마다 4-5그루를 심어 뿌리를 조밀해지도록 하려는 것을 말한다. 천종(淺種)은 심을 때 땅에 깊이 묻지 않는 것을 말한다. 심종(深種)은 비록 땅에 깊이 심지 않았지만 뿌리 위에 점토를 덮어 둘러싸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네 가지 방법을 따르면 무성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 대나무를 심는 방법이 이처럼 상세하게 묘사된 것은 대나무에 대한 문진형의 애정과 재배를 통해 고결함을 표현하는 군자의 기개를 짐작할 수 있다. 문진형의 증조부인 문징명(文徵明)의 <죽임심처도(竹林深處圖)>에서도 깊은 숲 속에 은거하는 곳에 대한 문 씨(文氏) 가족의 추구를 엿볼 수 있다(그림 4-24).



그림 4-24. [明] 문징명(文徵明)의 <죽임심처도(竹林深處圖)>.

깊은 숲 속에 은거한 문인.

그림출처: 허백재(虛白齋) 소장.

마찬가지로 『한정우기』 ‘취경재차’에서는 부백헌(浮白軒) 주변 경물의 종류를 설명하면서 ‘무림수죽[茂林修竹: 무성한 숲에 높게 뻗은 대나무]’

라고 하여 문진형의 관점과 유사한 논지로 설명하였다. 즉, 이어는 거주하던 개자원에 대나무 숲을 조성해 군자의 고결함을 표상했다. 북경 가한복(賈漢復)을 위해 설계한 반무원(半畝園)에 있는 소상소영(瀟湘小影)에서도 정자 부근에서 커다란 대나무 숲이 있어 상통한 조영개념이 이어졌던 점으로 확인된다(그림 4-25).



그림 4-25. 반무원(半畝園) 소상소영(瀟湘小影) 부근에 심은 그윽한 대나무 숲  
그림출처: [清] 麟庆(1886). 『홍설인연기(鴻雪因緣記)』.

한편, 다른 사례는 문진형은 산잣나무(山松)를 활용하여 자연적인 솔바람 소리로 나타나는 성경(聲境)을 연출한다. 산잣나무(山松)가 산언덕 위에 심어져 있는 것이 적당하다고 했고, 소나무 숲을 이루면 바람에 따라 소나무가 흔들리는 소리는 파도 소리처럼 들리는데 어찌 오주구리(五株九裏)<sup>176)</sup>의 소나무만 못하다고 했다.

176) 오주(五株)와 구리(九裏)는 모두 소나무와 관련된 이야기이다(김의정 외, 2017).

표 4-17. 식물의 재배장소에 대한 요약

식재 장소	구체적인 장소	식물 명칭		식물 학명	이미지
산야(山野)	야산에서는 적합함	죽순대(毛竹)		<i>Phyllostachys edulis</i>	
시냇물	시냇물 주변	반죽(瀟湘竹)		<i>Phyllostachys bambusoides</i>	
언덕	산언덕	산잣나무 (山松)		<i>Pinus massoniana</i>	
광정[廣庭: 넓은 정원]	관부 청사 앞	목련 (玉蘭)		<i>Magnolia denudata</i>	
	암석이나 정원에 옮겨 심으면 가장 예스러움	매화나무(梅)		<i>Armeniaca mume</i>	
	집 앞의 넓은 정원이나 넓은 둔덕 위에	팔자송(栝子松)		<i>Pinus bungeana</i>	
	문과 넓은 정원에 심는 것이 좋음	회화나무(槐)		<i>Styphnolobium japonicum</i>	
		느릅나무(榆)		<i>Ulmus pumila</i>	
	넓은 정원에 심는 것이 적당함	벽오동(梧桐)		<i>Firmiana simplex</i>	
	정원에 심는 것이 적합함	석류나무(石榴)		<i>Punica granatum</i>	
	정원	아욱(錦葵)		<i>Malva sinensis</i>	
	넓은 정원에서만 심을 수 있음	추색 (秋色)	계관화	<i>Celosia cristata L.</i>	
			안래홍	<i>Amaranthus tricolor</i>	
십양금			<i>Vaniot Houtt</i>		

자료참고 위의 내용은 진식(1984)과 김의정 외(2017)의 저서를 참고하여 재정리되었음.

표 4-18. 식물의 재배장소에 대한 요약

식재 장소	구체적인 장소	식물 명칭	식물 학명	이미지
사찰	사원(寺院)이나 오래된 주택	은행나무(银杏)	<i>Ginkgo biloba</i>	
	절에 심는 것이 적당함	치자나무(梔子花)	<i>Gardenia jasminoides</i>	
지당	연못가에 많이 심어야 함	복숭아나무(桃)	<i>Prunus persica</i>	
	연못 가까이	버드나무(柳)	<i>Salix babylonica</i>	
	연못가	부용(芙蓉)	<i>Hibiscus mutabilis</i>	
	연못	연꽃(藕花)	<i>Nelumbo nucifera</i>	
담장	바위 사이 담장 구석	흰화(萱花)	<i>Hemerocallis fulva</i>	
	담장 가에 한 줄로	옥잠화(玉簪)	<i>Hostaplantaginea</i>	
	포(圃)에 담을 따라 심는 것	참죽나무(香椿)	<i>Toona sinensis</i>	
창	창 부근	파초(芭蕉)	<i>Musa basjoo Siebold</i>	
계단	그늘진 계단 부근	해당화(海棠花)	<i>Malus spectabilis</i>	
울타리	가시 있는 식물을 섞어 울타리를 엮는데 모두 이 꽃을 사용함	말리화(茉莉)	<i>Jasminum sambac</i>	
	울타리나 야외에 섞어 심어도 무방함	무궁화(木槿)	<i>Hibiscus syriacus</i>	
	울타리 사이	국화아과(野菊)	<i>Asteroideae</i>	

자료참고: 위의 내용은 진식(1984)과 김의정 외(2017)의 저서를 참고하여 재정리되었음.

## 2) 근거리 완상

문진형의 『장물지』에서는 식물에 대한 근거리 감상방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장물지』, 『한정우기』에 모두 분완(盆玩)<sup>177)</sup>에 대해 언급했으나 이어보다 문진형이 어떤 식물이 분경에 적합한지 더욱 자세히 제시했다.

『장물지』 「화목」편 ‘분완(盆玩)’에서는 분경에 적합한 식물은 천목송(天目松)<sup>178)</sup>, 이끼, 고매(古梅), 구기(枸杞), 수동청(水冬靑)<sup>179)</sup>, 야유(野榆)<sup>180)</sup>, 회백(檜柏)<sup>181)</sup>, 수죽(水竹)<sup>182)</sup>, 호자(虎刺)<sup>183)</sup>, 창포구절(菖蒲九節)<sup>184)</sup> 등 17종류에 대해 논의되었다. 이 중 천목송(天目松)의 예로 자태가 다른 것은 화가 마원(馬遠; 1140-1225)<sup>185)</sup>, 곽희(郭熙; 1000-1090)<sup>186)</sup>, 유송년(劉松年; 1131-1218)<sup>187)</sup> 등의 작품에 나오는 소나무와 같이 매우 특이하게 보인다.

다음으로, 고매(古梅) 가운데에는 푸른 이끼가 돋고 물고기 비늘과 같은 껍질이 있으며, 이끼가 잔뜩 늘어져 있고 꽃을 머금고 잎이 돌아나며 오랫동안 시들지 않는 것이 있어 역시 예스럽다. 또한, 구기(枸杞), 수동청(水冬靑), 야유

177) 분완(盆玩)은 분경(盆景)이나 분재(盆栽)이라고도 한다(김의정 외, 2017).

178) 천목송(天目松)은 황산송(黄山松), 대만송(臺灣松), 단엽송(短葉松) 등으로 불린다. 가지와 줄기가 낮고 굽어서 자태가 기묘하고 고이(古雅)하다(<https://baijiahao.baidu.com/s?id=1640477183438386146&wfr=spider&for=pc>).

179) 수동청(水冬靑)은 목서과에 속하는 낙엽관목으로, 바로 소엽여정(小葉女貞; *Ligustrum quihoui* Carr.)이다(김의정 외, 2017, p.187.).

180) 야유(野榆 *Ulmus pumila* L.)는 느릅나무과에 속하는 낙엽 활엽교목으로, 야생 느릅나무이다(김의정 외, 2017, p.187.).

181) 회백(檜柏 *Sabina chinensis* (L.) Ant.)은 측백나무과에 속하는 상록교목으로, 침엽(針葉)과 인엽(鱗葉)의 두 종류가 있다(김의정 외, 2017, p.187.).

182) 수죽(水竹; *Phyllostachys heteroclada* Oliver)은 화본과(禾本科)에 속하는 작은 대나무의 일종이다. 별명은 실심죽(實心竹)·목죽(木竹)·여자죽(黎子竹)이다(張家驥, 2010).

183) 호자(虎刺; *Damnacanthus indicus* Gaertn.)는 천초과(茜草科)에 속하는 상록 소관목으로, 꽃은 흰색이고 과실은 붉은색이다(張家驥, 2010, p.265.).

184) 창포구절(菖蒲九節; *Rhizoma Anemones Altaicae*)은 『중약지(中藥志)』에서 모간과(毛茛科)에 속하는 아이태은연화(阿爾泰銀蓮花; *Anemone altaica* Fisch.)의 근경이다. 잎은 칼 모양이면서 가늘고 시냇물에 산다(<http://www.zhongyaocai360.com/zhongyaodacidian/>).

185) 마원(馬遠; 1140-1225)은 남송 궁정화가로, 화풍은 간결한 필치로 광활한 느낌을 주는 산수(山水) 표현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대표작이 <매석계부도(梅石溪鳧圖)>,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의송도(倚松圖)> 등이 있다(<https://terms.naver.com/>).

186) 곽희(郭熙; 1000-1090)는 송나라 산수화의 대표적인 화가로 그의 대표작이 <조춘도(早春圖)>, <관산춘설도(關山春雪圖)>, <유곡도(幽谷圖)> 등이 있다. 회화 이론에 있어서는 『임천고치(林泉高致)』가 저술되어 있다(<https://terms.naver.com/>).

187) 유송년(劉松年; 1131-1218)은 이당(李唐), 마원(馬遠), 하규(夏圭)와 함께 ‘남송사대가(南宋四大家)’라 병칭한다. 서호를 자주 그리며, 작화의 제재가 원림의 작은 풍경이 많기 때문에 ‘소경산수(小景山水)’라고 한다(<https://terms.naver.com/>).



(野榆), 회백(檜柏) 등의 종류로서 뿌리가 용이나 뱀처럼 구불구불하고 이리저리 묶거나 톱으로 자른 흔적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모두 품격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복건지역의 수죽(水竹)과 항주의 호자(虎刺)는 오히려 ‘아속(雅俗:우아함과 저속함)’ 사이에 있다. 그리고 창포구절(菖蒲九節)은 신선도 진기하게 여겼는데, 작은 정원에 돌을 깔고 그 위에 두루 심으면 비온 후에 푸르러져 자연스레 향이 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봄에 피는 난해, 여름에 피는 야합(夜合), 황향훤(黃香萱)과 협죽도(夾竹桃), 가을에 피는 황밀왜국(黃蜜矮菊), 겨울에 피는 단엽수선(短葉水仙)과 미인초(美人蕉) 등 여러 종류를 모두 수시로 감상할 수 있다.

『장물지』에서는 분경에 적합한 식물 외에 화분의 재질과 외형까지 논했다. 예를 들어 화분은 청록색 녹이 슨 고대 청동기, 백정(白定), 관요와 가요(哥窯)의 도자기가 가장 좋고, 새로 제작한 것은 관요 오채자기(五色內窯)와 공춘(供春)이 만든 화분이 사용할 만하며 그 나머지는 모두 높은 품격에 들어가지 않는다. 화분은 원형이어야 하며 사각형은 적절하지 않는데 특히 길고 좋은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정리하면 아래 표 4-19와 같다.

표 4-19. 분경에 적합한 식물, 화분의 재질, 형태에 대한 개괄

분류		식물의 특성
식물 명칭	천목송(天目松)	큰 것은 두 자(尺)가 안 되고 짧은 것은 한 자(尺)를 넘지 못한다. 뿌리는 팔과 같고 잎은 화살촉과 같음.
	고매(古梅)	고매(古梅) 가운데 푸른 이끼가 돌고 물고기 비늘과 같은 껍질이 있으며, 이끼가 잔뜩 늘어져 있고 꽃을 머금고 잎이 돌아나며 오랫동안 시들지 않는 것이 있어 역시 예스러움.
	이끼	
	구기(枸杞)	뿌리가 용이나 뱀처럼 구불구불하고 이리저리 묶거나 톱으로 자른 흔적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모두 품격이 높음.
	수동청(水冬靑)	
	야유(野榆)	
	회백(檜柏)	
	수죽(水竹)	
	호자(虎刺)	우아함과 저속함[雅俗] 사이에 있음.
	창포구절(菖蒲九節)	신선도 진기하게 여겼는데, 작은 정원에 돌을 깔고 그 위에 두루 심으면 비온 후에 푸르러

			저 자연스레 향이 날 것.
		난혜(蘭蕙)	봄에 꽃이 폼. 수시로 감상할 수 있음.
		야합(夜合)	여름에 꽃이 폼. 수시로 감상할 수 있음.
		황향원(黃香萱)	
		협죽도(夾竹桃)	
		황밀왜국(黃蜜矮菊)	가을에 꽃이 폼. 수시로 감상할 수 있음.
		단엽수선(短葉水仙)	겨울에 꽃이 폼. 수시로 감상할 수 있음.
미인초(美人蕉)			
화 분	재 질	청동기	이 세 종류의 도자기가 가장 좋음.
		백정(白定)	
		관요와 가요(哥窯)	
		오색내요(五色內窯)	사용할 만함.
		공춘(供春)이 만든 화분	
	형 태	원형	적절함.
		사각형	적절하지 않음.
길고 좁은 모양		피하기 좋음.	
돌	영벽(靈壁)		이 세 종류의 돌로 화분에 넣어 보조하고, 그 나머지는 역시 높은 품격에 들어가지 않음.
	영석(英石)		
	서산(西山)의 흑석(黑石)		

자료참고: 위의 내용은 진식(1984)과 김의정 외(2017)의 저서를 참고하여 재정리되었음.

이어의 『한정우기』에서는 분경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했고<sup>188)</sup>, 이어가 북경에 가 한복(賈漢復)을 위해 설계한 반무원(半畝園)의 도면에서 분경은 뚜렷이 볼 수 있다 (그림 4-26).

앞서 두 저서에서 언급된 분경은 고대 중국 원림 설계에서 단순히 점경물의 요소로서 뿐만 아니라 심층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중국 전통 원림에서 흔히 활용된 ‘이소견대(以小見大)’의 조원이론 중 하나로 평가 지을 수 있다. ‘이소견대’는 작은 것을 통하여 큰 것을 본다는 뜻으로 즉, 현상으로 본질을 본다는 뜻이다. 전한(前漢)시대 회남왕(淮南王) 유안(劉安; B.C.179-B.C.122)<sup>189)</sup>의 문집인 『회남자·설산훈(淮南子·說山訓)』에 다음 문구가 있다.

‘잎 하나 지는 것을 보고 한 해가 장차 저무는 줄을 안다[見一葉落而知

188) 故盆花自幽蘭，水仙而外，未嘗寓目(선금형, 1988, p.172).

189) 유안(劉安; B.C.179-B.C.122)은 서한(西漢) 문학가이자 사상가이며 한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의 손자이었다. 철학적으로 그는 도가의 자연 천도관(天道觀)을 중심으로 선진 도가·법가·음양가 등의 사상을 종합했다. 저서로는 『회남자(淮南子)』, 『이소전(離騷傳)』 등이 있다(<https://terms.naver.com/>).

歲之將暮]’ 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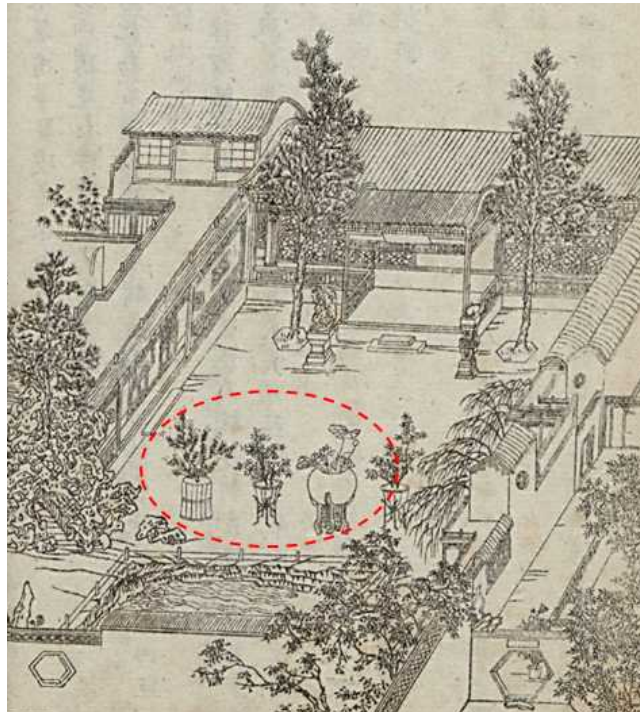


그림 4-26. 반무원(半畝園) 안에 배치한 분재  
그림출처: [清] 麟庆(1886). 『홍설인연기(鴻雪因緣記)』.

‘이소견대’의 철학적 담론으로 중국 원림에서의 활용은 분재뿐만 아니라 작은 공간의 조원에 활용할 수 있다. 중국 원림예술에 있어서 ‘이소견대’는 ‘일호천지(一壺天地)’<sup>190)</sup>, ‘지척산림(咫尺山林)’<sup>191)</sup>의 의미를 지닌다. 『원야』에서는 ‘일호천지’와 ‘지척산림’이라는 용어를 뚜렷이 나타냈고, 『장물지』 ‘수석(水石)’에서는 봉우리 하나를 만들면 바로 천심(千尋)의 화산(華山)과 같고, 물 한 국자는 만 리(裏)를 흐르는 강과 호수와 같다고 했다.<sup>192)</sup>

‘일호천지’ 혹은 ‘호중천지(壺中天地)’는 중당(中唐) 이후 원림예술의 기

190) ‘일호천지(一壺天地)’는 향아리 속의 세상이라는 뜻으로 별천지(別天地)·별세계·선경(仙境)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이 말은 한대(漢代)의 선인(仙人)인 호공(壺公)이 하나의 향아리를 집으로 삼고 술을 즐기며 세속을 잊었다는 고사에서 비롯된 말로, 호천(壺天)·호중천(壺中天)·호중천지(壺中天地)·일호지천(一壺之天)이라고도 한다(張家驥, 2010, p.1.).

191) ‘지척산림(咫尺山林)’의 ‘지(咫)’는 주제(周制)에서는 8촌(寸) 곧 26.7cm에 해당한다. ‘지척(咫尺)’은 매우 가까운 거리를 가리킨다. 이를 비유하는 어휘로 중국원림은 한정된 공간에서 무한한 공간의 자연산수를 만들어내는 원림이라 해석이 가능하다(張家驥, 2010, p.361.).

192) 一峯則太華千尋, 一勺則江湖萬裏(김의정 외, 2017, p.196.).

본적인 조영원칙이 되었다. 명청(明清)원림은 중당(中唐)에서 양송(兩宋) 원림으로 이어진 ‘호중천지’를 계승한 것이 가치가 있었으나, 주목되는 점은 중당 이후의 원림 조영원칙이 명청에 한걸음 더 발전하고 즉 호중천지(壺中天地)에서 개자납수미(芥子納須彌)를 지향했다는 것이다.<sup>193)</sup> 명청 원림에 개자원(芥子園), 작원(勺園)<sup>194)</sup>, 반무원(半畝園), 호원(壺園)<sup>195)</sup>, 십홀원(十笏園)<sup>196)</sup> 등과 같은 원림의 명칭만 봐도 그 당시에 ‘작은 원림’이 원림예술에 어느 정도 차지했는지 알 수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이어는 명청 무렵의 가장 유명한 조원가이자 원림 이론가의 한 사람으로 그의 개자원(芥子園)은 그 당시 원림예술원칙을 모두 활용했다고 할 수 있다.<sup>197)</sup>

전술하였듯 개자원은 이어가 두 번째로 설계한 원림이다. 이어는 개자원을 문예활동의 중심지로 활용하였고, 서점을 운영하며 출판과 도서관매를 겸하는 등 사업가로서의 수완을 발휘하기도 하였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었던 개자원은 근본적으로는 이어의 원림 조예를 충실히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원림의 명칭인 ‘개자(芥子)’는 불교 용어인 ‘개자수미(芥子須彌)’에서 따온 것이며 작은 겨자씨에 거대한 수미산(須彌山)을 담은 원림이라는 것인데, 그는 이 원림을 수미선경(須彌仙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각종 조영기법을 활용하여 하나의 아름다운 원림을 창조하였다. 개자원의 면적은 0.3무(畝) 곧 2,000㎡로 여타의 유명 강남원림에 비해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어는 『한정우기』에서 밝히기를, 내산각(來山閣), 부백헌(浮白軒), 서운곡(栖雲谷), 월사(月榭), 가대(歌臺) 등의 건물을 교묘하게 배치하여 심원한 의경(意境) 공간을 연출하였다.

193) 왕의, 2014, pp.371-377.

194) 북경의 작원(勺園)은 명나라의 서화가인 미만종(米萬鐘, 1570-1631)이 명 만력 연간에 조영한 것이다. 작원은 100무(畝)에 불과한데 그 특색은 해전(海殿)의 물을 끌어들여 강남지역의 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전일작(海殿一勺)’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작원’이라는 명칭이 붙었다(張家驥, 2010, p.20.).

195) 양주의 호원(壺園)은 면적이 작은 원림이라서 호중천지(壺中天地)에 비유하는데, 비록 크지는 않지만, 작은 것을 보고 큰 것을 알 수 있어 ‘호원’이라는 명칭을 붙였다(張家驥, 2010, p.375.).

196) 유방(濰坊)의 십홀원(十笏園)은 땅을 작게 차지하여 마치 판홀(板笏) 열 개만 크게 한 것처럼 하여 그 이름을 얻었다. ‘노동명주(魯東明珠)’라는 별명이 있다(張家驥, 2010, p.6.).

197) 왕의, 2014, pp.371-377.

### 3) 원거리 완상

앞서 근거리 완상에 대한 종합적으로 살펴봤는데, 본 절에는 원거리 완상에 적합한 대표적인 식물을 선정하는 방식에 대하여 해석하였다. 목본식물로는 복숭아나무, 자두나무, 매화나무, 옥란, 계화(桂花), 자미(紫薇)<sup>198)</sup>가 있고, 초본 식물인 대나무, 해바라기, 옥잠화, 추색(秋色)<sup>199)</sup> 등을 포함한다(표 4-20).

먼저, 목본 식물에 대하여 문진형의 『장물지』 「화목」편에서 도입부에는 복사꽃과 자두나무 꽃에 대하여 이들은 원림에 재배하기에 적합하며 관상용으로 원거리 바라보아야 적합하다. 다음으로 매화나무에 대하여 문진형이 여러 완상방식을 언급하면서 오래된 종류의 매화나무를 선택하여 암석이나 정원에 심으면 가장 우아하다고 하였다. 또 넓은 원림의 한 가운데 심으면 개화 시 매화나무 밑에 누우면 몸과 정신이 모두 맑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옥란에 대하여 대청 앞에 몇 그루를 마주하게 열식(列植)하는 것이 적합하다. 개화 시 온통 하얗게 되어 마치 옥이 무리를 지은 것과 같다. 계수나무에 대하여 두 무(畝) 정도의 땅을 개간해 각 종류의 계수나무를 식재하고, 가운데 정자 하나를 짓는 것이 좋다. 자미(紫薇)에 대하여 문진형이 구체적으로 네 종류의 색상 백미(白薇), 홍미(紅薇), 취미(翠薇), 백일홍(百日紅)을 언급했다. 이 중에 백일홍의 이름 유래는 4월부터 꽃이 피고, 9월에야 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산에 위치한 정원에 심으면 내구봉(耐久朋)이라 하고, 이 꽃은 원거리서 보는 것이 적합하다.

초본식물에 대하여 대나무, 해바라기, 옥잠화, 추색(秋色)의 예를 들었다. 먼저 대나무에 대하여 상세하게 다양한 대나무 종류를 설명하면서 대나무별에 따라 적합한 식재장소를 기재했다. 예컨대, 모죽(毛竹)<sup>200)</sup>은 대나무 숲을 만들

198) 자미(紫薇, *Lagerstroemia indica* L.)는 배롱나무를 가리킨다. 부처꽃과에 속하는 낙엽 소교목으로 꽃은 흰색·홍색·홍자색이다. ‘백일홍(百日紅)’, ‘만당홍(滿堂紅)’, ‘양양수(養養樹)’ 이라고도 한다(張家驥, 2010, p.465.).

199) 추색(秋色)은 오(吳) 지역에서는 계관화(雞冠花), 안래홍(雁來紅), 십양금(十樣錦) 등의 종류를 가리킨다. 계관화(*Celosia cristata* L.)는 현과(莧科)에 속하는 일년생 초본식물로 꽃은 흰색·황색·홍색이고 꽃의 모습이 닭의 벼슬과 같다. 안래홍(雁來紅; *Amaranthus tricolor*)은 현과(莧科)에 속하는 일년생초본식물로 꽃은 노랑, 빨강의 얼룩무늬가 있다. ‘老來少(노래소)’, ‘노소년(老少年)’ 이라고도 한다. 십양금(十樣錦; *Vaniot Houtt*)은 당창포(唐菖蒲)의 별명으로, 붓꽃과에 속하며 다년생 초본식물이다. 꽃은 빨강, 노랑, 흰색, 파랑 등 단색 또는 복색 종류가 있다(<https://www.baidu.com>).

기에 적합하다. 넓은 땅을 개간해서 잡다한 나무를 없애고 대나무 숲과 같은 공간을 만들어 바닥에 자리를 깔고 앉을 수 있고 또는 돌 의자 등을 둔다. 그러나 이러한 대나무 숲의 장소는 도시지보다 산림지에 적합하다. 해바라기에 대하여 문진형이 총 네 종류를 언급하면서 꽃의 외형에 따라 용규(戎葵), 금규(錦葵), 향일규(向日葵), 추규(秋葵)로 설명했다. 용규는 형태가 다양하고 넓은 곳에 심는 것이 적합하다. 옥잠화는 담장 가에 한 줄로 심어, 꽃이 필 때 관상하면 마치 눈이 내린 것과 같다고 했다. 추색(秋色)에 대하여 오(吳) 지역에서는 추색은 계관화(雞冠花), 안래홍(雁來紅), 십양금(十樣錦)과 같은 종류를 가리킨다. 늦가을이 되면 이 꽃들은 다채로운 색으로 찬란히 빛나 장식적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고 이 종류의 꽃들을 넓은 원림에만 심을 수 있다고 했다. 대나무, 해바라기, 옥잠화, 추색(秋色) 외에 채소밭이나 넓은 공터를 개간해서 별도로 한 구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

200) 모죽(毛竹, *Phyllostachys pubescens*)은 화본과(禾本科)에 속하는 상록교목으로, 원림 곡경, 연못가, 계곡 그리고 실내분재에 자주 사용된다(張家驥, 2010, p.57.).

표 4-20. 원거리 완상하기 적합한 식물에 대한 개괄

분류	식물 명칭		식물 학명	이미지	해석 내용
목본 식물	복사꽃		<i>Prunus persica</i>		원거리 바라보아야 적합함.
	자두나무		<i>Prunus salicina</i>		
	매화나무		<i>Prunus mume</i>		넓은 곳에 심어 개화 시 가운데서 누우면, 몸과 정신이 모두 맑아졌음.
	옥란		<i>Magnolia denudata</i>		열식(列植)에 적합. 개화 시 온통 하얗게 되어 마치 옥이 무리를 지어 있는 밭과 같음.
	계수나무		<i>Osmanthus fragrans</i>		군식에 적합하여 두 무 정도의 땅에 각종 계수나무를 식재함.
	백일홍		<i>Lagerstroemia indica</i>		네 종류, 멀리서 보는 것이 좋음.
초본 식물	대나무		<i>Bambusoideae</i>		다양한 대나무 종류, 대나무별 적합한 식재장소, 강상방식.
	해바라기		<i>Helianthus annuus</i>		네 종류, 넓은 곳에 심는 것이 적합함.
	옥잠화		<i>Hostaplantaginea</i>		담장 가에 한 줄로 이어 심어 꽃이 필 때 마치 눈이 내린 것과 같이 보임.
	추색 (秋色)	계관화	<i>Celosia cristata L.</i>		넓은 정원에만 심을 수 있다고 했음.
		안래홍	<i>Amaranthus tricolor</i>		
		십양금	<i>Vaniot Houtt</i>		

참고자료: 위의 내용은 선금형(1988), 장가기(2010)의 저서를 참고하여 재정리되었음.  
사진출처: <https://www.google.com>.

#### 4.3.4.2.2. 이어의 독특한 식물 향유방식

본 절에서 이어의 『한정우기』에서는 그의 독특한 식물의 향유방식에 대하여 세 가지 각도 ‘보조 시설 이용’, ‘식물의 지각(知覺)’, ‘식물과 통감(通感)’, ‘사물의 형상화’를 분석했다.

##### 1) 보조 시설 이용

이어는 매화 중에 특히 납매(腊梅)<sup>201)</sup>를 선호했다. 겨울철에 이 꽃의 수호신은 자신이라 언급하였다. 하지만 매화는 감상 시 두 가지의 단점이 있다. 하나는 추운 바람<sup>202)</sup>이고 다른 하나는 꽃을 열려 망가뜨리는 눈<sup>203)</sup>이다. 이에 이어는 열악한 자연 환경을 피하고 겨울 매화 감상 시 더욱 정취(情趣)를 느끼기 위해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방식을 제안하였다.

첫째, 야외에 나갈 때 천막을 구비한다. 천막을 삼면으로 둘러치고 앞면을 뚫어 그 천막 안에 불을 피워 따스하게 하고 술도 데울 수 있도록 석탄을 많이 준비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sup>204)</sup> 둘째, 정원에서 매화를 감상하는 자는 종이 병풍 몇 개를 설치하여 병풍의 윗면은 평평한 지붕을 덮고 사방으로 창문을 열어 수시로 여닫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매화가 있는 쪽을 향해 창문을 열게 하여 매화뿐 아니라 모든 꽃도 이렇게 사계절에 걸쳐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상황에 맞도록 종이 병풍에 ‘취화거(就花居)’라는 작은 현판도 걸어야 한다. 꽃 사이에 깃발을 하나 세워 어떤 꽃이든 충칭을 붙이고 ‘축지화(縮地花)’라고 했다.<sup>205)</sup> 이어는 또한 자신이 거주한 정원에서 특이한 식물의 외형을 모방하여 편액과 주련의 운곽을 만들어 정원을 즐겼다. 이 중에는 가을 낙엽 형태로 만든 추엽편(秋葉匾), 대나무 줄기로 만든 차군련(此君聯), 파

201) 납매(腊梅, *Chimonanthus praecox*)는 납매과에 속하는 낙엽교목으로 황매(黃梅)라고도 한다(張家驥, 2010, p.470.).

202) 風送香來, 香來而寒亦至, 令人開戶不得, 閉戶不得, 是可愛者風, 而可憎者亦風也(선금형, 1988, p.262.).

203) 雪助花妍, 雪凍而花亦凍, 令人去之不可, 留之不可, 是有功者雪, 有過者亦雪也(선금형, 1988, p.262.).

204) 觀梅之具有二: 山遊者必帶帳房, 實三面而虛其前, 制同湯網, 其中多設爐炭, 既可致溫, 復備暖酒之用. 此一法也(선금형, 1988, p.262.).

205) 園居者設紙屏數扇, 覆以平頂, 四面設窓, 盡可開閉, 隨花所在, 撐而就之. 此屏不止觀梅, 是花皆然. 可備終歲之用. 立一小匾, 名曰 ‘就花居’. 花間豎一旗幟, 不論何花, 概以總名曰 ‘縮地花’. 此一法也(선금형, 1988, p.262.).



초로 만든 초엽련(蕉葉聯)이 있다. 이를 통해 그가 자연을 사랑하고 삶을 이해하는 독특한 심미적 해안을 지닌 문인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식물 재배와 감상 시 죽병(竹屏) 활용을 견해한다. 『한정우기』 「종식부」에서 독특한 견해는 등본(藤本) 곧, 덩굴식물을 부식(扶植)하여 관상미를 극대화한 ‘죽병부식법(竹屏扶植法)’에 나타났다.<sup>206)</sup> 덩굴식물을 이용한 죽병의 설계 구조는 난간의 형태와 동일하게 종횡격(縱橫格)과 의사격(欹斜格)이라는 두 종류를 제시했고 기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꽃이 맺히는 등본식물은 반드시 부식[扶植: 지지대의 설치]하여 재배해야 한다. 부식의 도구는 전부터 사용하던 죽병보다 오묘한 것이 없다. 죽병은 네모난 격자로 만들 수도 있고, 사선으로 엮어 만들 수도 있다(선금형, 1988; 김의정, 2018).<sup>207)</sup>

이어는 과거의 죽병 양식을 취하면서도, 무조건 구습을 따를 필요는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여기서 저자는 죽병과 조화로울 수 있는 식물소재가 되는 아홉종의 덩굴식물을 일일이 소개하면서 당시의 문화적 취향과 그의 경험이 반영된 새로운 개념의 울타리를 제안했다(표 4-21). 일단 울타리를 장식하는 꽃은 목향, 도미(醢醢), 월계화 등을 부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대부분 꽃이 아름다운 장미과의 식물로서 이 장면을 살펴보면 오색찬란한 꽃이 맺히는 종류가 선호됨을 알 수 있다. 더 강조하는 부분은 하나의 울타리를 만드는데 한 가지 종류만 고수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즉, 혼식의 방법이 적극 권장되었다. 장미꽃과 목향을 함께 어우러 식재하면 오색찬란한 빛깔을 내어, 장미꽃은 벽을 만들고, 목향은 지붕을 만든다고 하였다.<sup>208)</sup> 또한 장미꽃과 목향을 함께 심으면, 시각적인 면이 강조될 뿐만 아니라 후각적으로도 목향의 향기가 더해져 뛰어난 경관적 효과를 만들어 낸다는 견해를 밝혔다. 식물 도미(醢醢)의 설명에서는, 그 효용에 있어 장미와 목향에 비해 다소 부족하지만, 울타리 장식용

206) 정우진 외, 2014, p.87.

207) 藤本之花, 必須扶植. 扶植之具, 莫妙於從前成法之用竹屏. 或方其眼, 或斜其槁(선금형, 1988, p.277.).

208) 木香花密而香濃, 此其稍勝薔薇者也, 然結屏單靠此種, 未免冷落, 勢必依傍薔薇, 薔薇宜架, 木香宜棚者, 以薔薇條幹之所及, 不及木香之遠也, 木香作屋, 薔薇作垣, 二者各盡其長, 主人亦均收其利矣(선금형, 1988, p.278.).

으로 빼놓을 수 없는 꽃이라고도 언급했다. 그 이유로 도미의 개화시기가 위 두 종의 꽃에 비해 조금 늦은 탓에, 장미꽃과 목향이 진 후에도 연이어서 꽃을 감상할 수 있다는 식재의 묘미를 설파했다. 다시 말하면 오랜 시간 꽃을 볼 수 있는 죽병을 위해 혼식이 적극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함을 역설한 것이다.<sup>209)</sup> 이는 저자의 식물에 대한 탁월한 식견과 식물 연출기법의 고민을 읽을 수 있는 부분으로, 소재를 자유자재로 활용하여 생동감 넘치는 원림을 만드는 설계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그밖에 이어는 식물소재를 사용할 때 소재의 다 기능적 측면에도 관심을 가졌다. 장미꽃을 예로 들면서, 향의 음미뿐만 아니라, 식용, 관상, 장식적인 측면에도 적지 않은 쓰임새가 있다고 함으로써, 원림에 식재되는 식물에 다각적인 이점이 덩으로 주어질 수 있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sup>210)</sup> 이상과 같이 이어는 마땅히 식물의 생장규칙·생리생태에 따라 각기의 장점을 발휘도록 식재하는 것을 첫 번째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아홉 종류의 덩굴식물에 있어서는 식물의 생리·생태적 차이와 기능상의 특징이 소재선정의 근거가 되어야 함을 밝혔다. 이를 통해 아름답고 지속가능한 울타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은 죽병부식법(竹屏扶植法)의 요점이라 할 수 있다.

209) 醑醑之品, 亞於薔薇, 木香, 然亦屏間必須之物, 以其花候稍遲, 可續二種之不繼也(선금형, 1988, p.279.).

210) 可囊可食, 可嗅可觀, 可插可戴, 是能忠臣其身, 而又能媚子其術者也, 花之能事, 畢於此矣(선금형, 1988, p.280.).

표 4-21. 죽병부식법에 적합한 식물에 대한 개괄

식물 명칭	식물 학명	이미지	해석 내용
장미(薔薇)	<i>Rosa multiflora</i>		품종이 다양함, 여러 색깔.
목향(木香)	<i>Rosa banksiae</i>		장미보다 뛰어난 점은 꽃이 촘촘하게 피고 향기가 진함.
도미(酴醾)	<i>Rubus rosifolius</i>		개화시기가 조금 늦어 장미와 목향이 이어지도록 될 수 있음.
월월홍(月月紅)	<i>Rosa chinensis</i>		홍색, 흰색, 단홍색이 있음. 꽃이 피는 것이 무성하지 않으므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음.
자매화(姊妹花)	<i>Rosa multiflora</i> <i>Thunb. var. carnea</i> <i>Thory</i>		꽃망울에 7개의 꽃, 혹은 10개의 꽃이 피는 것.
매괴(玫瑰)	<i>Rosa rugosa</i> Thunb.		입·눈·코·혀·피부와 모발에 이르기까지 즐겁게 할 수 있는 꽃.
소형(素馨)	<i>Jasminum grandiflorum</i> L.		꽃 중에 가장 허약한 것.
능소화(凌霄花)	<i>Campsis grandiflora</i>		하늘 끝의 신선과 같음.
진주란(眞珠蘭)	<i>Chloranthus spicatus</i> (Thunb.) Makino		‘난’ 자를 붙인 이유는 난과 같이 향기가 잘 나지 않기 때문임.

참고자료: 위의 내용은 선금형(1988), 장가기(2010)의 저서, 그리고 정우진 외(2014)의 논문을 참고하여 재정리되었음.

사진출처: <https://www.google.com/>

## 2) 식물의 지각(知覺)

이어는 백일홍의 예를 들어 식물도 동물과 사람처럼 지각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동물의 지각은 사람보다 조금 낮을 뿐이며 초목의 지각은 동물보다 약간 떨어진다고 했다.<sup>211)</sup> 그 이유는 백일홍이 가려움을 무서워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사람들은 간지럼을 타는 나무는 백일홍 한 종류뿐이고 다른 나무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모든 초목은 촉각을 느낀다. 다만 백일홍은 다른 나무에 비해 약간의 미동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는 모든 초목이 미세하지만 지각을 가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모든 사람이 간지럼을 타지 않듯이 초목 또한 마찬가지라고 했다. 초목은 말을 할 수 없을 뿐 동물이 도살되는 것처럼 고통을 느끼므로 초목을 함부로 벌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식물 지각의 좀 더 흥미로운 사례는 살구나무이다. 살구는 열매가 열리지 않을 때 처녀가 늘 입는 치마를 나무에 묶으면 바로 주렁주렁 열매가 맺힌 설화가 있다.<sup>212)</sup> 이어는 처음에는 이러한 설화를 믿지 않았으나 실제로 시험했다. 그는 이를 차용해 다른 수목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 3) 식물과 통감(通感)

이어는 식물이 지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사람의 오감을 통해 식물과 마주하면서 소통과 교감을 풍부하게 나누고 즐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버드나무이다. 버드나무는 늘어진 긴 가지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매미와 새가 깃 드는 장소이고 이는 이들이 여기서 노래를 부르기 때문이다. 새의 지저귀는 소리는 사람이 깨어 있을 때가 아닌 새벽녘 사람이 자고 있을 때이다. 새벽녘의 새소리는 듣기 좋은데 그 까닭으로 아침 일곱 시 이후는 사람이 모두 일어난 시각으로 새가 생명의 불안함과 무서움을 느껴 지저귀더라도 듣기 좋지 않은 소리가 나오곤 한다. 이러한 연유로 새소리가 낮에 듣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는 장자의 고사를 인용하면서 자신이 새가

211) 禽獸草木盡是有知之物，但禽獸之知，稍異於人，草木之知，又稍異於禽獸。漸蠢則漸愚耳(선금형, 1988, p.269.).

212) 種杏不實者，以處子常系之裙系樹上，便結子累累(선금형, 1988, p.264.).

아니지만<sup>213)</sup> 새들과 통할 수 있는 자신을 새들의 지음(知音)<sup>214)</sup>으로 비유한다. 이를 통해 그가 자연 속 일부 새들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어는 사람들이 자연계의 사물들과 교류하기를 권했다. 예컨대 정원에서 나무를 심을 때, 나무의 가지와 잎을 탐해 하늘의 달빛을 막아서 상월(賞月)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심한 잘못이라고 했다. 주인이나 조원가는 처음 나무를 심을 때 이러한 사함을 예방하여 한군데 하늘로 통하는 공간을 남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둘째 합환(合歡)<sup>215)</sup>이다. 이어는 ‘흰초망우[萱草忘憂: 원추리를 보고서 근심을 잊는다]’라는 말을 들었지만 실제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사람은 ‘합환견분[合歡蠲忿: 합환을 마주할 때 분노가 사라진다]’고 말하며 대개 이 꽃을 본 사람은 화를 풀어 기쁨이 되며 눈물을 그치고 웃지 않는 경우가 없다고 했다. 대체로 이 나무는 깊은 규방(閨房)과 내실에 심는데 합환을 내실에 심으면 사람이 떨어질 때 나무도 벌어지고 나무가 합치면 사람도 합친다. 사람이 합환에게 기쁨이 더하고 나무도 이리하여 더 무성해지므로, 이른바 사람과 장소가 서로 어울리는 것이다. 또 다른 담론은 남녀가 함께 목욕한 물을 뿌리면 합환은 더욱 번성하여 자란다고 했다.<sup>216)</sup> 흥미로운 설화로 보이지만 이어는 오감으로 식물과 교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는 위와 같이 버드나무와 합환을 통해 가능하다고 했다.

다음으로 이어는 연꽃과 매괴(玫瑰)의 예를 들어 식물은 관상 가치 뿐만 아니라 실용 가치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는 연꽃에 자신의 여름철 생명으로 비유했으며 연꽃이 지닌 호감을 네 가지를 설명했다. 연꽃은 시각적으로 다른 꽃과 비교하면 작은 연잎 싹이 물 위에 나오는 날부터 꽃봉오리가 완전히 피

213) 莊子非魚，能知魚之樂；笠翁非鳥，能識鳥之情(선금형, 1988, p.305.).

214) 마음이 서로 통하는 친한 벗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열자(列子)』에 거문고의 명인 백아(伯牙)가 자기의 소리를 잘 이해해 준 벗 종자기(鍾子期)가 죽자 자신의 거문고 소리를 아는 자가 없다고 하여 거문고 줄을 끊었다는 데서 유래한다(<https://dict.naver.com>).

215) 합환(合歡)은 자귀나무이다. 합환은 화합하여 즐긴다는 뜻이다. 이 나무는 아침에 벌어졌다가 저녁에 오므라들며, 황혼이 될 때마다 가지와 잎이 서로 얹히므로 ‘합환’이라는 이름을 했다(김의정, 2018, p.373.).

216) 常以男女同浴之水，隔一宿而澆其根，則花之芳艷妍較常加倍(선금형, 1988, p.274.).

어 꽃이 될 때까지 자라는 매 순간이 고운 자태인 꽃이다. 위에서 말한 것은 모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후각으로 맡을 수 있는 것은 연꽃잎의 맑은 향기가 있어 그것들로 더위를 즉시 식힐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맛깔스러운 것은 연밥과 연근으로 만든 반찬이 식탁에 차려져 입가에 향이나 미각과 후각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서리 맞은 고엽만, 영락하여 폐기된 물건이 된 것 같으나 떼어서 잘 보존하면 또 일 년 내내 물건을 싸는 데 쓸 수 있다. 이처럼 이어는 연꽃을 사랑한 이유로 연의 관상용 가치와 실용성을 모두 갖기 때문이다. 매괴도 연꽃처럼 사람에게 이로움이 있다하며 대부분의 꽃은 단지 눈을 즐겁게 할 수 있을 뿐인데 비해 매괴는 사람의 입·눈·코·혀·비부와 모발까지 즐거움을 줄 수 있다 하였다. 예를 들어 향낭(香囊)을 만들어 수시로 휴대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향기를 좋아 맡을 수 있고, 꽃꽂이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여인의 머리 장식으로도 착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는 이렇듯 매괴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점이 많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꽃이라고 했다.

#### 4) 사물의 형상화

사물의 형상을 닮은 꽃은 매우 많다. 예컨대, 수구(繡球)를 수놓은 공으로, 금전화(金錢花)<sup>217)</sup>를 황금 동전으로, 호접화(胡蝶花)를 나비로, 전춘라(剪春羅)를 ‘비단을 오려 만든 듯한 모양’으로 비유한다.<sup>218)</sup> 이어가 언급한 형상화할 수 있는 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표 4-22).

꽃을 형상화하는 데 있어 더 좋은 사례는 바로 옥잠화(玉簪花)다. 옥잠화는 특히 규방에서 필요한 물건으로 여성들을 이 꽃을 활용해 머리 장식으로 사용하곤 했으며 여성이 거주하는 공간의 울타리 한가운데를 장식하는데 활용되곤 했다. 이맘때의 옥잠화는 미인이 잃어버린 비녀 같기도 하다.<sup>219)</sup>

217) 동그란 꽃 모양이 황금 동전을 닮았다 해서 금전화(金錢花)로 부른다. 또는 선복화(旋覆花), 금불초(金沸草), 적적금(滴滴金), 하국(夏菊), 대심(戴槿) 등의 이명도 있다(<https://dict.naver.com>).

218) 花之肖形者盡多，如繡球，玉簪，金錢，蝴蝶，剪春羅之屬，皆能酷似，然皆塵世中物也；能肖天上之形者，獨有雞冠花一種(선금형, 1988, pp.289-290.).

더 흥미로운 담론은 계관화에 관한 것이다. 계관(雞冠)은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닭 벼슬이라는 뜻이다. 처음에 이 꽃에게 ‘雞冠’라는 한자를 붙인 이유는 인간 세상에 형상화된 닭 벼슬과 닮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어는 이와 달리 계관화는 세속의 사물보다는 하늘의 상서로운 구름 한 송이와 닮았다고 했다. 이에 그는 이 꽃을 일명 ‘일타운(一朵雲)’이라고 했으며 색은 다양해서 ‘오색운(五色雲)’이라고도 했다.<sup>220)</sup>

표 4-22. 식물의 형상화

분류	식물 명칭	식물 학명	이미지	해석 내용
식물의 형상화	수국	<i>Hydrangea macrophylla</i>		수놓은 공
	금전화	<i>Inula britannica</i> var. <i>japonica</i>		황금 동전
	호접화	<i>Iris japonica</i> Thunb.		나비
	전춘라	<i>Lychnis coronata</i> Thunb.		비단을 오려 만든 듯한 모양
	옥잠화	<i>Hostaplantaginea</i>		미인이 잃어버린 비녀
	계관화	<i>Celosia cristata</i> L.		구름

참고자료: 위의 내용은 선금형(1988), 장가기(2010)의 저서를 참고하여 재정리되었음.  
사진출처: <https://www.google.com/>

219) 插入婦人髻中, 孰真孰假, 幾不能辨, 乃閨閣中必需之物, 然留之弗摘, 點綴簪間, 亦似美人之遺(선금형, 1988, p.290.).

220) 冠雖肖, 然而賤視花容矣, 請易其字, 曰 ‘一朵雲’. 此花有紅, 紫, 黃, 白四色, 紅者為 ‘紅雲’, 紫者為 ‘紫雲’, 黃者為 ‘黃雲’, 白者為 ‘白雲’. 又有一種五色者, 即名為 ‘五色雲’ (선금형 1988, p.290.).

#### 4.3.4.3. 식물의 상징성

중국의 역사에서 식물을 아끼고 사랑하여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는 한편, 식물에 의인화(擬人化)를 표현했던 문인지사들의 사례는 많다. 굴원(屈原; 340 B.C.-278 B.C.)은 향초를 충정(忠貞)의 품성, 임포(林逋; 967-1028)는 매화를 아내로, 도원명(陶淵明; 365-427)은 국화를 은사(隱士)로 삼았다. 이러한 ‘비덕(比德)’<sup>221)</sup>의 자연미학은 특히 원림 생활에서 경관 감상 시 흔히 사용된 사고 방식이었다. 본 절에서는 명말청초 원림 저서에서 식물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지, 그리고 식물을 어떻게 향유했는지를 분석했다.

문진형의 『장물지』에서는 식물의 상징성에 대해서 1) 화왕(花王)과 화상(花相), 2) 자태가 아름다운 미인, 3) ‘화적[花賊: 꽃 가운데 도적]’과 선우(禪友), 4) 은사(隱士)와 신선 총 네 가지로 개괄하였다. 이와 같이 표현된 11종의 식물을 표 4-23으로 정리했고 해당 원문을 제시하여 문진형이 각 식물에 부여한 상징적 의미를 해석하였다.

이어의 『한정우기』에서는 식물의 상징성에 대해서 1) 화왕(花王)과 화상(花相), 2) 미인 얼굴과佳人(佳人), 3) 군자와 소인(小人), 4) 은사(隱士)와 신선 총 네 가지로 개괄하였다. 이와 같이 표현된 14종의 식물을 표 4-24로 정리했고 해당 원문을 제시하여 이어가 각 식물에 부여한 상징적 의미를 해석하였다.

##### 4.3.4.3.1. 화왕(花王)과 화상(花相)

먼저 『장물지』에서는 전통적인 식물 인식에 따라 모란은 화왕이라고 불리고, 작약은 화상이라 불리는데 모두 꽃 중의 귀족이라고 정의했다. 문진형은 이 두 꽃은 관상적 가치가 높지만 나란히 심지 말아야 하고 나무통과 화분에 심어놓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문진형과 유사한 점은 이어의 『한정우기』에서도 군화(群花) 중 모란은 그 외형이 아름다워 꽃의 왕 자리를 차지하며 화왕이라 불렸다. 그는 ‘모란을 낙양

221) 비덕설(比德說)은 전통적인 자연미학 사상 범주에 속한다고 말했다. 공자의 ‘智者樂山, 仁者樂山’에서 비롯된 자연산수의 심미관(審美觀)이다(張家驥 2010, p.75.).



으로 귀양낸[牡丹被貶洛陽]’<sup>222)</sup> 고사를 통해 모란이 강직하고 정직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깨닫고 모란을 화왕으로 인정했다는 설도 있다.

사실 꽃이 피는 시기는 저마다 생장 시기에 따라 다르게 이뤄지는데 해당 시기가 아니면 ‘열 명의 요임금이 있어도 겨울에는 밀 한 톨이 자라지 못한다[雖十堯不能冬生一穗]’ 고 했듯이 꽃이 피지 않는다. 모란 또한 마찬가지로 이어는 모란과 관련된 고사를 통해 모란을 절개와 지조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여 현사(賢士)로 비유했다.

이러한 모란의 아름다움에 겨룰 수 있는 꽃으로 작약이 있는데 이어 외의 대부분의 옛 선비들은 모란을 화왕이라고 부르고 작약을 꽃의 재상[화상(花相)]이라고 부르며 두 꽃에 격차를 두었다. 옛 선비들이 작약을 화상으로 칭하며 격을 낮춰 부른 까닭을 살펴보면 작약의 꽃과 향이 모란에 버금감에도 불구하고 나뭇가지와 줄기가 약한 속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어는 작약이 화상이라고 불리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모란과 작약이 비록 존비(尊卑)의 차이는 있지만 작약도 마땅히 다섯 등급의 제후(諸侯) 대열에 속해야 한다.<sup>223)</sup>

이어는 외견만 보고 꽃의 등급을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겨,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객관적 견지를 유지했다. 꽃의 외형을 봤을 때 모란은 목본 화훼 식물이고 꽃이 필 때에는 나뭇가지 위에 우뚝 서서 기세가 생기면서 위엄과 존귀한 자태를 형성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작약은 초본식물이므로 잎만 있고 줄기가 없다. 그렇기에 지지대가 없을 시 땅에 쓰러져 있을 수밖에 없다.<sup>224)</sup> 이에 작약을 공신(功臣)으로 비유하고 꽃 중에서 다섯 등급의 제후(諸侯) 대열에 속해야 한다고 했다

222) 『사물기원·화목화과(事物紀原·花木花果)』에 따르면 측천무후가 겨울에 후화원(後花園)에서 꽃을 감상할 때 모든 꽃들이 만발하였는데, 유독 모란이 더디게 피어 있는 것을 보고 모란을 낙양으로 유배 보내라고 명했다(金萬源, 2015, pp.588-590.).

223) 芍藥與牡丹媲美，前人署牡丹以‘花王’，署芍藥以‘花相’，冤哉！予以公道之，天無二日，民無二王，牡丹正位於香國，芍藥自難自驅，雖別尊卑，亦當在五等諸侯之列，豈王之下，相之上，遂無一位一座，可備輔力之用者哉(선금형, 1988, p.283.).

224) 猶芍藥之遜牡丹者，亦不在花與香而在梗，牡丹系木本之花，其開也，高懸枝梗之上，得其勢，則能壯其威儀，是花王之尊，尊於勢也。芍藥出於草本，僅有葉而無枝，不得一物相扶，則委而仆於地矣(선금형, 1988, p.285.).

#### 4.3.4.3.2. 자태가 아름다운 미인

문진형은 자태가 아름다운 미인과 같은 식물은 복사꽃, 동백꽃, 해당화, 살구나무의 꽃, 자두나무의 꽃, 수양버들을 언급했다.

첫째, 복사꽃은 살구나무의 꽃, 자두나무의 꽃과 함께 아름다움을 건줄 만한 꽃이다. 이 가운데 복사꽃은 아름다운 미인과 같아 춤과 노래를 공연하는 곳에서는 없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동백꽃에 대해 문진형은 ‘취양비(醉楊妃)’라는 이름의 동백꽃을 눈 속에서 피어나 더욱 귀여움을 보인다고 했다. 해당화 종류 가운데 수사해당(垂絲海棠)<sup>225)</sup>의 교태가 양귀비의 취한 모습과 같아 서부해당과 첩경해당에 비해 더 아름답다고 하였다. 또 모과해당(木瓜海棠)<sup>226)</sup>과 추해당(秋海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중에 추해당은 그늘지고 습기 찬 장소를 좋아해서 그늘진 계단과 섬돌에 심어야 하며 가을 꽃 중에 이 꽃이 가장 요염하므로 많이 심어야 한다고 했다. 수양버드나무에 대해 이 중에는 서호류(西湖柳)라는 버드나무가 있어 가지가 부드럽고 여성적인 운치가 깃들어 있고, 가지가 수면 위를 스치며 푸른 잎과 누런 버들개지가 휘날리면 우아한 정취가 물씬하다는 의견을 남겼다.

다음으로 이어는 미인 얼굴과佳人(佳人)과 같은 식물은 복사꽃, 해당화, 동백꽃, 재스민꽃, 다화장미, 수선화를 언급했다.

먼저 색이 가장 요염한 복사꽃은 수명이 짧아 ‘홍안박명(红颜薄命)’<sup>227)</sup>이란 말이 생겼다고 했다. 복사꽃의 색은 붉은색 중에서 가장 순수하고 자두꽃의 색은 흰색 중에서 가장 순결하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꽃의 아름다움보다 주로 과실 맛의 유무를 중시했는데 이는 감상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복숭아를 접목하면 맛은 있을지언정 복사꽃이 가진 순수한 색은 변하게 된다. 이에 반해 접목하지 않은 복사꽃은 빛깔이 매우 곱고 마치 미인의 얼굴과 같다. 이른바 ‘도새(桃腮)’와 ‘도염(桃靨)’<sup>228)</sup>은 접목하지 않은 복

225) 수사해당(垂絲海棠, *Malus halliana* Koehne)은 장미과에 속하며 낙엽 소교목으로 꽃이 붉은 색이며 꽃자루가 길고 아래로 늘어져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김의정 외, 2017, p.109.).

226) 모과해당(木瓜海棠)은 장미과에 속하며 낙엽 소교목으로 꽃이 담홍색이다(김의정 외, 2017, p.109.).

227) 옛 사람들은 여인의 미모가 뛰어난다면 명이 짧고 말했다(<https://dict.naver.com/>).

송아꽃을 가리키며 지금 언급하는 벽도(碧桃)·역도(絳桃)·금도(金桃)·은도(銀桃)는 모두 접목한 복숭아를 지칭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접목하지 않은 복사꽃은 순수한 색을 지녔기에 고결한 아름다움을 상징했다. 순수미를 지닌 복사꽃들은 대부분 시골 농가, 목동 나무꾼이 거처하는 곳에 많이 자리한다. 복사꽃을 보려고 나귀를 타고 교외로 나가 거니는 것은 마치 무릉인(武陵人)들이 우연히 복사꽃 동산에 들어가는 것처럼 정취를 얻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이어는 다른 아름다운 가목(佳木)으로 해당화를 꼽았으며 이를 추해당(秋海棠)과 춘해당(春海棠)으로 나누었다. 또한 추해당을 춘해당보다 아름답다고 언급했는데 춘해당을 이미 출가한 여인에 비유하여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미인이라 일컫고 추해당은 아직도 출가하지 않은 여인으로 여겨 가냘프고 애잔한 미인에 비유하였다.<sup>229)</sup> 이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친 해당화의 은은한 향까지 찬미했다. 사람들은 흔히 해당화는 ‘유색무향(有色無香)’으로 오인(誤認)했지만 이어는 뒤의 두 가지 예를 통하여 해당화는 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은은한 향이 꽃의 아름다운 색에 가려져 알아차리기 힘들다고 하였다. 첫째, 갓 개화한 해당화 꽃에는 은은한 향기가 배어 나오므로 힘껏 향기를 맡기는 것보다 천천히 음미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했다. 둘째, 만약 해당화가 전혀 없다면 벌이나 나비는 오지 않는다. 아래 정곡(鄭谷; 851-910)의 『해당(海棠)』라는 시에서 이 증거를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아침에 취하고 저녁에 시를 읊으며 보아도 부족하여, 나비가 무성한 가지에서 잡자는 것을 부러워하네.<sup>230)</sup>

또한 해당화와 관련된 설화에 따르면 여인이 오지 않는 낭군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려내리자 그 자리에 마침내 해당화가 자라났다고 전한다. 따라서 이

228) 도시(桃腮)는 복사꽃 같은 볼의 뜻이고 도엽(桃靨)은 복사꽃 같은 볼의 뜻으로 모두 천연적으로 접붙이지 않은 복사꽃을 가리킨다(<https://dict.naver.com/>).

229) 春花肖美人之已嫁者, 秋花肖美人之待年者, 春花肖美人之綽約可愛者, 秋花肖美人之纖弱可憐者(선금형, 1988, p.267.).

230) 朝醉暮吟看不足, 羨他蝴蝶宿深枝(김 의 정, 2018, p.359.).

꽃은 ‘단장화(斷腸花)’라고 부르기도 한다.<sup>231)</sup>

그 이외에 이어는 동백꽃을 미인의 볼로, 자스민 꽃을 아내로,<sup>232)</sup> 다화장미를 양가자매(楊家姊妹)<sup>233)</sup>로 비유하였다. 또한 수선화를 아담하면서 자태가 다양한 여인<sup>234)</sup>으로, 개양귀비를 하늘거리며 춤을 추는 여인<sup>235)</sup>으로 비유하면서 꽃에 대한 사랑스러운 감정을 다양한 꽃에 투영하였다.

#### 4.3.4.3.3. 군자와 소인(小人)

주돈이(周敦頤; 1017-1073)가 연꽃을 꽃 중의 군자로 비유한 것처럼 이어도 연꽃을 꽃 중의 군자라고 여겼으며 이에 더해 특이하게 황양목을 군자라고 칭했다. 그 까닭은 황양목은 겨울에 나뭇가지를 바꾸지 않고, 여름에는 잎을 바꾸지 않는 지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황양목은 매년 일 촌(寸)<sup>236)</sup>의 길이가 자라고 윤년(閏年)에는 오히려 일 촌의 길이가 줄어드는데 이는 불공평한 ‘불인불의(不仁不義)’ 상황에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나무보다 더 잎을 풍성하게 하며 성장한다고 이해되었다. 이에 이어는 황양목에게 ‘지명수(知命樹)’이라는 명칭을 붙였다.<sup>237)</sup>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이어는 서향을 꽃 중의 소인이라고 하며 『화보(花譜)』에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서향의 또 다른 명칭은 ‘사향(麝囊)’이라 불리며 다른 꽃에 피해를 일으켜 단독으로 재배해야 한다고 했다.<sup>238)</sup>

문진형의 『장물지』에서 서향에 대해 지독한 향기가 주변의 꽃을 해치기 때

231) 相傳秋海棠初無是花，因女子懷人不至，涕泣灑地，遂生此花，可為‘斷腸花’。噫，同一淚也，灑之林中，即成斑竹，灑之地上，即生海棠，淚之為物神矣哉(선금형, 1988, p.267.).

232) 매화를 아내로 한 사람은 임포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자스민 꽃을 아내로 한 사람은 천하에 두루 존재한다[妻梅者，止一林逋，妻茉莉者，當遍天下而是也](선금형, 1988, p.276.).

233) 양가자매(楊家姊妹)는 북송 시기의 저명한 군사 가문인 양씨 집안의 여러 자매다(김의정, 2018, p.384.).

234) 如水仙之淡而多姿，不動不搖，而能作態者，吾實未之見也(선금형, 1988, p.286.).

235) 虞美人花葉並嬌，且動而善舞，故又名‘舞草’(선금형, 1988, p.297.).

236) 일 촌(寸)은 짧은 단위를 가리키고 약 3.33cm이다(<https://dict.naver.com/>).

237) 黃楊每歲長一寸，不溢分毫，至閏年反縮一寸，是天限之木也，植此直生憐憫之心，予新授一名曰‘知命樹’(선금형, 1988, p.305.).

238) 茂叔以蓮為花之君子，予為增一敵國，曰：瑞香乃花之小人，何也？『譜』載此花‘一名麝囊，能損花，宜另植’(선금형, 1988, p.275.).

문에 세인(世人)들은 ‘화적[花賊: 꽃 가운데 도적]’<sup>239)</sup>이라 불렀고 단독으로 재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이명으로 사낭(麝囊)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문진형도 이에 공감했던 것 같다. 서향의 이름의 유래에 대해 여산(廬山)의 한 승려가 낮에 자다가 꿈에서 꽃향기를 맡으며 깨어나 이런 꽃을 찾았다고 해서 ‘수향(睡香)’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했다. 주위 사람들이 듣고 기이하게 여겨 ‘꽃 가운데의 길조(吉兆)’라고 했으므로 ‘서향(瑞香)’이라고 불렀다.

이로부터 서향은 겨울과 봄의 교차시기에 개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절에는 많은 꽃들은 낙화하기 전이고 같은 시기에 개화하는 꽃들로는 매화와 수선화뿐이다. 다행히 매화와 수선화의 꽃들이 지는 무렵에 서향이 개화하게 되어 그 피해가 크지 않은 것이다. 서향을 비하하는 문인들이 있는가 하면 이와 달리 당송(唐宋)의 성현들은 서향을 사랑하고, 풍류를 즐겼으며 시를 써서 서향의 아름다움을 찬미하였다. 이른 봄철에 서향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이어는 당송의 성현들이 서향 꽃의 고운 모습만 볼 뿐 다른 꽃에 피해를 주는 일면을 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하여 서향이라는 한 종류의 꽃에 대해서도 선비들이 서로 다른 관점으로 꽃을 감상하였다는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 4.3.4.3.4. 은사(隱士), 신선, 그리고 선우(禪友)

문진형은 자두나무가 여도사(女道士)와 같아서 안개와 노을이 자욱한 샘과 바위 사이에 두어야 적당하다고 했고 많이 심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리고 복사꽃은 미인과 같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예로부터 귀신을 몰아낼 수 있는 선목(仙木)으로 여겨졌다. 하여 복사꽃 숲을 이루면 무릉도원(武陵桃源)에 들어가는 것 같다고 했다. 연못가도 재배하기에 적합하다고 했다. 그러나 복숭아나무와 버드나무를 같이 심기에는 저속해져 보이고 정원이나 화분에 심기에는도

239) 瑞香, 別名 ‘麝囊’, 能損群花, 稱為花賊, 信不虛也(김의정 외, 2017, pp.119-121.).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다음으로 수선화에 대해 육조(六朝) 시대의 사람들은 ‘아산(雅蒜, 우아한 마늘)’ 이라고 불렀는데 문진형은 수선(水仙)이란 명칭이 가장 우아하다고 했다. 수선이란 명칭의 ‘물의 신선’의 뜻으로 풍이(馮夷)<sup>240)</sup>가 여덟 석(石)의 수선화를 먹고 물의 신선의 되었다는 고사가 유래했다.

이 외에 담복(薺蔔)은 ‘월도(越桃)’, ‘임란(林蘭)’ 이라고 부르며 속명은 치자(梔子)라고 했는데 고대에는 ‘선우(禪友)’로 여기고 보통 절에 심는 것이 적당하다. 따라서 서재에는 심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는 문진형과 달리 감탕나무를 은사로, 능소화를 신선으로 비유했다. 감탕나무는 소나무와 잣나무의 푸른 실체와 내한성이 있어 은사에 비유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까닭은 매화와 대나무처럼 풍채가 있음에도 절개를 과시하지 않기 때문이다.<sup>241)</sup> 이 외에 이어는 능소화를 덩굴 식물 중 가장 존경할 만한 꽃이라 하며 곁에 자주 둘 수 없음을 한스럽다는 표현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는 담벼락 위에 피어나는 능소화는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어 ‘천제진인[天際真人: 하늘 끝의 신선]’<sup>242)</sup>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240) 고대 수선(水神)의 이름으로 하백(河伯)이다(김의정 외, 2017, p.179.).

241) 冬青一樹, 有松柏之實而不居其名; 有梅竹之風而不矜其節, 殆‘身隱焉文’之流亞歟? 然談傲霜礪雪之姿者, 從未聞一人齒及. 是之推不言祿, 而祿亦不及. 予竊忿之, 當易其名為‘不求人知樹’(선금형, 1988, p.307.).

242) 藤花之可敬者, 莫若凌霄. 然望之如天際真人, 卒急不能招致, 是可敬亦可恨也(선금형, 1988, p.2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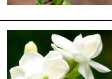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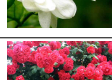







표 4-23. 『장물지』에 나타난 식물의 상징성

분류	식물 명칭	식물 학명	이미지	해석 내용
화왕(花王) 과 화상(花相)	모란	<i>Paeonia suffruticosa</i>		화왕이라고 불리는데, 꽃 중 귀족으로 여김.
	작약	<i>Paeonia lactiflora</i>		화상이라 불리는데, 꽃 중 귀족으로 여김.
자태가 아름다운 미인	해당화	<i>Malus spectabilis</i> (Ait.) Borkh		양귀비의 취한 모습과 같음
	동백꽃	<i>Camellia japonica</i>		취 양비(醉楊妃)와 같음.
	복사꽃	<i>Prunus persica</i>		아름다운 미인과 같음.
	살구나무 꽃	<i>Prunus armeniaca</i> , L.		
	자두나무 꽃	<i>Prunus salicina</i>		
	버드나무	<i>Salix pierotii</i>		서호류(西湖柳)라는 버드나무의 가지가 부드럽고 여성적인 운치가 깃들어 있음.
‘꽃 가운데 도적[花賊] , 과 선우(禪友)	서향	<i>Daphne odora</i>		다른 꽃을 손상시키는 꽃 중의 도적, 그리고 꽃 가운데의 길조(吉兆).
	치자꽃	<i>Gardenia jasminoides</i>		선우(禪友)로 여기고 보통 절에 심는 것이 적당하다.
은사(隱士) 와 신선	자두나무	<i>Prunus salicina</i>		여도사(女道士)와 같아서 안개와 노을이 자욱한 샘과 바위 사이에 두어야 적당함.
	복숭아나 무	<i>Prunus persica</i>		미인과 같음. 귀신을 몰아낼 수 있는 선목(仙木)으로 보임.
	수선화	<i>Narcissus tazetta</i>		‘물의 신선’의 뜻으로 풍이(馮夷)가 8석의 수선화를 먹고 물의 신선의 된다는 전설.

참고자료: 위의 내용은 김의정 외(2017), 장가기(2010)의 저서를 참고하여 재정리되었음.

사진출처: <https://www.google.com/>

표 4-24. 『한정우기』에 나타난 식물의 상징성

분류	식물 명칭	식물 학명	이미지	해석 내용
화왕(花王)과 화상(花相)	모란 <sup>243)</sup>	<i>Paeonia suffruticosa</i>		꽃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강직하고 정직한 본성
	작약	<i>Paeonia lactiflora</i>		다섯 등급의 제후(諸侯) 대열
미인 얼굴과佳人(佳人)	복사꽃	<i>Prunus persica</i>		도새(桃腮)와 도염(桃靨)
	동백꽃 <sup>244)</sup>	<i>Camellia japonica</i>		미인의 볼.
	해당화	<i>Malus spectabilis (Ait.) Borkh</i>		아름다운 여인, 유색유향(有色有香), 단장화(斷腸花)
	재스민 꽃	<i>Jasminum sambac</i>		아내에 비유함.
	다화장미	<i>Rosa multiflora var. platyphylla</i>		양가자매(楊家姊妹)에 비유함.
	수선화	<i>Narcissus tazetta</i>		아담하면서 자태가 다양한 여인과 같음.
	개양귀비	<i>Papaver rhoeas</i>		하늘거리며 춤을 추는 여인과 같음.
군자와 소인(小人)	연꽃 <sup>245)</sup>	<i>Nelumbo nucifera</i>		연꽃은 꽃 중의 군자라면 황양목은 나무 중의 군자
	황양목 <sup>246)</sup>	<i>Buxus sinica Rehd et Wils. Cheng</i>		
	서향	<i>Daphne odora</i>		다른 꽃에 피해를 주는 ‘꽃 중의 소인’
은사(隱士)와 신선	감탕나무	<i>Ilex integra</i>		풍채가 있음에도 절개를 과시하지 않음
	능소화	<i>Campsis grandiflora</i>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어 하늘 끝의 신선

참고자료: 위의 내용은 선금형(1988), 장가기(2010)의 저서를 참고하여 재정리되었음.

사진출처: <https://www.google.com/>

243) 牡丹得王於群花, 予初不服是論, 謂其色其香, 去芍藥有幾? 及睹『事物紀原』, 謂武後冬月遊後苑, 花俱開而牡丹獨遲, 遂貶洛陽, 因大悟曰: “強項若此, 得貶固宜.” (선금형, 1988, p.260.).

244) 由淺紅以至深紅, 無一不備. 其淺也, 如粉如脂, 如美人之腮, 如酒客之面; 其深也, 如朱如火, 如猩猩之血, 如鶴頂之珠(선금형, 1988, p.269.).



#### 4.3.5. 소결

본 절은 전체 공간구성 차원과 원림요소 차원에서 두 조원가의 조원이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재정리하였다. 전체 공간구성 차원에서는 ‘입지 및 공간배치’, ‘전체 구조 및 공간 척도의 중요성’, ‘공간 원림요소의 조합’ 과 ‘공간 분할’로, 원림요소 차원에서는 ‘건축물’, ‘수 요소’, ‘석물(石物)’ 과 ‘식물’로 나누어 두 조원가의 조원이론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첫째, ‘입지 및 공간배치’에 대하여 두 조원가는 공통적으로 땅 읽기 과정에서 원림의 터는 방향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고 지세(地勢)는 원래의 높낮이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두 조원가가 모두 ‘인지제의(因地制宜)’라는 조원이론을 중요시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두 조원가의 차이점은 땅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어가 문진형과 달리 ‘인지제의’에 대해 조원실천을 이론적인 차원으로 승화시켰다는 점이다. 이어는 ‘인지제의’에 대해 세 가지 측면으로 요약했다. 첫째, 지세가 높은 곳에 집(屋)을 짓고, 지세가 낮은 곳에 누(樓)를 짓는다. 둘째, 지세가 낮은 곳에 돌을 겹쳐 쌓아 가산을 만들고, 지세가 높은 곳에는 물길을 만든다. 셋째, 우뚝 솟은 곳을 성토하여 더 높게 만들고, 저지대는 더 낮은 지형으로 만든다. 이러한 세 가지 방법은 고정된 법칙이라기보다 주어진 지형에 따라 유연한 방법으로 전저후고(前低後高)의 물리적인 형태를 창출하는 수단으로서 제시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어가 토지에 대해 숙지했음을 알 수 있었고, 또한, 그의 풍부한 조원실천 경험과 조원이론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문진형은 ‘조원의 전체 구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이어는 원림 전체의 구조를 구상하는 과정에서 ‘의재필선(意在筆先)’과 ‘구학전흉(丘壑填胸)’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원림을 만들기 전에 원림 전체에 대해 구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간 척도’에 대한 두 조원가의 공통점은 공간과 사람의 척도로서 이인위본(以人爲本)으로 한 ‘의(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 조원가의 차이점은 문진형은

245) 蓮為花之君子, 此樹當為木之君子(선금형, 1988, p.306.).

246) 黃楊為木之君子, 非稍能格物之笠翁, 孰知之哉(선금형, 1988, p.306.).

이어보다 공간 척도에서의 활용이 과감했다는 점에 있다.

셋째, ‘공간 원림요소의 조합’에 대하여 두 조원가는 공통적으로 회화기법인 ‘개입화도(皆入畵圖)’를 중요시하였다. 그러나 두 조원가의 차이점은 문진형보다 이어가 더욱 상세하게 꽃, 나무, 돌, 기물, 곤충, 사람 등 아름다운 원림요소들을 조화롭게 이루는 것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넷째, ‘공간 분할’에 대하여 두 조원가는 모두 차경을 활용하여 공간과 공간 사이에 ‘격이부단(隔而不斷)’을 강조했다. 다시 말하자면 두 조원가는 조원 과정에 차경(借景)을 연출하기 위해 원림에 있는 부속 시설물인 창틀뿐만 아니라 낭도, 다리, 담당을 포함하여 공간의 확장성을 실현하였다. 특히, 창틀은 내외 공간을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인 내부 공간에서 원림 외부 공간으로 연장할 수 있는 매개체로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은 원림 조영 과정에서 대상지 자체는 물론 주변부 전체를 살펴보는 등 경물의 배치를 중요시했다. 반면 두 조원가의 차이점도 존재한다. 문진형은 ‘차경’에 대해 비교적 담론만 했을 뿐 내용이나 방법에 대한 기록이 상대적으로 단일하고 가까운 파초와 먼 산을 빌릴 수 있다고까지만 언급했다. 그러나 이어는 문진형보다 ‘차경’에 대해 더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어는 차경의 경물에 대해 모든 아름다운 경물을 다 취할 수 있다고 했고, 경물을 빌린 방식에 대해 한 폭의 그림과 같은 회화 기법을 활용하여 경물을 감상했다.

다음으로 원림요소 차원에서 ‘건축물’, ‘수 요소’, ‘석물(石物)’, ‘식물’로 나누어 두 조원가의 조원이론에 대해 정리하였다. 첫째, ‘건축물’에 대하여 문진형은 금실(琴室), 다실(茶室), 산재(山齋), 장실(丈室), 불당(佛堂) 등을 통해 일종의 조용하고 은밀한 분위기를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모두 은자가 선호하는 장소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건축물의 명칭을 통해 내면적으로 그의 삶의 방식을 추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실에서 거문고를 타거나 다실(茶室)에서 음차를 하는 데서 그의 차분한 성정(性情)이 드러났다. 그가 지나치게 조용한 분위기를 만든 것을 통해 그의 고독감, 슬픔, 괴로움 등을 표

현하고자 했던 것임이 은은하게 읽혔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가 일종의 ‘자아의 대화’를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문진형과 달리 이어의 내산각(來山閣), 부백헌(浮白軒), 서운곡(棲雲谷), 월사(月榭), 가대(歌臺)는 그의 향유 대상을 더욱 직관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가대(歌臺)에서 연극하거나 가대 아래에서 관희(觀戲)를 하는 데서 그가 떠들썩한 공간 분위기를 선호하는 성격임이 드러났다. 문진형과 달리 그는 일종의 ‘타인과의 소통과 대화’를 직접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월사에서 상월(賞月)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는 은자들이 추구하는 내면적인 ‘정(靜)’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문진형보다 이어는 훨씬 복잡하고 다면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었음을 할 수 있다.

둘째, ‘수 요소’에 대하여 두 조원가들은 연못을 중심으로 한 이수 형태에서 산과 물의 배합을 중시하는 관점을 보여주었다. 또 최대한 자연요소를 활용하여 인위적인 가공을 줄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유사하게 폭포와 같은 낙수 형태에서도 두 조원가들은 낙수경관을 만들기 위해 자연 빗물을 낙수의 요소로 끌어들이는 것을 고려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것은 연못을 중심으로 한 이수 형태에서 최대한 자연산수를 활용하려 한 관점과도 같다. 그 뿐만 아니라 두 조원가가 모두 시각과 청각 두 가지 측면에서 뛰어난 낙수 형태의 의경(意境)을 조영한다는 공통점이 나타난다. 그러나 차이점은 문진형이 이어보다 원림에서 체득되는 미적 감각 곧 심미(審美)적 정서에 좀 더 치중했을 뿐만 아니라 수 공간 척도에서의 활용도 더욱 과감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이어가 개인적 재력 측면에서 문인사대부 계층의 삶을 추구하는 데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는 그의 안계(眼界)가 문인 사대부 계층의 수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추측으로 원림을 만드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셋째, ‘석물(石物)’에 대한 두 조원가의 공통점은 작은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 장면마다 ‘한 폭의 그림과 같다’고 하는 회화기법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문진형이 석재의 선택에 있어서 석재의 심미적이고 탐미적인 것에

대해 엄격히 선별할 뿐만 아니라 각 석재의 배치 위치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견해를 제시했던 반면, 이어는 석재의 미적 측면보다는 석재 종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이 선석 과정에서 ‘취지취재(就地取材)’라는 점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첩산의 기법에 있어서 혁신성을 더욱 중시하여 ‘이토대석(以土代石)’이라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문인 사대부 계층인 문진형은 문인 사대부로서 가져야 할 품위와 수양을 갖추고 있어 석재 선택에 보다 까다로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어는 문인 시정(市井) 계층으로서 재력 등에서는 문진형에 미치지 못하고 생활품위에 대해서는 문인사대부 계층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이어는 기술의 향상을 통해 그의 독특한 품위를 형성했다. 그러나 진정한 문인사대부 계층과 항형(抗衡)하기가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식물’에 대하여 두 조원가는 위의 ‘석물(石物)’에 대해서와 유사하게 작은 공간의 구성에 있어서 장면마다 ‘한 폭의 그림과 같다’고 하는 회화기법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차이점은 문진형이 식물 분경 소재 선택에서 식물 품종의 정교성과 희귀성에 보다 애착했다는 점이다. 위의 선석과 마찬가지로 그는 식물의 심미성과 탐미성을 중시하여 식물을 엄선할 뿐만 아니라 각 식물 재배 장소의 엄격성에까지 자신의 견해를 선명히 제시했다. 그러나 이어는 식물이 심어진 장소에서는 식물의 성장특성에 따라 ‘수심(隨心)’, ‘수성(隨性)’을 추구했다. 또한 이어는 식물도 사람과 동물처럼 정감이 있다고 보고 식물과 대화하며 정서적으로 교류했다. 위의 석재에 대해서와 유사하게, 문인 사대부 계층을 대표하는 문진형이 사대부 계층으로서 지켜야 하는 품위에 있어 보다 보수적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일반적인 문인 시정 계층인 이어는 그의 시야가 문진형에게 미치지 못했지만, 식물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식물과의 정신적 교류의 추구를 통해 계급의 속박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

상기 ‘전체 공간구성’과 ‘원림요소’를 통해 두 조원가의 조원이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요약했는데, ‘전체 공간구성’ 차원에서 이들의 신분과 계급의 차이점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원림요소’ 차원에서 특히 건

물이나 수 요소에 따라 두 조원가의 신분과 계급의 차이성이 뚜렷이 드러났다. 다음으로 ‘전체 공간구성’ 차원과 ‘원림요소’ 차원에서 두 저서에 나타나는 그들의 철학사상, 생활태도와 가치지향을 포괄하는 핵심 조원이론을 다음과 같이 재정리하였다.

첫째, 자연을 숭상하는 철학사상이 두 저서의 전반적인 내용에 담겼다. 이 중에 구불구불한 자연요소들인 지형, 나무, 암석, 길, 물, 난간, 낭도에 대해 강조하면서 두 조원가들은 원림을 조영하는 입지 선택에서 산수간(山水間)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했다. 그들은 모두 이수(理水) 형태를 중점으로 산과 물의 배합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또한 최대한 자연요소를 활용하여 최소한 인위적인 가공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려하였다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둘째, 두 조원가는 ‘의(宜)’를 중요시했다. 일상생활부터 조원활동까지 모두 이 조원이론이 반영되었다. 예를 들어 물품활용에 대해 ‘수의용지(隨宜用之)’와 ‘수방제상과 각유소의(隨方制象, 各有所宜)’를 통해 두 조원가가 모두 ‘일용지도(日用之道)’의 원칙을 따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는 개인적 취향, 학식, 경제적 상황, 심미적 범주 등에 따라 실제 조원활동의 활용과 물품의 설계에서 다르게 표현되었다. 또한, 이들은 조원활동에서는 ‘수지소의[隨地所宜: 지세에 따른 적합한 원림 조영 방법]’를 제시했고, 문진형과 유사하게, ‘인지제의[因地制宜: 지세에 따른 원림의 배치방법]’의 조원이론을 잘 활용했다.

셋째, 의경(意境)을 추구했다. 두 조원가는 모두 대나무 숲을 활용하여 유경(幽境)의 공간을 연출하였다. 예를 들어 문진형은 『장물지』에서 대나무를 고결함을 표현하는 군자라고 칭하며 많은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대나무의 재배, 군락의 배치까지 유경의 공간을 연출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그의 대나무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어도 『한정우기』 ‘취경재차’에서는 개자원 부백헌(浮白軒) 주변 경물의 종류를 설명하면서 무성한 숲에 높게 뻗은 대나무를 활용하여 문진형의 관점과 유사한 논지를 설명하였다. 문진형처럼 이어

도 대나무 숲을 조성해 군자의 고결함을 표상했다. 이 외에 이어가 반무원에 있는 소상소영(瀟湘小影)에서도 정자 부근에 커다란 대나무 숲이 있어 이어의 상통한 조원이론이 이어졌던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청각적인 소리 경관 연출에 대해 문진형은 자연적인 솔바람소리로 나타나는 것, 폭포가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개인 취미와 관련된 거문고 소리가 만들어내는 것을 연출했다. 이어도 폭포가 만들어내는 성경(聲境)을 통해 시각·청각적으로 낙수 형태를 즐겼는데, 문진형과 다른 점은 가대(歌臺)를 설치하여 희곡(戲曲) 공연을 위한 성경(聲境)을 연출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문진형의 성경(聲境)은 원림설계의 기타 요소에 가려져 있었지만, 이어는 가대(歌臺)라는 조형물을 만들어 성경(聲境)을 확연하게 드러냈음을 알 수 있다. 문진형의 경우는 유명 가문의 깊은 유교사상의 영향을 받아 사대부들의 은회한 사상을 반영한 것으로, 이어의 경우는 새로운 계층의 적라한 표현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아(雅)’의 추구에 대하여 두 조원가는 공통점으로 설계나 색채의 응용에 있어서는 소박하고 담백하여 화려하지 않다고 했다. 또한, 그들은 ‘유아(幽雅)’의 생활방식을 추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두 조원가의 차이점은 명말 문인 사대부 계층을 대표하는 문진형이 ‘고아(古雅)’를 꾸준히 준수했던 반면, 이어는 문진형보다 한결음으로 나아가 ‘신아(新雅)’의 기준을 내세우고 창의적인 설계 양식도 일종의 ‘아’의 표현 형식이라고 강조했다.

다섯째, ‘신(新)’과 ‘이(異)’의 추구에 대하여 두 조원가는 모두 시대에 따른 혁신성을 제창했다. 그러나 그들은 각자 다른 형식으로 그것을 표현했다. 문진형은 화목 품종과 석재 선택에서 희소성과 신기함을 추구하는 것을 중요시하였다. 반면에 이어는 창이표신(創異標新)의 조원이론을 새롭게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설계 측면에서는 구체적으로 활첨(活檐), 편액(匾額)과 주련(柱聯), 죽병부식법(竹屏扶植法)을 새롭게 제안했다. 이는 청초를 지나 개성의 해방을 추구하고, 새로운 사조의 영향으로 명말의 고정된 사상을 벗어나 개인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개성을 고양하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 5. 결론

본 연구는 명말청초의 시대배경이 반영된 ‘생활백과사전’이라 불리는 문진형의 『장물지』와 이어의 『한정우기』를 중심으로 조원이론에 대해 비교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원이론을 색다르게 분석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두 조원가의 생애사, 가족사, 활동사와 관련된 내용까지 비교하여 연구하였다. 명말청초 시대배경과 각 조원가의 생활환경을 결합하고 전체 공간구성 차원과 원림요소 차원으로 구분하여 그들의 조원이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종합적으로 재정리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조원가는 은일(隱逸)의 삶을 추구했다. 문진형의 향초타(香草垞)와 이어의 개자원(芥子園)을 중심으로 한 조원 사례를 통해 원림을 만드는 기본목표와 지향가치의 공통점은 일종의 은일(隱逸)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문인 사대부 계층으로서의 문진형의 향초타는 그의 사적인 생활공간을 활용한 것이었고, 이어의 개자원은 그의 생활공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인쇄, 출판, 회극 등의 수입창출의 장소였다. 그러나 두 조원가 간의 차이점도 존재한다. 이어는 정신적 차원에서도 은일한 삶을 추구하고 싶어 하였지만, 그것은 사대부 계층을 모방한 형식화된 일종의 은일생활처럼 보인다. 이는 이어가 현실의 경제 형편이 곤란하여 마음에 여유를 품고 차분하고 은일한 삶을 추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둘째, 두 조원가는 자연을 숭상했다. 자연을 숭상하는 철학적 사상이 두 저서에 전반적인 흐름으로 담겨 있었다. 두 저서에 언급된 자연 굴곡의 원림요소에는 구불구불한 지형, 나무, 암석, 길, 물, 난간, 낭도 등이 포함되었다. 두 조원가는 자연을 숭상하는 철학사상에서는 선명한 차이가 없었다. 당시 사회배경을 종합해 보면 명말 사회 동란으로 인해 ‘정치적 추구’에서 ‘문화적 창조’로의 전환을 추구한 각 계층의 문인들이 산수 유람에 더욱 매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은 경력의 증가와 인맥의 축적은 물론 그

들의 문화 창조에 좋은 소재를 얻을 수 있었다.

셋째, 두 조원가는 산번거사(刪繁去奢)의 생활태도를 가졌다. 그들은 모두 번잡하고 사치한 것을 제거하고 간결하고 검소한 것을 제창하는 생활태도를 강조했다. 특히, 토목 건설 과정에 사치와 낭비를 가장 꺼린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일반 시정인(市井人)뿐만 아니라 사대부 계층도 검소함을 숭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두 조원가의 산번거사(刪繁去奢)에 대한 생활태도에도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 그 이유를 추측해 보면 명말 사회 동란으로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적자였고, 전체 국민의 생활소비도 그리 좋지 않아 이러한 식으로 경제 상황을 견딜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넷째, 두 조원가는 ‘개입화도[皆入畫圖: 장면마다 한 폭의 그림과 같다]’라는 조원이론을 강조하였다. 예컨대, 석물(石物)과 관련한 철산(掇山)과 석물의 완상방식, 식물의 향유방식, 원림요소의 조합 등 모두 화론(畫論)에 따른 것을 알 수 있다. 화론과 조원이론의 상동(相同)적 전개 및 화(畫)·원(園)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가치는 원림에 있는 요소들의 서로 조화로운 배합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두 조원가는 이소견대(以小見大), 군자비덕(君子比德), 아(雅)의 추구, 혁신성의 추구의 조원이론을 제시했다. 이 중에 아(雅)의 추구하고 혁신성의 추구는 두 조원가의 시대 배경에서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문진형의 ‘아(雅)’에 대한 기준은 곧 명나라 중후기에 사대부 계층이 지켜야 하는 ‘고아(古雅)’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이어의 ‘아(雅)’에 대한 기준은 문진형과 유사한 관점도 있었지만, 문진형의 큰 차이점은 ‘신아(新雅)’의 기준을 내세우고 여러 창의적인 설계 양식을 통해 독특하고 새로운 ‘아(雅)’의 표현 형식을 재조명하였다는 점에서 문진형과 크게 차이가 난다. 즉 이어는 문진형보다 그 당시의 사회 대중의 수요에 더 민감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어는 『한정우기』에서 원림을 조영하는 데는 창이표신(創異標新)의 조원이론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조원실천에서 조원이론으로의 승화는 조원가의



실천경험의 총결이며, 당시 사회문화적 사조에 대한 더 구체적인 조원가의 일종의 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어는 문진형보다 당시 사회 문화 사조의 개성적인 해방을 더 추구하였고, 이러한 사회 신사조(新思潮)의 영향으로 조원가들의 조원 이론은 사상적 금고(禁錮)를 벗어나 진아(真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개성을 고양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두 조원가들은 모두 ‘정치적 추구’에서 ‘문화적 창조’로의 전환을 보여주었지만, 생활환경 등의 영향으로 그 ‘문화적 창조’의 표현 형식은 달랐다. 문진형은 지나친 ‘조용함과 은일’의 공간 분위기를 통해 그의 슬픔, 외로움, 고독감, 좌절감 등을 표현했다. 그의 내면에는 문 씨 가문의 가풍, 또는 문인사대부 계층이 지켜야 할 인격 수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변혁된 사회와의 융합이 쉽지 않았다. 결국 그는 이러한 좌절감에 찬 자기 속박의 세계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 한편 문진형과 달리 이어는 ‘문화적 창조’에 보다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사회와 가정에 대한 속박력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노력으로 소설, 희곡, 조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주변과 사회적 인정을 받았다. 그것은 현실과 삶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고, 더 정확히 말하면 자아에 대한 일종의 돌파라고 할 수 있다. 두 조원가들은 서로 다른 생활배경의 영향을 받아 그들의 조원 이론에 각각 특색이 있어, 둘이 모두 명말청초 원림문화의 다원화에 한 몫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한계는 다음과 같다. 중국 원림 역사에서 명말청초는 명 왕조와 청 왕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명 왕조의 정통 계보를 이어 청 왕조와 더불어 하나의 연속체를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 이어서 청 왕조는 빠르게 전란 후 황폐해진 경관회복과 민심을 달랜 것은 청 왕조 중후기에 국가가 안정되어 가고 있었고, 대일통화와 원림양상이 성숙해지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특히, 이 교체 시기에는 원림의 통속화(通俗化) 현상이 가속화 되고 대중적인 문화지식에 의한 원림의 조영 또는 재건이 광

범위하게 전개된 시기이었다. 이 시기 대중문화를 선도했던 문인사대부 계층부터 일반 시정(市井) 계층까지 각 계층의 대표적인 문인들은 원림 저작을 통해 당대 원림건설의 이론적 틀을 정립하는 동시에, ‘시대적 발상’이 투영된 ‘문인원림’의 풍격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원림과 실내 장식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체득한 이상적 공간뿐만 아니라 상세한 부분까지 풀어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두 저서를 중심으로 그들의 ‘조원이론’을 탐색하고, 이를 명말청초의 원림문화를 해석하는 데 작은 참조점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로 출발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점은 방대한 텍스트를 두 가지 차원에 따른 ‘이론유형’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조원가들의 조원이론을 모두 변별해 내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분명한 한계일 것이다. 이는 광범위한 현지조사 및 추가적인 문헌연구가 필요한 부분으로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밝혀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또 다른 한계점은 문진형의 『장물지』와 이어의 『한정우기』에 대해서는 비교연구에 집중하여 상세하게 해석했지만, 두 조원가의 다른 문학작품이나 다른 조원가들의 조원이론에 대한 해석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다. 추후 명말청초의 다른 조원가들의 조원이론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다원적인 명말청초의 원림문화를 해석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동양문헌

#### ■ 고문헌

- [1] [明] 文震亨. 長物志. 粵雅堂叢書本. 中國基本古籍庫.
- [2] [明] 文震亨. 文生小草. 明崇禎刻本. 中國基本古籍庫.
- [3] [清] 文含. 文氏族譜續集: 歷世第宅坊表志[M]. 曲石叢書.
- [4] [清] 李斗. 揚州畫舫錄. 中國基本古籍庫.
- [5] [清] 李漁. 閑情偶寄. 康熙刻本. 中國基本古籍庫.
- [6] [清] 麟慶(1886). 鴻雪因緣圖記(三集): 李漁半畝園. 上海: 同文書局.
- [7] [明] 楊爾曾(1610). (新鐫)海內奇觀. 武林楊衙夷白堂.
- [8] [明] 王煥如 纂; 牛若麟 修(1990). 崇禎吳縣志(3), 天一閣藏明代方志選刊續編. 上海書店刻本影印.
- [9] 馮桂芬 纂; 李銘皖, 譚鈞培 修(1991). 同治蘇州府志(2), 江蘇府縣誌輯, 中國地方志集成. 江蘇古籍出版社.

#### ■ 서적(단행본)

- [1] 강판권(2004). 청대 강남의 농업경제. 해안.
- [2] 高承 撰; 金萬源 標點・校勘・譯註(2015). 事物紀原 譯註. 上・下. 역락.
- [3] 金學智(2005). 中國園林美學. 中國建築工業出版社.
- [4] 김성우와 안대회(1993). 원야. 예경.
- [5] 김농오 외(2009). 동양조경문화사(東洋造景文化史). (사)한국전통조경학회.
- [6] 김진영(2005). 중국 강남 문화의 지역 특성: 문화 구역 구분을 통한 중국 문화사 보기. 부산: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7] 김의정과 정유선(2017). 장물지. 학고방(學古房).
- [8] 김의정 윽김(2018). 쾌락의 정원. 글항아리.
- [9] 김덕균(2007). 명말 청초 사회사상. 한국학술정보.
- [10] 권석환 저(2015). 中國雅集: 일상과 일탈의 경계적 유희. 서울: 박문사.
- [11] 童寯(2014). 江南園林志. 中國工業出版社.
- [12] 童寯(2016). 論園. 北京出版社.
- [13] 杜書瀛(2007). 閑情偶寄. 中華書局.
- [14] 杜書瀛(2014). 李漁傳. 作家出版社.

- [15] 戴逸(2006). 簡明清史.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 [16] 臺灣中央圖書館 編(1987). 明人傳記資料索引(上). 北京: 中華書局.
- [17] 孟白, 劉托, 周奕揚(2008). 中國古典風景園林圖匯. 學苑出版社.
- [18] 孟兆禎(2012). 園衍. 中國建築工業出版社.
- [19] 박희성(2011). 원림, 경계 없는 자연.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20] 박은영(2017). 풍경으로 본 동아시아 정원의 미. 서해문집.
- [21] 复旦大学文史研究院(2010). 都市繁华: 一千五百年来的东亚城市生活史. 中华书局.
- [22] 백기수(1996). 藝術의 思索. 서울대학교 출판부.
- [23] 謝國楨(1932). 晚明史籍考. 北平: 北平圖書館.
- [24] 徐連達(1991). 中國歷代官制詞典. 安徽教育出版社.
- [25] 成復旺(1995). 中國美學範疇辭典. 中國人民大學出版社.
- [26] 성종상(2010). 고산 윤선도 원림을 읽다: 전통정원에 담긴 생태미학과 지향세계. 나무도시.
- [27] 蘇州園林博物館(2014). 『拙政園三十一景冊』. 中華書局.
- [28] 孙筱祥(2011). 园林艺术及园林设计. 中国建筑工业出版社.
- [29] [日] 荒井健 訳注(2000). 長物志: 明代文人の生活と意見.
- [30] 楊永生(2005). 哲匠錄. 中國建築工業出版社.
- [31] 梁白泉(1998). 吳越文化: 中國的靈秀與江南水鄉. 上海遠東出版社.
- [32] 양넌원(2015). 강남은 어디인가: 청나라 황제의 강남 지식인 길들이기. 글항아리.
- [33] 呂明偉(2014). 中國古代造園家. 中國建築工業出版社.
- [34] [日] 岡大路 著; 常瀛生 譯(1988). 中國宮苑園林史考. 農業出版社.
- [35] 오금성 외(2007). 명청시대 사회경제사. 이산.
- [36] 李允錫(2005). 華夏意匠: 中國古典建築設計原理分析. 天津大學出版社.
- [37] 李正(2010). 造園意匠. 中國建築工業出版社.
- [38] 李孝悌 編(2013). 中國的城市生活.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 [39] 李霞, 王剛 譯(2015). 長物志. 江蘇文藝出版社.
- [40] 李秀玉 著(2017). 古雅空間: 文徵明〈拙政園三十一景圖〉研究. 人民出版社.
- [41] [清] 李漁 著, 單錦珩 匯編(1988). 李漁全集·第三卷·閑情偶寄. 浙江古籍出版社.
- [42] [清] 李漁 著, 單錦珩 匯編(1988). 李漁全集·第十九卷·李漁年譜與李漁交遊考. 浙江古籍出版社.
- [43] [清] 李漁 著, 王永寬, 王梅格 註釋(2013). 閑情偶寄. 中州古籍出版社.
- [44] [清] 李斗 著, 潘愛平(2014). 揚州畫舫錄. 中國畫報出版社.
- [45] 이형렬과 심우영(2009). 명청대 정원문화 누가 만들었을까. 이담복스.
- [46] 利瑪竇, 金尼閣 著, 何高濟, 王遵仲, 李申 譯, 何兆武 校(1983). 利瑪竇中國啓記. 北京: 中華書局.
- [47] 林語堂(1994). 吾國吾民. 學林出版社.
- [48] 巫仁恕(2008). 品味奢華: 晚明的消費社會與士大夫. 中華書局.

- [49] 우런수 지음; 김의정 외 옮김(2019). 사치의 제국: 명말 사대부의 사치와 유행의 문화사. 파주: 글항아리.
- [50] 俞為民(2004). 李漁評傳. 南京大學出版社.
- [51] 劉艷春 譯(2015). 園冶. 江蘇鳳凰文藝出版社.
- [52] 汪菊淵(2006). 中國古典園林史. 中國建築出版社.
- [53] 왕의 저, 김대원 역(2014). 원림과 중국문화 1·2·3·4. 학고방.
- [54] 王家範(2018). 百年顛沛與千年往復. 上海人民出版社.
- [55] 張荷(1995). 吳越文化. 遼寧教育出版社.
- [56] 張薇(2006). 園冶文化論. 人民出版社.
- [57] 張家驥(1991). 中國造園論. 太原: 山西人民出版社.
- [58] 張家驥(2010). 中國園林藝術小百科. 中國建築工業出版社.
- [59] 張長虹(2010). 品鑒與經營: 明末清初徽商藝術贊助研究. 北京大學出版社.
- [60] 章啟群(2005). 百年中國美學史略. 北京大學出版社.
- [61] 錢海嶽(2006). 南明史·第一冊. 北京: 中華書局.
- [62] 趙農 註釋(2003). 園冶圖說. 山東畫報出版社.
- [63] 曹林娣(2009). 中國園林藝術概論. 中國建築工業出版社.
- [64] 周維權(1999). 中國古典園林史. 北京: 清華大學出版社.
- [65] 中国社会科学院(1996). 中國歷史地圖集. 北京: 中国地图出版社.
- [66] 陳植 校註(1984). 長物志校註. 南京: 江蘇科學技術出版社.
- [67] 陳從周(2002). 說園. 上海: 同濟大學出版社.
- [68] 彭一剛(1986). 中國古典園林分析. 中國建築工業出版社.
- [69] 허탁운 지음, 이인호 옮김(2013). 중국 문화사: 인류의 탄생-1949 하. 서울: 천지인.
- [70] 胡喬木 等 匯編(1986). 中國大百科全書.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 [71] 海軍, 田君 註釋(2004). 長物志圖說. 山東畫報出版社.
- [72] 黃果泉(2004). 雅俗之間: 李漁的文化人格與文學思想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73] 黃永年(2007). 唐朝盛衰三百年: 唐史十二講. 中華書局.
- [74] 황기원(2011). 경관의 해석: 그 아름다움의 얹.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 논문(학위)

- [1] 高雅(2018). 『園冶』掇山置石理論在蘇州古典園林的應用研究. 東北林業大學碩士學位論文.
- [2] 喬鑫(2017). 步移景異: 江南園林之“遊”與中國山水畫之“觀”比較研究. 中國美術學院碩士學位論文.
- [3] 段建強(2006). 『園冶』與『一家言』居室器玩部造園意象比較研究. 鄭州大學碩士學位論文.
- [4] 毛艷秋(2019). 明代蘇州文氏家族筆記研究. 黑龍江大學碩士學位論文.
- [5] 文翹楚(2015). 李漁的造園思想研究: 以南京芥子園規畫設計項目為例. 東南大學碩士學位論文.

- [6] 박진경(2019). 朝鮮後期文藝思潮의 雅俗兼備의審美意識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7] 龐瑞東(2007). 李漁『閑情偶寄』之曲論研究. 內蒙古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 [8] 謝華(2010). 『長物志』造園思想研究. 武漢理工大學博士學位論文.
- [9] 謝雲霞(2015). 晚明江南文人的園林設計美學思想研究. 吉林大學博士學位論文.
- [10] 王劍(2007). 園林與詩書畫的伴生關係. 南京農業大學碩士學位論文.
- [11] 余皓(2015). 明末清初江南琴人研究. 華中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 [12] 吳建(2017). 江南人文景觀視角下的康乾南巡研究. 蘇州大學博士學位論文.
- [13] 李世葵(2009). 『園冶』園林美學研究. 武漢大學博士學位論文.
- [14] 李元(2010). 『長物志』園居營造理論及其文化意義研究. 北京林業大學博士學位論文.
- [15] 임명호(2010). 朝鮮後期 漢文學의 雅俗論 研究.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6] 任蘭紅(2013). 『園冶』與『長物志』造園思想比較研究. 北京建築大學碩士學位論文.
- [17] 劉心恬(2010). 『園冶』園林生態智慧探微. 山東大學碩士學位論文.
- [18] 蔣璐(2013). 『園冶』若幹相地造園手法研究. 浙江大學碩士學位論文.
- [19] 錢水悅(2008). 李漁『閑情偶寄』生活美學思想初探. 浙江大學碩士學位論文.
- [20] 陳禮賢(2013). 論李漁的養生思想. 浙江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 ■ 논문(일반)

- [1] 顧凱(2009). 重新認識江南園林: 早期差異與晚明劇變. 建築歷史與理論. 10: 190-199.
- [2] 顧凱(2010). 中國古典園林史上的方池欣賞: 以明代江南園林為例. 建築師. 145: 44-51.
- [3] 歐陽立瓊, 張勃, 傅凡(2015). 『園冶』, 『長物志』, 『閑情偶寄』論選石的異同. 建築文化. 155-158.
- [4] 김의정(2015). 명말청초 문화 세속화의 흐름 속에서 본 한정우가 거실부를 중심으로. 51: 141-168.
- 이유직(2000). 동양정원의 조원가와 이론서. 9(3): 92-106.
- [5] 郭明友(2013). 明代蘇州園林史[M]. 中國建築工業出版社.
- [6] 段建強, 張樺(2019). 東來西傳: 傳教士參與圓明園修造研究. 風景園林. 3: 31-35.
- [7] 鄧長風(1995). 明末遺民顧茶和他的『塔影園集』. 鐵道師院學報.
- [8] 武靜(2009). 論『園冶』中水景設計理法. 城市建築. 16(317): 105-106.
- [9] 萬娜(2014). 淺談書法在中國古典園林中的運用. 美與時代. 6: 112-113.
- [10] 박희성, 원자연(2016). 『양화소록(養花小錄)』과 『장물지(長物志)』 화목류에 나타난 문인원림 취미 비교. 한국조경학회지. 44(3): 79-93.
- [11] 박홍준(2017). 명청대(明清代) 희곡리론(戲曲理論)의 전개(展開)와 리어(李漁)의 『한정우기(閑情偶寄)』. 중국학보. 79: 141-157.
- [12] 박성훈(2017). 이어(李漁)의 복장론(服裝論) 소고(小考): 『한정우기(閑情偶寄)』·성용부(聲容部)의 치복(治服)을 중심으로. 중국학논총. 57: 197-219.
- [13] 徐敏(2009). 書法藝術與古典園林藝術的關聯. 建築與文化. 90-91.

- [14] 薛野(2008). 關於明代室內軟裝飾蓬勃發展的原因探究. 美術大觀.
- [15] 성종상(2011). 조선 정원에서 건기 고찰: 산수간에 조성된 사대부 원림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9(1): 41-52.
- [16] 성종상(2012). 정원에서 건기 소고 금쇄동, 줄정원 그리고 뽕삼기든 비교 環堯論議 51: 73-95.
- [17] 성종상(2019). 조선 사대부 원림의 땅 읽기(相地) 소고. 문화역사지리. 31(1): 29-42.
- [18] 施春煜(2015). 從『長物志』和『閑情偶寄』看明清園林文化發展動向. 蘇州科技學院學報.
- [19] 신현실(2019). 중국 명·청 양주 염상원림의 설계원리 및 조영특성.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7(3): 83-92.
- [20] 姚冰純(2013). 論『長物志』對營造現代生態‘宜居’環境的啟示. 美術大觀.
- [21] 雲嘉燕(2013). 晚明蘇州文震亨香草垞示意圖平面復原研究. 園林. 12: 09-15.
- [22] 李樹華(2006). 中國盆景文化史摘輯: 中國山石盆景文化史(下). 花木盆景(盆景賞石).
- [23] 李紅, 傅凡, 李春青(2012). 一時三傑 記成, 文震亨, 張南垣時代關係研究. 研究. 99-103.
- [24] 李天慈(2020). 書法在園林設計中的應用美學研究 以徐州園林為例. 長春教育學院學報. 1: 40-44.
- [25] 林源, 馮珊珊(2013). 蘇州藝圃營建考. 中國園林. 5: 115-119.
- [26] 林源(2013). 王石谷『藝圃圖』, 汪琬“藝圃二記”與蘇州藝圃. 建築師. 6: 92-99.
- [27] 任麟江, 張大玉, 丁磊(2018). 『園冶』與『長物志』關於‘掇山理水’章節比較研究. 風景園林文史哲.
- [28] 王美仙(2015). 『園冶』與『長物志』中的植物景觀及其思想表達研究. 建築與文化. 98-101.
- [29] 王麗嫻(2016). 李漁層園考索. 風景園林文史哲. 98-101.
- [30] 장림, 정우진, 성종상(2018). 『한정우기(閑情偶寄)』를 통해 본 이어(李漁)의 조원(造園) 이론.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6(3): 137-148.
- [31] 장림, 양유선, 성종상(2019). 『한정우기(閑情偶寄)』 「종식부(種植部)」를 통해 본 식물의 상징성과 완상(玩賞) 방식.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7(2): 20-39.
- [32] 정우진, 권오만, 심우경(2014). 명대 원림서에 기술된 죽병(竹屏)의 활용과 그 의미.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1(1): 83-92.
- [33] 程廣媛(2017). 清宮禦苑中的“出版社”. 中國編輯. 2: 80-87.
- [34] 曹汎(1980). 略論我國古代園林疊山藝術的發展演變. 建築歷史與理論. 1: 74-85.
- [35] 曹汎(1981). 清代造園疊山藝術家張然和北京的“山子張”. 建築歷史與理論. 2: 116-125.
- [36] 曹汎(2009). 中國園林的造園疊山藝術. 藝術設計研究. 15-18.
- [37] 조영현(2006). 대운하와 휘주상인.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38] 趙國棟(2013). 長物志中茶文化簡述. 中國茶葉.
- [39] 周重林(2009). 文震亨茶無他, 長物而已. 普洱.
- [40] 朱孝嶽(2010). 長物志與明式家具. 家具.
- [41] 秦柯(2017). 造園大師張南垣家世考述. 風景園林歷史. 119-122.
- [42] 齊慎(2012). 『長物志』和『閑情偶寄』園林陳設藝術比較. 中國文物科學研究.
- [43] 천요화 외(2014). 문간형(文震亨)의 『장물지(長物志)』와 서유구(徐有果)의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가

- 조선 후기 사대부 정원에 미친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11: 127-128.
- [44] 최정권과 최정민(2016). 중국 강남 수향진의 수변공간 특성 연구: 절강성 오진과 남심을 사례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4(4): 93-109.
- [45] 하태일 외(2014). 전통조경분야의 정원 명칭 사용에 대한 고찰. 한국전통문화연구. 14: 83-110.
- [46] 한종진(2011). 명말청초(明末清初) 신사층(紳士層) 주거문화의 한 단면: 이어(李漁)의 『한정우기(閑情偶寄)』 거실부(居室部)를 중심으로. 66: 269-294.
- [47] 한소영, 조경진(2011).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를 통해 본 조선 후기 의원(意園, 상상의 정원)의 조경학적 함의. 한국조경학회. 119-123.
- [48] 扈耕田(2011). 晚明揚州影園與黃牡丹詩會考論. 揚州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15(3): 106-111.
- [49] 華海鏡, 金荷仙(1998). 書法在中國古典園林中的審美價值. 浙江林學院學報. 3: 3-5.
- [50] 황기원 외(1993). 『園治・興造論』연구(1): 主者論을 중심으로. 환경논총. 31: 112-140.
- [51] 황기원(1994). 『園治・興造論』研究(2). 환경논총. 32: 40-89.
- [52] 黃彥震, 尚振華(2009). 清宮蒙養齋考. 蘭臺世界. 24: 64-65.

## 서양문헌

- [1] [英] 柯律格 著; 高昕丹, 陳恒 譯(2015). 長物: 早期現代中國的物質文化與社會狀況.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出版.
- [2] [美] 高居翰(James Cahill) 著, 王嘉驥 譯(2009). 山外山: 晚明繪畫(1570-1644). 上海書畫出版社.
- [3] [美] 高居翰著, 李佩樺等 譯(2009). 氣勢撼人: 十七世紀中國繪畫的自然風格.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出版.
- [4] [美] 高居翰, 黃曉, 劉珊珊 著(2012). 不朽的林泉: 中國古代園林繪畫.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出版.
- [5] 로버트 포그 해리슨 저; 조경진, 황주영, 김정은 역(2012). 정원을 말하다: 인간의 조건에 대한 탐구. 고양: 나무도시.
- [6] [美] 牟復禮 [英] 崔瑞德 共著; 張書生等 譯(1992). 劍橋中國明代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7] [美] 巫鴻(2018). 中國繪畫中的 “女性空間”.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出版.
- [8] Wen C. Fong, Chin-Sung Chang, and Maxwell K. Hearn(2008). *Landscapes Clear and Radiant: the Art of Wang Hui(王翬; 1632-1717)*. New York: 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9] Sung Jong-sang(2015). *Ui-won: The 18-19C Joseon Scholar's Garden of Imagination*. Landscape research. 40(6): 732-747.
- [10] Yun Jiayan(2018). *Cultural Politics in the Gardens of Suzhou: Social Change and the Expansion of Garden Culture during the Late Ming and Early Qing Dynasties*. Doctoral Thesi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 [12] Yun Jiayan and Kim Joonhyun(2019). *Sociocultural factors of the late Ming and early Qing Chinese garden landscape, based on philosophies seen in Yuanye*,



Zhangwuzhi, and Xianqingouji. Landscape Research. 44(2): 174-185.

[12] Zhang Ying(2019). *Religion and Prison Art in Ming China (1368-1644): Creative Environment, Creative Subjects*. The Ohio State University, Columbus, Ohio, USA.

[13] 티모시 브룩 저; 이정, 강인환 역(2005). *책략의 혼돈: 중국 명대의 상업과 문화*. 이산.

#### ■ 온라인 참고자료

[1] <https://ci.nii.ac.jp/>

[2] <http://www.riss.kr/>

[3] <http://library.snu.ac.kr/>

[4] <https://scholar.google.com/>

[5] 中國知網: <http://cnki.net/>

[6] 漢典: <https://www.zdic.net/>

[7] 古詩文網: <http://so.gushiwen.org/>

[8] <https://theme.npm.edu.tw/opendata/>

[9] 中國基本古籍庫 [Electronic Resource]

[10] 中國方誌網: <http://www.difangzhi.cn/sygz/fzbx/>

[1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12] 臺北國立故宮博物院: <http://theme.npm.edu.tw/opendata/>

[13] 국가표준식물목록: <http://www.nature.go.kr/kpni/index.do/>

Abstract

A Study on the Theory of Chinese  
Gardeners in Jiangnan Area in the Late  
Ming and Early Qing Dynasty  
– Focusing on Wen Zhenheng's *Zhangwuzhi*  
and Li Yu's *Xiangqingouji* –

ZHANG LIN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Landscape Architec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late Ming and early Qing Dynasty is regarded as the prosperous period of Chinese garden history and the active period of gardening with the development of commercial economy and the great changes of society. In particular, the Jiangnan area with Suzhou and Yangzhou as the center is a popular area for private gardens. A large number of excellent gardeners such as Zhang Nanyuan, Ji Cheng, Wen Zhenheng and Li Yu, etc. appeared in this

period. They were active in the prosperous cities in the south of the Yangtze River, and built many famous gardens. Based on their accumulated experience in gardening, they left behind works of high reference value for later generations. Among them, the well-known gardening works are *Yuanye* by Ji Cheng, *Changwuzhi* by Wen Zhenheng and *Xianqingouji* by Li Yu, etc. So far, the theoretical research of Chinese traditional garden has focused on the analysis and utilization of the above works, and the theory as the basis of traditional garden design and construction has not deviated from the theory established in the late Ming and early Qing Dynasty. Among them, a lot of research has been done on the monograph *Yuanye* in the field of landscape architecture. However, the comparative study based on the representative works of Wen Zhenheng's *Changwuzhi* and Li Yu's *Xianqingouji*, has not yet systematically comparison analyzed their gardening theory in combination with their social background and their respective living background.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the following five research questions with the above two works.

1. In the late Ming and early Qing Dynasty, Wen Zhenheng, who represents the literati and officialdom, and Li Yu, who represents the ordinary class, respectively. What ar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gardening theories reflected in their representative works *Changwuzhi* and *Xianqingouji*?

2. In the social background including life, family and main activity history of the two gardeners, what are their motivations for editing *Changwuzhi* and *Xianqingouji*? How did their respective living backgrounds affect their gardening theories?

3.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the overall space composition and garden elements, what ar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garden theories reflected in the two works?

4. How can the value of the common orientation of painting and garden be reflected in the garden?

5. How did Wen Zhenheng's and Li Yu's gardening theories be reflected in their actual gardening cases?

This study consisted of a total of five chapters, and Chapter 1 covered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study, the object and method of the study, the trend of research, and the framework of interpretation. Specific methods of research include literature research, inductive analysis, comparative studies, and their actual gardening cases by two gardeners in Jiangnan area. In this study, the previous research includes 'research trends of domestic and foreign studies on their representative works *Changwuzhi* and *Xianqingouji*' and 'the comparison with other garden works'. Through the above, to summarize the framework of this study.

Subsequently, Chapter 2 analyzed the background and culture of the late Ming and early Qing Dynasty. This part was specifically summarized into three parts: 1) the background of the late Ming Dynasty and early Qing Dynasty, 2) the gardening culture of the Jiangnan area, 3) gardeners, their works and their gardening activities. Under the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background of the late Ming Dynasty and early Qing Dynasty, many private gardens appeared in Jiangnan area. From literati and rich merchants to ordinary class, there was a upsurge of gardening activities. In the process of gardening in Jiangnan area, the gardeners left rich practical experience and rich relics. In particular, the literati gardeners with humanistic accomplishment have systematized and theorized their gardening experience through their works. In this period, most of the gardening theoretical works emerge as the times

require.

Chapter 3 focuses on the representative gardeners Wen Zhenheng, Li Yu and their two works *Changwuzhi* and *Xianqingouji*. This section was specifically summarized into three parts: 1) Wen Zhenheng's career and works, 2) Li Yu's career and works, 3) comprehending of these two works *Changwuzhi* and *Xianqingouji*. At the end of Ming Dynasty and the beginning of Qing Dynasty, the great influence on them changed from 'political pursuit' to 'cultural creation'. However, the two gardeners came from completely different classes, and they are very different in the pursuit of 'cultural creation'. And the styles of their works *Changwuzhi* and *Xianqingouji* are also different. Wen Zhenheng's *Changwuzhi* criticizes the secular culture and puts forward some suggestions on the noble and elegant culture that the literati should follow. In a word, it could be said that *Changwuzhi* target readers are literati. However, *Xianqingouji* is simple and easy to understand, and the content is monotonous, which explains Zhuangzi(莊子)'s thought easily. Most of the readers who have subscribed to his works are of the ordinary class.

In Chapter 4, based on the methodology of previous research, the framework of interpretation is set up from two levels of 'overall space composition' and 'garden element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overall space composition, it is divided into 'site selection and spatial layout', 'the importance of overall structure and spatial scale', 'the combination of spatial garden elements' and 'spatial segment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garden elements, it is divided into 'architecture', 'water element', 'stone', 'plant', and analyz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garden theories in detail. On the basis of this, this study synthesizes the 'gardening theories'

which appears in these two works, including their philosophical thought, life attitude and value orientation. The main gardening theories are ‘seclusion’, ‘getting rid of prosperity and luxury’, ‘pursuing every scene as a painting’, ‘with a small see big’, ‘pursuing elegance culture’ and ‘pursuing innovative culture’.

The last chapter is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In the history of Chinese garden, the late Ming Dynasty and early Qing Dynasty was a period when the popularization of gardens accelerated and construction was carried out extensively relying on popular culture. In this period, the representative literati who advocated popular culture established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garden construction in that era through garden works. At the same time, it also puts forward the style of ‘literati garden’ which reflects the ‘idea of the times’. They use a wide range of knowledge and experience to explain the ideal garden space through specific garden elements and interior decoration etc. Focusing on this point, this study takes two works as the center to explore their ‘gardening theory’, as a small reference point to explain the garden culture in the late Ming and early Qing Dynasty. However,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focuses on the comparative study, which specifically explains Wen Zhenheng’s *Changwuzhi* and Li Yu’s *Xianqingouji*. However, there is no detailed introduction to other gardeners of the same era. It will supplement and perfect the gardening theories of other gardeners in the late Ming and early Qing Dynasty. In addition, future studies will identify areas requiring extensive field surveys and additional literature studies.

**Keywords:** The Late Ming and Early Qing Dynasty, Chinese Garden, Literati, Space Composition, Garden Elements, Gardening Thought

**Student Number :** 2017–30632

## 감사의 글

본 논문은 2018년 3월경 주제를 정하여 성종상 교수님의 친절한 배려와 지도 속에서 세 차례의 논문 심사를 거쳐 2020년 8월 박사 논문 최종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논문의 주제 선정부터 자료 수집, 선행 연구 검토, 논문 작성, 최종 논문 완성까지 지도 교수님의 돈독한 가르침과 떼어 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종상 교수님의 학문에 대한 엄격한 치학(治學) 방법 등이 제자인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저로 하여금 학술 연구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박사 과정 중 연구실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일부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도 박사논문을 무사히 마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중국에는 ‘복숭아를 주면 오얏으로 갚는다[投我以桃, 報之以李]’라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지도 교수님의 가르침과 스승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논문 심사를 해주신 조정진 교수님, 최정권 교수님, 신현실 교수님, 박희성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조정진 교수님은 박사논문 심사 위원장으로서 논문에서 나타난 문제점, 특히 마지막 논문 원고 완성 단계에 주제의 선정에 대해 소중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가천대학교 최정권 교수님은 ‘수 경관’ 연구에 주력하시는 전문가로 처음 만났을 때 매우 엄격한 인상을 남겼고, 여러 차례 만나 교류하면서 최정권 교수님의 중국 경관과 문화에 대한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경 연구는 실천이 있어야 논문을 깊이 파고들 수 있다는 최정권 교수님의 치학(治學) 이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올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강남지역 현장을 답사하지 못한 것이 이번 연구의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우석대학교 신현실 교수님도 오랫동안 자연과 문화유산 연구에 전념해 오신 전문가로 논문 지도 과정에서 학문에 대한 엄격한 태도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원림 비교연구에서 매우 귀중한 의견을 제시해주셔서 논문의 깊이와 향후 연구 방향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에서 오랫동안 한·중 원림 연

구를 해온 박희성 교수님도 귀중한 시간을 내서 제 논문의 전반적인 연구 동향에 대해 친절하게 지도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논문 답변 원고에서 일일이 조언을 적어주셔서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위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논문 수정을 도와준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현 상명대학교 한·중 연구원에 재직 중인 정우진 선생님은 논문 주제 선정, 논문의 흐름 등에서 조언을 많이 해주셨고, 특히 논문 1차 심사 단계에서 논문 수정까지 봐주셔서 저로 하여금 많은 자신감을 얻게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과 리나 선생님, 특별히 제가 감사해야 할 친구입니다. 논문 2차 심사 단계에서 수정된 글을 한 문장 한 문장 꼼꼼하게 검토하여 주셨고, 제 논문에 나타난 어휘와 논문 전체의 흐름에 대해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논문 2차 심사 단계에서 많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팀 연구실 선배들 이진욱, 조혜령, 허종화, 김준현, 윤예화, 조성아, 유연환, 양유선, 박지은, 김서린.... 일일이 호명하기 힘들 만큼 많은 이들의 도움과 격려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센터 CTL의 김경은 선생님도 제 논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며 글의 교정 작업을 위해 유서현 선생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키우고 교육해주신 중국에 계신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한국에서 공부한 지 10년 동안 만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 3월 입학부터 2020년 8월까지 3년 반 동안 짧은 박사과정을 거치며 매일 학교 기숙사, 연구실과 도서관에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년간 전공 과목을 공부하고 국제학술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전공 지식과 학문적 성과를 많이 쌓았습니다. 전문가의 코멘트를 받아 향후 박사 논문을 잘 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국제화의 서울대학교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저의 학문적 시야를 넓혔습니다. 귀국한 후 양국의 학문 발전의 중간 역할을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자신 있게 학문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